ISSN 2671-8944

호남학

THE JOURNAL OF HONAM STUDIES

2021년 12월 제70집

〈권두논문〉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 **정경운** _ 001

〈특별기고〉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 **변동명** _ 047

〈일반논문〉

기억의 재응고화와 역사적 외상의 서사적 시멘트 – '오월 광주' 서사의 치유 기전에 관하여 – **장일구** _ 069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분석 **조광현** _ 095

원효사의 사력(寺歷)과 사명(寺名)에 대한 검토 **김병인** _ 115

고흥 운곡사(雲谷祠)의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박미선** _ 145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윤효정** _ 183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양세영** _ 221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과 북두칠성 **이병열** _ 259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조우진** _ 287

초파일 세시 행사의 성격 변화 고찰 **박종오** _ 315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신안군·완도군·진도군 홈페이지의 특산물 담화를 중심으로 – **채지선·전형연** _ 349

휘보 _ 39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INSTITUTE OF HONAM STUDIES, CNU

호남학
The JOURNAL OF HONAM STUDIES
2021년 12월 제70집

목 차

〈권두논문〉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 정경운 1
—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

〈특별기고〉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 — 변동명 47

〈일반논문〉

기억의 재응고화와 역사적 외상의 서사적 시멘트 — 장일구 69
— ‘오월 광주’ 서사의 치유 기전에 관하여 —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분석 — 조광현 95

원효사의 사력(寺歷)과 사명(寺名)에 대한 검토 — 김병인 115
고흥 운곡사(雲谷祠)의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 박미선 145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 윤효정 183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 양세영 221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과 북두칠성 — 이병열 259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 조우진 287

초파일 세시 행사의 성격 변화 고찰 — 박종오 315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채지선·전형연 349
— 신안군·완도군·진도군 홈페이지의 특산물 담화를 중심으로 —

휘보 395

호남학 70 : 1~4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권두논문 |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

The May Uprising and Testimonies from Women

— Based on the Narrative of ‘Rice’ and ‘Gun’ —

정 경 운**
Jeong, Kyung-woon

목 차

Ⅰ. 오월의 상징: ‘주먹밥’과 ‘시민군’
Ⅱ. 주먹밥과 어머니의 표상
Ⅲ. ‘시민군’이라는 이름
Ⅳ. ‘열린 말’과 ‘닫힌 말’

|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wo issues shown from the testimonies given by May Women in June 2014 (『The Women News』, Interview). The two issu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nterview, it was claimed that it is wrong to symbolize and minimize the women in the May 18 Uprising in Gwangju only as ‘rice balls,’ even though they unfolded various struggles during the uprising. Second, the term ‘female citizen soldier’ is used in the interview which has never appeared during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History of Uprising in Gwangju in the past. This is because ‘citizen soldier’ in Gwangju has been imprinted as an image of a man holding a gun until now. The use of this term can b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의한 것임 (NRF-2018S1A6A3A01080752)

** 전남대학교 교수

considered as quite a problematic suggestion in the sense that it requires us to reset the conventional category of ‘citizen soldier.’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of how these two symbolic images representing the Uprising in Gwangju (‘A male citizen soldier holding a gun’ and ‘A mother making rice balls’) have been established after the uprising.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a male-centered viewpoint was involv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image of ‘rice balls,’ contributing to the historic underestimation of the uprising activities conducted by May Women. In the meantime, the use of the term ‘female citizen soldier’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poses a problem of re-structuring the category of ‘citizen soldier’ along with the resistance in the History of Uprising in May remembered based on ‘male, gun, citizen soldier, and uprising leadership.’ However, this term also involves an issue of excluding citizens in general who shared the time of uprising together in the sense that this term is used in the context of desire for recognition proving that May Women were also at the center of uprising.

Key words : May Uprising, May Women, Rice Balls, Citizen Soldier, Testimonies

Ⅰ. 오월의 상징 : ‘주먹밥’과 ‘시민군’

올해로 광주 5·18항쟁은 41년째를 맞이했다. 그 긴 시간 동안, 광주는 온갖 유언비어로 뒤덮인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통해 학살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고, 관련 특별법을 쟁취해내는 한편, 87년 6월항쟁을 촉발시킴으로써 한국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 불의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보통명사”[1]로 인식될 만큼 역사적 평가를 받으면서, 2019년의 홍콩, 올해 미얀마 등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민주화투쟁에도 강력한 영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되고 있다.

1) 정근식(1997),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72쪽.

광주는 이 현재적 가치를 기억, 계승하기 위해 해마다 5월이 되면, 지역사회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5월 주간의 하이라이트는 5월 17일 밤의 전야제부터 시작해 시민군의 최후 저항이 이루어졌던 5월 27일까지로, '열흘 간의 해방기간'에 주요 행사들이 모두 배치된다. 그런데 이 행사 장소들에서 결코 빠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주먹밥'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행사 장소엔 늘 주먹밥이 차고 넘친다. 그리고 그 옆엔 주먹밥을 만들어 제공하는 '오월 어머니'들이 있다.

아마도 광주시민들에게 5·18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를 꼽으라면, '총을 든 시민군'과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일 것이다. 이런 추정이 무리는 아닌 것이, 오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에 놓여있는 조형물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무장항쟁군상〉과 〈대동세상군상〉이란 이름을 가진 두 개의 조형물은 각각 총을 든 남성 시민군들과 그 시민군을 먹여살린 어머니(밥솥을 걸어놓고 주걱을 든 여성)의 형상을 담아내고 있다.[2] 앞의 조형물은 불법과 불의에 대한 피의 저항을, 뒤의 것은 7일 간의 해방기간 때 광주시민들이 만들어냈던 나눔과 연대, 대동세상, 공동체 등을 상징한다. 두 상징 모두 5·18의 정신을 대표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긴 하지만, 젠더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조형물들이 시민군들을 모두 남성으로, 여성은 '밥'과 연결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이 조형물은 역사적 맥락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항쟁기억에서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었던 이미지들을 추출했을 것이 분명하다(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이런 성별적 수렴방식이 문제적인 것은, 항쟁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총을 든 시민군'의 형상에, 여성은 '주먹밥을 지원했던 어머니'의 형상에 갇히게 되면서, 그 다양한 투쟁활동들이 후면으로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월항쟁에 직

2) 〈대동세상군상〉에는 여러 형상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밥상공동체'를 만들어냈던 어머니 여성의 형상이다.

접 참여했었던 두 여성들의 목소리는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 “광주 여성은 주먹밥으로만 상징화돼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많은 여성이 시민군으로 밥을 짓고,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을 구했습니다.” (중략)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여성은 주먹밥을 나른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이는 항쟁 당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며 이같이 증언했다. (중략) “사실, 이런 자리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왜곡·축소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마이크 잡고 활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당시 여성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연락을 해오세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죠.” (중략) 이 씨도 80년 당시 “여성 노동자, 학생, 운동가 등 모두 ‘광주를 지키자’는 일념으로 항쟁했다”며 “저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들어올 때까지 그곳을 지킨 시민군이었는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그곳에 있었다”고 밝혔다.[3]

위의 내용은 항쟁 기간 YWCA에서 활동했던 이윤정(당시 이행자)과 가두방송을 했던 차명숙이 2014년 6월, 오월여성 관련 전시회에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를 통해 증언한 것을 발췌한 것이다.[4] 이들의 증언은 일단 앞서 제기했던 오월항쟁 상징의 성별적 수렴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광주 여성은 주먹밥으로만 상징화돼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는 항쟁 당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것”이며, 이 외에도 간호, 방송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축소되고 있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어 증언을 하고 다닌다는 것 등이 그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증언이

3) 이가람, 「여성들도 5월 광주의 시민군이었다」, 『여성신문』, 2014.6.11.,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68, 검색일:2021.07.14.

4) 2014년에 항쟁 당사자들의 여성 조직인 ‘오월민주여성회’의 힐링캠프를 통해 여성들이 작업한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광주 전시에서는 김순이, 서울 전시(서울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 2014.6.9.~6.13.)에서는 이윤정과 차명숙이 게스트로 참여하여 증언하였다.

중요한 것은 항쟁 상징의 성별구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넘어, 그간 광주항쟁에 대한 증언이나 학술적 논의에서 결코 등장한 적이 없던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시민군'이란 용어가 그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시민군은 앞의 조형물처럼 '총을 든 남성'의 이미지가 관습적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두 증언자는 자신을 포함해 당시 활동했었던 여성들을 '시민군'으로 총칭함으로써, 기존의 항쟁 기억에 대한 관성을 단번에 깨뜨리고 있다. 이들의 증언은, 어쩌면 우리에게 '시민군'의 관습적 범주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오월항쟁의 대표적 상징인 '총을 든 남성 시민군'과 '주먹밥을 짓는 어머니'라는 성별적 수렴 이미지들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대표 상징은 [위의 증언에서 '왜곡과 축소'로 표현되고 있는] 여성들의 항쟁사를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또한 '여성 시민군'이란 용어의 사용이 제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총을 들었던 자들만 시민군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들의 증언대로 '여성 시민군'이란 호칭이 타당할 수 있을까? 나아가 이 호칭의 등장은 혹여 다른 층위의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주먹밥'과 '시민군' 두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면서, 오월항쟁을 기억·기록하는 과정에서 오월여성을 포함, 시민 모두의 항쟁을 다루는 데 있어 어떤 문제적 시각들이 개입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의과정은 항쟁 초기자료 및 다수 여성들의 증언들을 기반으로, 남성 주체들에 의해 두 개의 상징 이미지와 그 효과가 만들어지는 과정, '남성·총·시민군·항쟁지도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오월항쟁사에서 '총의 서사'가 가진 문제를 오월여성들이 발견해내는 지점, '여성 시민군'이란 호칭이 제기한 시민군 범주의 경계 설정 문제 등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5)]

5) 이 글은 필자가 2020년 제2회 영호남교류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역사를 증언하는 여성의 '몸'과 '목소리'」(『기억과 기록:대구와 광주』)에서 제기했던 문제('밥'과 '총'의 서사)를

Ⅱ. 주먹밥과 어머니의 표상

1. 오월 주먹밥 상징의 기원

긴 논의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먼저 광주항쟁에서 주먹밥이 등장한 시기부터 검토해보자.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항쟁에 대한 증언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증언록 속에서 주먹밥이란 단어를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기억이란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공적으로 정리된 언어들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980년 당시의 초기자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자료들은 1980년 현장에서 직접 기록되었거나 혹은 항쟁 직후 한 달 이내에 작성된 것들로, 기억의 왜곡이 최소화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상황(계엄군의 폭력, 시위대 및 시민군의 동향, 피해상황 등)을 작성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던 것들을 일자별, 장소별로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음 내용은 시민들이 시위대 및 시민군들에게 먹을거리 등을 포함한 물품 지원 장면을 기록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다.

〈표 1〉 오월항쟁 당시 시민들의 식량지원 관련 초기자료[6)]

No	작성자/자료명/날짜	관련 내용
1	『경향신문』 현지 취재노트/1980.05.	21일 10:30분. 관광호텔 앞에서 군저지선과 2m 간격 두고 연좌시위. 서민층 주부들이 주먹밥 김밥 담배 음료수를 시민들에게 나눠 줌. 군인들에게도 권함.

모티프로 삼아 새롭게 논의를 전개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6) 이 외에 같은 기간에 작성된 두 개의 기록물이 더 있다. 「광주사태보고」(이로사리아, 1980.5.30.)와 「광주시민학살일지」(『해외사상계』, 신한민보사, 1980.06.)가 있는데, 두 자료는 계엄군의 잔인성과 시민들의 피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식량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No	작성자/자료명/날짜	관련 내용
2	김성용 신부/ 광주사태보고서/ 1980.05.	22일 : 지금은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학생과 시민군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날리며 완전히 장악한 시가지 전역을 행진하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도 시민 속에서 손을 흔들고 힘차게 힘차게 박수를 퍼부었다. 아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 시민은 자발적으로 밥을 지어 운반하고 음료수를 제공했다. 성금을 모아 보내주기도 했다.
3	천주교광주대교구 사제단/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1980.06.	언제 풀릴지 모르는 사태 속에서도 서로 식량을 나누어 먹었고, 총상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여 피가 부족하게 되자 헌혈하는 시민들의 수가 무한히 늘어서 지금도 헌혈 받은 피들이 남아돌고 있다. 부녀자들은 데모 대원들에게 스스로 음식과 약품을 제공했고, 배고파하는 계엄군들에게도 미움을 잊은 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4	김문/찢어진 깃폭/ 1908.06.	21일 : 승차하지 못한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김밥을 만들어왔고 음료수를 가져왔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기에 아까운 것이 없었다. 어느 구멍가게의 70노파는 진열된 먹을 것을 송두리째 쓸어 담는다. 계란, 빵, 콜라, 우유, 주스 할 것 없이 모두 주고만 싶은 모양이다. 아까울 것이 없다. 그 상자를 노인은 들지 못한다. 나는 그것을 들어다 달리는 차량을 세우고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아이들의 얼굴엔 싸우다 싸우다 죽으리라는 각오가 역력하게 서려 있었다.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아낙네들은 하나같이 물통을 들고 나와 그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물을 입에 대어준다. (중략) 등을 다독이며 격려하는 사람, 약과 드링크제를 들고나온 약사들, 박수와 격려를 보내기에 혼신을 다하는 인파와 인파.
5	광주시민의거의 진상/1980.06.	21일:시위대들이 서 있는 뒷 길가엔 시민들이 납품한 김밥과 달걀, 야구르트, 빵들이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수북이 쌓여 있었다.

위의 내용에서 중복 진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엄군의 진압이 시작된 지 3일이 지난, 5월 21일부터 시위대에게 주먹밥, 김밥, 음료수, 빵, 담배, 약품은 물론 성금까지 자발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

공 주체는 주부들, 노인, 약사, 시민 등 다양한 호칭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장소에 따라 산발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었겠지만, 광주 전역에서 이러한 자발적 제공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한 것은 21일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초기자료 이외에 1988-1989년의 대규모 증언(499명)을 담고 있는 『광주오월민중항쟁사사료전집』(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에서도, 21일 오전부터 주민들이 동별로 돈을 모아 길거리에서 밥솥을 걸어놓고 식사를 제공했던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식사제공은 시장 상인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으며, 식사 이외에도 다양한 물품들과 성금이 제공되고 있었다. 시위대를 향한 시민들의 이러한 지원 행위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시위대들에게 물리적 나눔을 넘어 '정신적 지지 및 연대'를 표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박수와 격려',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마음은 그 정신적 연대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러한 연대의식은 당사자들의 증언들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밑줄은 필자).

> 주먹밥을 2, 3개의 쇠대야, 라면박스 등에 비닐을 깔고 50인분 정도 넣어서 전남대 치대 왼쪽 담벽에 있는 골목 어귀에서 시위차량이 지나가면 "수고하네,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겠는가? 몸조심해야 되네"하면서 '서석1동'을 크게 외치고 주먹밥을 트럭에 올려주었다. 그러면 젊은 애들은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하고 대답하며 지나갔다.[7]

> 순식간에 쌀이 한 가마니나 걷혔다. 양이 많아 식당에서 밥을 쪄내고 동네(양동시장) 아낙네들을 모아 김밥을 쌌다. (중략) 물건을 스스로 내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누구나 일을 도와주었다. (중략) 다른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만들고 계란과 물을 준비해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시위대에게 올려주었다. 모두 가슴이 뿌듯한 광경들이었다. 도청에 가자 학생들이 몹시 배가 고팠던지 쌀 한 가마니 분량의 김밥을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고마워하는 학생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

7) 1988년 김경애(가정주부)의 증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사료전집』, 풀빛, 809쪽.

오는데, 우리는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8]

대인시장 노점상 아주머니들은 빵과 우유, 김밥 등 먹을 것을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몸조심하고 잘 싸우라고 격려해 줬다. 우리 시위대는 허기진 배를 채웠다. 시민들과 일심동체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속의 뜨거움이 새삼스러이 투쟁정신을 고취시켰다. 또한 시민들은 위험한 곳을 알려주기도 하였다.[9]

가는 곳마다 시민들은 박수를 쳐주며 환호했고 음료수, 박카스, 주먹밥 등을 차에 올려주었다. 부녀회 같은 단체의 아줌마들과 상점 아저씨, 약국 주인 등이 다투어 격려를 해주었다. 시위대나 시민들이 모두 기분이 좋아 있었고 전날과 아주 다른 상황이었다. 나는 박카스 외에는 별로 먹지 않았으나 살맛나는 기분에 젖어 있었다.[10]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식량과 물품 지원의 현장에서는 늘 시위대와 시민군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격려, 박수, 환호가 동반되었으며, 시위대와 시민군들의 '일심동체', '투쟁정신 고취', '살맛나는 기분' 등과 표현은 시민들과의 정신적 교감과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물품목록 및 지원주체들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내용 측면에서, 1980년에 쓰인 자료들과 1988년의 당사자 개인들의 기억이 8년 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성들이 언제부터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혹은 여성)'라는 하나의 단일 이미지로 수렴되어 항쟁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 하나로 각인되기 시작했을까? 다시 말해, 그 이미지가 집단기억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였을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5·18민주묘지의 조형물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조형물이 참조했던 원형 이미지의 시작점이 곧 집단기억이

8) 1988년 김양애(상인)의 증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같은 책, 275쪽.
9) 1988년 이광호(시민군)의 증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같은 책, 248쪽.
10) 1988년 강주원(시민군)의 증언.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1990), 같은 책, 365쪽.

만들어지는 시작점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묘지의 조형물은 총을 든 시민군(〈무장항쟁군상〉), 밥을 하고 있는 여성(〈대동세상군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묘지가 조성된 것은 1997년으로, 항쟁 17년이 지난 때이다. 두 조형물 작품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11] 당시 5·18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물론 그 장소가 국립묘지임을 감안한다면, 이곳에 들어서게 될 대표 조형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를 거쳤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들 공모 선정작이 제안한 이미지는 아주 새롭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이미 광주시민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그 익숙함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홍성담의 〈대동세상-1〉이라는 판화작품이다. 이 작품은 1984년, '광주전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결성식을 앞두고 창립기념을 위해 제작 의뢰를 받아 창작된 것이었다.[12] 총을 든 시민군과 그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여성을 표현한 이 작품은, 항쟁의 두 대표 상징이 최초로 이미지화된 것이기도 했다. 광주항쟁을 상징하는 두 요소를 이미지로 추출해낸 작가의 변은 다음과 같다.

> 그때까지도 광주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슬픔과 죽음과 패배의 감정'이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살아남은 우리는 5월 27일 도청 시민군 본부가 핏속에 잠기는 것을 보면서 고개를 무겁게 떨궜지만 동시에 곧바로 '승리와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외부에 이해시키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힘들었다. 우리는 지난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패배의식은 현실에서도 패배를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광주의 진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광주 학살의 진상규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월 광주는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라는 진실의 상징이었다는 점이다. (중략) 오월 광주를 상징하는 두 개의 형상은 광주를 지키

11) 민주묘지 조형물 공모는 1995년에 진행되었으며, 추모탑과 더불어 조형물 공모에 선정된 팀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조각분과(대표 나상옥)였다.

12) '민주화운동청년연합'(초대의장 김근태)은 한국 최초의 공개적인 민주화운동 단체로 1983년 9월에 출범했으며, 광주전남지부는 1984년에 창립하게 되는데, 이때 지도부에서 창립기념 판화를 홍성담에게 의뢰한다.

> 기 위해 총은 든 시민군 아저씨와 광주에 밥상 공동체를 만든 주먹밥 아줌마로 잡았다. 이 상징적인 두 형상을 중심으로 스케치를 했다. (중략) 오월광주가 장갑차와 M16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정예 공수부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밥상공동체'에서 비롯되었다.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모두 길거리에 내놓았다. 거리마다 솥을 걸고 밥을 지었다. 시민군들이 운행하는 차에는 시민들이 담아준 빵과 과자와 음료가 가득했다. 오히려 시민군들은 시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항쟁이 계속되는 열흘 동안 외부로부터는 철저하게 차단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중략) 5월 27일의 죽음과 패배를 이겨내고 결국 오월광주가 역사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힘은 다시 말하지만 '밥상공동체'에서 비롯되었다. 시민들은 광주 시내 전체를 거대한 밥상공동체로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 밥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확신했다. (중략) 오월항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시각 이미지는 계엄군의 학살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의 손에 들린 '총'이다. '총'으로 지킨 광주공동체였다.(밑줄은 필자)[13]

〈대동세상-1〉이 제작된 맥락을 설명하고 있는 위의 글에서 우리는 항쟁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관련된 두 개의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첫 번째 인식은 항쟁 이후 광주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관련된다.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오랜 군사독재정권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민주화의 열망이 봇물 터지듯 솟아나고 있던 상황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끝나버린 광주항쟁은 누가 봐도 '슬픔과 죽음과 패배'의 이미지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항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항쟁 경험의 감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외부인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홍성담에게 광주항쟁은 패배가 아닌 승리의 역사로 해석된다. 그는 27일 새벽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광주항쟁은 '죽음, 패배, 슬픔'이 아닌, 오히려 '생명, 승리, 희망과 사랑'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광주항쟁이 수많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패배의식

13) 홍성담(2018), 『오월』, 도서출판 단비, 136~137, 163, 165, 184쪽.

이 아니라 승리와 희망의 의식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항쟁이 역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쟁에 대해 홍성담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인식은, 광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힘의 원천과 관련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힘의 원천은 '밥'과 '총'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는 계엄군의 학살로부터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들었던 '총'을 항쟁의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로 설정하면서, 그 총을 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채 싸웠던 젊은이들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밥상공동체'가 항쟁을 결정적 승리로 이끌었다고 본다. 총과 밥이 광주공동체를 지키고, 항쟁을 승리로 이끈 근원적 힘인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왜 홍성담이 "총을 든 시민군 아저씨와 광주에 밥상공동체를 만든 주먹밥 아줌마"를 "오월광주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내세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광주를 패배와 죽음이 아닌, 승리와 희망의 상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항쟁을 가능케하고 해방의 공동체를 열흘 동안 유지시켰던 가장 강력했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 작가는 그 힘을 '밥과 총'으로 정리했던 것이다. 오월광주를 읽어내는 독해의 방점을 열흘 간의 항쟁과정에 둠으로써, 광주항쟁은 패배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상징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런 접근이 홍성담은 물론 당시 모든 이들을 안타까움과 죄책감, 그리고 패배의식에 잠기게 했던 27일 새벽, 그 죽음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던 정서적 주술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홍성담이 도출해낸 두 개의 상징은 그의 개인적 이력이 덧붙여지면서 더욱 깊은 설득력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그는 항쟁 기간 동안 문화선전대로 활동했던 데다 항쟁 이후에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가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14] 따라서 항쟁

14) 홍성담은 항쟁 기간 동안 문화선전대로 활동하면서 플래카드, 대자보를 제작하고 각종 차량에 분류번호를 쓰는 역할을 맡았다. 5월 26일 오후, 시민군본부로부터 여성들과 문화선전대는 오후 7시까지 자리를 정리하고 도청본부에 총을 반납, 귀가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뒤, 그는 이 전언에 따라 총을 반납하고 귀가한다. 항쟁 이후에도 그림과 오월연작판화를 통해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었다. 홍성담

에 대한 역사적 해석과 도출된 상징 이미지는 항쟁과정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에, 그만큼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했을 것이다. 그리고 홍성담의 역사인식을 토대로 도출해낸 두 개의 상징 이미지가 적확했다는 사실은 곧바로 증명된다. 〈대동세상-1〉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기관지 표지 그림으로 실려 세상에 알려지면서, 폭발적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전국에서 그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몇 년 동안 수천 장이 찍혀 국내외로 나갔다. 1987년 이후엔 판화 원판이 닳아 제대로 찍히지 않을 정도였다.[15] 홍성담이 읽어낸 '밥상공동체' 상징은 〈대동세상-1〉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쟁의 대표적 백서로 알려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에서도 유사한 이미지로 반복 진술된다.

> 이 주먹밥이야말로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었다. 밥을 먹은 시민들은 자신이 광주 공동체가 뽑아서 민주화 전선의 앞으로 보낸 전사임을 새로운 결의로써 재다짐했고, 밥을 해준 아낙네들은 비인간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몰아내는 데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바람이 나서 밥을 나누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식사의 연대는 금남로의 시위 군중들을 새로운 전의에 불타도록 만들었다.(밑줄은 필자)[16]

아마도 〈대동세상-1〉의 상징을 참조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넘어넘어』의 진술은 여러 모로 홍성담의 항쟁 해석을 닮아 있다.[17] 주먹밥이 만들어낸 '밥상공동체', 그 식사의 연대에서 밥은 그냥 밥이 아니다. 전사를 살리는 생명의 밥임과 동시에 전사는 다시 그 밥을 만든 공동체를 피로써 지켜내야 하는, 그

(2018), 같은 책, 184~185쪽.

15) 홍성담(2018), 같은 책, 138~139쪽 참조.

16)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109~110쪽.

17) 이런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은, 홍성담과 『넘어넘어』(1985년판)의 숨은 집필자들(전용호, 이재의 등)과의 사적관계를 감안하면, 항쟁 해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런 약속이 전제된 밥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밥과 [전사의] 피는 동질적 의미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밥상공동체('밥')와 전사('총')의 상징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두 텍스트의 대중적 확산과 더불어 한국사회에 광주항쟁의 대표적 이미지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언급한 대로 〈대동세상-1〉은 원판이 닳을 정도로 수천 장이 복제되어 나갔으며, 『넘어넘어』 또한 판금조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복사본이 비밀리에 유통되어 나갔던 것이다.[18] 이 상징들은 이후에도 항쟁을 알리는 다양한 기록에 반복적으로 진술됨과 동시에, 예술적 관습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 맥락의 한 지점에 5·18민주묘지의 〈무장항쟁군상〉과 〈대동세상군상〉이 놓여있는 것이다. 두 개의 군상이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은 두 이미지와 관련된 이와 같은 전사(前史)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주먹밥은 1987년 6월 항쟁, 1991년 강경대 운구차량 진입시위, 1995년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청 앞 농성장 등 주요 민주화운동 관련 시위 현장에서 다시 등장함으로써 1980년 해방광주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재현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체로서의 주먹밥은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의례 상징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5·18특별법 제정(1995), 그리고 국내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5월운동이 점차 기념사업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주먹밥의 상징화 과정도 동반된다. 매년 기념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주먹밥 체험이 빠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5·18기념재단의 소식지 제호(『주

18) 항쟁 직후부터 오월광주를 알리는 문서들이 제작되긴 했으나, 이 문서들은 대부분 짧은 분량의 보고서 양식을 취하고 있다. 1985년에 출판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항쟁 관련 인사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필되어 250여 쪽 분량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최초의 공식적 출판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인쇄와 동시에 출판금지조치가 내려졌고, 그해 여름에 신동아에서 연재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부 사람들이 연재 원고를 하루 500-1,000권 정도를 찍어내 비밀리에 유통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일본어판과 영어판으로 출간돼 광주를 알리는 대표적 백서가 됐다. 현재까지 50만-100만 권 정도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년에 자료를 보완한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먹밥』)로 선정, 2019년 광주대표음식 선정, 제40주년 기념행사 상징문장으로 확정되어 공식홍보물과 기념품에 활용되는 등 주먹밥 상징화 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홍성담, 〈대동세상-1〉, 1984　　국립5·18민주묘지 : 〈무장항쟁군상〉, 〈대동세상군상〉

〈그림 1〉 시민군과 주먹밥 상징 이미지[19]

2. '어머니'의 뒤로 사라진 이름들

앞서 2014년 오월민주여성회 두 여성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광주여성은 주먹밥으로만 상징화돼 있지만",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여성은 주먹밥을 나른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등의 표현과 함께 "그건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항쟁 당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된 것"이라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항쟁에서 여성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개진하고 있었을까. 5월 18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을 경험한 광주시민들이 19일부터 본격적인 시위를 시작했을 때, 여성들 또한 그 시위대열에 합류하고 있었다. 20일이 되면 시위대의 3분의

19) 〈대동세상-1〉: 홍성담(2018), 앞의 책, 72쪽; 〈무장항쟁군상〉, 〈대동세상군상〉: 국립5·18민주묘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518/contents.do?key=437)

1을 차지할 정도로, 중고생, 주부, 여성노동자, 대학생, 할머니, 유흥가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해 날이 갈수록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가두방송(전옥주, 차명숙 등)을 통해 시위대를 진두지휘해 나갔으며, 일부 여성들은 무기 확보를 위해 전남지역 일원을 원정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21일부터 마을, 시장, 거리에서 여성들은 밥솥을 내걸고 시위대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서게 된다.



*사진: 이창성 촬영(5·18기념재단 제공)

〈그림 2〉 도청 앞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한 여성들(1980.05.23.)

다른 한편으로, YWCA에서는 보다 조직적인 형태의 항쟁 활동을 전개한 여성들이 있었다. 항쟁 초기에 개별적 단위에서 활동했던 조직들(녹두서점과 송백회, 들불야학, YWCA, 극단 광대, JOC 등)이 23일부터 YWCA로 집결하면서 항쟁활동이 조직화·체계화되기 시작한다. 항쟁기간 동안 일반 여성 시민들까지 여기에 합류하면서 대략 50～100여 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이곳에서 활동하는데, 가두홍보조, 모금조, 리본조, 대자보조, 식사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 외에도 도청에서는 대민업무, 시신처리, 취사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해방기간 동안 도청을 중심으로 수습대책위원회, 항쟁지도부가 활동을 해나가는 동안, YWCA에서는 시민궐기대회 진행, 가두방송, 각종 대자보·성명서·탄원서와 더불어 투사회보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이

이루어진다.[20]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은 항쟁이 끝난 후,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평가·정리된다.

항쟁 직후, 광주는 무서운 침묵에 빠져들게 된다.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광주항쟁의 진실에 대한 유폐, 27일 새벽 도청함락의 충격적 경험, 가늠조차 되지 않은 희생자 수, 항쟁 참여자들의 연이은 구속과 도피, 정부의 감시와 압력 앞에서 침묵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주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모종의 '부끄러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려움 때문에 광장에 나서지 못하고 목격자로만 남은 시민, 광장에 나왔으나 총을 들지 못했던 시민, 총을 들었으나 마지막 밤에 도청을 빠져나왔던 시민, 도청에 남아 끝까지 항쟁했으나 살아남았던 시민. 모두가 '산 자로서의 죄책감'에 휩싸였고, 그 죄책감이 만들어낸 부끄러움의 무게는 죽음의 형태에 가까울수록 한없이 무거워져 더욱더 입을 닫았다.[21]

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조직이 구속자 가족과 유가족들이었다. 주로 여성들이 주축이었던 이들은 '광주사태 구속자가족회', '5·18의거 유가족회'를 발족시키고 구속자 석방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투쟁을 시작한다. 이후 항쟁 관련 부상자, 구속자 등 5·18유관단체들이 속속 조직되면서,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중심으로, 이른바 '5월운동'[22]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가열한 투쟁을 통해 국회청문회(1988), 특별법 제정(1995), 전두환·노태우 유죄 선고(1997), 항쟁 관련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국립묘지 조성 등의 성과들을 만들어나갔다.

---

20) 광주항쟁 기간 동안 여성들의 상세한 활동에 대해서는 『광주민중항쟁과 여성』(5월여성연구회, 민중사, 1991)과 『여성·주체·삶』(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도서출판 티엠씨, 2000)을 참조할 것.

21) 정경운, 앞의 글(각주5), 52~53쪽.

22) 정근식은 '5월운동'을 '민중항쟁이 낳은 유가족이나 부상자, 구속자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살의 진상규명으로부터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등 '광주문제 해결 5원칙'에 입각하여 전개한 일련의 사회운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정근식(2007),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4)』, 5·18기념재단, 138쪽.

한편, 20여 년에 가까운 이 기간은 광주항쟁과 관련된 무수한 서사가 쏟아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특히 1988-1989년에 진행된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의 구술증언과 함께 항쟁 피해자들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기록되고 이후 피해자 배상과 보상 대상들의 서사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들의 서사는 국가에 의해 공식적 역사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영웅서사들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념의례를 위한 선양 대상을 결정할 때, 그 대상의 서사가 비극적일수록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광주항쟁의 서사들 중 비극적임과 동시에 가장 높은 수위의 역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절정의 서사는 누가 뭐래도 27일 새벽 도청에서 산화해 간 시민군의 서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산 자로서의 죄책감'으로 기나긴 침묵을 감내해야 했던 광주시민들 앞에, 죽음을 불사하고 계엄군에 저항했던 시민군 중심의 영웅서사가 선양의 대상으로 제안됐을 때, 이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총을 든 남성들의 서사가 항쟁의 보편사이자 하나의 신화가 되어갈 동안, 여성들의 서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었을까. 거리에서 계엄군들에게 무수한 여성들이 당했던 피해와 더불어 항쟁에 조직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 또한 구속과 고문, 도피생활로 수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 역시 상당기간 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일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들의 침묵은 산 자로서의 죄책감 이외에도 한 겹이 더 두텁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침묵과는 결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총을 들고 싸웠던 자에 비해, 그래서 죽거나 부상 당해 불구가 된 자에 비해, 자신들이 항쟁 동안 했던 일들이 어느새 '하찮은 일'이 돼 있었던 것이다.[23] 여성들의 항쟁 활동을 정리하고 있는 두 개의 다음 글은, 당시 남성들이 어떻게 오월여성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23)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앞의 책, 168~169쪽 참조.

YWCA에는 50여 명 이상의 여성들도 있었는데, 여고생들과 학생 운동측의 여대생, 여공들 그리고 항쟁 지도부를 여러모로 도우면서 여성들이 해야 할 잡다한 일들을 찾아내어 지도한 여성지도부 송백회회원들이 있었다. 이들 중 여공들은 호남전기나 기타 최근에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했던 곳에 근무하면서 사회교육을 받은 JOC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여자들은 주로 도청 시민군들의 밥을 짓는 일, 도청 내의 상황실, 방송실 등 지도부의 비서 역할과, 중요한 연락, 대자보 제작 같은 일을 맡았고, 때로는 궐기대회장에서 선전조로 뛰기도 했다.(밑줄은 필자)[24]

5월 19일 이후부터 광주 YWCA 주변엔 많은 여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중략) 이들 여인네들은 역시 남자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는 일'들이 '가정적 분위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들은 처음에는 하는 일을 빨리 찾지 못해 우왕좌왕했다. 이때 K부인 등이 아무래도 대졸 여인답게 일감을 선별해 주기도 했다. Y부근으로 달려온 여인네들의 계층을 보면 여고생들, 근로자 어머니들, 여대생들, 가정주부들, 술집 호스티스 들이었다. Y에는 하루 평균 40~50명 정도의 여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지런히 일을 했다. (중략) 그러면서 사태 기간 중 남자들의 뒷바라지를 했는데, Y 부근의 여자들이 더욱 적극적이었고 열성적이었다 한다. (중략) 어머니, 우리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많이 불러 보았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그 어휘, 어머니! 우주만상의 의미가 어쩌면 한 곳에 집약되어 있는 어머니! 그날만은 술집 호스티스도 어머니가 되어 있었을까. (중략) 하는 일이 역시 여성들로서 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된 취사, 헌금, 조의를 표시하는 리본 제작 따위였다.(밑줄은 필자)[25]

남성 필자들에 의해 작성된 두 개의 글은 모두 1985년에 발표된 것들로, YWCA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구성(송백회, 극단 광대, 들불야학, JOC 등 단체회원들 및 일반시민 여성들)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항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초기자료이자, 여성들의 구체적 항쟁 활동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이라는 점에서, 여성 역할들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

24)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1985), 앞의 책, 192~193쪽.
25) 김준태(1985), 「그때 광주여자들」, 『가정조선』 7월호.

인식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기록들에서 여성 활동에 대한 표현들은 아쉽게도 젠더적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위태롭기조차 하다. 이들에게 여성들의 활동은 '항쟁지도부를 도와주는 잡다한 일', '지도부의 비서 역할', '남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가정적인 분위기', '남자들의 뒷바라지', '여성들로서 할 수 있는 일 따위' 정도로 정리된다. 총을 들고 목숨 걸어 싸워야 하는 '중대한 일'을 하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은 그들을 도와주는 '보조적 존재'로 규정되고 있는 이 장면은, 항쟁 주체들의 역할을 성별로 가르고 차별화하는 가부장적 시각을 오롯이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 시각이 두 글의 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지역 혹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일반적 인식이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당시 두 텍스트와 필자들이 가진 대중적 확장성을 고려하면,[26] 광주 안팎의 모든 이들에게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일정 부분 퇴행적으로 이해하는 데 일조했으리라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오월여성들의 활동이 '하찮은 일'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은 이들이 오랜 기간 침묵을 지속시켰던 원인들 중 하나였음은 물론이다.

한편, 김준태가 작성한 두 번째 글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적 어휘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그것이다. 그의 글은 어머니로서의 일반시민 여성의 항쟁 경험, YWCA와 도청 안에 있었던 여성들, YWCA 조아라 회장('광주의 어머니'), 유족회 어머니 등의 활동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여성들을 설명해내는 중심 키워드는 '어머니'이다. 이 어휘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분화된 여성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총칭하면서, 항쟁 주체로서 역사 현장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존재적 의미를 격하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들 각각의 삶의 맥락에서 가능했던 역사적 결단의 의미는 사라지고, 여성들이 했던 모든 활동은 단순한 모성애의 발로로 귀결되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다양했던 여성들의 이

26) 황석영의 이름을 달고 『넘어넘어』가 엄청난 복사본으로 유통되었던 상황이나, 두 번째 글의 필자가 항쟁 직후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로 유명세를 탄 김준태라는 사실, 그리고 당시 광주항쟁에 대한 진실에 목말라하던 국내외 사람들에게 이 글들이 광주에서 직접 발신된 신뢰할 만한 자료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 대중적 확장성은 상당했을 것이다.

름이 '어머니'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된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공고하게 만들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유족회 어머니들의 활동이었다. 광주의 모든 이들이 죄책감과 침묵 속에 빠져 있을 때, 죽은 자식의 무덤을 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오월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켰으며, 특히 투쟁의 현장마다 어머니들이 집단적으로 입고 나타났던 흰소복은 시민들에게 강렬한 이미지로 각인되기에 충분했다. 대부분의 오월여성들이 여러 이유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월 어머니'들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오월여성을 대체해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로써 앞서 다뤘던 '주먹밥'과 그것을 만드는 주체로서 '어머니'의 상징이 결합되는 통로가 여기서 열리게 된 것 같다. 오월여성들이 증언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기까지 비어 있던 공백 기간에, 상징으로서 주먹밥과 어머니의 신화가 남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월여성들의 다양한 이름과 활동들은 한없이 가벼워진 채 희미해져 갔던 것이다.[27] 이렇듯 시민군 중심의 영웅담인 '총'의 서사와 짝을 이루고 있는 '밥'의 서사는 그것 역시 남성들의 진술에 의해 정리되면서 오월여성은 '하찮으면서도 성스러운 존재'라는 역설적 상황에 한동안 묶이게 된다. 2014년의 인터뷰에서 오월여성의 역할이 주먹밥으로만 상징화된 것을 두고 왜곡·축소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27) 이와 관련하여, 5·18의 기억 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재현 문제를 다루고 김영희의 논의는 중요한 참조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김영희는 그동안 '시민군'으로 표상된 남성중심적 기억 서사에 의해 항쟁사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들이 '허용한 장소'를 통해서만 가시화될 수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5·18 서사에서 여성에게 허용된 장소는, '누이'와 '어머니'라는 이름이다. '누이'는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국가폭력을 고발하고 증명하는 장소로 동원되면서, 남성들이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깝고 지키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게 만드는, 울분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주먹밥을 만들고 시신을 수습하고 시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진실을 밝히라 외치며 투쟁하는, 대동정신의 구현과 항쟁 주체로 드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으로든 주체로서든 그 드러나는 장소가 기억 주체인 '남성'에 의해 허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은 파편적 이미지로서만 재현된 대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것이다. 김영희(2018),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한국여성연구소 참조.

오월여성들이 증언을 통해 등장한 시점은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의 구술작업(1988-1989년, 33명)과 1991년에 출간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24명)이 출발이었다. 하지만 이 당시의 구술내용은 대부분 항쟁에서 경험했던 사실 중심으로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책의 내용도 증언을 토대로 활동과정을 재구성하고 피해상황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 위에서 다루었던 사안들(오월여성의 축소된 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들이 오월여성의 항쟁활동에 대한 그간의 평가나 정리작업에서 보이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항쟁 20주년을 맞이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주체·삶』(2000)을 출간하는데, 이 책은 오월여성 당사자 25명의 구술증언(1999-2000년 구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28] 10년 전에 출간된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 가진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오월여성의 경험을 재구성해내고 있다.[29] 따라서 구술의 내용이나 집필 방향은 10년 전의 출간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의 증언에서 두드러지는 지점은, '총'의 서사가 가진 맥락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주장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광주항쟁에 대한 평가가 도청의 항쟁지도부와 시민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당시 여성들의 조직적 활동이 총집결되었던 YWCA 또한 항쟁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자신들의 역할이 '총'을 드는 것이 아닌, 홍보와 물적 지원에 있었으며 최선을 다해 그

28) 25명의 구술증언 중 10명의 증언은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5·18항쟁 증언자료집』(Ⅰ-Ⅳ)에 실려 있다.

29) 이와 관련하여 『여성·주체·삶』 집필진 중 강현아의 문제의식이 가장 주목할 만한데, 그는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 광주항쟁에서 여성의 활동이 성역할 분담체계에 의해 분할되고 공식적·정치적 조직으로 참여하지 못한 원인을 '여성의식 수준의 미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역사의 주체"로서 오월여성의 경험을 해석하고 항쟁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강현아, 「5·18민중항쟁 역사의 양면성:여성참여와 배제」, 『여성·주체·삶』 참조.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도청만 지도부였던 게 아니에요. 도청만 지도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송백회를 중심으로 우리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어요. 왜냐?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할려고 했던 대로 다 그 의견을 수렴해 갔거든요. 관철을 하고, 글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청 안으로 들어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나 뭐 현애나 성애나 상시적으로 도청 안에 들어가서 상황을 서로 보고하고 교환하고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략)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생사를 넘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결합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청 항쟁에 우리가 지도부였다고 생각하지 외곽에서 활동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 저는 외곽에서 활동했다라고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밑줄은 필자)[30]

> 남성들보다 훨씬 강했던 건 사실이에요. 정현애랄지, 정유아, 이윤정, 저까지 포함해서 주축 멤버들이 없었다면, 항쟁파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갔을까 의심스러워요. 남자들도 자기들이 왜 YWCA에 들어와서 회의를 했겠어요. Y에서 회의를 해서 Y에서 [기획 회의를] 개최했어요. Y에서 기획 회의를 한 것은 Y에서 그만큼 둥지를 틀어 주어서 가능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청 상황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강경하게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여성들이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뒷받침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자들이 정말 역할을 단단히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총만 안 들었지. 총은 들 수가 없었지. 총은 주지도 않아요.(밑줄은 필자)[31]

---

30) 1999년 이윤정의 증언. 김양현·강현정 엮음(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출판부, 81쪽.

31) 1999년 임영희의 증언. 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출판부, 150쪽.

> 만약에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총 들고 나가는 거였다면 총 들고 나갔겠죠. 앞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그거였으니까 서빙이었으니까, 그걸 했었고 김밥도 했었어요. 밤새도록.(밑줄은 필자)[32]

> 일을 할 수 있도록 보급부대가 확보되지 않는 전투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여자들이기 때문에 해야된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시각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일선에서 하는 부분과 그 역할을 맡아주는 사람들에 그런 일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가치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밑줄은 필자)[33]

일단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자. 먼저 항쟁지도부의 역할은 도청에 있었던 남성 중심의 조직만이 아닌, YWCA에 있었던 여성들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근거로 도청 항쟁파의 조직을 비롯한 중요한 결정사항이 YWCA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들고 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YWCA에 모여들었던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당시 5월 18일 0시를 기해 내려진 예비검속으로 광주 주요인사들이 체포되거나 피신한 상황에서, 이날 오전부터 계엄군의 만행이 시작되자 민주진영의 단체 및 거점들에서 개별적 활동들이 시작된다. 항쟁 초기에 녹두서점을 중심으로 소식전달, 부상자치료, 식사제공, 화염병 제작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극단 광대와 들불야학에서는 각자 유인물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었다. 계엄군 퇴각 후, 보다 조직적 항쟁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킬 필요가 제기되자, 23일 밤 이들은 YWCA로 집결하게 된다. 여기에 JOC 등 광범위한 단체 및 시민들이 결합해 항쟁 활동을 해나간다. 따라서 무장 시민들 및 수습대책위원회 등 여러 주체들이 모여 있어 다소 혼란스러웠던 도청에 비해, YWCA는 상대적으로 조직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에 여성들이

32) 2000년 주소연의 증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앞의 책, 63쪽.
33) 2000년 김은경의 증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같은 책, 61쪽.

있었던 것은 물론이다.[34]

한편, 22일, 23을 기점으로 피신해 있던 운동권 남성 인사들이 돌아오면서 이들은 YWCA를 거점으로 도청을 오가며 당시 혼란 상태였던 도청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고자 했다. 그때 도청에서는 총기 회수를 둘러싸고 온건파와 항쟁파의 갈등이 촉발된 상태였고, 격론 끝에 25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항쟁파를 중심으로 한 항쟁지도부가 새롭게 조직된다. 이윤정과 임영희의 주장은 바로 이 지점과 관련된다. YWCA 여성들의 강경한 투쟁 주장이 도청의 새로운 항쟁지도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여성들의 강경한 입장은 항쟁지도부의 탄생과정은 물론 26일 밤 전체 회합에서 끝까지 항쟁해야 함을 주장하는 등 여러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복수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청 항쟁에 우리가 지도부였다고 생각하지 외곽에서 활동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이윤정의 자기주체적 사고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사고에는 예비검속으로 비어버린 항쟁 초기의 공백기간에 여성들이 나서서 항쟁 활동을 주도했었던 배경도 한몫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항쟁의 사후적 평가 과정에서 도청 내 남성 중심의 항쟁지도부에 방점이 찍히면서 역사적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그 자부심을 확인할 길은 묘연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 20년이 다 되지만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 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다 해버렸지.[35]

둘째로, 위의 첫 번째와 관련된 여성들의 문제의식에 반복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단어는 '총'이다. 여기서 '총'은 도청 항쟁지도부와 YWCA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들의 역할 및 평가를 가르고 있는 결정적 요소이다. "총을 들지 않

34) 이 과정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같은 책, 22~42, 125~132, 139~142쪽. 참조할 것.

35) 2000년 윤청자의 증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같은 책, 142쪽.

았기 때문에 도청 안으로 들어가 상주하지 않았을 뿐", 만약 그때 여성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총 들고 나가는 거였다면 총 들고 나갔"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남성들이 "총은 주지도 않"았다는 것 등의 진술에서 우리는,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무게 중심이 '총·도청·남성·항쟁지도부'에 쏠려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여성들의 활동이 '잡다한, 가정적인, 남자들의 뒷바라지'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항변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여성의 활동이 성별 구분에 의해 제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36] 여성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는 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럼에도 어떤 역할이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될 일"[37]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 투신한 결과가 '항쟁지도부를 도와주는 잡다한 일'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오월여성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가치 정립"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도, '총'의 유무가 역사적 평가의 경중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항쟁 20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적 존재로서의 위치를 점검하고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작성된 항쟁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지점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영웅담인 '총'의 서사로부터 배제되어 나갔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있다. 당시 여성들은 애초부터 총을 들지 않았을까? 무장투쟁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총을 들거나 혹은 그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에 의해 총을 내려놓거나 의지가 꺾인 것일까? 우리는 이 대답을 찾기 위해 '총을 든 시민군'이 등장했던 그 시간을 경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6) 2001년 이춘희의 증언 참조할 것.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Ⅱ)』, 전남대출판부, 24쪽.

37) 2000년 김은경의 증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앞의 책, 137쪽.

Ⅲ. '시민군'이라는 이름

1. '시민군'은 누구인가

광주항쟁에서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한 건,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이다. 순식간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충격적 장면을 경험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곧바로 나주, 화순, 장성, 담양 등 인근 전남지역 일원으로 넘어가 경찰서나 예비군 무기고를 통해 총기를 획득, 다시 광주로 들어오면서 시가전이 전개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무장에 당황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철수한 것은 이날 밤으로, 이때부터 27일 새벽까지 '해방광주'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

앞서 5·18민주묘지의 〈무장항쟁군상〉에서 보았듯이, 시민군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미지는 '총'으로 무장한 남성 시민의 형상이다. 그리고 역사적 시간에서 이들의 등장은 21일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란 명칭은 이날부터 시작되었을까? 만약 [21일부터 등장한] 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을 시민군으로 불러야 한다면, 그 이전에 다양한 무기로 싸웠던 시민들은 시민군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인가? 이렇듯 명칭 등장의 기점은 시민군의 범주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이슈와 관련해 안종철의 글을 재료로 삼아 논의를 풀어 가보기로 하자.

> 광주항쟁에서 시민들은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은 이후 무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시민군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항쟁 초기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에 대항하기 위해 즉자적이면서도 저급한 수준의 몽둥이, 곡괭이 등 무기를 소유한 존재도 시민군이라 칭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8일에 시작한 광주항쟁이 21일 이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몽둥이, 화염병 등의 원초적인 자기방어적 무기를 소유하여 계엄군에 대항했으나 시민들 스스로도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고, 21일 이후 살상용 무기인 M1, 칼빈 소총 등으로 소유했을 때부터 시민군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불리어지기 시작하였다.(밑줄은 필자)[38]

안종철은 21일을 기점으로 한 명칭의 등장 시기 구분을 통해 시민군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는 21일 이후부터 시민군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할 뿐,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날짜는 5월 23일로 추정된다.[39] 23일자로 명기된 2개의 자료에서 '시민군'이란 명칭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다. 23일 오후 3시에 광장에서 열린 제1차범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대표가 작성해 발표한 「민주시민 여러분」과 전일빌딩 앞에 게시된 「민주행동강령」이 그것이다.[40] 이를 보면, '시민군'의 명칭은 시민들이 총으로 무장한 상황 이후에 등장한 것임이 확실해진다.

이 명칭 기점의 문제는 곧바로 시민군 범주를 규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안종철은 21일 이전에 '몽둥이, 곡괭이, 화염병 등' 원초적 자기방어적 무기로 계엄군에 대항한 시민들을 시민군의 범주에 넣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38) 안종철(2001), 「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 『한국동북아논총』 20, 276쪽.

39) 노영기는 '시민군'이란 명칭이 5월 24일자 〈투사회보〉(7호)에 처음 등장했다고 하지만(노영기(2014), 「총을 든 시민들, 시민군」, 『역사비평』 5, 266쪽) 현재 가장 빠른 날짜의 자료는 23일로 확인된다.

40) 「민주시민 여러분」("스스로 조직된 시민군이 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1997),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권, 47쪽), 「민주행동강령」(1.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2.질서 회복에 힘씁니다. 3.평상생활로 복귀합시다 등). 「민주행동강령」이 5월 23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서청원의 「아아 광주여! 어두운 역사의 통곡이여」(한국기자협회(1997), 『5·18특파원 리포트』, 풀빛, 277쪽)로, "이날 처음으로 전일빌딩 앞에 4개항의 '민주시민강령'을 공고하면서 시민군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4개항의 일부 문구는 영상자료(광주KBS, 〈광주는 말한다〉, 198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일부 판독 불가). 최정운은 '시민군'이란 말이 21일부터 일부 쓰이다가 23일에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최정운(2015),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207쪽의 각주 4), 21일 사용 여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다만, 23일에 발표된 두 개의 자료가 당시 YWCA에 있던 홍보부에서 모두 작성됐으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내부에서 이 명칭 사용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때 시민들 스스로도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살상용 무기인 M1, 칼빈 소총 등"을 소유했을 때부터 시민군이라는 의미가 부여됐다고 정리한다. 이로써 '무장'의 의미는 원초적 무기를 제외한 채 '총'으로 한정된다. 이 사실은 항쟁 초기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밑줄은 필자).

> 22일 : (상략) 지금은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학생과 시민군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날리며 완전히 장악한 시가지 전역을 행진하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다.(김성용, 「광주사태보고서」, 1980.05.)
>
> 19일 : (상략) 전날의 무참한 희생을 보상하려는 듯 저마다 식칼, 쇠파이프, 각목을 든 시위군중들이 노인, 부인, 고교생들까지 가세한 채 아침부터 가두로 몰려나왔다.
>
> 21일 : (상략) 그러나 시민군이 손에 쥔 MI과 카아빈은 계엄군이 가진 M16의 무서운 위력을 당할 수가 없었다.(「광주시민의거의 진상」, 1980.06.)

위의 자료들에서 시민군의 명칭 등장은 정확히 21일 및 그 이후로 나타나고 있으며,[41] 21일부터 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을 '시민군'으로, 그 이전에 원초적 무기를 사용했던 시민들을 '시위군중'으로 구분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항쟁 방식에 있어 이렇게 총의 소지 유무를 기준으로 한 구분법은 또 다른 측면에서 아주 중대한 논쟁점을 함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이전까지 노인, 부인, 학생들 등 전방위적 범주의 시민들이 참여했던 항쟁과 시민군이 등장한 이후의 항쟁이 구분되는 지점을 만들어내면서 항쟁 주체의 성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지점을 최정운은 '일반 시민'과 '시민군'이 최초로 분리된 상태로 보고, 이전까지 광주시민 모두가 '전사'였다면, 21일부터 그 자리가 '소수의 시민군'에 의해 대체되고 시민들은 '일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41) 이 자료들에서 21일, 22일에 '시민군'이란 명칭이 쓰이고 있는 것은, 자료들이 항쟁이 끝난 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 이로써 21일 오후에 이른바 '일반 시민'은 '시민군'들과 최초로 분리되어 투쟁에서 소외되었다. 무장하기 이전의 절대공동체에서는 여자, 노인, 아이들까지 광주 시민 모두가 전사였다면 이제 전사는 비교적 소수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다수 시민들은 '일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시민군은 시민의 연장이었지만 21일 저녁때부터 그들은 총을 맨 모습으로 외관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집단이 되었다.[42]

최정운이 언급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란 명칭은 실제로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구분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43] 다양한 증언자료 중에서도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던 박남선의 증언은 이 구분법과 관련된 용어들을 상당히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 22일 : (상략) 무장시민들은 개선한 병사들처럼 의기양양했고 시민들의 환호 또한 열광적이었다. (중략) 무장시민 외에도 일반시민들이 나와 이들을 도우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략) 그동안 전투를 같이했던 사람들과 상황실을 장악하고 '시민군'으로서의 지휘체계를 잡아나갔다. (중략) 예비군 소대장을 한 적이 있는 나는 우선 무장시민을 '시민군'으로 재편성하여 일반시민과 구분하고 광주를 지키자고 하였다.(밑줄은 필자)[44]

박남선의 구분은 훨씬 세부적이다. 통상적으로 시민군으로 알려진 집단을 다시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21일 처음으로 총을 확보해 무장을 시작했던 사

---

42) 최정운(2015), 앞의 책, 207쪽.

43) 1988년 조철현(조비오 신부)의 증언("만약에 무기회수가 늦어지면 광주를 지키려는 충정과 정열로 총을 들고 있는 시민군들뿐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것이다.")과 손남승(시민군)의 증언("총기반환에 관한 문제는 김창길과 박남선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과도 마찰이 있었고, 교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과의 사이에서도 험악한 분위기가 수차례 연출되었다")을 참조할 것.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앞의 책, 190~191쪽, 336쪽.

44) 박남선, 「광주시민은 왜 총을 들었나」, 『신동아』, 1988.05., 전남대 5·18연구소 5·18자료실, http://cnu518.jnu.ac.kr.

람들을 '무장시민'으로, 22일 도청에 들어가 상황실을 꾸린 뒤 무장시민을 보다 체계적인 유사 군대조직으로 재편한 후에는 이들을 '시민군'으로 호칭을 달리하고 있다. 최정운의 언급처럼 시민군은 '외관상 확연히 구별되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2일부터는 실제 집단의 성격 측면에서도 시민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다. 이 지점부터 시민군은 명실상부하게 일반시민과 구분된 집단이 되었던 것 같다. 이로써 시민군은 광주항쟁을 이끌어가는 주체로 전면적으로 가시화된 반면, '일반 시민'은 이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지켜보는 집단으로 후경화 된다.

이렇듯 시민군을 '총을 든 유사 군대조직'이라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때, 당시 여성들은 이와 같은 의미의 시민군 범주에 들 만한 활동을 했었을까? 보다 직접적 표현으로, 여성들도 '총'을 들었는가? 만약 총을 들었다면 그들은 '무장시민'이었는가, '시민군'이었는가?

2. '형제공동체'의 이질적 존재들

광주항쟁 때 여성들이 '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관련하여, 두 개의 극단적 견해가 있다. 아래 두 증언자는 도청과 YWCA에서 활동을 했었던 만큼, 항쟁 현장의 한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다.[45] 그런데 이들이 동일한 활동 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총'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 여자들은 [총을] 거의 들지 않았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권총 같은 것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큰 총을 들고 다녔거든요 시민들이. 시민군들이 장총으로 무장을 했었는데, 그걸 본 적은 없어요.([ ] 표기와 밑줄은 필자)[46]

오월항쟁도 여성들이 도시공동체를 엮어냈다. 그녀들의 활동은 단지 시내 여

45) 이춘희는 '시민학생수습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청에서 활동하다 23일부터 YWCA로 옮겨 대자보 제작, 유인물 배포, 가두 방송 등의 활동을 했으며, 홍성담은 문화선전대로 활동했다.

46) 2001년 이춘희의 증언.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앞의 책, 29쪽.

> 기저기 솥을 걸고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것만이 아니다. (중략) 그리고 일부 여성은 직접 총을 메고 시민군들을 단합시키면서 투쟁을 독려했다. (밑줄은 필자)[47]

둘 중 누구의 기억이 맞는 걸까? 홍성담의 기억처럼 당시 '총'을 든 여성들이 있었을지라도 워낙 소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람들의 시야에 포착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춘희의 기억 방식 또한 충분히 가능할 법하다. 그런데 홍성담의 기억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진이 최근에 새롭게 공개되었다. 아래 2019년의 사진은 계엄군에게 붙잡힌 여성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며, 2020년의 사진은 송정리역 광장에서 시위대들이 도청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가운데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총을 들고 버스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48]

다음의 사진들은 항쟁 당시 총을 든 일부의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두 장의 사진들이 갖고 있는 맥락은 상이하다. 22일 송정리역 광장에서 찍힌 여성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에서 '시민군'의 범주(박남선의 구분에 의하면 '무장시민')에 들어 있다면, 계엄군 앞에서 총을 든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이 사진 속 여성들의 신원이나 사진이 찍힌 장소와 시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오른편 계엄군의 발아래로 보이는 물체들(시신인지 옷가지인지 명확하게 확인

47) 홍성담(2018), 앞의 책, 152쪽.

48) 2019년의 사진은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채증·수집한 것과 지역신문 취재기자들에게 압수한 사진들 중 하나로, 2018년에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을 공개한 것이다. 사진 아래에는 '검거된 폭도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정대하·김용희, 「'총 든 여성들'」, 『한겨레』, 2019.11.26.,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18571.html, 검색일자: 2021.10.01. 2020년에 공개된 사진은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한국일보 기자(박태홍)의 기록 사진 중 하나인데 (박서강, 「소총을 든 여성 시민군」, 『한국일보』, 2020.05.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71569324361, 검색일자: 2021.10.01.) 유니폼을 입은 것으로 보아 공장 노동자이거나 혹은 버스 안내원 신분으로 추정된다.



송정리역 광장에서 총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여성(1980.5.22.)



계엄군에게 체포된 여성들(1980.05.)

〈그림 3〉 '총'을 들고 있는 여성들 (1980년)

되지 않음)이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것이나 바닥의 탄 흔적 등을 보면 27일 도청 함락 직후 계엄군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날 새벽에 도청을 나가지 않고(혹은 나가지 못했거나) 남아있었던 여성들이 함락 직후 건물 전체를 수색해나가던 계엄군들에 의해 발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9] 만일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면, 여성들이 들고 있는 총은 실제로 마지막 교전을 준비하던 과정 중에 자기방어용으로 한 자루씩 배분받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총을 소지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생포된 후 계엄군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후자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두 경우의 수와는 별도로, 당시 YWCA와 도청 안에서 활동하던 여성들이 총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총기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5·18에] 참여했던 여성들 있잖아요. 우리가 수류탄 투척 작업[연습]도 해보고

49) 27일 새벽 도청을 빠져나왔던 정향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같이 나온 몇몇의 여성들이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앞의 책, 27쪽 참조. 이 외에도 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었던 여성들이 남아 있었다.

> 총 쏘는 것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해요.[50]

> 25일 경에는 여성들도 총을 들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청 안에서 여성들이 총기사용법과 수류탄 투척법을 훈련받은 적이 있다.[51]

물론 여성들이 총기사용법을 배웠다고 해서 이들이 위에서 분류된 의미의 '시민군'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사 군대조직으로 재편된 박남선 식의 시민군의 범주에서는 더더욱 멀어진다. 총기 훈련도 기껏해야 2-3번 조작해보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며, 참여 수도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총기를 확보했던 초반기부터 군대조직화됐던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의지를 가진 남성 시민들(청소년들에게까지)에게는 기꺼이 개방되어 있었던 '시민군' 유입의 문이, 왜 여성들에게는 열리지 않았었을까. 사실 항쟁 때 여성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했던 영역은 시민군이나 총뿐만이 아니었다. 계엄군의 갑작스런 폭력에 직면했던 항쟁 초기에는 남녀노소, 계층의 구분 없이 모든 시민들이 나서 소위 '원초적 자기방어적 무기'라 할 수 있는 돌, 칼, 각목, 화염병 같은 것들로 계엄군에 맞섰다. 이때는 상황이 너무도 급박해서 남녀노소나 계층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였다. 그래서 최정운의 표현대로 하면, 시민 모두가 '전사'였던 시기일 수 있었다. 그런데 21일 계엄군이 물러간 후 해방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진다. 남녀노소가 구분되고, 일반시민과 시민군이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 친구 김선화와 함께 계속 가두시위에 동참했던 나는 22일 오후 시위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차는 스쿨버스였는데 20여 명이 각목으로 차체를 두들기며 시위 중이었는데 여성은 나와 친구 두 명뿐이었다. (중략) 4시간여 동안 거리를 누비며 시민공동체를 실감하고 있는데 남성들이 나와 김선화에게 내릴 것을

50) 박병기 엮음(2003), 앞의 책, 150쪽.
51) 5월여성연구회(1991), 앞의 책, 139쪽.



*사진: 이창성 촬영
(5·18기념재단 제공)

〈그림 4〉 시위차량에서 각목을 들고 있는 여성(1980.05.22.)

권유하였다. 여성들은 위험하므로 김밥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여성이라고는 둘밖에 없는 데다가 반박할 논리를 갖지 못한 나는 상당히 겸연쩍어서 시위차량에 내려 가두시위에 동참하였다. 그 후 나는 시민군에게서 총 1점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사용법을 배우려 했는데 아버지는 극구 만류하여 다른 남자에게 총을 주고 그에게 총기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밑줄은 필자)[52]

21일까지 가두시위를 포함해 투석, 화염병 투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은 22일부터 시내 차량시위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 광주항쟁을 알리기 위해 나섰던 차량에도 탑승해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위의 증언처럼, 남성들에 의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거나 총기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허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여성은 위험하므로 김밥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런 시각은 결국 차량시위나 총을 잡는 것은 '여성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여성은 싸워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각목이나 총을 들고 목숨을 건 거친 투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들은 '형제공동체'[53]

52) 1991년 홍원영의 증언. 5월여성연구회(1991), 앞의 책, 166쪽.

53) 김정한은 당시 [남성] 시민군이 주로 친구관계에 의해 합류했으며, 그 안에서 신분과 직업을 떠나 동지애를 갖게 되면서 '형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본다. 그는 이런 형제공동체에서는 항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활동과 경험을 주변화하고 배제하는 효과를 드러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한계는 가부장적 가족 모델이 주요한 무의식적 기반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싸워야 하는 시민군 활동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한(2010), 「5·18 광주항쟁

의 이질적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항쟁 초기에 잠시 여기에 속했던 소수의 여성들은 총과 차량시위에서도 분리 당해야 했으며, 의지를 갖고 있었던 다수의 여성들 또한 "총은 주지도 않아" 총을 들 수가 없었으며, 시민군의 이름으로 도청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27일 새벽에 "총을 쏠 줄" 모른다는 이유로 도청을 빠져나와야 했다.[54] 이런 측면에서 총을 포함해 남성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무장투쟁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이은주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의 문제의식은 아주 적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는 5·18 민중항쟁에서 여성들이 시위와 가두투쟁의 3분의 1을 점하고 있었으면서도 무장투쟁에서는 총을 들 수 없었던 한계와 그것을 여성들이 스스로 각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기(안진, 1991)에 앞서 왜 여성들이 총을 들지 않았는가와 반드시 총을 드는 것만이 가치로운 것인가를 되물어보아야만 한다. (중략) 여성들은 총을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총을 들 수 있는 기회가 외부에 의해 저지되었고,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까지 도청을 사수할 수 없었던 것은 여성들의 결의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밑줄은 필자)[55]

에서 시민군의 주체성」, 『사회과학연구』 18-1,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31~139쪽. 하지만 김정한 역시 시민군의 특수성을 남성성의 특징에 의존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논의 또한 가부장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4) "일부 여자들은 같이 하겠다 왜 나가냐 남자들이 여자들은 총을 쏠 줄 모르니까 우리 남자들도 총 못 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학생들까지 저기 하면 되냐 어렵지 않느냐 나가라 그러고 그 중에서 가르쳐주면 배우며 하겠다 그랬는데 남학생들은 지금 배워서 하기는 코 앞에 닥쳐 있다. (중략) 좀 서로 다투다가 여자들은 나오는 쪽으로 하고 남자들이 남학생이 두 명이든가 한 명인가 데려다 준다고 같이 나왔는데..." 2000년 최정임의 증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앞의 책, 37쪽; "그거는 자기들의 우월성도 포함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도 너희들은 못한다라는 나약함...저희들도 안나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2001년 정향자의 증언.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앞의 책, 27쪽.

55)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앞의 책(이은주, 「5·18민중항쟁과 여성의 투쟁」), 36~38쪽.

이은주는 오월여성들에게 총은 그들의 결의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기회의 저지와 박탈'의 문제에 걸려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성들이 총을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저지되거나 박탈당함으로써 애초에 총을 들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반드시 총을 드는 것만이 가치로운 것인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서 다수의 여성들 증언을 통해 이미 두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바 있다. 총을 들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은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또한 시민군과 "똑같은 비중으로 가치 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2014년의 인터뷰에서 이윤정과 차명숙이 사용하고 있는 '여성 시민군'이라는 용어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이 용어는 "똑같은 비중으로 가치 정립"되기를 바라는 오월여성들의 희망을 반영해내는 하나의 형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윤정이 "많은 여성이 시민군으로 밥을 짓고,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이크를 잡고 시민을 구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속에는 비단 총을 든 자만이 아니라 밥을 짓고, 리본을 만들고, 대자보를 작성하고, 부상자를 간호하고, 가두방송을 했었던 오월여성들 또한 동일하게 시민군으로 불려야 한다는 인정투쟁의 욕구가 깔려 있다. 이러한 이윤정의 발언은 오월항쟁의 역사적 평가와 해석이 시민군이라는 남성 영웅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그동안 우리가 관습적으로 이해해오던 시민군의 폐쇄적 범주를 열어젖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민군의 범주를 확장시키게 될 때, 여기에는 오월여성들을 포함해 당시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었던 시민들 또한 '시민군'으로 불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3. 그 경계 밖의 '일반 시민'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윤정의 발언이 시민군의 범주에 대한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의 인터뷰와 그의 다른

증언들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그가 주장하는 시민군의 범주 또한 일정한 경계가 있음을 곧 알아차리게 된다. 위의 발언(“많은 여성이 시민군으로 ~ 시민을 구했습니다”)에서도 ‘시민군’으로서의 자신들과 ‘시민’이 구분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시민군의 확장 범주에는 도청, YWCA 등을 거점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여성들 포함)까지로 한정되고 있는 것 같다. 앞서 살폈던 그의 증언에서 ‘도청만 지도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다 지도부였다는 것’, ‘우리가 지도부였다고 생각하지 외곽에서 활동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등의 표현은, 결국 “우리 여성들”도 항쟁을 주도해나갔던 한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심으로서의 지도부와 외곽이라는 경계 설정에는, 그가 제기하고 있는 ‘여성 시민군’이라는 명칭을 동반한 인정투쟁의 핵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항쟁의 중심 주체가 도청이었는가 아니면 YWCA였는가, 총을 든 시민군이었는가 혹은 오월여성들이었는가 라는 소위 ‘중심’을 놓고 경합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군과 도청으로 역사적 시선이 수렴되는 항쟁의 그 중심에 ‘우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달라는 것이다. 물론 오월여성들이 주먹밥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이나, 도청에 항쟁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적 개입을 했던 YWCA 여성들의 활동들은 분명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되고 인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과 외곽을 가르는 이윤정의 증언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주체’를 누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항쟁 당사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이른바 ‘일반 시민’이라는 보통명사로 묶인 자들의 존재. 도청이나 YWCA 같은 주요 거점에서 활동했던 시민군(‘여성 시민군’ 포함)들이 ‘중심’을 말하는 순간, 당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일반 시민’이란 이름으로 묶여 ‘외곽’에 배치된다. 지금까지 오월항쟁의 역사에서 남성·총·도청 등이 중심이었다면, 중심과 외곽의 경계선에는 오월여성들이 위치해 있고, ‘일반 시민’은 아예 경계 밖에 놓인 존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경계 밖으로 밀어낸 ‘일반 시민’들

의 항쟁 기억도 동일할까? 시민들도 자신들이 당시 '외곽'에 있었다고 생각할까? 적어도 다음 증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준다.

> 그거[5·18]는 정말로 사실 온 광주시민이 당한 거제, 다친 사람들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뿐만 아니잖아. 온 식구들이 사실은 협력했고, 숨어서 우리들이 정말로 희생적으로 일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로도 없잖아요. 자기들만 그냥 그거 누가 하라한 것도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러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너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56]

> 5·18 지나고 났으니까, 뭐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나서 나갔고. (중략) 그런데 자기들만 데모한 것 아니거든, 다 했제. 어째 운이 나빠서 죽은 것뿐이지. 그런데 뭣할 때는 너무한다고 볼 수 있어. 자기들만 데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여. 광주시민이 전부가 다 합동되아서 다 했으니까, 좋게 상의해서 하라 이 말이여, 나는.[57]

시민들의 항쟁 기억이 이렇듯 또렷함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그 시간을 같이 겪어냈던 시민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했다. 항쟁 역사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기반으로 한 '당사자 중심주의'의 문제와[58] 장기간 배제에 따른 시민들의 무관심과 냉소가 그것이다. 물론 항쟁을 주도했었던 당사자들이 엄혹한 독재정권 하에서도 항쟁의

---

56) 2009년 정순자(간호사)의 증언. 광주여성희망포럼 외(2010),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98쪽.

57) 2009년 박수복(상인)의 증언. 광주여성희망포럼 외(2010), 같은 책, 107쪽.

58) 은우근은 5월 기념사업을 다루는 글에서, 항쟁의 당사자들이 기념사업의 논의와 집행 과정에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기념사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는 결국 당사자 자신들의 자기소외를 자초하여 고립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은우근(2007), 「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614쪽 참조. 그런데 '배타적 독점권'은 단지 기념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쟁 전체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의미 영역까지 당사자들 중심으로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투쟁을 지속시킨 결과 현재 이만큼의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런 당사자성이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독점 문제를 발생시킨 것 또한 사실이다.[59]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사건'의 밖에 머물게 되면서 기억 주체가 되지 못하고 경계 밖에서 사건의 중심을 바라봐야 하는 '목격자 수준'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기억의 주체 범주가 이렇게 협소해지면 항쟁은 이제 도시 전체의 기억이 아닌, 당사자들의 기억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항쟁 40년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오월의 기억 계승과 가치 확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 기인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오월여성들이 발견하고 진단해낸 [시민군 중심의] '총'의 서사가 단순히 오월여성들의 배제만이 아닌 '일반 시민' 배제까지 동시에 걸려 있다는 측면에서, 이 발견과 진단은 오월항쟁사의 중심 기억이 가진 문제를 전면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성 시민군'이란 용어의 제기 역시 '시민군'의 범주에 대한 재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문제제기가 항쟁 중심 주체로서 오월여성의 인정이라는 논의로 한정될 위험성 혹은 불안정성을 보여줌으로써 오월항쟁의 역사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다시 중심과 주변을 가르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린 듯하다. 아무래도 이 이슈는 단순히 오월여성들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일반 시민'으로 규정된 주체들의 논의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59) 물론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자체적 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인식은 특별법 제정 및 보상/배상의 범주를 특정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작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당사자와 비당사자 구분 문제에 대해서는 박경섭(2018), 「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 『민주주의와 인권』 8-4, 전남대 5·18연구소; 박경섭(2015),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 『한국언론정보학보』 71-3, 한국언론정보학회; 정문영(2012), 「'부끄러움'과 '남은 자들'」, 『민주주의와 인권』 12-2, 전남대 5·18연구소를 참조할 것.

Ⅳ. ‘열린 말’과 ‘닫힌 말’

이 연구는 2014년 6월『여성신문』에 실린 오월여성들(이윤정, 차명숙)의 증언을 검토하던 중, 이들의 주장에서 나타난 두 가지 문제의식에 착안해 시작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광주항쟁 당시 여성들의 다양했던 역할과 활동이 ‘주먹밥’으로 상징화, 축소되어버렸다는 주장과 ‘여성 시민군’이라는 용어 사용의 지점이다. 둘 모두 기존의 오월항쟁사 진술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논의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문제의식의 출발이 오월항쟁사의 대표적 상징 이미지가 되어 있는 ‘주먹밥’과 ‘시민군’에 동시에 걸려 있다고 판단, 그에 대한 응답 또한 서로 얽혀 있는 두 상징 이미지의 기원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1984년 홍성담의 〈대동세상-1〉을 시작으로, 1985년『넘어넘어』와 김준태의 오월여성 활동에 대한 글, 1997년의 국립5·18민주묘지의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총을 든 시민군’과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의 상징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고착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폈다. 특히 ‘주먹밥’의 이미지 구축 과정은 남성중심적 시각이 개입되면서, 이후 오월여성들의 항쟁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축소시키는 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군’ 남성 중심의 영웅서사가 항쟁의 역사를 채워나가는 동안, 오월여성들의 다양했던 항쟁의 서사들은 ‘주먹밥’에 갇힌 채 기나긴 침묵과 더불어 ‘삭제당한 역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총의 열린 말’과 ‘밥의 닫힌 말’. 영웅의 서사와 부재하는 서사. 오월여성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본격적 발언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었다. 이들이 발견해낸 ‘총의 서사’와 그것에 대한 진단은, ‘남성·총·시민군·항쟁지도부’ 중심의 오월항쟁사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여성 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의 인터뷰 증언에서 등장했던 ‘여성 시민군’이란 명칭은 일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논의했던 것처럼 이 용어는 항쟁 주체와 관련해 다시 '중심'과 '주변(외곽)'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항쟁의 시간을 같이 겪었던 '일반 시민'의 배제 문제를 드러내는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주먹밥'과 '시민군'이라는 상징 이미지는 오월항쟁사에서 오월여성만이 아닌, '일반 시민'의 다양한 항쟁까지 부재하게끔 추동했던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 두 이미지에 광주항쟁을 가둠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 같다. 더욱더 풍요롭게 해석될 수 있었던 항쟁의 역사적 여지가 사라지는 것을 자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시민군의 역사적 위상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그 영웅성이 강조되었던 만큼 뒤로 물러나 있어야 했던 오월여성 및 시민들의 항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위상을 복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열린 말'이 항쟁사에 기입될 때, 항쟁의 주체가 시민군 중심, 당사자 중심 혹은 "자기들끼리만"이라는 범주에 갇히지 않을 때, 5·18의 의미와 가치의 광범위한 계승이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1차 문서자료(1980년)

「광주시민의거의 진상」, 1980.06.

「광주시민학살일지」, 『해외사상계』, 신한민보사, 1980.06.

「본사 5·18 당시 현지 취재노트」, 『경향신문』, 1995.12.10.

김문, 「찢어진 깃폭」, 1908.06.

김성용 신부, 「광주사태보고서」. 1980.05.

이로사리아, 「광주사태보고」, 1980.5.30.

천주교광주대교구사제단,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1980.06.

2. 연구논문 및 단행본

5월여성연구회(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민중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2000), 『여성·주체·삶』, 도서출판 티엠씨.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1997),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제2권).

광주여성희망포럼 외(2010), 『구술로 엮은 광주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김양현·강현정 엮음(2005), 『5·18항쟁 증언자료집』(Ⅳ), 전남대 출판부.

나간채·이명규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Ⅱ)』, 전남대출판부.

박병기 엮음(2003), 『5·18항쟁 증언자료집』(Ⅲ), 전남대출판부.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황석영 기록(1985),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풀빛.

최정운(2015), 『오월의 사회과학』, 오월의봄.

한국기자협회(1997), 『5·18특파원 리포트』, 풀빛.

현대사사료연구소 편(1990), 『광주오월민중항쟁사사료전집』, 풀빛.

홍성담(2018), 『오월』, 도서출판 단비.

김영희(2018),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한국여성연구소, 149-206쪽.
DOI : 10.21287/iif.2018.10.18.2.149

김정한(2010),「5·18 광주항쟁에서 시민군의 주체성」,『사회과학연구』18-1,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120-149쪽.
DOI : 10.17787/jsgiss.2010.18.1.120
김준태(1985),「그때 광주여자들」,『가정조선』7월호.
노영기(2014),「총을 든 시민들, 시민군」,『역사비평』5, 역사비평사, 253～279쪽.
UCI : G704-000293.2014..107.006
박경섭(2015),「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한국언론정보학보』71-3, 한국언론정보학회, 33～51쪽.
UCI : G704-000837.2015.71.3.004
박경섭(2018),「기억에서 기념비로, 운동에서 역사로」,『민주주의와 인권』8-4, 전남대 5·18연구소.
박남선(1988),「광주시민은 왜 총을 들었나」,『신동아』5월호.
안종철(2001),「광주민주화운동과 무장투쟁」,『한국동북아논총』20, 한국동북아학회, 275～299쪽.
은우근(2007),「5·18기념사업에 대한 하나의 반성」,『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5)』, 5·18기념재단.
정경운(2020),「역사를 증언하는 여성의 '몸'과 '목소리'」,『기억과 기록:대구와 광주』(제2회 영호남교류학술대회).
정근식(2007),「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4)』, 5·18기념재단.
정근식(1997),「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정문영(2012),「'부끄러움'과 '남은 자들'」,『민주주의와 인권』12-2, 전남대 5·18연구소.
UCI : G704-001616.2012.12.2.004

3. 신문자료

「'총 든 여성들'」,『한겨레』, 2019.11.26.

「소총을 든 여성 시민군」, 『한국일보』, 2020.05.17.
「여성들도 5월 광주의 시민군이었다」, 『여성신문』, 2014.6.11.

투고일자: 2021. 11. 12. **심사일자:** 2021. 12. 5.~2021. 12. 12. **게재확정일자:** 2021. 12. 13.

| 국문초록 |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2014년 6월, 오월여성들의 증언(『여성신문』 인터뷰)을 통해 나타난 2가지 문제의식에 착안해 진행되었다. 그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광주5·18항쟁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투쟁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밥’으로만 상징화, 축소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둘째로, 그들은 그동안 광주항쟁사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던 ‘여성 시민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시민군’은 ‘총을 소지한 남성’의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이 용어의 사용은 우리에게 ‘시민군’의 관습적 범주의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항쟁을 대표하고 있는 2개의 상징이미지(‘총을 든 남성 시민군’과 ‘주먹밥을 만드는 어머니’)가 항쟁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 구축되었는지를 밝혔다. 특히 ‘주먹밥’의 이미지 구축 과정은 남성중심적 시각이 개입되면서, 이후 오월여성들의 항쟁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축소시키는 데 일조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성 시민군’이란 용어 사용은, 그것이 ‘남성·총·시민군·항쟁지도부’ 중심으로 기억되고 있는 오월항쟁사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시민군’의 범주 재구성이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오월여성들 또한 ‘항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정욕구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항쟁의 시간을 같이 겪어냈던 ‘일반 시민’을 배제(‘주변’)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제어 : 오월항쟁, 오월여성, 주먹밥, 시민군, 증언

호남학 70 : 47~6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특별기고 |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

변 동 명*

목 차

Ⅰ. 전라도 역사에서 고려의 위치
Ⅱ. 고려초 지역사회의 동향
Ⅲ. 사회와 경제
Ⅳ. 격동과 변혁 속의 지역사회
Ⅴ. 문화와 예술
Ⅵ. 고려시기 전라도 역사를 보는 관점

Ⅰ. 전라도 역사에서 고려의 위치

전라도는 현재의 광주시 및 전라남·북도를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본시 하나이던 것이 광역시와 남·북도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지금도 흔히는 단일한 권역으로 간주해 전라도라 칭하는 게 보통이다. 호남이니 전라지역이니 부르는 것도 그와 매한가지이거니와, 그리하여 전라도는 행정구역상의 공식적인 구분에 상관없이 하나의 지역 명칭으로 사용되는 게 관행화한 지 오래이다.

전라도라는 명호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왕조에서였다. 고려시기에 들어 비로소 전라도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자리를 잡아갔다. 전라도라는 명호를 처음 사용한 게 고려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그 명칭에 집중해서 굳이 고집하자면 전라도의 역사는 그 출발점을 고려시기로 잡아 마땅한 셈이다. 전라도 일대를 아우르는 이 고장의 실제 역사가 그보다 훨씬 먼 옛날에 시작

* 지역사연구소장

되었을 것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명호의 규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는 전라도의 역사가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 단일한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전라도가 그처럼 자리를 잡기까지의 경위는 그리 간단하지를 않았다. 한국의 역사에서 전라도 일대가 하나의 지역단위로 묶여 파악되는 단초는 대략 후삼국시기에 들어 비로소 마련되는 듯 보인다. 수십 소국의 연맹체이던 마한은 이를 나위가 없으며, 중앙집권적인 백제나 통일신라의 시기에도 전라도 일원은 최소한 둘 이상으로 나뉘어 파악되었다. 그러다가 신라의 말기에 후백제가 건국되면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서남해안을 제외한 전라도 일대가, 비로소 신라나 고려와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적인 정치체로 등장하였다. 후삼국시기의 치열한 쟁패전, 특히 고려·신라의 연합전선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후백제 즉 현 전라도 일원의 주민들 사이에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싹텄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이로써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리적 단위로서의 전라지역이 배태되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성싶다. 후삼국을 통일한 뒤 왕건이 남겼다는(943), 그렇지만 아마도 그 손자인 현종대(1009~1031)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이른바 '十訓要'에서, 대체로 현 전라도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車峴以南 公州江外'가 하나의 지리적 단위로 묶여서 등장하는 것은 그 연장선에서 이해되어 마땅할 터이다.

전라도가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제 틀을 잡아간 것은 고려중엽에 들어서였다. 현종대에 그 명호가 처음 출현한다고는 하지만, 전라도가 독자적 경역으로서 나름의 기능을 지닌 용어로 안착된 것은 제법 시간이 흐른 뒤였다. 성종대(981~997)만 해도 강남도와 해양도의 둘로 나뉘어 파악되던 이 지역이, 안찰사의 단일 순행구역으로서 제 모습을 굳혀가기에 이른 것은 대략 예종대(1105~1122) 즈음에 가서였다. 후삼국시기 이래 특히 십훈요가 출현한 현종대를 거치면서, 전라도 일원을 단일한 지역단위로 파악하던 공간적 인식을 배경으로 가능한 일이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더불어 거기에는 개개의 군현 단위를 벗어나 보다 광역의 지리적 단위로 묶어서 지방행정을 펼쳐야 할 중앙의 필요성이 개재되었을 법하다. 나아가 그것을 가능토록 하는 지역사회의 성장, 다시 말해 개별 고을의 한계를 넘어 여러 고을까지 아울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사회적인 연결망이 형성되는 거와 같은,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변화 발전 내지 역량의 성숙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임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이후 그와 같은 지역사회의 성장이라든지 중앙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무인정권의 시기 특히 몽골의 침략기에, 전라도는 지방행정 감찰관의 순행구역이라는 의미를 넘어 독립적인 지역행정 단위로서의 성격을 지녀가기 시작하였다. 단일한 지리적 단위로서의 의미가 점차 굳어진다 하겠거니와, 그리하여 원의 간섭기를 거치면서 독립적인 지방행정구획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가다가, 마침내 고려말기에 광역 행정구역으로서의 전라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신라말엽에서 고려시기를 거치면서 마침내 독자적인 지리적 범주로서의 전라도 지역이 성립되기에 이른 셈이었다.

전라도가 광역의 지방행정단위이자 하나의 지리적 공간을 지칭하는 명호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사회적인 필요성 내지는 변화 발전의 결과였다. 다만 그러는 중에도, 그러한 추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 중의 하나가 고려말엽의 왜구였다. 고려말 들어 창궐하는 왜구를 방어하는 군사적 단위로서 '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도 단위로 지휘관이 파견되어 왜구 격퇴에 나섰는데, 이들 지휘관에게는 군사를 선발하기 위한 호적의 작성을 포함하여 인력과 군량을 징발하는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특권을 누렸다. 군정은 물론 일반 행정에서 군사작전에 이르기까지 운용의 기본단위가 도였던 셈이거니와, 그러는 과정에서 전라도와 같은 광역의 지방행정단위가 더욱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단일한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명호로서 전라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전라도가 하나의 독자적인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명호로서 자리를 잡아

간 것은 그처럼 고려시기에 들어서였다. 비록 그 명칭의 사용이라는 형식적 측면에 치우친 의미 부여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않을망정, 전라도 역사가 첫 발을 내디딘 게 고려에서였음을 헤아린 셈이거니와, 그리하여 고려의 위치는 바로 그처럼 전라도 역사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데에서 찾아 마땅할 터이다. 그 명호의 사용에 국한해서 이르는 말이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나마 고려는 전라도 역사의 시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나치지 않아 보이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고려시기의 전라도 역사를 간략히 훑어보도록 하겠다. 고려왕조의 처음에서 시작하여 그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라도 역사를 개관하려니와, 그리하여 그 흐름에서 찾아지는 성격이랄까 특징과 같은 것을 헤아려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를 보는 시각에 관해 생각해 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할까 한다.

Ⅱ. 고려초 지역사회의 동향

고려가 세워지던 즈음 전라도 일원에서는 크게 보아 둘 정도의 정치집단이 각축하였다.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의 왕건을 대표로 하는 두 세력 사이의 수많은 전투로 표출된 격렬한 다툼이 그것이었다. 당시 이 지역의 대부분은 견훤의 세력권에 들었다. 나주지역이라 일컬어지는 전남의 서남해안 일대를 제외한 전라도 일대가 후백제의 영역이었다.

당시 나주 일원은 해상활동이 매우 활발한 고장이었다. 동북아시아 해상교통의 핵심 경유지를 점한 이점을 바탕으로, 장보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많은 해상세력이 활동하던 해양 진출의 요충이었다. 왕건은 즉위하기 이전에 벌써 그러한 나주지역으로 눈길을 돌려 진출에 성공하였다. 선대 이래의 해상활동을 배경으로 성장한 인물다운 혜안의 발휘이려니와, 그리하여 왕건은 이 지역을 주요한 발판으로 삼아 왕위에 오르고 고려를 개창하였다. 후백제의 견훤이 끝내 패배하고 왕건의 고려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을 보기에 이른 요인 가

운데 하나로서, 나주지역의 향배를 꼽는 것이 반드시 근거 없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

나주지역은 후삼국 쟁패의 초반에 벌써 왕건과 손을 잡았다. 왕건은 즉위하기 전 궁예의 휘하로서 상당한 기간을 나주에서 보냈으며, 즉위한 뒤에도 이 지역에 남다른 관심을 쏟았다. 나주도대행대라는 특수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나주 출신인 장화왕후 오씨의 소생을 후계자로 지목하였으며, 그밖에도 나주 일대를 연고로 하는 인물이라든지 승려 등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도움을 받았다. 나주지역과 왕건 사이의 각별한 관계를 헤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고려와 후백제 사이의 쟁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즈음, 전라도 일원에서 두 나라의 영역에 얼마간의 변화가 생겼다. 나주지역은 잠시 고려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듯싶었으나 이내 고려의 판도로 다시 들어왔으며, 전남 동부의 승주지역이 새로이 고려의 세력권에 포함되었다. 견훤에 뒤이어 박영규가 고려로 귀부해온 데 따른 경역의 변화였다. 후삼국의 말엽 즈음이면 광주를 비롯한 동북부 내륙을 제외한 전남지역의 상당 부분이 고려의 통제 아래 들었으며, 뒤이어 곧장 고려에 의해 통합이 마무리되거니와, 당시 전라도 역내에서의 그와 같은 일련의 상황과 관련하여 눈길을 모으는 게 이른바 십훈요이다.

십훈요는 태조 왕건이 자신의 뒤를 이을 후대 왕들에게 남긴 열 조목의 유훈을 가리킨다. 고려의 역대 국왕들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당부한 일종의 왕실 가훈이었는데, 그 중에서 전라지역에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며 긴 세월 주목을 받아온 것이 8조의 '車峴以南 公州江外' 운운의 부분이다. 차령산맥과 금강의 이남, 곧 현재의 전라도 일대를 거의 아우르는 지역이 고려왕조에서 차별을 받았을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십훈요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라든지 그것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에 이른 경위 등에서 적잖이 의심을 받는 자료이다. 나아가 십훈요를 태조의 실제 유훈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고려 일대에 그 내용이 제대로 준수되었던가를 두고는 부정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다. 십훈요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현종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반영된 자료일 가능성이 지적되는 게 보통이거니와, 반드시 그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 자료를 근거로 고려시기에 전라지역이 차별을 받았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이다. 현대에 들어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 의해 조작되고 부풀려진 지역 사이의 갈등 내지는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폐습이, 마치 오랜 과거 이래의 일이었던 양 강변하며 십훈요를 내세워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양태는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태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혜종은 나주 출신인 장화왕후 오씨의 소생이었다. 왕건이 고려를 창업하는 데 나주지역의 각별한 후원이 크게 작용하였으며, 그리하여 왕건을 계승한 혜종 정권이 그러한 나주호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것임을 예감케 하는 대목이다. 후일 최승로가 혜종대의 정치를 평하면서 '鄕里小人' 운운하며 비난했던 세력이 그 주축이었다. 그렇지만 혜종은 2년 남짓 재위하는 데 그쳤다. 뒤이어 定宗이 정변을 거쳐 즉위하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광종의 치세에 들어 숙청의 회오리가 일면서, 중앙에 진출한 나주세력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혜종은 짧은 재위에 그치는 등 국왕으로서 내세울 만한 치적을 남기지 못하였던 듯 보인다.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전하지를 않는다. 다만 고려왕조에서는 그를 창업과 수성에 크게 기여한, 이를테면 왕조의 太宗에 해당되는 국왕으로 인식하였으며, 그리하여 말기에 이르도록 太廟에 不遷之位로 모셔 제향하였다. 한편 혜종과 뗄 수 없는 연고를 지닌 나주고을에서는, 御鄕을 자처하며 또한 그를 기리는 제향을 이어갔다. 興龍寺 및 그 경내에 들어섰다는 惠宗祠의 존재가 그것을 웅변하거니와, 조선 세종대에 이르도록 현지에서 혜종의 塑像과 眞影을 모셔왔음이 확인된다.

혜종대의 나주를 이어, 定宗의 즉위와 함께 문득 그 존재를 새로이 한 고장이 승주 곧 오늘의 순천이었다. 순천 출신인 박영규의 두 딸이 정종의 왕후였던 것이다. 순천의 해상세력 출신 호족인 박영규는 후백제왕 견훤의 사위이며 장군이었는데, 견훤을 따라 고려로 귀부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딸 하나는 왕건

의 부인이 되었으며 다른 두 딸은 정종의 왕후가 되었다. 박영규를 필두로 한 순천지역의 위세가 한때나마 상당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렇지만 정종의 재위기간은 4년가량에 지나지 않았다. 광종대의 숙청과 함께 얼마 동안 중앙에서 순천 출신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박영규 자신은 후일 순천의 해룡산신으로 추앙되어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이름을 남겼다.

고려초 태조와 혜종·정종이 재위하는 동안, 전라도의 서남부와 동부 해안지역은 나름대로 그 존재를 드러내었다. 반면에 전남 동북부 내륙 및 전북 일대는 옛 후백제의 영역으로서 중앙과 연고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광종의 개혁정치와 함께 새로운 세력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 출신도 점차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종과 현종대에 이르도록 전라도 출신의 중앙 진출은 끊임이 없었거니와, 고려초 중앙에 진출하여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살아남은 일부에다 광종대 이후 새로이 성장한 이들이 더해져, 고려전기에 전라도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히는 주요 세력이 형성되었다.

고려에서 체계적인 제도에 바탕하여 전라도 일원을 통치하기에 이른 것은 성종대에 이르러서였다. 그리하여 12목 중 전라지역에는 전주목과 나주목·승주목이, 그리고 10도제가 마련되면서는 노령 이북과 이남에 각각 강남도와 해양도가 들어서게 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관리가 지방을 통치하는 시대로의 전환이거니와, 신라말 이래로 자립의 형세를 유지하던 이 지역의 호족은 이제 저들 지방관을 보좌하는 長吏 곧 행정실무자로 자리매김되었다.

성종과 함께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크게 기여한 국왕이 현종이었다. 그는 즉위하기까지의 경위가 남다르며, 더욱이 전라지역과도 각별한 인연을 지녀 눈길을 끈다. 자못 이색적인 출생의 내력에 더해, 극심한 고초 속의 유소년기를 거치며 정변을 통해 국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재위 중 두 차례의 거란 침입을 겪는 가운데 재위 원년(1010)의 제2차 거란 침입 당시 이 고장 나주로 몽진하였던 것이다. 곡절 많기로는 손에 꼽히는 국왕이려니와, 피난길에 오른 현종 일행은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등 천신만고를 겪으면서도 나주를 찾아 먼 길을

마다지 않았다. 고려왕실이 그만큼 나주지역을 깊이 신뢰하였다는 뜻이려니와, 개경으로 돌아간 뒤 현종은 나주를 왕조중흥에 기여한 고장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나주에서 八關會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이 고을로 하여금 개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리도록 우대하였다. 나주가 제2의 수도에 비길 만한 지위를 누렸다는 게 鄭道傳의 소회이다.

Ⅲ. 사회와 경제

고려의 지방 통치제도가 나름의 자리를 굳힌 것은 현종대에 가서였다. 같은 왕 9년(1018)에 4都護와 8牧을 필두로 56知州郡事와 28鎭將 및 20縣令官을 설치함으로써 지방 통치의 얼개를 갖추었다. 전라도지역에는 전주목(안남대도호부)과 나주목을 계수관으로 하여 남원·영광과 임피·해양 등 몇몇 지주군과 현령관이 설치되었다. 이들 수령이 파견된 '主縣'은 중앙에 直牒하며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반면, 수령이 없는 '屬縣'은 '주현'을 통해 중앙과 연결되는 구조였으며, 각각 고을의 크기에 맞춰 향리의 정원도 제정되었다. 또한 고려에 특유한 그와 같은 주현-속현제도의 소산인 감무가 자리를 잡아 조선시기의 현감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수령이 부임하는 고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방제도의 추이에 따라, 허다한 속현과 향·부곡·소·장·처 등의 특수 행정구역을 주요 배경으로, 월경지라는 특이한 존재가 생겨나 전통시기 내내 존속하였다. 지방 통치제도의 정비에 발맞추어 地方軍制도 자리를 잡아갔다. 전주목도와 나주목도를 포함하여 전라도지역에는 모두 9개의 軍事道에 보승·정용·일품군 합하여 11,000여 명의 군사가 배정되어, 고려 주현군의 약 23% 정도를 점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전라도는 강남도와 해양도를 합쳐 현종 9년(1018)에 탄생하였다고 한다. 과연 그처럼 이른 시기의 일이었을까 논란이 없지 않거니와, 다만 그것이 광역의 행정단위로 실제 자리를 잡아간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략 예종대 즈

음에 가서였던 듯 보인다. 이후 무인정권기를 지나 원의 간섭기를 거치면서 안찰사의 역할이 확대되어간 끝에, 고려말 도관찰출척사로 정비되면서 道가 하나의 행정단위로서 정착되는데, 전라도 역시 그와 유사한 궤적 속에서 뿌리를 내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고려중기 이래 전라도가 그처럼 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오늘의 제주지역이 전라도에 편입되었다. 탐라의 이름으로 백제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에 소속되어 조공을 바쳐오던 이 섬을, 숙종이 군현으로 편입하면서 전라도에 소속시킨 데 따른 일이었거니와, 이후 제주 일원에는 내내 전라도를 거쳐 중앙과 연결되는 몇몇 고을들이 자리하였다.

고려시기에 지역사회를 이끈 토착세력은 호족을 계승한 장리(향리)계층으로서, 호장·부호장이 그 중심이었다. 향리는 토성에서 배출되는 바, 토성은 대체로 고려시기 이래의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조선초기의 지리지류에서, 각 고을 및 그에 준하는 행정구역 별로 그 존재가 확인된다. 고려시기에 지방 출신으로서 과거 등을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는 인물은 대략 토성 향리 출신인 게 보통이었다. 전라도에서도 그처럼 중앙에 진출한 인물이 허다하였는데, 그 중에는 대를 이어가며 고위직에 오르고 왕실이나 명문가와 혼인하며 문벌로 성장하여 이름을 떨치는 예도 적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교육을 장려하며 군현에 향교를 설치하였다. 성종대 이래 지방통치제도의 정비에 짝하여 지방교육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리하여 전라도의 경우 현종대 즈음이면 전주목과 나주목을 필두로 수령이 파견된 10여 고을에 향교가 설치되었고, 인종대를 거치며 향교의 설치가 더욱 확산되어 무인정권시기에는 널리 속현에까지 향교가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였다. 교육의 혜택을 입은 것은 주로 향리계층이었다. 향교에서의 유교와 기술교육을 배경으로 제술·명경업이라든지 잡업을 거쳐 중앙에 진출하는 게 저들의 주요한 성장 통로였다.

전라도는 고려시기 농업의 중심 지역이었다. 논농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곡으로 운송하는 쌀의 주요한 생산지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농수산물이 생산되어 조세 부담이 무거웠거니와, 더욱이 나라 전체 所 274개 중 114곳이 전라도에 속하였다. 41.6%를 점하는 만큼 상공·별공 따위의 명목으로 다양

한 품목을 중앙에 바치는 등, 전라도는 고려왕조의 핵심적인 수취 기반에 해당하였다. 부세 수취를 위한 성종대의 60포제 하에서 남한강 유역의 33개 江運形 포구를 제외한 27개의 海運形 포구 중 전라도에 17곳이 분포하여 2/3정도를 점하였으며, 현종·문종대에 정비된 13조창제 하에서 내륙의 江倉 두 곳을 제외한 11海倉 중 6곳이 분포하여 역시 절반 이상이 전라도 연해안에 설치되었던 등에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가 있다.

수공업과 상업도 나름의 전개를 보였다. 전라도에서는 모시·삼베와 같은 옷감이라든지 갖가지 종이·도자기와 돗자리 등이 생산되어, 州縣市라든지 관·민영의 상점을 거쳐 유통되었다. 陸運은 22개 驛道를 통해 상황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 전라도 일원에는 全公州道·昇羅州道·南原道 및 山南道의 62개 驛이 분포하여, 군사·행정적 기능과 함께 민간의 물류 유통을 포함한 교통·운송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60포라든지 조창이 위치하는 포구를 중심으로 연안항로가 발달하여, 해운 활동이 자못 활발하였다. 근자에 들어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해저 유물의 발굴에서 저간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다.

Ⅳ. 격동과 변혁 속의 지역사회

무신난은 고려의 역사에서 분수령으로 이해된다. 정권이 문신에서 무신의 손으로 넘어갔다. 무신난 뒤 권력을 쥔 집정 무인들 가운데, 전라도와 관계가 깊은 이로는 李義方과 金俊이 있다. 이의방은 그 본관과 외향이 전주와 김제이고, 김준은 광주를 외향으로 두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이는 전주의 호장층 출신으로 여겨지는 이의방이다. 그의 아우인 李隣이 후일 조선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의 6대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성계는 왕조를 개창하기 전 이고장에서 의미심장한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한다. 우왕 6년(1380)의 황산대첩 후 개선하던 그가 전주의 오목대에서 승전축하연을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고조가 즉위한 다음 금의환향해 노래한 '대풍가'를 읊었다는 일화가 그

것이다. 설화에서일망정, 변방 중의 변방이라 할 동북면 출신의 장수 이성계가 그 선조의 출자지인 전주를 자신의 본향으로 내세우면서, 대업의 포부를 암시하는 일종의 정치적 의식을 거행한 셈이었다.

전라도는 역대의 무인정권에서 자못 중히 여기던 지역이었다. 첫 손에 꼽히는 곡창지대로서 수탈의 주요한 대상이었다. 토지 탈점이라든지 개간을 배경으로 농장이 형성되면서는, 전라도 일대에 무인집권자의 농장이 널리 개설되었다. 최씨정권의 3대 집정에 오른 최항이 승려 만전이던 시절, 화순의 쌍봉사를 거점으로 자행하였다는 탐욕적인 여러 행위들도 그와 무관치 않을 것임은 물론이었다.

무인정권에 들어 한층 심해진 수탈은 고려중기 이래 유민화 경향을 보이던 농민의 토지 이탈을 가속화하였다. 늘어난 유민은 때로 도적 집단이 되어 각지를 횡행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무신난 이래 만연한 하극상 풍조는, 저들 동요하던 농민을 자극하여 곳곳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전라도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았다. 명종 12년(1182) 전주의 旗頭 竹同이 군인과 관노를 선동하여 일으킨 반란이라든지, 고종 23년(1236)에서 이듬해에 걸쳐 담양과 광주 일원을 휩쓴 李延年의 백제부흥운동은 그 중 저명한 사례였다.

전란도 그치질 않았다. 고종 6년(1219)의 거란 침입에 이어, 그 18년(1231)에 시작된 몽골의 침입은 같은 왕 46년(1259)에 이르도록 30년가량 지속되었다. 그러고도 끝이 아니었다. 삼별초의 항쟁이 원종 11년(1270)에서 같은 왕 14년(1273)까지 이어졌으며, 뒤이어 충렬왕 즉위년(1274)과 같은 왕 7년(1281)에는 2차에 걸쳐 여원연합군이 일본 원정에 나서기도 하였다. 13세기 거의 내내 고려는 외세와의 원치 않는 전란에 휩싸여 커다란 고초를 겪었던 셈이다.

전라도라고 하여 전란의 소용돌이에서 비켜난 게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몽골의 전라도 침략이 고종 23년(1236)에 시작되어 같은 왕 44년(1257)까지 전후 5차례에 걸쳐 20년 이상 이어졌다. 장성 입암산성 공방전에서의 승리라든지, 신안 앞바다에서 군선을 동원해 해전을 시도한 몽골군을 격퇴한 압해도

전투 등은, 그 중 손꼽을 만한 예에 든다 할 것이다. 진도에 들어선 삼별초정권의 활동 및 그 격퇴를 위한 일련의 전투에서 전라도 일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뒤이은 제주도 삼별초 진압과 일본 원정에서도 병량과 인력의 동원에 크게 시달림을 당했다. 특히 2차례의 일본 원정 당시 각각 900척씩 모두 1800척의 군선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그 조선을 전담한 게 부인 변산과 장흥 천관산 일원임으로 해서 전라도 지역사회가 받은 고통은 말로 다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무인집권 하의 격동과 변혁의 시기에 전라도를 배경으로 이채로운 빛을 발한 게 불교개혁을 내세운 결사체의 존재였다. 순천 송광사를 근거로 활약한 조계종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수선결사)와 강진 만덕사를 거점으로 삼은 천태종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를 이름이다. 이들은 개경을 중심으로 한 기성 교단이 세속화한 가운데 종파적인 편협성에 사로잡혀 갈등을 일삼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함께 불교 혁신을 부르짖었다. 비록 둘 사이에 수행 이론이라든지 그 실천 방법을 둘러싼 차이는 없지 않았지만, 궁극의 지향점은 다르지 않았다. 서로 다른 종파임에도 불구하고 지눌과 요세 및 그 후계자인 진각국사 혜심과 정명국사 천인 사이에는 대를 이어 교류가 지속되었거니와, 그리하여 수선사와 백련사는 서로 협력하고 또한 경쟁하는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고려 불교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수선사와 백련사가 그처럼 고려불교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은 전라도 지역사회였다. 지눌이 송광산 길상사를 중건하여 조계산 수선사로 만드는 데 나주와 순천을 비롯한 주변 토착세력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줄을 이었다든지, 또는 요세가 만덕산 백련사를 개창하는 데 강진 지역 토착 유력자들의 후원이 토대가 되었던 사실 등에서 알 수가 있는 일이다. 전라도 지역민의 그와 같은 후원을 바탕으로 불교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수선사와 백련사는 한국불교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다.

고려후기 들어 전라도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졌다. 감무를 비롯한 수령

의 파견이 늘면서 속현이 줄고, 향·부곡·소를 비롯한 특수 행정구역이 자취를 감추어갔다. 단속적인 읍격의 승강과 행정구역의 병합으로, 고을의 영역이 조정되는 것과 함께 군현 등의 절대 숫자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무신난 이래 이어진 지역사회에서의 정치적이며 사회·경제적인 격동에 중앙이 반응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새로운 세력의 성장과 중앙 진출도 활발하였다. 고려전기 이래의 일로서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니었거니와, 무신난 이후 고려말에 이르도록 전라도 일대를 본관으로 하는 허다한 가문의 출신이 과거라든지 군공 등을 배경으로 중앙 관직에 올라 활동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의 가계는 대를 이어 고위직자를 다수 배출하는 세족으로 성장해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다. 고려후기에 전라도를 본관으로 하는 세족만도 10여 성씨에 이른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는데, 그밖에도 한 두 명이 중앙에 진출한 예까지를 더한다면 그러한 인물을 배출한 고을은 일일이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고려말 조선초의 이른바 신흥사대부 내지 신흥무인 중에도 전라도를 본관으로 하는 인물들이 상당수였다. 그처럼 중앙에 진출할 기반을 갖춘 계층이 전라도 지역사회에서 널리 성장하는 중이었음을 헤아리게 하는 대목이다.

더불어 그러한 즈음 창궐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힌 왜의 침구도 잊을 수가 없다. 큐슈 일대의 무사와 농·어민을 주요 구성 분자로 하는 왜구가, 쓰시마와 이끼 등지의 섬에서 출발하여 고려의 연해안에 출몰하며 미곡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는 해적질을 자행하였다. 일본의 이른바 남북조 내전이 그러한 왜구 창궐의 배경이라 일컬어지는데, 대략 20척에서 500척에 이르는 선단을 구성한 수백에서 수천 내지 만여 명에 이르는 왜구가, 고려말엽에만 총 500회를 훌쩍 넘어서는 침입횟수를 기록할 만큼 극성을 부렸다. 고려의 연해안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할 정도였다 이르거니와, 왜구의 발호로 인해 연해안과 도서의 고을이 내륙으로 옮겨가는 일조차 그리 드물지 않을 정도였다.

한편 고려후기 들어 전라도 일대에서는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일부 교체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몽골의 침입이나 왜구의 창궐과 같은 전란이

라든지 자연재해 그 밖의 사유들로 인해, 전통적 토착세력인 토성 가운데 일부가 유망하였다. 그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 새로이 이주해 들어오는 집단이 나타났거니와, 그리하여 주민이 부분적으로 교체되고 더불어 사회적 주도세력에도 일부 변동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의 변화에는,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중앙에서 낙향해오는 인물이라든지 혹은 그로 대표되는 성씨 집단의 출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에서는 본디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를 않았다. 관직에 나아간다든지 하는 등의 특수한 사유가 없이는 본관을 벗어나 다른 고장에서 거주하는 게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신난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문신계열의 인물들 가운데 무인의 탄압을 피해 연고지로 낙향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거기에 몽골의 전란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거주지 통제가 크게 이완되었다. 이후 정치적 격변기이면, 반드시 본관이 아니더라도 처향이라든지 외향과 같은 연고를 찾아 낙향하는 사례가 늘어만 갔다. 고려말엽의 격동은 그러한 추세를 한층 가속화하였다. 왜구로 인해 고을 자체가 옮겨가는 마당에 거주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조선초 이후 지역의 유력자로 대두한 측에서 낙향의 이유로 주로 내세우는 바, 신돈의 집권이라든지 왕조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격변은 그러한 변화를 한층 부채질하였다. 중앙에서 관직생활을 하다 새로 전입해 온 이들은 그만큼 지역의 유력자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사회 내에서 중앙 관직을 역임한 측과 향역을 담당하는 측 사이에 신분적 차이가 차츰 드러나게 마련이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士族과 吏族이 분화되어 가는 형세로 귀결되기에 이른 셈이었다.

Ⅴ. 문화와 예술

고려시기 전라도 일원에서는 학문·사상이라든지 문화와 예술이 제법 융성하였다. 우선 학문의 발달이 볼 만하였다. 유교가 널리 뿌리를 내려가는 추세

였는데, 향교가 자리를 잡아 지역 유력자의 자제를 교육하였으며, 과거제가 시행되면서 다수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성종에게 『說苑』의 6正6邪 등 봉사를 올려 유교적 정치이념이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한 金審言이라든지, 유교적 감계를 강조한 사서인 『千秋金鏡錄』을 편찬한 鄭可臣, 유교 경전에 능통하여 '五經笥'라 불렸으며 그에게서 배우고자 학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는 李晟, 성리학에 입각해 치국의 도를 설파한 정치이념의 서책인 『大學衍義』를 국왕에게 최초로 진강하여 고려말 주자성리학의 수용·정착에 이바지한 尹澤,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해 경렴정을 지어 소요하면서 이제현·이색·정몽주·길재를 비롯하여 이숭인·윤소종·권근과 같은 손꼽히는 당대 성리학의 대가들과 교유한 것으로 이름이 있는 卓光茂 등, 전라도 출신으로서 고려시기 유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유교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시문의 유행을 낳았다. 유교 사상을 글로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 시문이었으며, 그런 만큼 전라도에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 다수 나타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이거니와, 위에서 언급한 유학자를 제외하고도, 古文에 능해 해동제일이라 칭송을 받은 金黃元이라든지, 죽림고회의 일원이었던 吳世才와 趙通, 이규보·최자를 잇는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金坵, 더욱이 유교적 덕목의 실천으로 명망이 높은 가운데 한국 역사상 최초로 역대의 시문을 집성해 『東國文鑑』을 편찬한 金台鉉 등, 한문학사에 이름을 올려 마땅한 인물들만도 여럿이었다.

유교와 함께 불교가 또한 매우 번성하였다. 수많은 고승이 활약하는 가운데 유명한 사찰이 거의 고을마다에 자리하였다. 손을 꼽으며 헤아리는 게 무의미해 보이거니와, 허다한 경전을 간행함으로써 흔히 화엄종의 대각국사 의천에 비견되곤 하는 법상종 혜덕왕사 소현과 김제 금산사를 위시하여,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독자적 수행이론을 정립하여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혜결사를 이끈 조계종 보조국사 지눌과 순천 송광사라든지, 그러한 지눌과 교류하는 가운데 역시 불교 개혁을 지향하며 참회로써 정토왕생을 꿈꾸던 천태종 원묘국사 요세와 강진 만덕사 등, 별처럼 빛나는 존재만도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송광사의 지눌은 고려 불교의 내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새로운 길을 제시한 고승으로 이름이 높은데, 더욱이 심성의 도야를 강조함으로써 장차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터전을 닦아주는 구실을 하였다는 평가에서 새삼 그의 사상사적 위상을 되짚게 된다.

불교 외에도 민간에서는 토속적인 신앙이라 이를 만한 기복의식 내지 신이한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성행하였다. 그 중에는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라 기록을 남긴 사례도 적지 않은데, 가령 산악과 하천·바다의 산신과 수·해신이라든지 성황신 등이 그러하였다. 전라도만 하더라도 구례의 지리산신과 나주 금성산신을 비롯하여 영암의 월출산신과 남해신 및 광주 무등산신이라든지 역사상 실존 인물을 신격화한 순천과 순창·곡성의 성황신 등, 허다한 산신과 수·해신 및 성황신이 널리 숭앙되며 관련 자료를 후대에 남겼거니와, 이들은 대체로 지역 토착세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널리 지역민의 존숭을 받는 게 상례였다. 나아가 당시 상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던 풍수지리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신라말 영암 출신의 도선을 비조로 하는 지리도참의 이 고장 출신 전문가로서, 고려중엽에 무등산처사라 불리며 국왕의 신뢰 속에 활동의 자취를 남긴 은원충이 눈에 띈다.

한편 신앙생활과 연관된 종교 의식이나 또는 크고 작은 축전에는, 노래와 춤이며 악기 연주라든지 줄타기나 접시돌리기와 같은 갖가지 연희가 따르는 게 보통이었다. 일종의 종합연희가 베풀어졌거니와,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보기는 쉽지를 않지만 민간에서의 여가생활도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성싶다. 전라도 일대의 민간에서 불렸을 법한 노래로는, 옛 백제지역의 속요로 전하는 '선운산가', '방등산가', '무등산가', '정읍사', '지리산가'를 비롯하여 고려말에 탄생한 '장생포가' 등이 꼽히곤 한다. 수령이 주관하는 의식을 위시하여 고을에서 베풀어지는 축전 등 公私를 막론한 여러 행사에서는, 주로 官妓를 비롯하여 才人(광대) 등이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며 또한 여러 잡희를 공연하였을 텐데, 특히 고려 현종대에 베풀어진 것으로 알려진 나주 팔관회에서는 개경의 그것과 유사하게 亂場이 펼쳐진 가운데 가무·잡희로 떠들썩한 국제

적인 축전이 열렸던 것으로 보여 주목에 값한다.

미술은 대체로 불교 쪽의 자료가 많이 전하는 편이다. 다만 회화의 경우, 그 작품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송에서까지 그림 솜씨로 명성이 자자했다는 전주 출신인 이녕·이광필 부자의 존재가 눈길을 끈다. 불교 문화재로는, 불상과 승탑(부도), 석비, 범종, 석등 및 경전·고문서에서 향로·사리합과 같은 佛具類에 이르기까지, 자못 풍부한 자료가 전한다. 등록된 자료만 200건을 훌쩍 넘어서는데, 문화재로의 지정 유무를 떠나 다양한 양식의 수많은 불상들과 함께 특이하게도 백제계 석탑이 곳곳에 조성되고, 또한 국사·왕사를 기념하는 아름다운 승탑과 탑비들이며 한국식의 독특한 범종이 다수 제작되는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많은 불교 유물이 전해온다.

전라도의 고려시기 예술품으로서 금자탑이라 이를 만한 게 청자이다. 이 고장을 넘어 한국문화를 빛낸 문화유산 중의 하나로서 이름이 높은데, 그처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고려청자의 주요 생산지가 강진과 부안이었다. 처음 대체로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된 자기 생산은 10~11세기 무렵 전라도 서남해안으로 그 중심을 옮겨갔다. 그리하여 강진이라든지 장흥·해남 등지에서 고려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뒤이어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즈음이면 부안에도 뿌리를 내리면서, 최고의 작품 생산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비색의 맑고 그윽한 바탕에 백토나 흑토로 상감을 넣은 세계 유일의 상감청자가 탄생하였거니와, 중국에서 먼저 발달한 자기 생산기술을 받아들여 품위를 갖춘 걸작인 고려만의 비색 상감청자로 빚어낸 창의성이 돋보인다.

청자의 사례와 유사하게 고려의 자연환경에 맞춰 특유의 발달을 보인 것으로 조선술을 들 수가 있다. 전통시기 한국배[韓船]의 특징으로는 흔히 평저형 밑판 및 날카롭지 않고 뭉툭한 모양의 이물과 고물, 두터운 판재의 사용 및 선체 내부에 격벽을 두지 않은 채 멍에와 가룡목으로 하여금 횡강력재의 구실을 하도록 하는 내부 구조 등이 거론된다. 바람과 사람의 힘에 의존해야 하는 전통시기의 선박 운항에서, 수심이 얕은 한반도 연안의 바다에 적응하여 빠르기에 못지않게 편의와 안전에 한층 비중을 더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데 한국배 특유의 그러한 구조와 배 모양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고려시기에 들어서였다. 그리고 고려시기에 그와 같은 선박을 대량으로 집중 건조한 경험을 가진 고장이 또한 전라도였다. 고려와 원 연합군의 2회에 걸친 일본원정에 소요되는 선박 각 900척씩 모두 1800척 가량을, 부안 변산과 장흥 천관산에서 짧은 기간에 제작해낸 사실을 이름이다. 이례적이라 할 그런 조선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말 왜구 격퇴에 나선 전함을 건조하였고, 나아가 그처럼 축적되어간 지식과 기술이 조선왕조로 이어져, 궁극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전라좌수영에서 제작한 판옥선과 거북선을 앞세워 역사에 길이 빛나는 임진왜란의 승첩을 거두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Ⅵ. 고려시기 전라도 역사를 보는 관점

고려시기의 전라도 역사를 간략히 훑어보았다. 주마간산일망정 단상이 없지는 않은데, 문득 뇌리를 스치는 게 개방이라는 단어이다.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에서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개방적 성향인 것이다. 전통적 왕조사회의 일인만큼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방성 따위와는 적잖은 거리가 있을 터이다. 다만 그런 한계 속에서일망정 타자와 접촉하고 소통·교류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에서, 상대적이나마 당시 전라도 지역사회는 제법 열린 자세로 임했던 듯 여겨진다.

이를테면 나주를 비롯한 서남해역을 중심으로 행해진 활발한 해상활동이라든지, 해룡으로 신격화된 박영규의 존재와 같은 데서 그러한 측면을 찾아볼 수가 있음직하다. 또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포구와 조창의 다수를 품은 가운데, 멀리 해외로까지 이어진 흔적이 전하는 흑산도와 부안 죽막동을 비롯한 여러 유적과 유물들이며, 하나같이 이 고장 해역에서 발견되거나 혹은 출발했음이 확인되는 신안선과 마도선 등 해저에서 건져 올린 옛 선박과 관련 유물들에서도, 그처럼 열린 태도를 느낄 수가 있을 성싶다. 선종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청자가 또한 이른 시기에 전해져 마침내 비색의 상감청자를 빚어내기에 이른 일이며, 나주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개성의 왕건을 맞아들이고, 또 그 나주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축전이라 할 팔관회가 한동안 열렸다든지, 혹은 팔공산 거조사에서 시작된 정혜결사가 집단적으로 이주해 들어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그리하여 보조국사 지눌이 그 품은 뜻을 제대로 펼치기에 이르도록 지역사회가 후원하였던 사실 등도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고려시기의 전라도 역사를 그 개방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게 반드시 그르다고만은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고려시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이룩해간 역사에서, 상대적이나마 그 첫째가는 특징으로 개방성을 꼽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한데 그처럼 개방적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저들이 자신의 정체성마저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통일신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백제계 석탑이 고려시기에 들어 새삼 전라도 일원에 조성되었다. 나주고을은 태조 왕건 내지 혜종과의 연고를 잊지 않은 채 어향임을 내세우며 왕실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였다. 현종이 거란의 침입을 피해 나주로 몽진해오자, 따뜻이 맞아들여 왕조에 밀어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근거지 노릇을 하였다. 백제부흥을 앞세운 이연년의 농민봉기군이라든지 혹은 진도와 제주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에도, 이 고장이 크게 기여하였다. 보수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나름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적잖이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

전라도 지역사회가 그렇다고 정체성에 집착해 배타적이거나 편협한 폐쇄성을 보인 건 더욱 아니었다. 가령 전주와 나주가 전라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권역을 이룬 것부터가 그러하였다. 몽진해온 현종을 맞이할 당시, 전주에서는 나주와 달리 국왕 일행을 위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御鄕 나주와 대비해 逆鄕 전주라 이를 만한 상황의 전개였거니와, 그처럼 매우 상대적인 성향의 두 권역이 하나로 합쳐져 전라도를 구성하였으며, 그것이 고려를 거쳐 조선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른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배타성 대신, 자기와 다른 존재를 용인하며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로 적응해간 결과일 터이다.

전라도가 처음 성립한 것은 현종 9년(1018)이었다고 한다. 『고려사』 지리지에 그렇게 전한다. 여타의 道에 비해 한 세기를 넘기도록 빠른 것이어서 논란이거니와, 이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전라도의 그처럼 때 이른 출현에는 아마도 위와 같은 현종대의 상황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법하다. 전주 일원에 떠도는 불온한 기운을 몸소 경험한 현종이라든지 그 일행의 머리에 문득 떠오른 게 나주였던 듯싶다. 어향을 자부하며 왕조 보위의 최후 거점 역할을 마다지 않던 나주지역을, 그와 대조적인 성향을 보이는 전주지역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통제와 위무를 병행하는 방식에 생각이 미쳤던 듯 보인다. 강남도와 해양도로 나뉘어 파악되던 두 권역을 하나의 전라도로 묶어 다스림으로써,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그처럼 예외적으로 이른 시기에 전라도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던 건 아닌가 헤아려지는 것이다.

『고려사』에 의하면, 당시 나주에 머물다 귀경길에 오른 현종 일행은 전주에서 꼬박 이레를 묵었다고 한다. 전주 지역사회의 동향을 두고 고심한 흔적이 아닐 수 없어 보이거니와, 그리하여 마침내 견제 대상인 전주를 어향인 나주와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통치에 편의를 기하고자, 그처럼 이례적인 조치에 나섰던 듯 여겨진다. 자못 대비되는 성향의 두 고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모색되었으며, 개방적 태도를 보인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음으로써 그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른 셈이다. 전라도가 때 이르게 출현하여 기록에 오르게 된 연유는 대략 그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방적 입장에서 타자를 용인하는 가운데 다양한 존재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하며 더불어 그 융회를 추구하는 경향은, 송광사의 조계종 수선결사와 만덕사의 천태종 백련결사에서 한층 확연히 드러난다. 지눌이 선교조화의 사상을 정립하였으며, 요세도 유사하게 선교일치를 추구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서로 다른 종파 소속임에도 지눌과 요세 및 그 후계자 사이에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화와 융회의 사상을 바탕으로 두 결사가 전라도 남해안 지역에서 공존하며 고려불교를 이끌어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갔던 것이다.

이질적인 성향이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은, 농경문화와 해양문화

가 더불어 발달하였던 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한반도의 어느 지역보다 너른 평야와 긴 해안선 그리고 수많은 도서를 배경으로, 전라도 일원에서는 풍요로운 물산과 함께 海陸의 다양한 삶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였다. 개방적 성향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인정되는 속에 조화로운 공존이 추구되었으며, 그것이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에서 한 특색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여 큰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이다.

개방적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일게 마련이다. 기왕의 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하려면 맹목적인 수구에서 벗어나 조화와 융회를 지향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다. 청자에 은입사의 상감 기법을 적용하며 또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자기와를 제작한다든지,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이룬 돈오점수가 제창되는 등이 그러하였다. 수심이 얕고 간만의 차가 커 조류가 거센 연근해의 특성에 따라, 두터운 판재와 평평한 바닥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배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것도 매한가지였다.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도록 현실에 맞춰 혁신하는 창의성의 발현이다. 운주사의,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형상의 불상과 석탑 및 칠성석이라든지 그 밖의 석조물을 두고, 흔히 얘기하는 바 토속성이라는 것도 그러하다. 지역사회 기층민중의 정서를 창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득권층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왕의 틀을 버리고 수구적 태도에서 벗어나 파격의 혁신적 다양성을 추구한 결과일 터이다.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을 거칠게 단순화해서 두 단어로 압축하자면 개방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다. 조금 더 일반화시켜 표현하자면 자유와 변화이다. 개방은 어느 것에도 묶여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의 표출이며, 혁신은 머물러 고정되지 않는 진취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는, 현실에서 어느 한 순간 어디에도 고여 정체되지 않는 변화로 구현되게 마련이다. 비유하자면 자유를 근본의 바탕으로 하고 변화를 현실에서의 작용으로 하여 개방과 혁신의 역사가 전개된다 할 것이며, 고려시기 전라도의 역사에서 그러한 측면을 읽어내 마땅하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호남학 70 : 69~9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기억의 재응고화와 역사적 외상의 서사적 시멘트

— '오월 광주' 서사의 치유 기전에 관하여 —

Reconsolidation of Memory and Narrative Cement of Historical Trauma

— On the Therapeutic Mechanism of '*May Gwangju*' Narratives —

장 일 구*
Jang, Il-gu

목 차

Ⅰ. 단서들
Ⅱ. 역사적 외상에 관한 서사적 개념 계열
Ⅲ. 재난의 경험과 외상의 인지적 교란
Ⅳ. 사회적 외상의 표제화와 서사적 재응고화
Ⅴ. 기억의 틈새와 서사적 시멘트
Ⅵ. 지평

| Abstract |

The *trauma*, due to the shocking experience, disturbs the circuit of the memory and interferes with normal cognitive performance. It would be problematic that the trauma causes crisis by the maladaptive behaviors in the extreme stress conditions. The prescription and treatment for these syndromes is to recover the experience in a new cognitive schema by rebuilding memories that are solidified in the unconscious low layer in distorted forms. These treatments, corresponding to the reconsolidation of memory, are the effective methods to heal the pathological symptoms due to trauma. The narrative therapy is utilized as a valid strategy for reconsolidation of memory involved PTSD. The title of the cognitive schema

* 전남대학교 교수

involved in '*May Gwangju*' is a meaningful mechanism of resurrection of personal and social trauma that caused by a historical disaster of 5·18.

Key words : Trauma, PTSD, re-consolidation of memory, cognition, cognitive performance, cognitive scheme, narrative therapy, 5·18, May Gwangju

Ⅰ. 단서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생각은 역사를 실체적 개념으로 전제하는 입장에서 비롯한다. 그런데 담론의 표층에 드러나 유통되고 공인되고서야 역사적 사실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도그마에 장악된 역사에 관한 인지 도식이 유효한 값을 유지하는 한, 속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해 담론하지 못하거나 아예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워 의식의 저층에 잠재된 경험이 공론에 부쳐질 여지는 봉쇄된다. 특히 역사의 격동을 일으킨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어져 유포된 인지 도식이 담론의 장에 편재한 터라면, 조작적으로 재구된 역사적 사건에 희생된 이들이 겪은 충격적 경험 자체가 부정되거나 불순한 의도로 왜곡된 거짓이라고 판정당하는 당찮은 상황마저 조성된다.

'역사적 사건' 이면에 가려진 그늘진 자리에서 엄연한 실제 경험이 기억에서조차 소거되는 절체적 상황에 내몰린 '문제적 개인'은 삶의 장에서 크나 큰 위해를 겪는 위기에 처한다. 말이라도 속시원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말이 억압당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는 물론, 말해야 할 경험을 기억에 부칠 수 없는 처지에 대응하기 막막한 상황을 어찌하랴. 가까스로 기억의 표층으로 투사한 경험이라도 일개 개인의 주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정하는 지경에서 어떤 대응 책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실체를 앞세운 역사에 관여된 담론적 실천에 편재한 이념 도식의 하향식(top-down) 작용으로 개인의 경험이 허구에 수렴되는 구조적 모순에 처할 때 개인은 스스로의 잘못 여하와 무관하게

문제적인 분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전근대의 판타지와의 단절을 모색한 새로운 서사 장르종인 소설(novel)은 문제적 개인이 처한 모순적 상황을 화제로 삼아 인간 문제의 다면과 다층을 조망하는 데 유용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소설에서 역사에 관여된 주제를 조명하는 중요한 정향이, 봉인된 개인적 경험의 기억을 돌이켜 의식 표층에 떠오르게 하고 이에 관한 사연을 담론하게 하여 그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었던 것은 의미심장하다. 소설은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의 디테일을 살펴 상향식(bottom-up) 공정으로 담론의 장을 펼치는 유력한 양식이다.[1)]

Ⅱ. 역사적 외상에 관한 서사적 개념 계열

서사는 시간의 공간화 기제이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기억하고, 이를 적절한 이야기 구조로 환원하여 구성하고, 구성된 이야깃거리를 적절한 이야기 양식에 투사하여 담론하는 과정은 공간적 위상 변환 공정에 상응한다. 이러한 공정에서 구심을 이루는 단서는 '기억'에 관한 수행들이다. 기억은 일련의 경험을 흘려 보내지 않고 한데 수렴하여 저장함으로써 의미 연관의 더미를 짓는 인지 작업이다. 일반적인 경험이라면 단기 기억의 더미들을 장기 기억의 회로에 산입하여 장래의 인지 수행에 필요한 개념의 계열을 구성하는 처리 공정에 회부된다. 온전한 처리 공정을 거친 장기 기억의 계열체들은 적절한 조건과

1) 이 글은 외상의 진단과 처치에 관한 서사 요법의 기억 재응고화 기전에 관한 방법적 개념에 착안하여, 사회적 층위로 확산된 외상에 대응하는 소설의 기능을 사회적 인지 차원의 개념 계열로 사상하고자 하는 시론이다. 여기에서는 '오월 광주'를 표제로 진전되는 기억의 재응고화에 관여된 몇몇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전시킬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데, 이는 사삼 제주, 세월호 등으로 표제화되는 사회적 외상에 관여된 역사적 재난에 관한 사례를 논의할 중요한 단서로 이어짐 직하다. 시론 성격상 집중적인 텍스트 해석을 기술하지 못한 한계와 함께 추후 과제가 여럿 남을 여지가 크다.

맥락에 대응하여 인출되어 고차원적 인지적 수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관되지 않았거나 그리하지 못한 경험의 편린들은 잊혀진 채 인지 수행에 관여될 수 없게 된다. 때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예기치 않은 경험이나 충격적인 경험의 편린들은 기억의 회로에서 아예 소거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충격의 정도가 일반적인 인지 수준에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대하거나 그 경험의 고통이 삶의 장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으로써 고통을 심화하는 수순이 진행된 경우라면, 부러 무의식의 심연에 위리(圍籬)함으로써 의식의 표층에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사태가 빚어진다. 기억에 선연하게 각인되어 있되 이를 기억에 쓰이는 개념 계열에 투사하지 않음으로써 극한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지적 방어 기제를 부지불식간 발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가 오롯이 작동하지 못할 때 부적응 행동의 원인이 된다.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Trauma)을 입은 뒤인 까닭이다. 대체로 이니셜 'PTSD'로 회자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주요 병인으로, 역사의 장(章)에 기록된 비극적 사건이나 사태에 휩쓸린 이들의 충격적 경험에 주목한다. 참상의 현장을 직간접 경험한 일련의 시퀀스가 실은 선연히 기억되어 있지만, 외적인 요인의 통제 속에 의식의 강력한 억압 기제로써 무의식의 저층에 숨겨진 채 기억 회로에 인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의식과 무의식 간 역학 구도에 균열이 빚어질 때 기억의 표층에 떠오르며 비상한 정신적 장애를 촉발하는 것이다. 그 병반이 수겹의 의식 지층 아래 감추어져 있어 그 상흔을 찾는 것은 물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처치하기 수월치 않다. 비극의 장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 뿐더러 기억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얘기하기까지 난관이 겹겹인 터이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의 기억에 직면하게 하는 데서 처치의 단서를 얻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좀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억된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다른 대상이나 일에 투사하여 기억을 조작하는 식으로 회피하려는 완강한 책략이 스스로를 방어하게 마련이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의 질서가 헤쳐진 상태가 짐짓 일촉즉

발의 위기감 감도는 경계적 상황일 수 있다.

경험적 사실이 기억의 온전한 공정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시간의 경과를 거쳐 소거되지 못할 경우 인지적 문제가 발생한다. 재난의 현장에서 희생양이 된 이들의 경험이 이러한 문제 상황에 회부될 가능성은 사뭇 크다. 자신의 의지나 역량을 넘어선 모종의 힘이 작용하여 벌어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의식 층위의 회로에서 산술할 수 있는 인지 더미가 아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라야 인지 공정에 수용될 수 있는데 외상에 관여된 더미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반적인 인지 역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다. 마음을 다스릴 적극적인 인지적 대응보다 감당 못할 충격파를 모면하려는 소극적 투사로써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정황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제는 일상에서 무난한 효력을 발생하여 문제 상황을 호도함으로써 당사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비상한 상황에 부딪쳐 의식의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무의식의 저층이 역동하는 경우 투사 작용의 도움은 무색하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써 당사자의 일상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지경에 이른다.

'경험-선이해-해석-지평 확장-선이해-경험'으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순환에 관한 사유는 단순히 관념적인 논리에 그치지 않고 적확한 과학적 거점에 조성된 바탕이 있다.[2] 이에 의하면 경험이 기억에 이관되어 선이해를 위한 텍스트가 구성되어야 사상(事象)을 이해하는 데 소용된다. 그 해석이 세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여 진전된 경험을 위한 선이해의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식으로 인지적 수행의 진전 동력이 발전한다. 그런데 경험을 기억 공정에 온전히 이관하지 못하게 트라우마 기전이 개입함으로써 자신을 에운 생활 세계(Umwelt)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얻지 못한 경우에 인지적 장애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후군에 대한 처방과 처치를 위한 의학적 노력이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억의 자멸 사례가 발견되고 이에 작용하는 기전이 일부 밝혀지

2) Paul B. Armstrong(2013),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The Neuroscience of Reading and Art*, Jones Hopkins UP, 63쪽 참조.

고 있으며 약리적 기전을 적용한 처방과 치료 방법이 진전되고 있는 식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리적 처치의 한계 또한 녹록치 않게 드러나고 있어서, 여전히 정신 분석과 상담 요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전될 여지 또한 커진다. 이때 기억을 담론화하는 체계적 방식으로 으뜸인 문학적 서사가 PTSD에 대한 처방의 기전으로 쓰임 직하며 실로 그러한 시도와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기실 PTSD의 정신 요법(psycho therapy)과 서사 요법(narrative therapy)의 밀착도는 사뭇 크다.[3] 말문 트기를 통한 기억의 '직면'에 초점을 맞춘 요법이 기저를 이루는데, 기억의 '재응고화' 기전에 착안한 극적인 반전의 책략이 서사적 치유의 바탕이다.[4] 특히 문학적 낯설게하기의 전략적 확장이, 직면한 기억을 치유의 동력으로 변환함으로써 인지적 재편에 이관하는 정신 요법에 수렴된다. 무의식의 역동을 예방하는 안전판으로 문학의 기능을 수렴시키는 생각도 이와 맞물려 있다. 불안, 우울, 양극성 장애 등에 대한 처방으로서 문학이 유효한 값을 내는 사례들이 보고되어 있다. 이를테면 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 중에 기억을 재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기억이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재응고화될 수 있다[5]는 식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서사 요법의 의의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서사 요법을 처방할 때 관건은 거리두기를 통해 치유의 가능성을 높이는 텍스트와, 몰입을 통해 상처를 덧나게 하는 텍스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문학은 거리두기를 통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서 최적의 효력이 발휘되는 법, 기억 표층에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잠재의식에 숨긴 아픈 기억을 후비듯 집요하게 파헤치는 이야기 방식은 부작용은 물론 병증 자체를 악화시키는 방식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문학적 낯설게하기의 효과는 기억을 직면하되 심

3) Jeffrey Zimmerman(2018), *Neuro-Narrative Therapy: New Possibilities for Emotion-Filled Conversations* W. W. Norton & Company(Kindle Edition), 3쪽.
4) Jeffrey Zimmerman(2018), 같은 책, 171쪽; Edmund S. Higgins & Mark S. George, 김범생 역(2013), 『신경·정신의학의 뇌과학』, 군자출판사, 217쪽.
5) 히긴스(Higgins) 외(2013), 앞의 책, 218쪽; Zimmerman(2018), 앞의 책, 3쪽 참조.

리적 거리두기를 통한 전략이 치유의 효력을 드높이는 방식으로 적용될 때에 최적화된다. 무의식의 역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서사적 담론의 방식이 요긴할 뿐, 역동한 무의식이 분출되어 마구 뛰놀도록 판을 내놓는 이야기의 난장을 경계할 일이다. 의사나 상담자가 환자나 내담자에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심리 치료 과정에서 가장 유념해야 하는 점이라는 데 상응하게, 서사적 치유를 도모하는 책략이 서사적 거리두기 또는 낯설게하기의 전략적 선상에서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6]

Ⅲ. 재난의 경험과 외상의 인지적 교란

'트라우마(Trauma)'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때때로 무심코 떠올리는 기억으로써 드러나 지독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병반이다.[7] 그 기억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은 심한 정신적 장애(PTSD)를 겪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이를테면 기억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기억의 소거 가능성 사이의 부조화나 단층 양상이 일상의 질서에 상응하는 인지 상태나 행위 양상에서 일탈한 증후를 발현시킨다.

이는 표층의 기억에서는 소거되었지만 잠재의식에 각인된 형태인 만큼 작업 기억(working memory)에서 장기 기억(long-term memory)으로 이관된 형국도 띠는지라, 기억의 일반적인 변환 공정을 벗어난 것이라서 부적응 행동

6) 다만 서사 요법에서 서사는 완결된 형태로 주어진 텍스트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서사적 공정에 관한 개념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그 서사 공정에서 기억을 직면하고 이를 새로운 인지 도식에 사상하여 재응고화하는 절차가 처치의 주요 전기를 이루는데, 이는 문학적 낯설게하기의 방식과 방법적 공분모가 크다. 이에 착안하여 사회적 층위로 확산된 외상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사회적 인지 차원의 요법으로 소설과 같은 텍스트화된 서사 양식의 기능과 위상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방법적 개념의 유비(類比)에 그치지 않는다.

7) Sigmund Freud(1981),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Gesammelte Werke XVI, S. Fischer Verlag, 177쪽.

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잠재되었던 기억이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의식 겉으로 역동할 때에 부적응 행동이나 장애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선한 의지와 무관하게 혹은 정반대로 겪어야 했던 국가 폭력에 의한 재난의 상황이라면 외상의 병반은 깊고 절명적인 상태로 의식의 저변에 도사리게 된다. 우리 현대사의 치명적인 재난인 '5·18'로 입은 '오월의 외상'을 심려(Sorge)해야 하는 까닭이 예 있다.

> 아주 흉헌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 보았지요. 우리들은 오층 옥상에 올라가 있었지요. 두 배나 많은 군인들이 학생들의 뒷덜미를 잡아나꿔채 길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이기고, 그것도 모자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고 총대로 쑤셔댑디다. 우리는 놀래서 그저 입을 딱 벌리고 혼을 빼고 있었지라. 그때야 저는 계엄령이라는 것의 위대함과 절대무비의 권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서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중략) 지요? 지도 겁이 나고 떨려서 그 더위에도 불알이 딱 오그라져붑디다. (채희윤,「어느 오월의 삽화」)

사후에야 '흉한 소문'으로 회자된 일들의 총화가 '5·18'이라는 표지를 구심으로 수렴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정작 군인들의 무차별적 폭력에 난데없이 치명상을 입은 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이를 목도하고서 두려움과 함께 분노를 가득 안은 이들의 경험과 증언으로 구성된 일종의 담론 양태를 띤다. 희생자들에게 공히 자행된 군부의 폭력과 폭압, 그리고 이를 그럴싸한 포장으로 호도한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공통된 억압 기제가 작동함으로써, 절명에 처한 이들 개개인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역에 공포와 고통을 확산시킨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담론적 대응인 것이다. 희생의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러한 사태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런 일을 전해 들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그 재난의 사회적 진폭이 커진다. 소문으로

회자되어 그 담론적 저변이 확장되고 '함께하는 우리들'의 염려가 더해지면서 그 담론적 대응의 힘과 자장은 시대를 넘어서 확장되어 '역사적 재난'의 층위에 위상을 투사한다.

살육의 피해를 직접 당한 처지는 아니라서 그 경험의 피상만이 기억에 투영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이라도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기억으로 하나하나 얘기되어 공동의 담론으로 회자되는 터라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라며 값을 깎을 수는 없다. 공동의 담론에 부쳐진 기억의 가치는 충격적 경험이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들로 구성된 공동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 직접 겪지 않은 이들이라도 공동의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야기한 실제 가해자들은 물론 그들이 구축한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담론적 전략과 실천 전술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동의 전선에 함께하도록 이끌어 가치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공개적인 담론의 장이 억압된 상황인 만큼 저층의 담론장에서 유통하는 '소문'을 공유하며 상황을 직시하고 연대의 계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소설과 같은 서사적 담론은 사실의 기록만으로 들출 수 없는 이면의 진실이 드러날 틈을 틔울 수 있다. 완강하게 버티고 선 역사라는 장벽에 균열을 가할 동력이, 에둘러 발화하거나 너스레 떨듯 하는 말들이나 아예 우스갯소리 더하여 냉소하듯 던지는 말들 가운데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담론장의 저층에 매장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들을 발굴하여 역사적 재난에 휩쓸린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일을 서사적 담론의 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동력에 힘입는다. 다음을 더 보자.

> 상처입은 뇌 속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낮은 비명 소리가 때로는 주파수가 맞지 않은 라디오의 잡음처럼 거칠고 조악한 소리로 변하기도 했다. (정찬, 「완전한 영혼」)

손상당한 뇌는 감각 기관으로 인입된 데이터를 온전한 인지 공정에 이관하지 못한다. 감각 정보의 경로인 신경 회로가 차단되어 아예 정보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잘못된 회로에 산입되어 엉뚱한 값을 산출할 공산이 크다. 경험적 사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기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나 왜곡된 형태로 인지 도식의 계열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잘못된 기억 정보가 인지 도식의 한 셀(cell)을 장악한 경우 인지 수행상 사뭇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외상으로써 각인된 기억 정보가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는 원리가 이러하다. 저처럼 소리 감각의 잘못된 인지로 고통당하는 이에게 물리적 상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소리 정보를 온전히 지각하지 못하게 되기까지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아우성에 몸부림친 경험이 연관되어 있다. 5·18의 중심 장소인 도청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그 고통의 소리를 회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소리의 죽음'이 죽음보다 두려웠다는 것이다. '의사의 말'마따나 '소리의 인지 기관인 달팽이관'이 손상되어 청력을 잃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감각 기관 자체의 손상보다는 인지 도식의 계열을 교란한 외상의 작동 탓이 크다.

'5월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는 '괴로운 소리'는 저 사연의 주인공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표지이다. 외견상 세상에 대한 증오를 거두고 초탈한 듯한 모습으로 비쳐져 '꿈을 꾸는 자의 모습'을 보인 것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투사 작용에 상응한다. '무엇인가가 허물어지는 소리, 혹은 생명이 파괴되는 잔인한 소리들'에 둘러싸인 채 5월이 아닌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는 충분히 고통받고 있던 것이다.

> "그날도 괴로운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몸을 꼿꼿이 세우며…… 그것을 견뎌야 했는데…… 이를 악물고 견뎌야 했는데, 소리를 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찬, 「완전한 영혼」)

그는 극심한 '소리'의 고통을 견디고 삶의 자리를 교란하는 스트레스를 이겨

내며 살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촉발하여 비상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불안한 시간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역사적 재난의 현장에서 죽어 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뒤로한 채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으니 부적응 행동이 촉발될 가능성에 늘 노출되어 있다. 그 외상이 인지 도식의 계열을 교란할 경우 의식의 저층에 가둬진 '괴로운 소리'가 역동하여 정작 실제 세상의 소리를 지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외상은 비단 몸과 분리된 정신의 영역에 관여된 것이 아니다. 뇌신경의 작용은 몸과 마음의 이원화를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 고통받는 이의 외상은 굳이 말하자면 정신과 육체 모두를 옭아매고 있다. 결국 그는 달려드는 트럭의 경적 소리에 아랑곳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외상이 뇌신경의 온전한 작동을 교란하여 그를 죽음에 내몬 것이다.

이처럼 역사적 재난으로 인한 외상은 인지 수행의 교란을 야기하며 삶의 장을 강력하게 위협한다. 재난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이들이 겪는 아픔은 예상치를 훨씬 초과한다. 그 외상의 기억은 인지 도식의 계열에 침투하여 셀을 차지하고서 그 기억에 연관된 사상(事象)에 직면할 때 다른 인지 도식의 온전한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로마저 장악한다. 충격적 경험이 왜곡된 형태의 기억으로 '응고화'된 까닭에 그 장악력은 압도적이다.

> 척 둘로 접혀지던 엄마 몸에 순식간에 구멍들이…… 사람 몸에 그렇게 빨리 구멍이 나고……그리고는 모든 게 끝이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엄마라고 했나. 우리 엄마. 구멍 나버린 엄마. (중략) 우리는 왜 거기 있었을까. 엄마. 허수아비처럼 휘둘려 채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헉하고 고꾸라지던 엄마.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경험은 '구멍'으로 도식화된 기억으로 응고화된 터다. 그 기억이 저 가련한 소녀의 뇌신경 회로를 장악한 채 제 몸을 난자하는 발작을 촉발한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서야 자해 행동을 그칠 정도로, 외상으로

야기된 병증의 정도는 심각하다. 어릴 적 겪었던 일이라고 해서 지각 범위가 어린이의 기억에 고정되어 있기에 상황의 전모를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경험이 인상적인 형상에 집약된 기억으로 응고화된 정황이 그만큼 선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참극의 때와 장소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외상의 연원이 5·18에 관여된 현장임을 알아채기 어렵지 않게 이야기되어 있다. 잔혹한 살육의 현장이 어린 아이의 의식 아래 무의식의 저층에 응어리진 기억으로 잠재해 있다가 어떤 계기에 촉발되어 의식 겉으로 역동해서 당사자 스스로를 해쳐 외상의 상흔을 육화하는 셈이다. 일견 저처럼 발작이나 심신증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한낱 악몽이라 치부하고 고통을 짊어지고 자책을 이어가며 끝내 병반을 키워 더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 내가 조금 더 빨리 뛰어나왔다면. 나를 휘어잡는 팔을 빼내는 데 걸린 시간이 없었다면……모든 일이 바뀔 수 있었을까. 엄마가 시장 골목의 어두컴컴한 통로에 나를 밀어넣고는 말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꼼짝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밤에 찾으로 올게. 나는 엄마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골목을 뛰쳐나왔어. (최윤,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라면 지워 버릴 심산을 할 수 있으련만, '엄마의 죽음'을 '구멍'에 사상(mapping)하여 지은 개념 도식이 인출되어 인지 회로에 대입되는 한, 외상의 기억은 더욱 공고히 응고될 수밖에 없다. 흔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깊이 기억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상황이 기억의 응고화에 상응한다. 그 완고한 기억의 작용이 자책을 촉발하여 인지 수행을 교란함으로써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스스로를 단죄하는 부조리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 상황은 이러한 일이 한두 사람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 층위의 외상으로 확산될 소지를 파생시킨다.

Ⅳ. 사회적 외상의 표제화와 서사적 재응고화

외상은 개인의 충격적 경험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적 공황을 부르는 재난의 집단적 경험에서 비롯하기도 한다.[8]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의 교란을 유발하여 공동체의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외상은 개인적 외상의 총화를 넘어서는 위기 상황을 조장할 우려가 큰 위력을 안는다. 80년 5월의 광주는 누구 할 것 없이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간이자 장소이다. 무자비한 군부 세력이 국가를 통치할 권력을 얻기 위한 도정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굳건히 할 명분과 추동력을 얻는 거점 표적으로 무단히 선택한 시간과 장소였다.

그때 거기 유폐된 채 군부의 총칼에 부상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이들은 물론 숨죽이던 이들 모두에게 '오월 광주'는 집단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기억으로 응고화되었음을 알리는 표지와도 같다. 직접 폭력을 겪을 때의 공포 못지않게, 친지나 이웃들이 목전에서 난자당하거나 난사당해 죽어 가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오는 충격과 자책이 외상의 기억을 촉진한다. 일순에 한 도시 전체가 두려움 가득한 장으로 돌변하고 유린되었다면 그 시민들이 겪은 직간접적 경험이 공동의 경험으로 변환될 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은 외상은 사회적 차원으로 구성된 외상으로 비약할 수밖에 없다.

> 아주 흉헌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직접 보았지요. 우리들은 오층 옥상에 올라가 있었지요. 두 배나 많은 군인들이 학생들의 뒷덜미를 잡아나꿔채 길에 넘어뜨리더니 발로 짓이기고, 그것도 모자라 개머리판으로 내리치고 총대로 쑤셔댑디다. 우리는 놀래서 그저 입을 딱 벌리고 혼을 빼고 있었지라. 그때야 저는 계엄령이라는 것의 위대함과 절대무비의 권력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서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얼굴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죽게 얻어맞고 쭉 뻗

8) Kai Erikson(1995), 'Notes on Trauma and Community', Cathy Caruty (ed.),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185쪽 참조.

> 은 학생들은 맺음줄로 묶여 도청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양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서 밀랍으로 변하더니 그 자리에서 휘청거립디다. 우리는 조심수럽게 양선생을 데리고 내려왔지요. 민 기사는 당장 나가서 저런 놈들은 죽여뿌러야 한다고 흥분해서 소리치고, 어떤 환자는 광주 사람을 다 죽일라고 공수 부대를 투입했다는디 정말이구먼 하고 벌벌 떨고 간호사들은 그들대로 떠들고 아예 병원이 냉장고가 되불더라고요. (채희윤, 「어느 오월의 삽화」)

흉한 '소문'은 무자비한 살육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의 충격적 경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면서 구성된 담론 양식이다. 비상한 상황이 펼쳐지는 현장의 주변에는 늘 소문이 먼저 퍼진다. 그 소문은 무단히 떠도는 풍문이나 날조된 유언비어처럼 무시당하기 십상이지만, 그 담론 패턴의 성격상 쉬쉬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에서 말문을 트는 불가피한 담론적 위장 책략이다. 사실을 과장하여 유포된 듯 보이는 것은 무자비한 만행을 목도한 충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적층된 양태로 응축된 까닭이다. 공황 상태에서 수용한 영상 정보는 배경의 디테일이 제외된 채 충격을 가한 전경만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실상(actual pictures)에 비해 실재적인 이미지(real image)이다.

사실의 디테일이 응축된 실재화된 이미지로 구성된 만큼 소문은 파급력이 크다. 소문을 반신반의하면서 실상을 목격하는 경우라면 충격의 강도가 더해지는 것은 물론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직면할 상황을 염려하며 공황 상태에 빠질 공산이 커진다.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 차원의 문제 상황으로 비약하는 계기가 생긴다. '광주 사람 다 죽이려 한다.'는 말은 날조된 유언비어가 아니라 사회적 층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 상황을 의식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는 담론 표지이다.

> 그 때는 전쟁이 따로 읍지요. 총소리가 들리고 대검이 번뜩이고 피가 거리에 넘치고 시민들을 적군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이 어찌 소란이라고만 하겠습디여.

바로 선전포고하고 직접 붙은 전쟁이지라. 광주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지라. (채희윤, 「어느 오월의 삽화」)

사회적 층위에서 공유된 문제의식은 연대 의식으로 이어지고 힘을 모아 불의에 항거하는 계기를 구성한다. 자신도 희생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 속에서 위험을 모면하려 현장을 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채 자기만 살아남아서 마음에 한가득 고통스런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염려가 더해지면서 연대의 의지를 키우며 저항의 전선에 나서는 이들이 늘어 간 것이다. '광주 사람들'이 항거에 나선 저력이 이러한 선한 마음의 힘에 바탕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고 너와 나가 어우러진 '우리'의 마음을 응축한 연대와 저항의 시공으로 '오월 광주'의 개념 도식을 변환한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금남로와 소방서 쪽에서 군중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다. 순분은 군중들과 섞이어 꼼짝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쓰라린 눈을 가까스로 떴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룩무늬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날뛰고 있었다. (나중에 그들이 공수특전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공수특전단들은 무조건 곤봉을 휘둘렀다. 머리고 가슴이고 닥치는 대로 내질렀다. 그들과 맞닿아 있던 군중들이 순식간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손은 뻗치는 사람에게 가차없이 대검으로 배를 쑤셨다.…(중략)…공수특전단은 한 속에 청년의 팔을 잡은 채로 대검으로 노인을 내리쳤다. 노인은 피를 뒤집어쓰며 고꾸라졌다. 거리에는 일시에 살기가 맴돌았다.

정신이 들면서 그녀가 느낀 것은 살아 있는 것이 몹시 무섭다는 것였다.…(중략)…차라리 그 때 죽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생생한 비명소리와 칼부림과 찢겨진 시체더미. 그런 기억을 갖고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명 한줌 움켜쥐고 그녀는 이를 악문 채 일어섰다. (홍희담, 「깃발」)

> 비가 그치자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열두시 무렵에는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어제가 백명이나 천명 단위였다면 오늘은 천명이나 만명 단위였고 표정들도 어제와는 달랐다. 멀찍이 구경하며 쭈뼛거리던 공포는 사라지고 눈에 살기가 돌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거의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연탄집게나 낫을 든 젊은이도 있고, 큼직한 쇠스랑을 둘러멘 사람도 있었다. (송기숙, 『오월의 미소』)

잔혹한 살육의 현장을 장악한 살기 속에서 죽는 것보다 살아 있는 것이 더 두렵다는 극한의 공포에 짓눌린 터라면 살아남으려는 마음을 놓아 버릴 법하다. 그러나 '그녀'처럼 오월 광주의 사람들은 '이를 악문 채 일어섰던' 것이다. 이미 외상으로 남을 '기억'을 안고 어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하면서도 분연히 일어서는 의지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힘을 모아 위기를 넘어설 수 있으리라는 연대의 의지로 확장된다. 오월 광주에서 실로 그러했으며 그 디테일을 응축하여 전하는 서사적 담론의 면면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9]

이렇듯 마음을 모아 연대하고 항거에 나서는 의지는 모종의 이념적 결단에 의한 의지보다 더한 저력을 응축한다. 오월 광주 민중의 항거는 지극히 자연발생적 행위이다. 그들이 무기 삼아 들고 나온 일상적인 용구들은 이러한 정황에 대한 표상이다. '처참한 장면'의 기억으로 야기된 공황 상태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연대와 저항의 동력이 발전한 것이다. '우리 형제와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외상으로 남지 않게끔 자기 방어의 기제를 스스로들 발동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살육의 현장에 대한 경험이 외상의 기억으로 응고되어 더 큰 사회적 공황 상태로 악화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연대와 항거의 시공으로 '오월 광주'의 개념 도식으로 변환함으로써, 인지 수행의 교란을 최선으로 막은 덕이 크다. '북괴 간첩이 조종한 폭도들의 폭동'으로 야기된 '광주 사태'를 공수 특전단을 앞세운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써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는 국가 권력의 공식적 개념 도식에 온당히 대항할 개념 도식을 세운 것이다. '오월 광주'는 삶의 자리를

9) 이에 밀착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글에 이어질 과제이다.

유린한 군부의 난동에 맞서 분연히 항거한 민중 항쟁이요 민주화 운동의 정수이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응축한 개념 도식의 계열을 구성함으로써, 충격적 경험이 외상을 유발할 기억으로 응고되지 않고 삶의 진전을 이룰 인지 수행의 개념 도식으로 쓰여, 역사적 재난의 외상을 치유할 기억으로 '재응고화'할 여지가 구성된 것이다.

Ⅴ. 기억의 틈새와 서사적 시멘트

인지는 세계와 나, 곧 대상과 주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성찰이다. 나는 세계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인간의 의식에 관여된 지각적 수행은 물론 몸을 움직이는 운동 수행 전역에 걸쳐 인지 활동이 간여한다. 현상의 외연과 그 내재적 의미·가치 등에 대한 판단에, 인지적 선택을 경유한 개념적 변환을 통한 수용 과정이 관여한다. 대상에서 뇌신경으로 인입되는 상향식 공정과 뇌신경에서 운동 신경을 거쳐 단말의 운동 기관의 행동으로 산출되는 하향식 공정은, 직렬적 수순에 의한 위계적 절차에 따라 별개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렬적·동시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억으로 구성된 개념 도식이다. 기억에 관여된 인지 회로에 회부되지 않은 사실은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피상에 불과하다. 모든 사실은 의미나 가치를 가늠하는 인지 더미일 때만 유효하다.

인지는 구성적 특징이 선연한 현상이다. 인지 회로와 공정은 대상 세계의 데이터와 이를 부호로 분절하여 처리하는 뇌신경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병렬 처리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가령 시지각은 별스러운 의식 작용 없이 수용되는 직관적인 감각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인지 과학적 판정은 시지각이 해석의 소산이라는 점, 외부 세계의 자질이 아니라 뇌의 자질(property)에 상응하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구성적 개념으로 전제하고서 이에 관여된 현상을 응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나 운동 기관을 통해서 수용되는 모든 외부 자극과 대상에 대한 반응과 판단과 활동에 대해서 공히 적용된다.[10]

그런데 이러한 몸의 기관들과 뇌신경 사이 상호작용의 양상이 균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균열의 힘이 가해질 때 인지적 부적응 상태가 초래된다. 충격적 경험으로 입은 외상이 지각이나 의식의 회로를 흐트러뜨려 오작동하게 하거나 아예 뇌신경의 온전한 작용 방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식이다. 경험적 사실을 기억에 이관하여 개념적으로 계열화함으로써 병렬 처리 공정에 기반한 인지적 수행을 수월하게 하는 바탕을 다지고 넓혀야 옳은데, 기억에 균열이 생겨 비상한 인지적 부적응 지경이 조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균열로 생긴 기억의 틈새를 메우는 시멘트로 쓸 수 있는 재료와 메우는 데 쓸 도구, 그리고 섬세하게 메울 기술과 함께 잘 양생하여 기억을 온전히 굳히는 세심한 배려와 인내가 요구된다.

충격적 경험이 외상의 기억으로 굳어져 의식 아래 무의식의 저층에 감추어진 것을 들추는 과정에 이어 경험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책과 분노 따위의 그릇된 판단을 바로잡은 후에 기억의 재응고화를 통해 새로 구성한 마음의 공간(mind space)으로, 외상 후 겪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 자기 경험에 국한된 닫힌 장소에 유폐된 자신의 기억을 구하여, 역사적 재난의 문제 상황에 처하였던 공동체의 기억에 사상함으로써 이해의 지평을 넓힌 인지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구성하여 외상의 기억을 딛고 마음의 온전한 위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진단과 처방의 기전으로 서사 요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주 특수한 경우는 아니다. 서사는 말문을 터서 사연을 풀어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 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최적화된 담론 양식이다.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이야기 나눔으로써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갈등 관계에서 혹시 생겼을 마음의 상처를 봉합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서사적 수행의 미덕 가

10) Armstrong(2013), 앞의 책, 62~63쪽 참조.

운데 으뜸이다. 서사는 마음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요법인데, 소설은 이를 총체화하여 제안하는 담론 양태이다. 다음을 보자.

> 어쨌거나 고맙소이. 남의 아픈 속을 귀담아 들어 볼란다고 찾아와 주는 성의가 얼마나 갸륵하냔 말이시. 솔직히, 그 동안 팔 년이 넘도록 이렇게 나한테까장 직접 찾아와가꼬 우리집 사정 얘기를 들어 볼란다고 졸라보기라도 했던 사람은 시방까장 아무도 없었응께.
>
> 아이고오, 그런 말은 허도 마시오. 지금 이 때까장 누구한티 하소연 한번 팔자타령 한번 마음 놓고 못 해보고, 그저 가슴 속에다 돌뎅이 맨키로 꾹꾹 묻어둔 채로 죽은디끼 지내온 이 내 속사정을 누가 다 알아줄랍디까이. 참말로 그 생각만 허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질라고해서 돌아보기조차 싫소만은…흐유우…… (임철우, 「어떤 넋두리」)

입밖으로 꺼내 말하기 저어하거나 아예 말할래야 말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서 경험은 왜곡된 기억으로 응고된다. 외상으로 인한 증후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포와 분노에 치떨리는 경험을 떠올려 기억하는 것 자체가 수월치 않은 일이겠지만 이를 마음에 묻어 두고서 아무렇지 않은 듯 스스로를 위장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르는 법이다. 흔히들 '화병'에 걸린다고 하지만 외상을 입힌 굳은 기억을 돌이켜 진상을 직면하고 이야기함으로써만 병을 다스릴 길이 열린다. 응어리진 마음을 넋두리로써 풀어 왔다는 것은 이를테면 외상으로 파생된 병증을 치료하는 진단과 처방에 근사하다.

위 인용 대목에서, 막 마음을 트기 시작한 이의 얘기에서 외상의 기억으로 굳어질 수 있는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확인할 수 있다. 일견 병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식으로 마음을 더는 다치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의 기제를 발동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상의 병반이 온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막 말문을 터서 시작한 '팔자 타령'에 드러나 있다. 말문을 트기까지도 보

통 힘든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얘기되고 있다. 여하튼 저처럼 마음을 터서 이야기하기 시작함으로써 상처를 처치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종내 당사자 스스로 입을 열어야 외상의 연원이 된 경험에 거리를 두고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이고 이로써만 처방과 처치를 통한 치유와 재활의 과정에 접어들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회복의 관건은 같은 경험이라도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하는 인지 도식의 계열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달려 있다. 인지적 전환에 상응하는 기억의 재응고화를 통해서만 회복의 공정이 온전히 구동될 수 있는 것이다. 소설은 서사 장르종 가운데서도 최적의 서사 요법에 쓰일 만한 진전된 형태의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넋두리와 같은 구술 서사의 제한된 효력을 넘어선다.

임철우는 80년 5월의 광주라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사연의 제약을 넘어서서 '오월 광주'의 서사 공간을 구성하는 데 공이 가장 크다. 알레고리의 외연을 입혔지만 오월 광주의 이야기를 공적 담론의 장에 부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80년대의 정치적 상황과 암울한 담론장의 환경을 고려하자면 에둘러 우의적 형상으로 오월 광주를 이야기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단편 소설 「봄날」도 크게 벗어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다섯 권짜리 장편 소설 『봄날』은 그 외연이 크게 달라서 임철우의 소설에 익숙한 이들을 적잖이 당혹스럽게 한다. '이 소설에 관한 한 최대한 사실성에 의지'하여 서술한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며 그 디테일 또한 그 전제에 걸맞게 전개되고 있는 탓이 크다.

『봄날』은 여러 인물들이 겪은 이야기 편린들이 얽히고설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소설의 구성 하면 떠올릴 완결된 구조(플롯plot)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 5월 16일 새벽, 산수동 오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5월 27일 아침 7시 30분, 도청 앞 광장'에 이르러 대단원되기까지 시간의 궤적을 따르며 광주 곳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큐멘터리에 근사할 만큼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전한다. 다큐멘터리 재료라도 서사적 변환을 거치면서 허구적 요소가 개재될 수밖에 없으며 임철우 스타일이라 할 만한 서사 전략의 자장이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기조는 오월 광주 현장의 디테일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서사적 기조는 고통스러워서 떠올리기 쉽지 않은 외상의 연원을 들추는 전략적 바탕이 될 만하다. 외상을 유발한 사건의 진상과 함께 경험자의 지각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을 지음으로써 외상을 진단하고 처치할 바탕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을 엮어 이야기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은 외상을 사회적 층위의 외상으로 비약시키고, 이를 유발한 사건들을 역사적 재난의 층위에서 총화할 문제 상황으로 변환할 개념 도식을 서사적 차원들로써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정향으로 진전될 기억의 재응고화를 통해, 인지 회로를 교란하는 인자를 소거하고 인지 도식의 계열을 재구성하여 인지 수행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일을 서사를 매개로 하여 상당히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연원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에 고착시켜 기억의 재응고화를 가로막거나 그 지향을 퇴행 방향으로 오도하여 외상의 환부를 후벼 상처를 덧나게 하는 반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외상의 치유를 모색하는 데 나서기는커녕 되려 외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상황을 심화하고 정신증적 증후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전락시키는 계략을 구사하는 이데올로기적 반동 세력의 책동을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로서 반치유적 기제이다. 자신들의 죄과를 덮기 위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며 역사적 재난의 외상으로 인한 강박을 사회적 층위에서 굳히는 이데올로그들의 교묘한 담론적 실천을 해체하여 불순한 의도를 폭로하는 담론 분석 수행을 일상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 좋다. 억지로든 자유롭든 간에 대립적 구도를 전제로 진행되는 토론 프로그램과 같은 경직된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쟁투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상황을 온전히 해체하여 진전된 담론을 생산하기 수월치 않게 만든다. 가치 중립을 전제로 진행되는 객관적 공론장의 한계는 여실하다. 가치의 중립은 수구 이데올로기와 기득권 세력의 편을 옹호하는 입장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동의 담론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재난의 희생양이 된 이들의 외상 환부를 살펴 세심하고 지난한 처치를 지속하여 기억의 균열로 야기된 마음의 단층을 적절한 시멘트로 메우고 잘 양생하여 마음을 회복하도록 돕는 편에 우선 서야 한다. 그들의 말문이 트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뒤라야, 난데없는 역사적 재난을 겪고서 삶의 전역이 헤쳐진 지난 생애를 보상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도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소설과 같은 서사적 담론의 전략적 바탕이 긴요하다.

80년 5월의 광주는 외상의 시간과 장소이다. 그리고 '오월 광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때 거기만 아니라 군부 독재의 통치가 이어지던 이후의 때와 광주를 넘어선 전역으로 확산된다. 80년대 민주화 도정의 여러 구심에서 국가 폭력과 독재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개념 도식으로 '오월 광주'가 표제화된다. '오월 광주'는 시간의 한정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시공의 차원이 부가된 도식이다. 이 도식은 5·18에 관여된 현상을 응축한 표지이자 그 재난으로 외상을 입은 이들의 기억을 재응고화하여 치유의 전기를 마련하고 온전한 인지 수행의 정향을 돕는 기전이다. 표제와 명명의 담론적 효력은 인지 수행에 미치는 바 사뭇 크다. '오월 광주'에 관여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중 항쟁, 오월 항쟁' 등과 같은 기억의 재응고화 표지는 그 역사적 재난의 참상을 이해하는 이들 사이 연대의 계기로 작용하여 재난의 희생자들이 분편화에서 공동화로 이행하게 되는 전환의 계기이다. 역사적 재난에 대응하는 인지적 전환의 주요 전략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인지적 전환에 관여된 움직임에 반동하는 이데올로그들의 음모와 책동을 경계해야 한다. 기억의 재응고화를 왜곡된 방향으로 돌림으로써 이데올로기의 저의를 공고히 유지하려는 담론적 적폐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은밀하면서도 무척 정밀하다. 가해자 자신들 혹은 가해자 편에서 호가호위하는 이들이 '광주 사태, 광주 소요, 광주 폭동' 등과 같은 표지를 앞세워, 희생자들의 기억을 재난의 현장에 고착시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예 잊게 하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절명하도록 유도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는다. 5·18에 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표지를 납득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으려는 심산을 하지만, 인지 수행의 진행을 교란하는 소음(noise)이라도 기억에 관여된 신경 기관의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 이 흔적이 부지불식간에 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작용을 하는 경우를 염

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권력을 찬탈하려 일으킨 재난의 참상을 사회적 층위의 기억에서 소거하는 저러한 반동 표지에 생각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셈이다.

그래서 기억의 재응고화 공정을 교란하는 이데올로기적 저의를 해체하여야 하는 요구에 서사적 수행이 적극 화답해야 이유가 더 분명해진다. 역사적 재난이 빚은 상황에 대한 퇴행적 환원주의(reductionism)는 물론 소극적인 대처로 담론의 부정항을 유포하는 담론적 실천들을 예의 주시하고 분석적 대응을 할 책무가 언어의 관리자 격인 문학적 서사에 부과된다. 역사라는 거대 서사(grand narrative)를 앞세워 일상적 삶의 자리를 유린한 국가 폭력이 야기한 재난이 부른 개인적·사회적 외상에 대한 적극적 분석과 대응을 통해 소설과 같은 미시적 서사의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진전시킬 여지가 크다. 삶의 문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그 마음을 돌보아, 퇴행과 부적응의 위기에 놓인 이들의 인지적 전환을 도모하는 데 힘쓰는 서사의 담론 전략이 긴요하다. 기억 재응고화 공정의 구심을 이루는 서사적 수행의 소통 방식에 각별히 관심하는 것은 이러한 정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사실이 채운 억압의 자물쇠를 푸는 자유의 열쇠는 소설과 같은 미시적 서사이다. 역사적 재난으로 생긴 균열을 문학이 섬세한 기술로 메우고 세심한 배려로 양생한다. 외상으로 생긴 인지적 틈새를 메우는 서사적 시멘트는 문학적 미장과 양생의 중요한 재료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지만 사실의 경험이 남긴 외상의 환부를 봉합하는 서사적 시멘트가 역사적 재난의 담론적 재구성을 통해 약리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험과 기억의 분열된 틈새를 메우는 서사적 처치가 인지적 재활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

Ⅵ. 지평

5·18은 어찌 보면 '사태'이다. 적군도 아니고 국민을 지키고 보호할 우리 군

인에게, 그도 최정예 공수 특전단원들에게 무고한 시민들이 폭도로 내몰리며 무참히 죽어 갔으니 크나 큰 사태일 수밖에 없다. 가족과 친지와 동료와 이웃이 군대의 진압 작전에 무자비하게 희생되는 상황을 경험하는 이들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감에 떨며 살아남은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외상을 입은 채 살아야 하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이렇듯 희생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 이는 공동체의 안정을 유린한 심각한 사태요 재난이다. 이 역사적 재난으로 입은 외상을 치료하고 부적응 상태를 회복시킬 처방은 말문을 트고 기억을 온전한 인지 회로로 돌려 직면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재활을 돕는 것이다.

치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진단과 처방, 그리고 처치는 의사나 상담자가 진행하며 환자나 내담자는 그 상대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치유의 주체는 자기이다. 특히 마음의 상처를 안은 증후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처방에 대한 응답은 자기로부터 나와서 자기로 귀결되는 구도에 부쳐진다. 테라피스트의 조력에 힘입지만 종내 치유의 진전 과정에서 자기 문제 해결에 부쳐지는 치유의 귀속성에 유의해야 한다. 병반을 야기한 기억을 들추어 직면하고 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기억을 재응고화하는 공정에서 상흔을 봉합하고 새살을 돋게 하듯이 기억의 부정항을 긍정항으로 치환하는 절차를 진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이해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대상화하는 서사적 수행의 자기 치유적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이해·해석은 기대 지평에 다다르는 것으로 기대를 충족하고서 기대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단서가 촉발되고 치유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발생하는 인지적 창발의 힘이 서사적 수행의 원동력이라면, 기억의 발견과 기억으로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전되는 자기 이해와 치유의 인지적 공정이 서사에 연결된다는 것은 짐짓 동어 반복일지도 모른다. 마음의 치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서사의 인지 공정에 주목할 여지는 드넓다. 사회적 인지 차원에서 진전될 서사 요법에서 소설과 같은 서사 장르종의 쓰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다분한 것이다.

참고문헌

바아스, B. J. 외, 강봉균 역(2010),『인지, 뇌, 의식』, 교보문고.

앤더슨, 존 로버트, 이영애 역(2011),『인지심리학과 그 응용』, 이화여대출판부.

Edmund S. Higgins & Mark S. George, 김범생 역(2013),『신경·정신의학의 뇌과학』, 군자출판사.

Armstrong, Paul B.(2013), *How Literature Plays with the Brain; The Neuroscience of Reading and Art*, Jones Hopkins UP.

Bermúdez, José Luis(2014), *Cognitive Science: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the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Caruty, Cathy (ed.)(1995), *Trauma: Explorations in Memory*, Johns Hopkins UP.

Eagleman, David(2015), *The Brain: The Story of You*, Vintage (Kindle edition).

Fauconnier, Gilles & Turner, Mark(2002), *The Way We Think*, Basic Books.

Fiske, Susan T.(2020), *Social Cognition: From brains to culture* (4th ed.), SAGE Publications Ltd (Kindle edition).

Freud, Sigmund(1981), *Der Mann Moses und die monotheistische Religion*, Gesammelte Werke XVI, S. Fischer Verlag.

Herman, David (ed.)(2003), *Narrative Theory and the Cognitive Sciences*, CSLI.

Herman, David(2013), *Storytelling and the Sciences of Mind*, The MIT Press.

Hogan, Patrick Colm(2003), *Cognitive Science, Literature, and the Arts*, Routledge.

Holland, Norman N.(2009), *Literature and the Brain*, The PsyArt Foundation.

Resick, Patricia A.(2016),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for PTSD: A Comprehensive Manual*, The Guilford Press (Kindle edition).

Uttal, William R.(2011), *Mind and Brain*, The MIT Press.

Varela, Francisco J.(2017),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e MIT Press (Kindle edition).

Zimmerman, Jeffrey(2018), *Neuro-Narrative Therapy: New Possibilities for Emotion-Filled Conversations*, W. W. Norton & Company (Kindle edition).

투고일자: 2021. 11. 15. **심사일자:** 2021. 11. 29.~2021. 12. 16. **게재확정일자:** 2021. 12. 16.

| 국문초록 |

기억의 재응고화와 역사적 외상의 서사적 시멘트

— ‘오월 광주’ 서사의 치유 기전에 관하여 —

충격적 경험으로 인한 외상은 기억의 회로를 교란하여 온전한 인지 수행을 방해한다. 외상 후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여 심각한 위기를 조장하여 문제다. 이러한 증후군에 대한 처방과 처치는 왜곡된 형태로 무의식 저층에 응고된 기억을 들추어 그 진면을 직면하게 하여 새로운 인지 도식으로써 경험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기억의 재응고화에 상응하는 이러한 처치를 통해 외상으로 인한 병적 증후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주요 기전에 서사 요법이 활용된다. ‘오월 광주’에 관여된 인지 도식의 표제화는 5·18이라는 역사적 재난으로 야기된 개인적·사회적 외상의 기억을 재응고화하는 의미심장한 기전이다.

주제어 : 외상,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억의 재응고화, 인지 수행, 인지 도식, 서사 요법, 5·18, 오월 광주, 광주 민중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호남학 70 : 95~11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분석

Analysis of the Civil Court Records of Yeonggwang-gun in 1715 Kept by the Kang Hang Head Family of the Jinju Kang Clan of Yeonggwang

조 광 현*
Jo, Kwang-hyun

목 차

Ⅰ. 머리말
Ⅱ. 결송입안 작성 배경과 구성
Ⅲ. 결송입안의 내용 분석
Ⅳ. 영광군수의 판결과 그 의미
Ⅴ.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dispute regarding the property inheritance of the Kang Hang head family of the Jinju Kang clan, which presided over Yeonggwang, Jeollanam-do Province, for a long period through the civil court records of Yeonggwang-gun in 1715. These records are documents safeguarded by the Kang Hang head family, and while these records have been in great storage condition and are considered to hold high value as historical materials, they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to academia. Therefore,I have endeavoured to introduce the civil court records owned by the Kang Hang head family and analyze them in a philological manner.

Members of the Kang Hang head family were kidnapped and brought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7. The descendants of Kang Hang,

* 한국학호남진흥원 연구위원

who returned from Japan, resided for a long period in Bulgap-ri, Yeonggwang-gun. In the early 18th century, Kang Donggye, who is a direct descendant of Kang Hang, filed a lawsuit against the Naju Oh clan regarding the family property of Na Junseo, a pupil and a relative of Kang Hang by marriage. The Jinju Kang and Naju Oh clans inherited this property as grandchildren of the Na Junseo family of the Geumseong Na clan, and the lawsuit sought to recover a portion of the property taken away by the Naju Oh clan. At the time, the Na Junseo family of the Geumseong Na clan was without offspring and, thus, bequeathed its property to the two families of their grandchildren and made them perform ancestral rites. The governor of Yeonggwang-gun acceded to the petition by Kang Donggye and ordered the return of the farmland taken away by the Naju Oh clan. Afterward, Kang Donggye received an issuance of court records that contained the full account of the lawsuit from Yeonggwang-gun because of worries over future issues that may arise.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property status of the family and the dispute process, singularity was observed in the court records—that is, they show how the ancestral rites by grandchildren continu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Furthermore, they are distinct in that they represent the dispute between two families that perform ancestral rites as grandchildren.

Key words : civil court records, Kang Hang, Geumseong Na clan, ancestral rites by grandchildren, Shiyangadoption

Ⅰ. 머리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 소송이 있어 왔다. 원인도 다양했으며, 종류도 다양하였다. 현재 당시의 재산 관련 소송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록물이 바로 결송입안(決訟立案)이다. 결송입안은 청원의 과정이나 결과 등이 기록되는 문서이며, 관에서 승소한 이에게 발급한 문서였다.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에 오랫동안 세거한 진주강씨 수은 강항(姜沆, 1567~1618) 종가에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소송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송입안이 현전한다. 이 결송입안은 2019년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한 90점의 주요자료 가운데 1점이다.[1] 그 내용을 살펴보면 1715년(숙종 41) 영광군에서 발급한 것으로 진주강씨 집안과 나주오씨 집안 간의 소송 기록이 남아 있으나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새롭게 발견된 결송입안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위의 결송입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송입안의 내용이 주로 강항 종가의 재산 분쟁을 다루고 있으므로 당시 강항 종가의 재산현황과 주요 갈등 양상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항 종가에 대한 문중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재산분쟁의 주요 원인이 외손봉사(外孫奉祀)에서 기인하고 있는데, 외손 집안 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학계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새로운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본 논문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진주강씨 강항 종가와 관련해서 강항과 그의 저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경옥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을 살펴보았으며, 변동명, 송일기·안현주, 김미선, 안동교 등은 강항이 저술한 『간양록(看羊錄)』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였다[2]. 최근에는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강항 종가의 내력과 기탁된 자료를 소개하고, 주요자료를 영인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3]

---

1) 진주강씨 수은 강항 종가 자료는 현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이 가문에서 현재까지 전승된 자료는 총 90점으로 고문서 62점, 고서 28점이다. 이중 강항과 직접적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서 10책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된 고서는 『간양록(看羊錄)』 1책, 『강감회요(講綱鑑會要)』 3책, 『문선주(文選註)』 2책, 『잡지(雜誌)』 1책, 『운제록(雲梯錄)』 3책으로 총 5종 10책이다.

2) 김경옥(2010), 「수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 『도서문화』 35, 도서문화연구원, 7~37쪽; 변동명(1996), 「강항의 필사본 간양록 고찰」, 『아시아문화』 12, 아시아문화연구소, 239~251쪽; 송일기·안현주(2009), 「수은 강항 편찬 간양록의 교감 연구」, 『서지학보』 33, 한국서지학회, 5~30쪽; 김미선(2015), 「간양록의 표현적 특징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퇴계연구소, 297~324쪽; 안동교(2021), 「간양록의 편간 과정과 내산서원 소장 필사본에 대한 분석」, 『역사학연구』 83, 호남사학회, 73~99쪽.

3) (재)한국학호남진흥원(2020), 『영광 영성정씨·진주강씨·동래정씨·광주이씨·제주양씨·

두 번째는 결송입안 관련 연구이다. 결송입안에 대한 연구는 박병호가 '顯宗二年 漢城府 決訟立案'을 연구하여 소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경목, 최연숙, 문숙자, 정긍식, 박성호, 권이선 등의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4] 대부분 선행연구는 결송입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적·법제적·문석학적으로 연구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항의 『간양록』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왔으나 그 밖에 다른 자료 통하여 강항 종가 관련 문중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례연구로써, 현전하는 강항 종가의 결송입안을 분석하여 진주강씨와 나주오씨 간의 재산분쟁에 대한 전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결송입안의 작성 배경으로 강항종가의 내력과 소송 당사자 등을 소개하고 소송의 개요를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결송입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그들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광군의 판결과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Ⅱ. 결송입안 작성 배경과 구성

이번 장에서는 결송입안의 작성 배경과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송입안

전주이씨 고문서』, 심미안, 1권, 94~217쪽.

4)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병호(1974), 『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권, 292~309쪽; 문숙자(1994), 「조선전기 무자녀망처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한국고문서학회, 33~60쪽; 최연숙(2004),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호(2008), 「1635년 의령현 결송입안의 문서학적 고찰-진양하씨 판윤·송정후손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141~168쪽; 정긍식(2007),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 분석」, 『법사학연구』 35, 한국법사학회, 5~40쪽; 권이선(2018), 「조선시대 결송입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 『고문서연구』 52, 한국고문서학회, 205~234쪽; 전경목(2019), 「1801년 부안현 '결입안'에 대하 기초적 분석」, 『고문서연구』 55, 한국고문서학회, 83~110쪽.

은 관에서 소송에서 승소한 측에 발급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현재 강항 종가에 소장되어 전해져 내려온 결송입안은 승소한 진주강씨 집안에서 영광군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결송입안에 대한 분석에 앞서 강항 종가의 가계를 살펴보고, 결송입안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진주강씨 강항 종가 가계와 결송입안 작성 배경

강항 종가가 전라남도 영광군에 입향하게 된 계기는 강학손(姜學孫, 1480~1523)이 무오사화 때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영광군으로 유배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강항의 조부 강오복(姜五福, 1503~1564)이 불갑면 금계리에 정착하였다. 강항은 1567년(명종 22)에 금계리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났다고 한다. 1593년(선조 27) 별시(別試)에서 병과에 급제하여 교서관(校書館) 정자(正字)로 임명되었고, 이후 승정원(承政院) 가주서(假注書), 성균관(成均館) 전적(典籍), 공조좌랑(工曹佐郎) 등의 관직을 제수받았다.[5]

강항은 정유재란 당시 영광이 함락되자 가족들을 거느리고 해로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 피랍되었다가, 1600년(선조 33)에 본국으로 귀국한 뒤 학문에만 전념하고 제자들을 양성하였다. 강항과 함평이씨(咸平李氏) 사이에서 강시만(姜時萬, 1603~1673)이 태어났고, 강시만은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하였다. 강시만의 아들 강익주(姜翊周, 1643~1680)와 금성나씨(錦城羅氏) 사이에서 강공저(姜公著, 1643~1680)가 태어났으며, 강공저는 밀양박씨(密陽朴氏)와의 사이에서 강형구(姜亨久, 1659~1696)를 낳았다. 강공저와 강형구는 모두 이른 나이에 요절하였다. 강형구와 순천박씨 사이에서 강계동(姜啓東, 1693~1696)이 태어났으며, 강계동이 바로 본 소송의 원고이다.[6] 이상에

5) (재)한국학호남진흥원(2020), 앞의 책, 94~100쪽.

6) 결송입안에는 원고를 강거원(姜擧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결송입안의 작성 시기 및 내용상 이때의 강거원은 강계동이 된다. 준호구를 통해 보면 당시 강계동과 그의 아들 강혁조는 여러 번에 걸쳐 개명한 사례도 확인 할 수 있다.

서 결송입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강항 종가의 내력을 살펴보았다.

강항이 정유재란 이후 운제촌(雲堤村)에서 지내며 양성한 제자 중에는 나준서(羅遵緖)가 있었다. 나준서의 형제인 나봉서(羅逢緖), 나통서(羅通緖)도 강항의 문하생이었다.[7] 나준서와 그의 처 공주이씨 슬하에는 남매인 나종철(羅宗哲)과 금성나씨를 두었다. 나준서는 자신의 딸인 금성나씨를 스승인 강항의 손자 강익주에게 시집보냈다. 나종철은 광주이씨(廣州李氏)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으며, 이 딸을 나주오씨 오군석(吳君錫)에게 시집보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오대유(吳大有)가 태어났으며, 오대유의 아들로 오시백(五時伯)과 오시설(吳時卨)이 있었다. 오시백과 오시설이 본 소송의 피고이다.

진주강씨 강항 종가	금성나씨	나주오씨
① 姜 沆 = 咸平李氏		
② 姜時萬 = 平澤朴氏	羅遵緖 = 公州李氏	
③ 姜翊周 =	錦城羅氏 羅宗哲	
④ 姜公著 = 密陽朴氏	錦城羅氏	= 吳君錫
⑤ 姜亨久 = 順天朴氏		吳大有
⑥ 姜啓東(원고)		**吳時伯, 吳時卨(피고)**

〈그림 1〉 소송 관련 관계도

소송의 발단은 나준서 처 공주이씨[8]가 나준서 집안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상속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주이씨가 상속한 재산은 남매인 나종철과 금성나씨에게 각각 분배되었다. 나종철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재산은 딸에게

7)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된 자료 중에 『閭侍錄』은 강항의 6대손 강태환(姜台煥)이 작성한 강항의 문인록에 해당하며, 총 69명의 강항 제자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인록에 나준서를 비롯하여 나통서와 나봉서가 등장하고 있다.

8)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우치리에는 나덕전의 처 열녀 옥천설씨(玉川薛氏), 그의 둘째아들인 나봉서(羅逢緖), 셋째아들인 나준서(羅遵緖)의 처인 처 열녀 공산이씨(公山李氏) 등을 기리는 정려각인 삼강문이 세워져 있으며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8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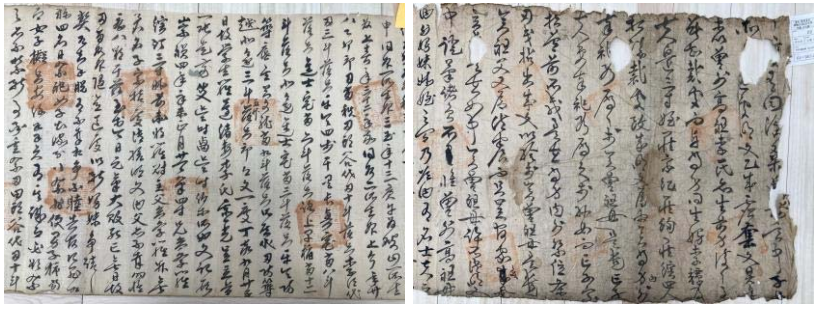
상속되었고, 딸은 자신의 아들인 오대유에게 상속하였다. 금성나씨도 공주이씨로부터 받은 재산을 아들인 강공저에게 상속하였고, 이 재산은 강형구에게 이어졌다. 그러나 강공저와 강형구가 일찍 요절한 사이에 나주오씨 오대유가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 상속된 제위답 일부를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강형구의 아들인 강계동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강계동은 나주오씨 집안에서 가져간 제위답을 되찾아 오기 위하여 나주오씨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 결송입안의 구성

1715년 영광군에서 강계동에게 발급한 입안은 현재 온전한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 전반부에서 중반부까지 결락된 형태인데, 아마도 입안을 시작하는 기두어를 비롯하여 첨부문서, 진술 앞부분이 결락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아 있는 부분은 결송입안의 후반부이다.



1715년(숙종 41) 영광군 결송입안 전체 이미지



1715년(숙종 41) 영광군 결송입안 세부 이미지

〈그림 2〉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결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문서의 가로 길이가 926cm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문서는 상당한 길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송입안은 원고인 강계동의 요청에 의해서 관에서 원문을 등서하여 발급해 준 등출 연서 형태를 띠고 있다.[9)]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을 살펴보면, 남아 있는 후반부가 심리와 처분에 해당되며, 원고 강계동과 피고 오시백·오시설의 진술이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결송다짐과 영광군수의 판결, 후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표로 간략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구성과 해당 원문

<table>
<tr><td rowspan="11">결송
입안</td><td rowspan="10">본문</td><td>기두어</td><td colspan="3">결락</td></tr>
<tr><td>첨부문서</td><td colspan="3">결락</td></tr>
<tr><td rowspan="8">영광군수
심리·처분</td><td rowspan="7">심리</td><td>원고진술</td><td>결락</td></tr>
<tr><td>피고진술</td><td>결락</td></tr>
<tr><td>추가
원고진술</td><td>▣…▣有同滄桑▣(萬)前良中, 子女…敢此暴陳於公明執法之下爲去乎, 參商處決敎味百齊.</td></tr>
<tr><td>추가
피고진술</td><td>同日隻吳時鬲吳時伯, 更推白等. …一從法理處決敎味白齊.</td></tr>
<tr><td>원고 증거문서</td><td>原告姜擧元所納文記段, …學生羅遵緖妻李氏, 靈光呈立旨一張是齊.</td></tr>
<tr><td>피고
증거문서</td><td>隻吳時鬲吳時所納文記段, …田二斗落只等, 白文一度</td></tr>
<tr><td>결송다짐</td><td>此外無地未盡之辭是白去乎, 依官式處決是白乎旀, 所爭畓庫段, 後錄現告爲白去乎, 相考處置敎味.</td></tr>
<tr><td colspan="2">처분</td><td>兩代祭位各傳其外孫, 元財主旣已區處…告姜擧元處, 後錄決給爲去乎</td></tr>
<tr><td colspan="3">결사</td><td>後考立案者</td></tr>
<tr><td>후록</td><td colspan="3">환퇴재산목록</td><td>後 李得柴田參斗落只 所耕梧卜肆束… 所耕伍拾玖卜參束</td></tr>
</table>

9) 권이선(2018), 앞의 논문, 52쪽.

현전하는 문서에는 원고 강계동의 진술부터 시작된다. 이후 피고 오시백·오시설의 진술이 이어진다. 진술 다음으로 결송다짐과 제출된 문서, 그 문서의 내용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영광군수의 처분, 후록으로 이 문서는 종결된다. 비록 문서의 전반부와 중반부까지 결락되었으나, 소송의 전말은 잔존해 있는 후반부 원고·피고의 진술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Ⅲ. 결송입안의 내용 분석

1715년 영광군에서 발급한 결송입안은 앞서 2장의 작성 배경과 구성을 확인하였듯이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결송입안에 기록된 원고 강계동과 피고 오시백, 오시설이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 강계동은 자신의 외고조모인 나준서 처 공주이씨가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에 대한 몫을 확실히 분재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중이 나준서와 공주이씨를 끝까지 시양(侍養)했으며, 나주오씨 또한 본손이 아닌 외손에 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존 문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강계동의 진술을 살펴보자.

> “일찍이 외고조모 이씨께서 생전에 죽은 이후의 일을 생각하시고, 친동생 이도와 남편의 삼촌 조카 나종기, 나현, 나연과 상의하여 명문을 다시 작성하였는데, 외고조모 내외의 제위조 전답을 저희 증조모에게 속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인 나종철의 재산을 손녀인 오군석 처 금성나씨에게 속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제위전답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조모에게 주었고, 저희 조부를 시양으로 삼고 관에 소지를 올려 다시 입지까지 받아 두었습니다.”[10]

원고 강계동은 나준서 처 공주이씨가 자신의 친동생 이도(李𥙷)와 남편의 삼촌질 나종기(羅宗紀), 나현(羅絢), 나연(羅縯) 총 4명과 상의하여 자식들에게 재산 몫을 나누고 명문(明文)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다. 무엇보다 재주인 공주이씨가 그녀와 남편 나준서의 봉사조를 딸인 강익주(姜翊周) 처 금성나씨(錦城羅氏)에게 분급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부인 강공저(姜公著)를 시양(侍養)으로 삼고 관(官)에 정소(呈訴)하여 입지(立旨)까지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외고조모가 작성한 명문과 관에서 발급 받은 입지가 분명하므로 분쟁이 되는 제위전답이 애당초 자신들의 소유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 "오대유는 나종철에 대한 외손봉사를 하면서 저희 증조모가 소재한 전민을 저의 부친 상중에 공연이 빼앗아 갔으며, 당해연도에 추수한 곡식마저 모두 짊어지고 갔습니다. 저의 모친께서는 사대부 집안의 과부였기에 시비를 따지지 못하고 단지 분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낸지가 지금까지 19년입니다."[11]

무엇보다 원고는 자신의 조부 강공저와 부친 강형구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모친인 순천박씨(順天朴氏)가 홀로 남은 사이에 공주이씨의 아들인 나종철(羅宗哲)의 외손 오대유(吳大有)가 진주강씨 집안 몫으로 할당된 제위전답을 공연히 빼앗아 갔고, 추수한 곡식마저 짊어지고 갔음을 언급하며 분쟁의 원인이 피고인 나주오씨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원고는 외고조모에 대한 시양을 강조하고, 나주오씨 집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주(神主) 봉안(奉安)과 산소(山所) 수호(守護) 등 외손봉사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10) "曾於高祖李氏亦, 生前身後之事, 料知裁處, 而與當身同生娚李[香+票] 及夫邊三寸姪羅宗紀羅[絲+旬]羅縯四人, 相議裁處, 改成明文爲乎矣, 當身內外奉祀段, 屬於矣曾祖母是遣, 亡子夫妻奉祀段 屬之於孫女, 而亡子宗哲, 曾前所裁是遣, 當身內外祭位條田民, 粘出成文以給於矣曾祖母是遣, 矣祖父又爲侍養, 而只呈官家, 更置立旨是在如中,"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원문, 이하 출처 동일)

11) "吳大有以羅宗哲, 奉祀之外孫, 矣曾祖母許, 所載田民乙, 夫夫喪逝之時, 公然據奪是於, 其年禾穀, 并以負奪是乎矣, 矣母以士父家寡婦, 莫之是非, 只自含憤送年者, 于今十九年也."

"저희 증조모께서는 외고조모 이씨가 살아계셨을 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였고, 또 저희 조부를 낳으셨습니다. 그 당시 오대유의 모친은 나이가 겨우 4~5세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외고조모를 시양해오다가 그녀가 죽고 3년상을 치른 이후에 오대유 모친이 혼인을 하였고, 그때 비로소 당신내 부모 신주를 비로소 봉안해 갔습니다."[12]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애당초 공주이씨 생전에 계속 원고측에서 시양해 왔고 3년상까지 치렀으나, 공주이씨 사후이면서 오군석과 나종철의 딸인 금성나씨가 결혼한 이후에야 나주오씨 집안에서 비로소 신주를 봉안해 갔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 전까지는 외손봉사를 원고측에서 해왔음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원고는 이번 소송이 본손(本孫)과 외손과의 재산 상속 분쟁이 아니라 외손과 외손간의 분쟁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진주강씨도 금성나씨의 외손이고, 나주오씨도 금성나씨의 외손"임을 강조하면서[13] 영광군수로 하여금 외손간의 재산 분쟁임을 각인시키고, 합당하게 분배된 재산을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빼앗아 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원고인 강계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문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숭정십오년임오칠월초일(崇禎十五年壬午七月初二日)에 공주이씨가 강공저를 시양으로 삼으며 작성한 시양명문(侍養明文)"이고 두 번째는 "정해구월입오일(丁亥九月卄五日) 공주이씨가 영광군에 정소하여 받은 영광군입지[靈光呈立旨]"였다. 모두 시양과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며, 공주이씨 생전에 작성된 문서들이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오시백과 오시설은 자신의 집안은 진주강씨 강항 종가와 다른 외손임

12) "矣曾祖母亦, 當身母李氏生前, 旣已成婚, 且生矣祖父是遣, 吳大有慈親, 則於其時也, 年才四五歲是乎等以, 因爲侍母其生是如可, 李氏沒世後, 三年闕服之時, 則吳大有慈親亦, 已成婚矣. 曾祖母闕服之後, 當身父母神主, 始爲奉案"

13) 大概吳大有亦, 羅門外孫也. 矣身亦羅門外孫也. 誰爲客而誰爲主也.

을 강조하였고, 금성나씨의 본손에 가깝게 현재까지 외손봉사를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처음에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나준서 처 공주이씨를 시양한 것은 맞으나 시양하면서 분급한 재산을 공연히 강항종가에서 모두 탕진하고 있음을 보고 정당하게 되찾아 와 금성나씨 재산을 지키고 있음을 아울러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비교하며 현존 문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피고 오시백, 오시설의 진술을 살펴보자.

> "저희 모친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조부가 살아계실 때에 노비와 전민을 이미 자녀들에게 평균 분급하였으니 부친이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더라도 제외전민을 혈손이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외손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14]

피고 오시백과 오시설은 자신의 외조부인 나종철은 나준서와 공주이씨 집안의 장자이며, 자신의 외조모 또한 친손녀가 되므로 진주강씨 강항 종가와 다른 '혈손(血孫)'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외조모인 오군석 처 금성나씨가 오대유에게 전한 말을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 "외조부께서는 단지 딸 하나인 제 모친만 두고 아들 없이 돌아가셨고, 강익주는 아들 강공저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친이 비록 증조모 이씨에게는 나씨 집안의 혈손이었으나 죽은 아들의 딸이었고, 강공저가 비록 증조모 이씨에게 있어 나씨 집안의 외손이었으나 살았는 딸의 아들이었습니다. 법례로 말한다면 경중이 자별하나 친녀와 손녀 사이에 정의가 같았으므로 딸의 아들인 강공저 이름으로 시양을 삼은 것입니다. 외증조부가 살아계실 때 두 자녀에게 전민을 구별하여 분급한 것중에 승중제위전민을 증조모가 모두 강공저에게 옮겨 주었습니다."[15]

---

14) 矣母言于矣等內祖父生時, 奴婢田民, 旣已平均區處於子女, 則父親雖爲不幸早逝是乃置, 祭位田民乙, 血孫當爲次知, 而不可委之於外孫是乎矣,

15) "外祖父只有一女矣母, 而無男子身死是遣, 姜翼周則有子公著是乎等以. 矣母雖是羅性之血孫於曾祖母李氏, 爲亡子之女是遣, 公著雖是羅門之外孫於曾祖母李氏, 爲生女之子也. 以法例言之, 則輕重自別, 而親女與孫女, 不無情義之厚薄, 故以女子姜公著名之, 以侍養

또한 피고들은 애초에 나준서가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급했으나 다만 외조부가 일찍 죽게 되어서 나준서 처 공주이씨가 친녀(親女)인 강익주 처 금성나씨의 아들인 강공저를 시양으로 삼아 승중제위전답(承重祭位田畓)을 강항 종가에 준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공주이씨가 승중제위전답을 '망자지녀(亡子之女)' 보다 '생녀지자(生女之子)'에게 재산을 분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6] 그러면서 원재주인 나준서는 승중제위전답을 장자인 나종철에게 분급했으나 나준서 사후 공주이씨가 다시 재분배를 했다고 주장하였다.[17]

> "그후 강익주가 죽고, 강공저 역시 일찍 요절했으며 강공저의 아들 강형구 역시 죽었기 때문에 시양을 명분으로 깃득해준 전민을 점점 방매하기 시작했고 거의 탕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외증조모 신주는 처음부터 봉안해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봉안하고 있는 것입니다."[18]

피고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승중제위전답을 강공저와 강형구가 일찍 요절하는 사이에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방매하여 탕진하였고, 신주 봉안과 산소 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피고들은 금성나씨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외조모께서 원고의 모친인 강형구 처 순천박씨를 찾아가 그녀의 동의하에 제위답 20여 마지기를 정당하게 가져온 것이

是遣. 外曾祖父生時, 兩子女處, 區別田民中, 承重祭位條田民乙, 曾祖母沒數移給於公著處爲有置."

16) 矣母雖是羅性之血孫於曾祖母李氏, 爲亡子之女是遣, 公著雖是羅門之外孫於曾祖母李氏, 爲生女之子也. 以法例言之, 則輕重自別, 而親女與孫女, 不無情義之厚薄, 故以女子姜公著名之, 以侍養*是*遣, 外曾祖父生時, 兩子女處, 區別田民中, 承重祭位條田民乙, 曾祖母沒數移給於公著處爲有置,

17) 當初子女處分給, 乃是元財主外曾祖父區處交記, 則外祖父男女間, 俱無後而死, 則亞財主改成文記, 不是賣事是乎矣, 旣有矣母, 則此乃外曾祖父母之血孫, 祭位田民, 自當歸之於子之女, 以決不可傳之於女之子, 則外曾祖母改成文券, 以女婿之宗子, 言爲侍養, 移給田民.

18) "其後翼周身死, 公著亦早死, 公著之子亨久, 相ㅁ而死乙仍于, 侍養衿得田民, 稍稍放賣, 至於幾盡之境. 而外曾祖母神主, 則初不奉安以去, 而因爲奉安於矣家是遣."

라고 주장하였다.[19] 즉 신주 봉안과 산소 관리를 피고측에서 하고 있으므로 말 뿐인 시양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측에서 터무니없이 건송(健訟)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오시백과 오시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문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였는데, 첫 번째는 "숭정사년신미정월입일일(崇禎四年辛未正月卄一日)에 나준서가 자(子) 종철(宗哲)에게 전급한 명문(傳給明文)'이고 두 번째는 '임진십월이십일(壬辰十月二十日)에 공주이씨가 손녀에게 깃득해 준 전준문기(孫女處衿得傳准文記)"였다.

Ⅳ. 영광군수의 판결과 그 의미

1715년 당시 영광군수는 권이진(權以鎭)이었다.[20] 권이진은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자정(子定), 호는 유회당(有懷堂)으로 윤증(尹拯)의 문인이었다. 영광군수 권이진은 원고와 피고의 진술과 증거문서를 확인하고 결송다짐을 받은 후, 최종 판결에서 원고 강계동의 손을 들어줬다. 즉 원고의 주장대로 제위답에 대한 피고측의 재산 피탈(被奪)로 본 것이다. 그리고 후록을 통해 피고측이 빼앗아 간 제위답 59복 3속을 원고측에 되돌려 주라고 판결하였다.

영광군수 권이진은 이번 소송을 외손봉사로 인한 재산 분쟁으로 간주하였다. 즉 피고측에서 주장한 특별한 혈손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같은 외손으로 본 것이다. 권이진은 피고측에서 제시한 1631년(인조 9) 나준서가 아들 나종철에게

19) 侍養衿得田民, 稍稍放賣, 至於幾盡之境, … 矣等以母言, 往議于亨久之妻朴氏曰, 外曾祖父母祭位田二十斗落只, 畓二十八斗, 奴婢四口中, 嫂家已賣之物, 則捨不擧論, 而卽今餘存畓四十餘斗落只中, 分半除出, 以爲始成奉行香祀, 守護山所祭田, 何如云爾, 則諸議稱好而朴氏亦曰, 事理至當云云, 故除出二十斗之畓, 矣身卽今次知奉祀是如乎,

20) 『承政院日記』 肅宗 41년(1715) 11월 6일 戊戌 : ○全羅監司書目, 靈光郡守權以鎭, 受由還家之後, 以其身病, 連呈辭狀, 還任無期, 罷黜事。啓。傳曰, 勿罷仍任。;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 85 -대전 안동권씨 유회당종택편-』 55쪽에 권이진이 영광군수로 제수받은 교지가 수록되어 있다.

전급해 준 명문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재주인 나준서와 증인 모두가 착명(着名)을 하지 않았고, 관의 관인(官印)을 받지 않은 백문기(白文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성나씨 재산을 두고 두 외손 간에 재산분쟁으로 판단하였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1642년(인조 20) 시양명문은 백문기이지만, 재주인 공주이씨의 도장과 증인들의 착명이 모두 존재했으므로 충분한 증거문서로 보았다. 무엇보다 시양명문 작성 후 5년이 지난 1647년(인조 25)에 공주이씨가 영광군에 정소하여 발급받은 시양 관련 입지가 있었으므로 시양명문이 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 측이 원고측이 제위답 방매 사실을 문제 삼기 위해 제시한 1652년(효종 3) 전준명문에서도 진주강씨 강항 종가가 시양한 사실이 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강씨 강항 종가가 공주이씨를 시양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이진은 강항 종가의 재산을 나주오씨 집안에서 피탈해 간 것으로 결론짓고, 빼앗아 간 제위답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1715년 영광군에서 진행된 진주강씨 강항 종가와 나주오씨 간의 재산 분쟁 소송은 외손봉사와 관계된 것이었다. 금성나씨 집안에 대를 이을 본손이 없게 되자 이를 우려하여 나준서 처 공주이씨가 외손자인 강공저를 시양으로 삼아 나준서 집안의 봉사와 제위를 잇게 한 것이다. 다만, 외손을 시양으로 삼기 전에 나준서 집안사람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였고, 『경국대전』 입후법에 따라 공주이씨는 외손을 동종지자(同宗支子)로 선택해 영광군에 고하여 입지까지 받았으므로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공주이씨의 손녀인 오군석 처 금성나씨가 혼인 이후에 나준서, 공주이씨, 나종철 등의 신주를 봉안해 오면서 외손봉사를 이어온 것이다. 따라서 나주오씨 집안은 현재 외손봉사를 하고 있는 쪽이었고, 진주강씨는 전에 외손봉사를 해 온 집안이었다.

외손봉사는 외손으로 하여금 봉사하는 것으로서 고려왕조 이래로 행해져 온 봉사 관습이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이성계후(異姓繼後)가 배척되었으나 친자식이 없는 경우에 외손봉사를 하려는 경향이 그대로 이어졌고, 17세기 이후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 문중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였다.[21] 금성나씨 나준서 집안도 이에 해당하였다. 진주강씨 강항 종가는 나준서의 외손 집안에 해당되었지만, 정의(情義)로 인하여 외조모의 시양자가 되어 나준서 집안의 제위를 잇게 된 것이다.

1715년 결송입안에 나타난 외손봉사는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자녀가 없을 경우 수양 또는 시양을 통해 봉사를 잇게 하는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신주와 선산을 수호하며 봉사를 잇게 하는 형태인 것이다. 결국 권이진의 판결에서 보이듯이 이번 재산 분쟁과 관련해서는 시양을 통해 봉사하는 형태가 승소하였다.

비슷한 사례로 시기가 좀 더 앞선 1584년에 같은 전라도 고을인 나주목에서도 시양과 본손간의 재산분쟁이 있었다. 이 경우에도 시양으로 삼고 재산을 분급한 것을 본손이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한 소송이었다. 결국 당시의 증빙문서들의 의해 시양 후손들이 승소하였다.[22]

이를 통해 보면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의자녀 지정을 통해 승중제위조를 상속할 경우 본손과의 분쟁이나 외손과의 분쟁과 상관없이 의자녀로 지정된 후손들이 증빙문서에 의해 승소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15년에 발급된 결송입안은 또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재산을 찾아오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익주 사후 강공저와 강형구가 모두 요절하는 바람에 진주강씨 강항 종가의 재산은 잘 관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강동계가 장성한 이후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오고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빼앗긴 재산을 찾아 온 것이다. 그 이외에도 강동계는 집안 내 노비를 찾고자 하여 같은 집안 사람으로부터 노비를 매득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강계동의 아들 강혁조(姜赫朝, 1717~1757)때

21) 박병호(1974), 앞의 책, 371쪽~377쪽.

22) 박경(2018), 「의자의 양자 지정 사례를 통해 본 16세기 수양, 시양 관행 - 1584년 나주목 결급 입안의 향리가 양자 사례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3, 한국고문서학회, 51~74쪽.

까지 재산을 관리했으며, 이는 남아 있는 준호구 등 다른 현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자료 중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을 소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결송입안은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소장되어 온 문서로서 보관상태도 양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결송입안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피랍되었다가 귀환한 강항의 후손들로 오랫동안 영광군 불갑리에 세거한 가문이었다. 18세기 초 강항의 직계후손인 강동계는 강항의 제자이자 인척관계였던 나준서 집안의 재산을 두고 나주오씨 집안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주강씨 집안과 나주오씨 집안 모두 금성나씨 나준서 집안의 외손들으로써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나주오씨가 빼앗아 간 재산 일부를 되찾기 위해 벌인 소송이었다. 당시 금성나씨 나준서 집안은 후손이 없어 외손인 두 가문에 재산을 상속시키고 제사를 받들게 하고 있었다. 영광군수는 강동계의 청원을 받아드려 나주오씨 가문이 빼앗아 간 전답을 되돌려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강동계는 뒷날에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영광군으로부터 그 전말을 기록한 입안을 발급받았다.

이 입안을 통해 진주강씨 강항 종가의 재산현황 및 분쟁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후기 외손봉사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과 본손과 외손간의 분쟁이 아닌 외손봉사를 하고 있는 두 집안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 입안이 가지는 특이점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병호(1974),『한국법제사고』, 법문사, 1권, 292～309쪽.

(재)한국학호남진흥원(2020),『영광 영성정씨·진주강씨·동래정씨·광주이씨·제주양씨·전주이씨 고문서』, 심미안, 1권, 94～217쪽.

논문

권이선(2018),「조선시대 결송입안의 유형별 특징과 발급양상」,『고문서연구』52, 한국고문서학회, 205～234쪽.

DOI : 10.21027/manusc.2018.52..008

김경옥(2010),「수은 강항의 생애와 저술활동」,『도서문화』35, 도서문화연구원, 7～37쪽.

UCI : G704-002045.2010..35.009

김미선(2015),「간양록의 표현적 특징 고찰」,『퇴계학과 유교문화』57, 퇴계연구소, 297～324쪽.

UCI : G704-001229.2015..57.001

문숙자(1994),「조선전기 무자녀망처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고문서연구』5, 한국고문서학회, 33～60쪽.

박경(2006),「조선 전기 수양·시양의 실태와 입후법의 정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경(2018),「의자의 양자 지정 사례를 통해 본 16세기 수양, 시양 관행 – 1584년 나주목 결급 입안의 향리가 양자 사례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53, 한국고문서학회, 51～74쪽.

DOI : 10.21027/manusc.2018.53..003

박성호(2008),「1635년 의령현 결송입안의 문서학적 고찰-진양하씨 판윤·송정후손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장서각』19, 한국학중앙연구원, 141～168쪽.

DOI : 10.25024/jsg.2008..19.141

UCI : G704-001808.2008..19.002

변동명(1996), 「강항의 필사본 간양록 고찰」, 『아시아문화』 12, 아시아문화연구소, 239～251쪽.

송일기·안현주(2009), 「수은 강항 편찬 간양록의 교감 연구」, 『서지학보』 33, 한국서지학회, 5～30쪽.

UCI : G704-SER000009944.2009..33.001

안동교(2021), 「간양록의 편간 과정과 내산서원 소장 필사본에 대한 분석」, 『역사학연구』 83, 호남사학회, 73～99쪽.

전경목(2019), 「1801년 부안현 '결입안'에 대하 기초적 분석」, 『고문서연구』 55, 한국고문서학회, 83～110쪽.

DOI : 10.21027/manusc.2019.55..004

정긍식(2007),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 분석」, 『법사학연구』 35, 한국법사학회, 5～40쪽.

DOI : 10.31778/lawhis..35.200704.5

UCI : G704-001302.2007..35.007

최연숙(2004),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고사이트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do)

투고일: 2021. 11. 26. **심사기간:** 2021. 12. 5.～2021. 12. 10. **게재확정일:** 2021. 12. 17.

| 국문초록 |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 분석

이 논문에서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오랫동안 세거한 진주강씨 강항 종가의 재산 상속 분쟁에 대해 1715년 영광군 결송입안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결송입안은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에서 소장되어 온 문서로서 보관상태도 양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진주강씨 강항 종가 소장 결송입안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헌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광 진주강씨 강항 종가는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피랍되었다가 귀환한 강항의 후손들로 오랫동안 영광군 불갑리에 세거한 가문이었다. 18세기 초 강항의 직계후손인 강동계는 강항의 제자이자 인척관계였던 나준서 집안의 재산을 두고 나주오씨 집안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주강씨 집안과 나주오씨 집안 모두 금성나씨 나준서 집안의 외손들로써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나주오씨가 빼앗아 간 재산 일부를 되찾기 위해 벌인 소송이었다. 당시 금성나씨 나준서 집안은 후손이 없어 외손인 두 가문에 재산을 상속시키고 제사를 받들게 하고 있었다. 영광군수는 강동계의 청원을 받아드려 나주오씨 가문이 빼앗아 간 전답을 되돌려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강동계는 뒷날에 말썽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영광군으로부터 그 전말을 기록한 입안을 발급받았다.

이 입안을 통해 진주강씨 강항 종가의 재산현황 및 분쟁 과정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조선후기 외손봉사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과 본손과 외손간의 분쟁이 아닌 외손봉사를 하고 있는 두 집안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 입안이 가지는 특이점이 있다.

주제어 : 결송입안, 강항, 금성나씨, 외손봉사, 시양

호남학 70 : 115~143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원효사의 사력(寺歷)과 사명(寺名)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History and Name of Wonhyosa Temple

김 병 인**
Kim, Byoung-in

목 차

Ⅰ. 머리말
Ⅱ. 사력 관련 자료의 재검토
Ⅲ. 사명의 연원과 시대적 배경
Ⅳ.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origin of the temple name and the rebuilding history of Wonhyosa temple, located at the foot of Mt. Mudeungsan,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temple history of Wonhyosa is not clear. There are a few theories,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Wonhyo founded the temple from the beginning. It seems that one of the existing temples accepted the 'Wonhyo Construction Theory' in the atmosphere where Wonhyo was recognized nationwide after the Unified Silla period, especially during the middle Goryeo period.

Second, some of the materials related to Wonhyosa temple were understood as Wonhyosa's, even though they belong to the historical sites of Jeungsimsa temple. This is because either the history of Jeungsimsa temple and Wonhyosa temple was mixed within the Buddhist culture of Mt. Mudeungsan, or Wonhyosa was recognized as a part of Jeungsimsa temple.

Third, in relation to Wonhyosa history, there is a figure who is paid attention to. He is Eun Won-choong, called Mudeungsan Cheosa during the middle Goryeo period. In the middle Goryeo period, King Sukjong left the posthumous epithet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to Wonhyo and Uisang, and called Eun Won-choong, Mudeungsan Cheosa into the central government. Afterwards, Eun Won-choong took on the role of patrolling the mountains and streams nationwide during the period of King Yejong's reign. King Sukjong and Yejong valued Namkyoung(Southern capital), and King Yejong especially revered Taoism. King Injong tried to rectify the public opinion by investing Wonhyo with the titles of nobility and granting a posthumous epithet. Wonhyo was recognized in various political situations in the middle of the Goryeo period.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certain temple related to Eun Won-choong that entered the palace from Mt. Mudeungsan may have increased the connection with 'Wonhyo'.

Fourth, Wonhyosa temple was burned down during the Jeongyujaeran and declined in the late Choseon Dynasty, and then it was recognized as 'a declining small hermitage (Soam)'. The appearance of such a temple name, 'Wonhyoam' instead of 'Wonhyosa' seems to be related to the change of the temple status. From entering the 20th century, it has been called 'Wonhyosa'.

Key words : Mt. Mudeungsan, Gwangju, Wonhyo, Wonhyosa, Wonhyoam, Temple name, Temple history

Ⅰ. 머리말

무등산 원효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원효사에 대한 가장 빠른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무량사, 천복사, 개룡사, 원효사 모두 무등산에 있다"는 것이다.[1] 『여지도서』에도 "원효사는 관아 동쪽 20리에 있다"는 기록만 전한다.[2] 이후 헌종 13년(1847) 「원효암중건기」, 고종 31년(1894) 「원효암중수상량문」 등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편린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3]

1) 無量寺薦福寺開龍寺元曉寺 俱在無等山(『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불우).
2) 元曉寺 在州東二十里(『여지도서』 하, 전라도, 광주, 사찰).
3) 최근 최원종(2021)은 『무등산 불교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원효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서 개략한 바 있다.

이처럼 사찰 내력이 분명치 않은 원효사가 종종 거론되는 까닭은 광주의 진산 무등산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과 사명(寺名)에 '원효(元曉, 617~686)'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효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무등산에 있다'는 것과 '사명에 원효라는 승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원효사라는 사명의 연원과 사찰의 중창 내력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원효사의 역사에 관한 사료와 자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원효사에 관한 기록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의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거론된다면, 원효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원효사처럼 사명에 승려 이름이 들어간 경우는 도선사(道詵寺) 정도나 있을 뿐 흔치 않다. 이에 원효사라는 사명의 출현 배경과 그 함의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원효사가 '무등산에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력 관련 자료의 재검토

'원효사'를 검색하면, "신라시대에 전라도 광산의 무등산에 건립한 사찰. 원효가 이곳에 머물면서 개축하여 원효사·원효암·원효당 등으로 불림. 고려 충숙왕 때 원효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도 함."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4]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소개된 '원효사'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다.

>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지증왕이나 법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뒤 삼국통일을 전후한 문무왕 때 원효가 이곳에 머물면서 암자를 개축한 뒤부터 원효사·원효당·원효암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한다. 일설에는 고

4)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itkc.or.kr, 검색일: 2021.11.11.

려 충숙왕 당시의 이름 있는 화엄종승(華嚴宗僧)이 창건한 뒤 원효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원효암이라 했다고도 한다. 그 후의 역사는 입증할 길이 없으나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섭정 때 사세(寺勢)가 다시 일어났으며, 선조 때의 승병장이었던 영규(靈圭)가 수도했던 곳이기도 하다. 정유재란 때 전소된 뒤 증심사(證心寺)를 중창했던 석경(釋經)이 직접 기와를 구워 중창하였다. 그 뒤 1636년(인조 14)에 신원(信元)이, 1685년(숙종 11)에는 신옥(信玉)과 정식(淨式)이, 1789년(정조 13)에는 회운(會雲)이, 1831년(순조 31)과 1847년(헌종 13)에는 내원(乃圓)이 각각 중수하였다.[5]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1) 창건연대 미상, 2) 신라 지증왕이나 법흥왕대 추정, 3) 문무왕 때 원효 암자 개축, 4) 원효사·원효당·원효암 등으로 명명, 5) 고려 충숙왕 때 화엄종승 개창설, 6) 문정왕후 섭정 때 세사 부흥, 7) 선조 때 승병장 영규 수도, 8) 정유재란 때 석경 중창, 9) 이후 신원·신옥과 정식·회운·내원 등의 중수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나 위의 검색 내용을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에 그동안 원효사를 언급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원효사의 역사와 사명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 이로써 향후 원효사에 대한 논의의 기준점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사찰의 자취나 역사에 관한 용어로는 '사적(寺蹟)'이라는 표현을 쓴다. '蹟'은 '자취', '지나간 자국'을 뜻한다. 대체로 물건이나 건물, 또는 그 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歷'은 '지내다', '순서를 세우다', '택하다'는 의미로써, "어떤 사물이나 공간이 지나온 유래, 어떤 사람이 살아온 경로"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사적(寺蹟)'보다는 '사력(寺歷)'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사력의 모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명(寺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사명은 사찰의 이름을 말하는데, 해당 사찰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6]

---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효사(元曉寺).

6) 이에 관해서는 김병인(2015), 「화순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호남학』 57, 호남학연구원)를 참조하기 바란다.

원효사와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원효사를 무량사(無量寺)·천복사(薦福寺)·개룡사(開龍寺)와 함께 소개하면서 "무등산에 있다"는 간단한 내용만 기록해두었다.[7] 같은 항목에서,

> 성거사, 성거산에 있다. 십신사, 현의 북쪽 5리 평지에 있는데 범어로 쓴 비가 있다. 선원사, 현의 동쪽 2리 평지에 있다. 증심사, 무등산에 있다. ○김극기의 시에, "잣나무는 뜰 앞에서 푸르고, 복사꽃은 언덕 위에서 붉구나. 어찌 반드시 지경 밖에서 찾으랴, 다만 둘려 있는 속에서 찾을 것이로다. 막힌 경내에서는 마음도 끝까지 막히나니, 말을 잊어야 도가 비로소 통하는 것이다. 누가 이 절 이름을 지었는가. 묘한 이치를 홀로 깊이 궁리하였도다." 하였다. 『신증』 규봉사, 무등산에 있다. 절 옆에 세 개의 돌이 있는데, 높이가 수백 척이 되어 삼존석이라고 한다. 또 열 개의 대가 있는데, 송하·광석·풍혈·장추·청학·송광·능엄·법화·설법·은신이라고 이름한다. 세상에 전하기를, 도선이 이 대 위에 두루 앉아서 송광의 산세를 본 다음 절을 창건했다고 한다.[8]

는 수준으로 광주지역의 다른 사찰 즉, 성거사·선원사·증심사·규봉사 등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효사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효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까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0여 년이 지난 1656년에 간행된 『동국여지지』에서도 원효사에 대해서는 "무등산에 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다.[9] 18세기 간행된 『여지도서』와 『광주

---

7) 無量寺 薦福寺 開龍寺 元曉寺 俱在無等山(『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불우).

8) 聖居寺 在聖居山. 十信寺 在縣北五里平地 有梵字碑. 禪院寺 在縣東二里平地. 證心寺 在無等山 ○金克己詩 柏樹庭前翠 桃花陌上紅 何須搜券外 只要覓環中 滯境心終塞 忘言道始通 何人名此寺 妙蘊獨深窮. [新增] 圭峯寺 在無等山 寺傍有三石 高數百尺 名曰三尊石 又有十臺 曰送下 曰廣石 曰風穴 曰藏秋 曰靑鶴 曰松廣 曰楞嚴 曰法華 曰說法 曰隱身 世傳道詵遍坐此臺 相松廣山勢而創寺焉(『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전라도, 광산현, 불우).

9) 無量寺 薦福寺 開龍寺 元曉寺 俱在無等山(『동국여지지』, 전라도 상, 광주목, 사찰).

목지』에서도 원효사는 여전히 “주의 동쪽 20리에 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10] 1799년에 편찬된 『광주목지』에서는 ‘원효사’가 아니라 ‘원효암’으로 표기하였으며, 『여지도서』와 달리 “주의 동쪽 25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창건하였고, 지금은 쇠락하여 단지 수 칸의 작은 암자만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전하고 있다.[11] 18세기에 접어들어 원효사가 쇠락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원효사의 중건 내력을 적은 기록이 등장하는데, 헌종 13년(1847) 「원효암중건기(元曉庵重建記)」가 그것이다.

> 서석산 북쪽에 원효암이 있는데, 일찍이 신라의 국사 원효가 그 산수의 명려함을 사랑하여 암자를 짓고 거처하였으므로 그렇게 이름지은 것이다. 창건 연대는 헤아릴 수 없으나 신라 법흥왕과 지증왕 양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석은 호남의 명산이고, 원효는 서석의 구찰이다. 신라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천백여 년 동안 무릇 몇 차례나 중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숭정 병자(인조 14, 1636)에 사찰이 노후하였으므로 비구 신원 스님이 발원하여 중수하였으며, 그로부터 50년 뒤에 신옥스님과 정식스님이 기와를 보수하였다. 정조 기유년(1789)에 회운 스님이 선방을 중창하고, 임술년(순조 2, 1802)에 법당을 중창하였다. 순조 신묘(1831)에 회운의 제자 내원스님과 의관스님이 서둘러 중수함으로써 밝은 서까래와 문지방이 복구되고 퇴락한 단청이 다시 보기 좋게 되니 이것이 곧 스님들의 공임과 동시에 선문을 빛나게 한 일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승지에 암자가 있은 뒤로부터 여러 차례 중수를 거듭해 왔으나, 사적을 전하지 못하여 인멸되어 버린다면 후세 사람들이 지금의 일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니, 마치 이는 사람이 옛날 일을 모르는 것과 같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도 헛된 일은 아닐 것이다. 정미년(헌종 13, 1847)에 내원스님이 칠성전을 짓고 전후 사적과 아울러 중건기문을 나에게 청하여 왔는데, 그가 나의 스승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상하므로 졸렬함을 무릅쓰고 이 기문을 쓴다. 정미

10) 元曉寺 在州東二十里(『여지도서』, 전라도, 광주, 사찰).
11) 元曉庵 在州東二十五里俗傳神僧元曉所建故名今殘破只有數間小庵(『광주목지』, 사찰).

년 늦가을 담진 최종목이 쓰다.[12]

『조선사찰사료』 상권 전라남도 부분에 나오는 「원효암중건기」는 헌종 13년(1847) 가을 탐진 본관의 최중묵(崔重默)이 쓴 글이다.[13] 최중묵이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14] 『승정원일기』(2168책, 순조 23년 7월 25일)에 경상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전라도·경기도 유생 생원과 유학들이 상소하였는데, 그 명단에 들어있을 뿐이다. 물론 동일인물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원효암중건기」를 살펴보면, 원효사는 신라 법흥~지증왕 연간에 창건되었으며, 인조 14년(숭정 병자, 1636)에 비구 신원(信元)이 중수를 발원하였고, '후50년'에 신옥(信玉)과 정식(淨式)이 지붕과 기와를 수리하였다고 한다. 『무등산 원효사』(1979)에서는 이 시기를 숙종 11년(1685)으로 보았다. '후50년'이 신원이 중수한지 50년 뒤라면 1686년이 되므로 숙종 12년(1686)이 되는데, '50년째'로 이해하여 1685년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순조 2년(1802) 회운대사가 법당을 중창했다고 나와 있는데, 『무등산 원효사』(1979)에서는 대웅전을 중창한 것으로 보았다.

『조선사찰사료』 상권 전라남도 부분에서 「원효암중건기」 다음에 실려 있는 글은 「법당중창기」이다. 숭정 6년에 쓴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인조 11년(1633)에

12) 瑞石山之北有元曉庵 新羅國師元曉愛其山明水麗 築庵而居 仍以其名之 始創年代 雖未可攷要在於法興智證兩朝之間 而瑞石爲湖南之名山 元曉爲瑞石之舊刹也 自羅氏逮我朝千百載之間 凡幾經重修惹輕暢無徵 而崇禎丙子寺經鬱攸時 有比丘信元發願重修 後五十年信玉淨式補葺之 正廟己西會雲重粉禪房 壬戌重粉法堂 純廟辛卯會雲弟子乃圓與義寬出力重修樑楣之推朽者新復丹△之漫漏者改觀乃師之功 顧不有光於禪門哉噫自有是州便有是庵在昔重修亦已屢矣一再更易湮沒無聞後之視今亦如今之視 昔然則記文之作爲可已乎歲丁未圓新建七星殿要作文并記前後之蹟故 余嘉其克紹先師不辭蕪拙遂爲之記 歲在丁未季秋 崔重默記(「元曉庵重建記」, 『조선사찰사료』, 187~188쪽).

13) 최중묵이 정미년 가을에 「원효암중건기」를 썼다고 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정미년이 1847년이고, 다음 정미년은 1917년이다. 『조선사찰사료』가 1911년에 간행되었으므로, 1847년 정미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4) 지응현과 김정명월의 「공덕불망기」(1934)를 작성한 인물도 탐진 본관 최달석(崔達錫)이라는 인물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당시 원효사에서 탐진 본관 인물들과 교류관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정확한 내력은 알 수 없다.

해당한다. 이는 해양(海陽: 광주의 옛지명) 남령(南嶺)의 서석산(瑞石山)에 있는 '명사(名寺)'에 관한 기록인데, 대체적으로 증심사로 이해하고 있다. 즉, 정유재란(1597) 때 불탄 이후 기유년 광해군 1년(1609)에 석경이 증심사를 중창한 내력을 기록한 글이다. 그런데 『무등산 원효사』에서는 여기에 소개된 '석경이 기와를 제작하여 새로 덮은 사실과 천왕문을 건립한 사실'을 증심사가 아닌 원효사에 해당하는 일로 이해하였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법당중창기」에 이어서 「불상기(佛象記)」가 실려 있는데, 이 글이 별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는 「법당중창기」에 이어진 글인지는 분명치 않다. 「법당중창기」 앞에 있는 '○' 항목 표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상기」에 등장하는 '證心州之甲刹'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증심사에 관련된 글로 보인다. 인조 15년(정축, 1637) 9월에 승 옥견(玉堅)이 화주가 되어 불상 32좌를 조성한 내력을 적은 기록이다. 「불상기」에 원효사와 관련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무등산 원효사』에서는 이를 원효사의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 근거는 알 수 없다. 「불상기」는 「원효암중건기」보다는 훨씬 앞선 기록이다. 그리고 증심사 중창기록인 '○法堂重刱記' 다음에 '佛像記'라는 제목으로 붙어있으므로, 두 기록은 증심사와 관련된 기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5] 즉, 『조선사찰사료』 전라남도편 자료 가운데 원효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은 「원효암중건기」뿐이고, 「법당중창기」와 「불상기」는 증심사의 불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당시 증심사와 원효사의 사역(寺域)이 크게 구분되지 않았거나 동일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은 무등산 원효사의 기록을 다룰 때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고종 8년(1871)에 간행된 『호남읍지』에는 『광주목지』(1799)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효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지금은 수칸의 작은 암자만 있다고 적고 있다. 다만 사명은 『광주목지』가 '원효암'으로 기록한 것과 달리 다시 '원효사'로 적어 두었다.[16] 이후 고종 31년(1894) 청허(淸虛)의 문손(門

15) 『조선사찰사료』, 187~190쪽.

16) 元曉寺 俗傳神僧元曉所建故名今殘破只有數間小菴(『호남읍지』 권7, 광주, 사찰).

孫) 조계산 함명(函溟) 태선(太先)이 쓴 「원효암중수상량문(元曉庵重修上梁文)」에서 원효사의 역사와 중수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도선국사, 보조국사, 진각국사가 머물렀던 무등산 중턱에 자리잡은 원효사는 신라시대 원효선사가 창건했다고 하지만, 문헌이 없어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영겁의 세월 속에 쇠락해 있는 사찰을 학산대사가 나서서 관가에서 백금의 재물을 시주받고 아전들의 십시일반과 명장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효암을 중수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17]

고종 32년(1895)에 간행된 또 다른 『호남읍지』에서는 앞선 『호남읍지』(1871)에서 '원효사'라 명명한 것과 달리 '원효암'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주 동쪽 이십오리에 있다"는 『광주목지』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 원효암. 주의 동쪽 25리에 있다. 세속에 전하기를 신승 원효가 세운 이유로 이름하였다. 지금은 쇠락하여 단지 수 칸의 작은 암자만 있다.[18]

1899년(광무 3)에 간행된 『광주읍지』는 당시의 다른 읍지들과는 달리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사찰조의 경우 앞선 『호남읍지』나 『광주목지』와 달리 각 사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해오는 제영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원효사의 경우 앞선 『호남읍지』(1895)와 동일하게 '원효암'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거리가 25리가 아닌 35리로 적어두었는데, 이는 광주의 읍치 구역이 확장되어 그 거리나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 원효암을 설명하는 내용은 『호남읍지』(1895)의 내용과 동일하나 "지금은 쇠락하여 수 칸의 작은 암자

17) 1894년 원효암을 중수하기 이전에는 원효사가 쇠락하여 사세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다. 1868년과 1870년에 두 차례에 걸쳐 2박 3일 동안 무등산을 돌아본 나도규의 「서석록」과 「속서석록」이라는 유산기를 살펴보면, 원효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 이는 원효사가 거의 미미한 존재였거나 증심사와 혼재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보여준다.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에 대해서는 김덕진(2013),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와 지역의식」, (『역사와 담론』 65, 호서사학회)을 참고하기 바란다.

18) 元曉庵在州東二十五里俗傳神僧元曉所建故名今殘破只有數間小庵(『호남읍지』, 광주목, 사찰).

만 남아있다"는 뒷부분의 기록은 인용하지 않았다.

> 원효암. 주의 동쪽 35리에 있다. 세속에 전하기를 신승 원효가 세운 이유로 이름하였다.[19]

1895년 『호남읍지』와 달리 "지금은 쇠락하여 수 칸의 작은 암자만 남아있다"는 부분이 없는 것은 중간에 절을 중수한 까닭으로 여겨진다. 한편 19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무등산도(無等山圖)」에는 원효사로 명기되어 있다.[20]



〈그림 1〉 「무등산도」(작자 미상, 19세기 추정, 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19) 元曉庵在州東三十五里俗傳神僧元曉所建故名.(『광주읍지』, 사찰).

20) 「무등산도」(62×103cm)는 무등산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자 미상의 채색도인데, 원효사·증심사·약사암·서석·입석·광석·풍혈대·상봉 등이 표기되어 있다.

『각사등록』 전라도편(4)에 따르면, 1903년(광무 7) 전라부사령 이천종(李千鍾)이 전라감사에게 "元曉寺僧在浩等狀, 以本寺僧謹永畓土二斗落, 納于寺中之意, 旣有成票, 立旨成給事"라는 장계를 올렸다.[21] 같은 달에 소사 오씨[吳召史]가 전라감영에게 보낸 장계에, "元曉寺僧普印狀, 以本郡石底面所在奉先寺寺畓, 賭租買得, 出文蹟矣, 京居林主簿稱云, 渠亦買得是如, 沮戱秋收, 更爲電報, 有此明白嚴題禁斷事"라는 내용도 있다.[22] 190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원효사'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최남선은 국토순례를 하면서 원효암을 찾았는데,

> 법당과 범절(凡節)이 당당한 사찰의 풍모를 갖추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거룩하시고 사자의 등에 지운 대법고(大法鼓)는 다른 데서는 못보던 것이다. 대웅전 오른편에 있는 영자전(影子殿)에는 정면에 달마로부터 원효, 청허 내지 서월까지의 큰 영정을 걸고 따로 1774년(영조 50)에 담양 서봉사에서 옮겨오신 원효의 화정을 걸었다. 나한전, 명부전, 선방, 칠성각 같은 것은 다 있고, 불상도 볼만하니 그래도 원효암의 창사이래 오랫동안 名刹이던 자취가 남아 있다 하겠다.[23]

라고 하여, "원효의 창사 이래 오랫동안 고찰이었던 자취가 남아있다"고 평가하였다. 당시에는 원효의 영정을 걸고 도량을 펼쳤을 정도로 사세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26년 일제 강점기 때 편찬된 『광주읍지』에서도 '원효암'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899년에 간행된 『광주읍지』와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다.

> 원효암. 주의 동쪽 35리 무등산에 있다. 세속에 전하기를 신승 원효가 세운 이유로 이름하였다.[24]

---

21) 『각사등록』 21, 전라도편 4, 各郡狀題, 계묘(광무 7) 9월 1일.
22) 『각사등록』 21, 전라도편 4, 各郡狀題, 계묘(광무 7) 9월 6일.
23) 최남선(1973), 「尋春巡禮」, 『육당최남선전집』.
24) 元曉菴在州東三十五里無等山俗傳神僧元曉所建故名(『광주읍지』, 사찰).

한편 1934년 간행된 『광주군사(光州郡史)』에서는 원효사의 창건 연대를,

> 신라 흥덕왕조에 고승 원효국사가 창건하였고, 풍치가 아름답고 고우며 광주 제1의 고찰이다.[25]

라고 하여, 지증왕~법흥왕대가 아닌 흥덕왕대로 설명하였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인 셈이다. 그런데 원효대사의 생몰연대가 617~686년(신라 진평왕 39년~신문왕 6년)으로 흥덕왕의 재위 기간(826~836년)과는 무려 209년의 차이가 있다. 또한 지증왕(500~514년)~법흥왕(514~540) 연간과도 100여 년의 간격이 있다. 『광주군사』 편찬자가 무슨 근거로 '흥덕왕대 창건설'을 주장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바로 이어진 '부기(附記)'에서 원효사의 연혁에 관한 기사가 오기이며, 이 기사를 사실로 할 경우 증심사가 원효사보다 오래된 사찰이 될 것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원효국사의 원효사 창건에 대해 사실여부를 알 수 없지만, 원효가 신라 13종파의 하나인 화엄종의 명승(名僧)이므로 구례 화엄사와 같은 명찰에 국사가 내유한 일도 있을 것이고, 이때 경치 좋은 이곳에 사찰을 건축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설 등을 통해 하나의 믿음으로 전해져 왔을 것이라고 보았다.[26]

1935년 2월 20일자 「동아일보」에, "元曉寺에 强盜襲擊說로 兩署總動員騷動-강도단이 응원대 모집하다가 無等山 包圍搜索中"이라는 기사가 있으며, 1949년 11월 10일 「동아일보」에도 "元曉寺 아지트 急襲"이라는 기사가 등장한다. 1930~40년대 지속적으로 '원효사'라는 명칭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1915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 관보」의 주지 이동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광주군 원효사'[1938년 이후에는 '광산군 원효사']로 기록되어

25) 新羅興德王朝高僧元曉國師の勅建にし風致明媚光州第一の古刹なり[『光州郡史』(1934), 現存する寺利, 元曉寺 沿革].
26) 『광주군사』(1934), 現存する寺利, 元曉寺 附記, 55~56쪽.
27) 같은 내용이 「자유신문」 11월 10일자에도 실려 있다.

있음을 알 수 있다.[28]

현대에 들어서 원효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한다. 1966년『광주시사』가 편찬되는데 여기에서,

> 고려 충숙왕 때에 화엄종의 한 명승이 이 계곡을 찾아와서 본사(원효암)를 세우고 원효대사의 이름을 따라 원효암이라 명명하였다고 한다.[29]

라고 하여 '고려 충숙대, 원효암 명명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어떤 역사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30]

이후 1979년 당시 원효사의 주지로 있던 신법타(申法陀)가 펴낸『무등산 원효사 -연혁과 복원에 관한 고찰-』(이하,『무등산 원효사』)을 통해 원효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무등산 원효사』는 총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원효사의 역사, 자료, 원효대사 약전(略傳), 무등산과 원효사, 원효 8경, 영규대사(靈圭大師)와 원효사, 김덕령장군과 원효사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제2편의 목차는 '중창복원계획 백서'인데, 1975년부터 1991년까지 17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세워 원효사 복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즉, 이 보고서의 발간 목적은 원효사의 역사적 전통을 확인하고 복원하기 위함이었다.

『무등산 원효사』에서는 "원효사의 개창 연대는 확실치 않다. 신라 진흥·법흥왕대라는 설도 있으나, 근거가 희박하고, 신라 삼국통일 전후기 문무왕대 원

---

28)「조선총독부 관보」 0832호(1915.05.14), 1078호(1916.03.10), 1424호(1917.05.05.), 1456호(1917.06.12), 2130호(1919.09.15), 2431호(1920.09.16), 3277호(1923.07.13), 0875호(1929.11.09), 1255호(1931.03.14), 1351호(1931.07.09), 1534호(1932.02.20), 2386호(1934.12.22), 3293호(1938.01.11), 3597호(1939.01.18), 4949호(1943.07.30).

29)『광주시사』(1966), 319쪽.

30) 박선홍(2000),『무등산 원효사』(도서출판다지리, 373쪽)에서는 "1980년 6월에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창건시기를 통일신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따라서 원효사는 통일신라 말기에 소규모 암자로 이루어졌다가, 고려 충숙왕 때 규모를 갖춘 사찰로 중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통일신라 창간, 고려 충숙왕 때 중창된 것으로 보았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효국사가 창건한 것은 믿을 만하다. 원효가 산명수려(山明水麗)한 서석산(瑞石山: 옛 무등산)을 좋아하여 암자를 대찰로 개축하여 주석(住錫)하였으므로 원효사(원효당, 원효암)라 이름지었다"고 적고 있다.[31] 이후 세간의 원효사에 관한 대부분의 소개는 『무등산 원효사』의 서술 내용을 따르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에 의하면, 원효사는 조선 중기 이전의 불교 박해기간에 폐사되었다가, 태고(太古) 보우(普雨)에 의해 문정왕후(文定王后) 섭정 때 일부 복구되었다고 한다. 또한 선조대 충청도 의승장 기허(騎虛) 영규대사가 수도했다고도 한다.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으며, 광해군 1년(1609) 증심사(證心寺)를 중창한 비구 석경(釋經)이 직접 기와를 구어 중창 복원하면서 천왕문을 세운 사실도 전하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에 소개된 이후 원효사의 중수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인조 5년(1627), 원담대사(圓潭大師) 중수
- 인조 14년(1636), 신원대사(信元大師) 중수
- 인조 15년(1637), 옥견대사(玉堅大師) 32불상 조성 봉안, 중수 및 중축
- 숙종 11년(1685), 신옥(信玉), 정식(淨式) 지붕과 기와 수리[補葺]
- 정조 13년(1789), 회운대사(會雲大師) 선방 신축
- 순조 2년(1802), 회운대사 대웅전 신축
- 순조 31년(1831), 회운당(會雲堂) 제자 내원(乃圓), 희관대사(羲寬大師) 중수, 단청
- 헌종 13년(1847), 내원대사 칠성전(七星殿) 신축
- 1930년, 지응현(池應鉉), 김정명월(金淨明月) 등 칠성각과 시왕전 대중수
- 1938년 경, 정응담사(鄭應潭師) 대중수
- 1944년, 주지 김동성(金東成), 지응현, 김정명월 등 석가탑과 관음탑 조성, 건물 보수
- 1950년 경, 6·25 전란 중 전소(全燒)
- 1954~1960년, 주지 김인곡(金麟谷), 총무 김금파(金錦波), 지응현, 김정명월,

31) 신법타(1979), 『무등산 원효사』, 원효사, 5쪽.

지창선(池昌宣)이 화주(化主)가 되어 현재 건물 중수

◦ 1954~1960년, 주지 김인곡(金麟谷), 총무 김금파(金錦波), 지응현, 김정명월, 지창선(池昌宣)이 화주(化主)가 되어 현재 건물 중수[이때 법당 초석에서 금동비로자나불 1구와 도제(陶製) 백불(白佛) 3구가 출현되었으나, 사가로 왕래 중 유실되어 종적이 묘연함]

◦ 1974년, 주지 정지우(鄭智牛) 발현으로 중창 복원불사 시작

◦ 1977년, 주지 신법타(申法陀) 17개년 계획 수립, 중창 진행 중

1977년 당시 신법타는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여 중수 내력을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실에 각주를 달아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32] 다만 앞서 설명한대로 「법당중창기」와 「불상기」의 내용을 원효사에 관한 것으로 이해한 것은 과장된 해석으로 보인다.

1979년 『광주시사』에서는 '원효대사가 원효사를 창건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1934년 『광주군사』의 '흥덕왕대 창건설'을 연대 차이를 들어 부정하였다. 『광주시사』에서는 최남선의 『심춘순례』(1926)에 소개된 원효사의 모습을 소개해 두었다. 그리고 사찰 경내에 있는 원효와 회운당 부도, 금동비로자나불, 범종, 송화식선생 사리탑과 탑비 등이 있음도 알려주고 있다.[33]

다음으로 원효사를 전적으로 다룬 자료는 국립광주박물관과 원효사에서 펴낸 『원효사(元曉寺)』(1983)이다. 1980년 5월 6일 원효사 대웅전 신축을 위한 정지작업 중 청동불상 등 수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상당수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원효사』는 바로 그 때의 발굴 상황을 정리한 학술보고서이다. 『원효사』에서도 연혁과 사적(寺蹟)을 적시해두었는데, 먼저 신라시대 불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32) 주로 인조 15년(1637) 「불상기(佛像記)」, 인조 19년(1641) 「법당중창기」, 헌종 13년(1847) 「원효암중건기」, 고종 31년(1894) 「원효암중수상량문(元曉庵重修上梁文)」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법타(1979), 같은 책, 7~14쪽. 이들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본문에서 따로 다루겠다.

33) 『광주시사』(1979), 697~698쪽.

> 신라시대 화엄교학은 의유계와 원효계의 두 조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원효계를 해동종이라 하였다. 해동종은 법성종이라고도 하여 분황사를 본산으로 법통을 성립하였다. 이 지방에서도 곡성 월봉리의 도림사, 구례 문척면 죽마리의 사성암, 여천 돌산면 과림리 향일암, 고흥 신호리석탑이 위치한 일명사지, 고흥 포두면 봉림리의 금탑사, 강진 성전면 월하리 무위사, 나주 경현리 다보사 등 원효대사의 족적이 미쳤건 안미쳤건 간에 많은 사원들이 원효대사의 창건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효, 의상, 윤필 등이 신라삼성으로 추앙되었으므로 각 대소사원에 인입되어 있는 반면 원효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들 삼성에 대한 전설과 일화가 산봉이나 계곡명에 인입되어 있다. 이는 아마도 고승대덕을 추앙한 나머지 이 지방에 미친 화엄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34]

이에 따르면, 원효사는 원효가 직접 창건한 사찰이라기보다는 원효·의상·윤필 등 '신라3성'을 추앙하는 차원에서 기존 대소 사찰에 전설이나 일화를 통해 원효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35] 즉, 원효사는 신라하대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창건된 소암자로 추정되는데, 개창연대는 확실치 못하다는 것이다.

〈표 1〉 원효사 관련 자료에 나타난 창건과 사명 내력

자료명	발간연도	사명	창건주체	창건시기	특이사항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원효사	×	×	
동국여지지	1656	원효사	×	×	
여지도서	1757~1765	원효사	×	×	
광주목지	1799	원효암	원효	신라시대	殘破, 數間小庵
원효암중건기	1847	원효암	원효	법흥~지증	

34) 『원효사』, 29쪽.

35) 경기도 안양시에 삼성산(三聖山)이 있는데, 신라 고승 원효·의상·윤필 세 스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삼막사(三幕寺)가 자리잡고 있다. 삼막사는 문무왕 17년(677) 원효·의상·윤필 3대사가 관악산에 들어와서 막(幕)을 치고 수도하다가, 그 뒤 그 곳에 지은 절이다. 사지(寺誌)에 의하면, 원효가 창건하고, 신라 말 도선이 중건하여 관음사(觀音寺)라 개칭하였는데, 고려의 태조가 중수하여 삼막사라 하였다고 한다.

자료명	발간연도	사명	창건주체	창건시기	특이사항
호남읍지	1871	원효사	원효	신라시대	殘破, 數間小庵
원효암중수상량문	1894	원효암	원효	신라시대	
호남읍지	1895	원효암	원효	신라시대	殘破, 數間小庵
광주읍지	1899	원효암	원효	신라시대	
광주읍지	1926	원효암	원효	신라시대	
심춘순례	1926	원효사	원효	신라시대	'元曉畵幀' 소개
광주군사	1934	원효사	원효	흥덕왕대	광주 제일고찰
광주시사	1966	원효사	원효	신라시대	고려 충숙왕대 '원효암' 명명
광주시사	1979	원효사	원효	신라시대	'흥덕왕대 창건설' 부정

이상에서 살핀 원효사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원효사의 창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원효사의 창건연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1847년 「원효암중건기」와 1934년 『광주군사』 그리고 1966년 『광주시사』 등이다. 각각 법흥~진흥왕 연간, 흥덕왕대, 고려 충숙왕대를 거론했다. 그런데 원효의 생애와 해당 국왕의 재위기간을 따져보면 100~2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미있는 주장은 아닌 것같다. 그리고 '고려 충숙왕대 창건설'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외의 자료에서는 "원효가 창건하였기 때문에 '원효사' 혹은 '원효암'이라고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원효의 활동시기 즉 7세기 중후반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에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효가 사찰을 직접 창건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시점 이후의 전언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같다. 둘째, 원효사는 '원효사'와 '원효암'으로 나뉘어 불렸는데, 18세기 이후에는 주로 '원효암'으로 호칭되었다. 이는 원효사가 '쇠락한 작은 암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원효암중건기」와 「원효암중수상량문」 그리고 1899년 『호남읍지』에는 '殘破, 數間小庵'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원효사가 중수되거나 수리가 끝난 상태의 사찰에 대한 표현과 사명 간에 약간의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1926

년 이후 현재까지 다시 원효사로 불린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Ⅲ. 사명의 연원과 시대적 배경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명 가운데 승려의 이름이 들어간 사례는 원효사(元曉寺), 도선사(道詵寺), 진관사(津寬寺), 보조암지(普照庵址), 청진암지(淸眞庵址), 자정암지(慈靜庵址) 정도에 그친다. 게다가 보조암지, 청진암지, 자정암지는 절터만 남았을 뿐이다.

승려 이름으로 작명된 사찰 가운데 진관사만 거의 유일하게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다. 진관사의 사력은 왜 '진관'이라는 승려의 이름으로 사찰명을 삼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36] 삼각산 도선사는 경문왕 2년(862) 도선

36) 진관사는 고려 현종이 재위 2년째 진관대사(津寬大師)를 위해 창건했다. 고려 경종이 죽자 젊은 왕비는 왕태후가 되어 파계승 김치양(金致陽)과 정을 나누다가 사생아를 낳았다. 그 때 목종에게 아들이 없어 태조의 아들이던 왕욱(王郁: 安宗)의 직손이며 법통을 이어받을 대량원군(大良院君)이 왕위 계승자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왕태후는 대량원군을 없애고 자신의 사생아를 옹립하기 위하여 목종에게 참소하여 숭경사(崇慶寺)에 가두고 죽일 틈을 엿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삼각산 신혈사(神穴寺)로 옮기도록 하였다. 신혈사는 진관(津寬)이 혼자서 수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 사실을 눈치 챈 진관이 본존불을 안치한 수미단 밑에 지하굴을 파서 열두 살인 대량원군을 숨겼으므로 왕태후가 보낸 자객의 화를 면할 수 있었다. 3년 뒤 목종이 죽자 대량원군은 개경으로 돌아가 현종이 되었고, 1011년 진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신혈사 자리에 대가람을 세우고 대사의 이름을 따서 진관사라 하였다. 그 뒤 진관사는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어서 여러 임금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선종 7년(1090)에 왕이 행차하여 오백나한재를 베풀었고, 숙종 4년(1099)과 예종 5년(1110)에도 왕이 행차하여 참배하고 시주하였다. 조선 태조 6년(1397) 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하였고, 국왕이 여러 번 행차하여 육지와 수중의 고혼과 아귀를 위하여 법식(法食)을 공양하는 수륙재를 지냈다. 1413년 태종도 이 절에서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한 수륙재를 열고, 향과 제교서(祭敎書)를 내렸으며, 수륙재위전(水陸齋位田) 100결을 하사하여 재를 계속하게 하였다. 이후 매년 1월 또는 2월 15일에 수륙재를 열었다(『양촌집』 권12, 記, 「津寬寺水陸社造成記」). 수륙재 관련 내용은 윤무병(1959), 「國行水陸齋에 對하여」,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를 참조할 것.

(道詵)이 창건하였다고 한다. 도선은 이곳의 산세가 1,000년 뒤의 말법시대(末法時代)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고 예견하고 절을 창건한 뒤, 큰 암석을 손으로 갈라서 마애관음보살상을 조각하였다고 한다. 그 뒤 조선 후기까지의 중건·중수에 관한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북한산성을 쌓을 때는 승병들이 이 절에서 방번(防番: 보초 임무)을 서기도 하였다. 도선은 태조 왕건이 훈요10조에서 거론한 인물로 고려 초 이후 사찰 입지의 건립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즉, 고려시대 이후 혹은 통일신라시대 후기 이후 도선은 고려사회에 사찰을 건립할 때 반드시 거론되거나 사력에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선의 이름을 내건 사찰은 삼각산 도선사뿐이다. 이는 승려 이름을 내걸고 사찰을 건립하기 쉽지 않았거나, 혹은 사명에 승려이름을 넣는 사례가 없었거나, 혹은 그러한 발상도 흔치 않았음을 뜻한다.

이처럼 승려 이름을 딴 사명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등산에 원효의 이름을 붙인 '원효사'의 창건 배경 또는 명명 배경이 궁금하다. 해동 화엄종주로 불리는 원효를 개산이나 창건 그리고 중창주로 하는 사찰은 모두 80여 개 소에 이른다.[37] 그 가운데 서당화상비, 『삼국유사』, 『송고승전』 등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분황사나 혈사와 같은 절을 제외한다면 무등산의 원효사는 절 이름 자체에 원효를 넣은 대표적인 사찰인 셈이다.

원효사는 무등산 원효사 외에 의정부 도봉산 기슭의 원효사,[38] 경상남도 양산 천성산 원효암, 부안 변산의 원효암, 북한산 원효암, 도봉산 원효사, 양산 원효사, 영일의 원효사,[39] 공주 원효사, 금산 원효사[40] 등이 있다. 원효가 사찰 이름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원효가 한국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37) 진정환(2010), 「원효와 관련된 사찰」, 『원효대사』, 국립경주박물관문화재단, 62쪽.

38) 1859년에 간행된 『武陵雜稿』(권70, 雜著)에 실린 「遊淸凉山錄」에는 "此後有元曉寺 西有義相峯 昔者 四聖人居是山 結爲道友 往還游息於斯云 余應之曰 元曉 新羅中葉僧 金生 義相 亦皆羅產而異世 最後者崔孤雲 其生在羅末 安得相從 爾無以贅說罔我 自此釋徒不得發誕厖"라는 기록이 있다.

39) 元曉寺 吾魚寺 俱在雲梯東恒沙洞 世傳新羅釋元曉與惠空捕魚而食遺矢水中魚輒活指之曰吾魚搆寺因名 慈藏寺 在雲梯山(『여지도서』 하, 경상도, 영일, 사찰).

40) 月峯寺 元曉寺 俱在進樂山(『신증동국여지승람』 권33, 전라도, 금산군, 불우).

위상을 생각하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도선의 이름이 들어간 사명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다. 특히 원효는 의상과 달리 사찰 건립에 나선 바가 없다. 원효는 자신의 집을 희사하여 초개사(初開寺)라 하였는데, 이후 한 곳에 거처하지 않고 사방을 다니면서 특이한 행적을 남겼다.[41] 원효가 초개사 이외의 다른 사찰을 창건했다는 기록은 없다.[42] 이와 달리 의상은 문무왕 16년(676) 왕명을 받들어 부석사를 창건하였다.[43] 이후 의상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찰을 창건하였으며, 이를 흔히 '의상화엄10찰'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적 차이를 생각해보면, 원효사를 원효가 직접 창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왕에 존재하는 사찰에 원효의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명이나 산명에 원효기 들어간 경우에는 의상이 함께 명기된다는 사실이다.

> ◦ (성거산의) 정상 서남쪽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에 원효대와 의상대가 있다. 의상대는 원효대 남쪽에 있다.[44]
> ◦ 뒤에는 원효사가 있고, 서쪽에는 의상봉이 있다. 옛날에 4명의 성인(원효, 의상, 김생, 최치원)이 이 산에 머무르면서 도우(道友)로 맺어졌다고 한다.[45]

성거산에는 원효대와 의상대, 청량산에는 원효사와 의상봉이 있다. 이는 무등산에 원효사와 의상봉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성거산은 고려 태조가 수

41) 『삼국유사』 권4, 義解, 元曉不羈 참조.

42) 양주 소요산의 소요사(逍遙寺)에 원효가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원효대와 원효정이 있다. 『記言』 별집 제9권, 記, 逍遙山記. 이는 원효가 머무른 곳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효의 이름을 딴 사찰이 세워지거나, 사명이 바뀌지는 않지만, 주변의 바위나 우물에 원효의 이름을 붙인 흔적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3) 高僧義相奉旨 創浮石寺(『삼국사기』 권7, 문무왕 16년 2월).

44) 絕頂西南次峯 有元曉 義相臺 義相臺 在元曉南(『記言』 제27권 하편, 산천 상, 聖居·天摩古事).

45) 此後有元曉寺 西有義相峯 昔者 四聖人居是山 結爲道友(『武陵雜稿』 권70, 雜著, 「遊淸凉山錄」).

헐원(愁歇院)에 거동했다가 동쪽 산 위에 오색구름이 있으므로, 신이 거처하는 곳이라 여기고 제사를 지냈으며 성거산(聖居山)이라 칭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태조와 세종이 온천에 행차할 때에도 여기에서 제사지냈다고 한다.[46] 청량산에도 원효, 의상, 김생(金生, 711～?),[47] 최치원 등 4명의 성인이 머무른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신라시대 이후 산천숭배신앙이 불교 또는 유교와 결합되면서 승려와 유학자가 성인으로 인식되어 숭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효와 의상은 같은 행적을 남긴 경우가 많다.

> 보광사(普光寺) 주지 통사(通師)가 대단히 이상한 고적(古笛)을 보관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공덕산 백련사 승 좌상에게서 얻었다."면서 사람을 시켜 불게 하니, 그 소리가 대단히 맑아 사랑할 만하였다. 공덕산은 본래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이 있던 곳으로 의상이 남겨 놓은 삿갓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 이 피리도 어찌 당시의 유물이 아닌지 알겠는가. 스님이 시를 지어 달라 하기에 그를 위하여 짓다.
>
> 하늘을 찌를 듯한 청산은 한 떨기 꽃인 양
> 원효와 의상이 여기서 놀았네
> 설법할 당시에 사람과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 아마도 선악이 공중에 퍼졌을 것일세 ……[48]

---

46) 高麗太祖嘗駐蹕于縣西愁歇院 東望山上有五色雲 以爲有神祭之 遂稱聖居山 我太祖 世宗幸溫泉時 亦祭之(『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稷山縣, 산천, 聖居山).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忠州牧 佛宇條 金生寺에는 "김생이 頭陀行을 닦으며 이곳에 머물렀기에 金生寺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김생은 서예로 유명하였지만, 불교 수행과도 연관된 인물로 보인다. 김생의 글씨로 전해지는 작품들이 모두 사찰 또는 불교와 관련된 점, '호불불취(好佛不娶: 부처를 좋아해 장가를 들지 않음)'하였다는 평가로 미루어 보아도 그러하다[秦弘燮편(1987), 『韓國美術史資料集成 1－三國時代～高麗時代』, 一志社, 487～491쪽].

48) 普光堂頭通師蓄古笛甚奇 自言得之於功德山白蓮社承座上 使人吹之 淸越可愛 功德山 是元曉·義相二公所棲之地也 義相所遺笠子 至今尙存 然則此笛亦焉知非當時之遺物歟 師請詩爲賦之. 靑山揷天玉一朶 曉相二公曾燕坐 當時說法動人天 應有仙樂飄空下(『東國李相國集』 제8권, 古律詩, 題通師古笛 并序).

이러한 속전은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가기 위해 함께 돌아다닌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김생과 최치원을 덧붙여 '사성(四聖)'이라고 부른 것으로 이해된다. 김생은 불교적 취향이 강했고, 최치원은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까닭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무등산 원효사를 비롯하여 '원효'가 들어간 사명은 왜 언제 출현하게 되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가 참고된다.

>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원효와 의상은 동방의 성인으로 碑記와 시호가 없어 그 덕이 드러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깊이 슬퍼하여 원효는 대성화정국사로, 의상은 대성원교국사로 추증하니 유사에서는 즉시 그들이 살던 곳에 비를 세우고 덕을 기록하여 무궁하게 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49]

고려 숙종 때 원효와 의상을 추앙하여 비기와 시호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중기에 원효와 의상을 호명하여 추증한 것이다. 이후 인종은

>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근래에 하늘에 변괴가 나타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하니, 은전을 베풀고 형벌을 관대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천지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재앙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유사에 명하여 …… 원효, 의상, 도선은 모두 옛날의 고승이니 해당 관청에 명하여 봉작을 추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50]

라고 하여, 원효와 의상 그리고 도선에게 봉작을 추증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근래에 하늘에 변괴가 나타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하니, 은전을 베풀고 형벌을 관대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천지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여 재앙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린 조치이다. 인조는 2년 전에 이자겸의 난을 겪은 후, 이를 수

---

49) 詔曰 元曉義相 東方聖人也 無碑記諡號 厥德不暴 朕甚悼之 其贈元曉大聖和靜國師 義相大聖圓敎國師 有司卽所住處 立石紀德 以垂無窮(『고려사』 권11, 숙종 6년 8월 癸巳).

50) 詔曰 比來天文有變 時令不調 冀推恩而寬刑 或調氣而消災 宜令有司 …… 元曉義想道詵皆古高僧 宜令所司封贈(『고려사』 권15, 인종 6년 4월 乙卯).

습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초지를 취하는 가운데, 원효·의상·도선 등의 고승에게 봉작을 추증한 것이다. 이처럼 고려 중기 숙종과 인종대 원효와 의상 그리고 도선을 추앙하고 추증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51]

한편 숙종은 조카로부터 왕위를 양위받고 자신의 아들인 예종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첨사부를 확충하였다. 여기에 자신의 측근인 윤관을 두어 세자의 강학을 책임지게 하였다. 이후 세자의 동궁에는 다양한 세력, 특히 기성의 정치권에서 활동하지 않은 신진세력이 대거 집결한다.[52] 무등산 처사 은원충(殷元忠)도 숙종의 명령으로 궁궐로 들어갔다.[53] 은원충은 주부동정(注簿同正)의 지위로 예종 즉위 초 동계 산천을 둘러보는 임무를 맡았다.[54] 물론 숙종이 원효와 의상에게 시호를 내린 때가 재위 6년째이고, 은원충이 입궐한 것은 8년째이지만,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수 백명의 사람을 등급을 뛰어 넘어 벼슬을 주었고, 공인·상인·천인까지도 등급을 뛰어넘어 높은 관직을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55] 은원충과의 관계는 즉위 전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예종은 태자시절부터 도교의 의식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는 부왕인 숙종의 정치적 의도와 맞물려 있었다. 숙종은 남경의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도성을 세울 계획도 갖고 있었다. 숙종 6년 9월 남경개창도감(南京開創都監)을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예종은 즉위 초 『해동비록(海東祕錄)』의 편찬을 명하였

51) 11세기 후반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원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화쟁국사로 추봉되었으며, 화엄종·법상종·천태종 3개 종단이 자신들의 교학적인 연원을 원효와 연결시켰다. 남동신, 「원효의 저술과 사상」, 『원효대전』, 국립경주박물관, 126~137쪽. 그러나 예종대 다시 선종이 흥기한 점을 떠올리면, 교종 입장의 의천 때문에 원효가 부각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52) 김병인(2003), 『고려 예종대 정치세력 연구』, 경인문화사, 13~16쪽.

53) 詔徵無等山處士殷元忠(『고려사』 권12, 숙종 8년 10월 庚午).

54) 遣內侍祗候智祿延 注簿同正殷元忠 司天少監許蓋卿·崔資顥等 巡視東界山川(『고려사』 권12, 예종 즉위년 11월 壬戌).

55) 其餘躐等遷官者 數百人 工商皂隷 亦有超授顯職者 有司莫敢言(『고려사』 권11, 숙종 즉위년 10월 庚辰).

으며, 재위 기간 중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남경에 행차하였다. 예종 2년 도교의 원시천존(元始天尊)을 숭배하였으며, 이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56] 이처럼 고려 중기 숙종대부터 원효가 중시되는 분위가 있었으며, 예종은 도교를 숭상하였다. 여기에 무등산에서 입궐한 은원충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려 중기 원효와 도교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은원총과 연관성을 갖고 있던 무등산 소재 기존 사찰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원효 창건설'을 수용한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57] 즉, 고려 중기 숙종과 인종대처럼 원효와 의상을 추앙하고 추증하는 어느 시점에 자신의 사력에 원효를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물론 그 시점이 반드시 고려 중기 숙종, 인종대라는 것은 아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원효가 한국불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그 중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원효라는 승려의 이름을 사명에 넣어 자신들의 사찰의 역사적 무게감을 더했을 가능성도 있다. 권극화(權克和)의 「서석규봉기(瑞石圭峯記)」에는,

> 예전에 의상대사께서 (규봉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 처음으로 정사(精舍)를 창건하였다. 이어 보조스님과 진각스님이 진체(眞體)를 길러 득도하였으니 꽃다운 자취가 여태도 남아 있다.[58]

라고 하여 무등산과 의상, 보조국사 지눌, 진각국사 혜심 등 고승을 연결시켜 놓았다. 즉, 무등산 원효사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원효사 사력을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처럼 원효 혹은 원효와 의상이 부각되는 어느 시점에 '원효'를

---

56) 김병인(2003), 「고려 예종대 도교 진흥의 배경과 추신세력」, 『역사학연구』 20, 3~9쪽.

57) 원효사와 관련된 설화에 의상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원효와 의상이 한 묶음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무등산에 있는 의상봉과 의상굴이 그것이다. 무등산 원효사와 관련하여 원효, 의상, 운필을 '신라3성'으로 추앙하는 전설과 일화가 남아 있다. 이를 통해 3인이 무등산 원효사에서 함께 수도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신법타(1979), 앞의 책, 39~41쪽].

58) 昔義相師 見而奇之 始創精舍 繼而普照眞覺 養眞得道 芳躅尙存. 權克和(1997), 「서석규봉기」, 『臥遊錄』, 정신문화연구원 영인본, 137쪽.

사명에 넣어 사찰의 위상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원효 창건설'이 확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절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사로 추앙받던 원효의 이름에 의탁한 것일 수도 있고, 원효의 대중교화를 본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59]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원효사의 격이 낮아지거나 역사적 위상에 문제가 생길 것은 아니다. 다만 원효사의 사력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으로 수용되었으면 한다.

Ⅳ.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원효사의 사명의 연원과 사찰의 중창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원효사의 사력은 분명히 않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처음부터 원효가 창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특히 고려 중기에 원효가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 사찰 가운데 하나가 '원효 창건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효사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증심사의 사적에 해당함에도 원효사의 그것으로 이해한 것이 있었다. 이는 무등산 불교문화권 내에서 증심사와 원효사의 역사가 혼재된 측면이 있었거나, 원효사가 증심사의 일부로 인식된 까닭으로 여겨진다.

셋째, 원효사의 사력과 관련하여 고려 중기 무등산 처사 은원충의 존재가 주목된다. 고려 중기 숙종은 원효와 의상에게 시호를 남겼으며, 무등산 처사 은원충을 입궐시켰다. 이후 예종대 은원충은 산천을 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숙종과 예종은 남경을 중시하였으며, 특히 예종은 도교를 숭상하였다. 인종은 원효에게 봉작을 내리고 추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

59) 진정환(2010), 앞의 논문, 69쪽.

려 중기 다양한 정치상황 속에서 원효가 중시되었으며, 무등산에서 입궐한 은원충과 연관된 어떤 사찰에서 '원효'와의 연관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원효사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 이후 조선후기 쇠락하여 '쇠락한 소암'으로 인식되었으며, 몇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사세를 유지해온 것을 보인다. '원효사' 대신 '원효암'이라는 사명이 등장한 것도 사세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들어서서는 '원효사'로 불리고 있다.

다섯째, 원효사는 '무등산'과 '원효'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원효사의 입지와 역사적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다산시문집』, 『동강유집』, 『동문선』, 『임하필기』.
『光州牧誌』(1799), 『湖南邑誌』(1871), 『湖南邑誌』(1895), 『光州邑誌』(1899), 『潭陽郡邑誌』(1899), 『昌平郡邑誌』(1899), 『朝鮮寺刹史料』 上(조선총독부, 1918), 『光州邑誌』(1924), 『光州郡史』(1933).
『光州市史』(1966), 『광주시사』(1979), 『광주시사』(1992).

광주직할시·향토문화개발협의회(1988), 『무등산』.
국립경주박물관(2010), 『元曉大師』.
국립광주박물관·원효사(1983), 『元曉寺』.
김대현 외(2010),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남동신(1999), 『원효』, 새누리.
박선홍(2008), 『무등산』, 도서출판다지리.
신법타(1979), 『무등산 원효사 -연혁과 복원에 관한 고찰』, 원효사.

김덕진(2013), 「나도규의 무등산 유산기와 지역의식」, 『역사와 담론』 65, 호서사학회, 351～382쪽.
UCI : G704-001545.2013..65.014
김병인(2003), 「고려 예종대 도교 진흥의 배경과 추진세력」,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20, 호남사학회, 1～21쪽.
UCI : G704-001257.2003.20..005
김병인(2015), 「화순 운주사의 '사명(寺名)' 변화와 그 함의」, 『호남학』 57, 호남학연구원, 1～32쪽.
UCI : G704-001854.2015..57.006
김순영(2013),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희(2016), 「조선시대 무등산 유람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변동명(2000),「고려후기의 무등산신앙과 광주」,『동아연구』3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55～178쪽.

변동명(2021),「삼국·통일신라기의 무등산과 광주」,『호남학』6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78쪽.

임준성(2012),「무등산 사찰제영시 연구」,『한민족어문학』62, 한민족어문학회, 211～241쪽.
UCI : G704-001066.2012..62.007

정 민(1998),「한문학 유산 속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한국한문학연구』21, 한국한문학회, 31～56쪽.

최남선(1973),「심춘순례」,『육당최남선전집』6, 현암사.

최원종(2021),「무등산 불교문화유산의 현황과 활용방안」,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재(愼齋) 김호영(金鎬永: 1907～1984)의「宿元曉寺」'元曉寺傳半萬年'.

김도수(金道洙: 1699～1733), 무등산 유람, 원효사 방문,『春洲遺稿』권1.

묵재(默齋) 이정규(李鼎圭: 1779～1857),『默齋遺稿』권1.

이부륜(李富倫: 1531～1598),「元曉庵 敬用先生丹峽韻」.

단산(丹山) 조원철(趙元喆: 1917～1977),『丹山集』권1, '元曉寺深稀客節'.

투고일자: 2021. 11. 15. **심사일자:** 2021. 11. 29.～2021. 12. 4. **게재확정일자:** 2021. 12. 9.

| 국문초록 |

원효사의 사력(寺歷)과 사명(寺名)에 대한 검토

본 논문에서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잡은 원효사의 사명의 연원과 사찰의 중창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원효사의 사력은 분명히 않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처음부터 원효가 창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통일신라시대 이후 특히 고려 중기에 원효가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존 사찰 가운데 하나가 '원효 창건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효사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증심사의 사적에 해당함에도 원효사의 그것으로 이해한 것이 있었다. 이는 무등산 불교문화권 내에서 증심사와 원효사의 역사가 혼재된 측면이 있었거나, 원효사가 증심사의 일부로 인식된 까닭으로 여겨진다.

셋째, 원효사의 사력과 관련하여 고려 중기 무등산 처사 은원충의 존재가 주목된다. 고려 중기 숙종은 원효와 의상에게 시호를 남겼으며, 무등산 처사 은원충을 입궐시켰다. 이후 예종대 은원충은 산천을 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숙종과 예종은 남경을 중시하였으며, 특히 예종은 도교를 숭상하였다. 인종은 원효에게 봉작을 내리고 추증함으로써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 중기 다양한 정치상황 속에서 원효가 중시되었으며, 무등산에서 입궐한 은원충과 연관된 어떤 사찰에서 '원효'와의 연관성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원효사는 정유재란 때 소실된 이후 조선후기 쇠락하여 '쇠락한 소암'으로 인식되었으며, 몇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사세를 유지해온 것을 보인다. '원효사' 대신 '원효암'이라는 사명이 등장한 것도 사세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들어서서는 '원효사'로 불리고 있다.

주제어 : 무등산, 광주, 원효, 원효사, 원효암, 사명, 사력

호남학 70 : 145~181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고흥 운곡사(雲谷祠)의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The Construction of Ungoksa and Activities of Posthumous Exaltation for the Ancestors in Goheung area

박 미 선**
Park, Mi-sun

목 차

Ⅰ. 머리말
Ⅱ. 자료의 검토
Ⅲ. 관련 가문과 향사 인물
Ⅳ.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Ⅴ.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network of Hyangbans in Goheung area in the late 18th century, by examining the construction of Ungoksa as the Munjungseowon in Goheung and the activities of posthumous exaltation for the ancestors by the descendants. First, the figures who were enshrined in Ungoksa and their families were reviewed. Ungoksa was established in 1785 and went through a process of branching, destruction, and restoration. The figures from four families were enshrined; Yeosan Songmun, Goheung Ryumun, Yeonggwang Jeongmun, and Namyang Songmun. The figures enshrined were those who practiced fidelity and integrity. Next, the construction process of Ungoksa in 1785 and the background of the 1796 branching were reviewed. The establishment and branch of Ungoksa was closely related to the selection of Hyangsa figures. According to the study, the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본고는 2021년 10월 29일 〈2021년 기초자료 조사수집 공동학술대회 민간기록유산을 통해 본 고흥의 역사와 문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수

selection of the figure enshrined was possible when complex factors were met, such as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public opinion of the Yurim outside Goheung, alliance or competition of Hyangbans, and the help of the Goheung official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the association of Hyangbans in Goheung area is connected not only with public networks such as Hyanggyo and Seowon, but also with private networks such as poetry associations.

Key words : Ungoksa, Goheung, GoHeung Ryu's family, Moonjungseowon, Hyangban, Posthumous Exaltation

Ⅰ.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은 16세기 중엽 양반사족들의 교육 기관이자 향촌기구로 설립되어 17세기 이후 붕당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곳곳에 자리하였다. 영조 17년(1741)에는 서원에 대한 각종 억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18세기에도 서원과 사우의 건립은 계속되었다. 고종 8년(1871) 47개의 서원 및 사우를 제외한 모든 서원을 철폐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서원 건립은 일단 막을 내렸다가, 광복 이후 훼철되었던 서원과 사우의 복설이 이어졌다.

조선시대 서원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 그렇지만 고흥 지역의 서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2009년 재동서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 배향 인물과 서원 건립 활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2] 이를 통해 재동서원의 출발은 고흥 향반들의 협력으로 건립된 운곡사(雲

1) 대표적인 서원 관련 저서는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는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鄭萬祚(1997),『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丁淳睦(1979),『韓國書院敎育制度硏究』, 영남대출판부; 이해준(2008),『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 윤희면(2004),『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李樹煥(2002),『朝鮮後期 書院硏究』, 一潮閣.

2) 윤희면(2009),「고흥 礪山 宋門의 충절과 齋洞祠」,『해양문화연구』 2집, 전남대학교

谷祠)에서 출발하였음이 밝혀졌다. 운곡사는 정조대 서원에 대한 금지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던 18세기 후반에 설립된 문중서원이다.[3] 운곡사는 고흥지역 문중서원의 하나이지만 건립과 분사 그리고 추배 과정 등에 나타난 재지세력의 동향과 가문 간의 역학 구조는 당시 향촌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조 현양 양상에 드러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서 주목된다.

이에 본고에서는『운곡오현행적(雲谷五賢行蹟)』,『운곡원집강안(雲谷院執綱案)』,『운곡사지(雲谷祠誌)』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운곡사의 건립부터 배향 인물의 변화, 그 후손들의 활동 등을 통해 선조 현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4] 이에 첫째,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특성을 정리하겠다. 둘째,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과 가계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운곡사의 건립과 배향 인물의 변천을 단계적으로 나누고, 후손들의 선향(先享) 활동을 가문 간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3) 서원과 사우는 설립 목적과 기능에 따라 구별된다. 서원이 인재양성과 강학의 기능에 초점이 있다면 사우는 향촌의 공이 있는 인물에 대한 제향과 향촌의 교화에 목적이 있다. 또 鄕祀人도 서원은 도덕과 학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우는 행의, 충절, 효열 등 향촌 내에서 존숭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서원, 사우에 존봉하는 인물에 구별이 없어지고 인재양성보다는 제향이 중시되면서 양자 사이에 구별이 점차 없어져 일반적으로 서원으로 칭해졌다. 또 서원과 사우를 합쳐 院宇, 院祠, 祠院이라고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사우를 서원의 범주로 묶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운곡사와 관련하여 현재 남아 있는 자료에는 '雲谷院', '雲谷祠', '院祠' 등의 명칭이 확인되는 만큼 본고에서 운곡사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요에 따라 사우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 본고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 수집한 〈高興 高興柳氏 忠正公(柳濯) 後孫家 所藏資料〉 중『雲谷五賢行蹟』(ID 223),『雲谷院執綱案』(ID 226),『雲谷祠誌』(ID 340) 이외에도『同會續錄』(ID 338),『滄溟集』(ID 664, ID 665) 등을 검토하여 작성하였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여러 관계자 분들과 1991년 간행된『雲谷祠誌』자료를 제공해주신 송호철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Ⅱ. 자료의 검토

운곡사의 건립과 운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운곡오현행적』,『운곡원집강안』,『운곡사지』등이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운곡사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한 바 있다. 이 중 ID 224, 225는 복사본으로『운곡오현행적』과『운곡원집강안』을 합본한 것이며, ID 244는 5장 분량이므로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운곡오현행적』(ID223),『운곡원집강안』(ID226),『운곡사지』(ID 340) 등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운곡사 관련 자료 서지사항[5)]

ID	書名	編著	版種	刊寫事項	형태사항	비고
223	雲谷五賢行蹟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12行28字 ; 43.1×25.4 ; 線裝	1冊 49張
224	雲谷院五賢行蹟錄	未詳	複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12行28字 ; 39.1×26.3 ; 線裝	行蹟과 執綱案 합본
225	雲谷院五賢行蹟錄	未詳	複寫本	未詳	上同	上同
226	雲谷院執綱案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有界 ; 4行字數不定 ; 44.5×27.3 ; 假綴	
244	興陽雲谷祠行蹟	未詳	筆寫本	未詳	不分卷1冊 ; 無界 ; 行字數不定 ; 無魚尾 ; 25.2×21.5 ; 假綴	5장
340	雲谷祠誌	-	新鉛活字本	1975 : 高興, 雲谷祠	3卷1冊 ; 有界 ; 12行28字 ; 上下向二葉花紋魚尾 ; 28.7×19.4 ; 線裝	李圭憲

5) 본 표는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 수집한 (2021-04-29) 〈高興 高興柳氏 忠正公(柳濯) 後孫家 所藏 資料〉(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운곡오현행적』은 운곡사 건립 직후 배향된 성재 류탁, 서재 송간, 참의 송대립, 고주 정운희, 승지 송침 등 5인과 관련된 기록이다. 별도의 서문이나 발문이 없고, 편찬 시기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통문이 을사년 곧 1785년에 쓰인 것이므로, 이 기록이 아무리 빨라도 1785년보다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목록은 오현 행적을 한 글자 높여서 쓰고 31개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행적(行蹟)', '축(祝)', '통문(通文)' 등으로 나누어진다.

행적에는 5인의 활동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록하였다. 류탁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 권근이 찬술한 비명, 이색의 『목은집』, 정몽주의 『초은집』 등에서 관련 내용을 뽑았다. 송간의 행적은 황경원(黃景源, 1709~1787), 홍낙명(洪樂命, 1722~1784), 홍양호(洪良浩, 1724~1802), 임제원(林濟遠, 1737~?) 등의 찬술문을 인용하였다. 송대립과 송침의 행장은 박광일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서산 유씨 유승(柳乘, 1677~?)이 찬술한 내용을 수록하였고, 이재(李縡)、유척기(俞拓基)、박필주(朴弼周) 등 18세기 노론 계열의 인물들에게 받은 묘갈명, 묘지명, 묘표 등이 정리되어 있다.[6] 이외에도 송침과 관련하여 이단하(李瑞夏)가 편찬한 『남관지(南關誌)』의 내용과 남태저(南泰著, 1709~1774)가 제술한 「안변남산역전망처사제문(安邊南山驛戰亡處賜祭文)」, 이의현(李義顯)과 민진원(閔鎭遠) 등의 충효전 발문 등을 수록하여 여산송문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정운희와 관련된 행적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지은 행장과 황윤석, 황경원(黃景源, 1709~1787)이 찬한 「고주집서」 등이 수록되었다.

축은 제사를 지낼 때의 축문인데 예성제축(禮成祭祝)과 양정축(兩丁祝)이 수록되어 있다.[7] 통문은 1772년부터 1785년까지 총 21건이 실려 있다. 수록

6) 묘지명, 묘갈명, 묘표를 받기 위한 송지행의 행적에 대해서는 박미선(2019), 「18세기 鄕班家의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를 참고하기 바란다.

7) 예성제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兩丁祝은 매년 두 차례 정일에 제사 지낼 때의 축으로 짐작된다. 『雲谷祠誌』에 따르면 매년 3월, 9월의 둘째 丁日을 제사

〈표 2〉『운곡오현행적』의 구성과 항목

구분	목록	세부 목록
行蹟	誠齋柳先生行蹟	忠臣傳, 碑銘, 仕宦, 誠齋銘, 誠齋詩, 直宗寺記
	西齋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狀誌後記
	參議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墓表
	孤舟丁先生行蹟	行狀, 孤舟集序
	承旨宋先生行蹟	行狀, 墓碣銘, 墓誌銘, 墓表, 南關誌, 安邊南山驛戰亡處賜祭文, 忠孝傳, 傳後跋
祝	禮成祭祝	-
	兩丁祝	-
通文 및 上書	通文 本邑章甫上書	壬辰(1772) 3월 9일 羅州, 癸巳(1773) 2월 일 능주, 癸卯(1783) 본읍, 答通 癸卯(1783) 幼學, 通文 壬寅(1782) 幼學, 壬寅(1782) 幼學, 壬寅(1782) 羅州, 壬寅(1782) 광주, 癸卯(1783) 보성, 癸卯(1783) 장성, 本邑章甫上書 乙巳(1785) 正月日, 館學通文 壬寅(1782) 태학, 壬寅(1782) 광주, 壬寅(1782) 羅州, 壬寅(1782) 南原, 壬寅(1782) 全州, 壬寅(1782) 본읍, 癸卯(1783) 羅州, 甲辰(1784) 광주, 甲辰(1784) 瑞鳳 疏會時 도내 儒林, 乙巳(1785) 총 21건

순서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통문을 보낸 지역은 나주·능주·광주·보성·장성·남원·전주·성균관 등이며, 주로 사우 건립과 배향인물의 당위성에 대한 공론을 활성화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모든 통문에서 5인 모두를 일괄적으로 배향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통문마다 배향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운곡집강안』은 1785년부터 1809년까지 운곡서원의 원장, 장의, 색장 등 원임직을 수행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원임은 서원을 운영하고 대표하는 직책으로 원장은 서원에 대한 일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실무로 유사를 두었

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명칭은 당색에 따라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었는데 서인계 서원의 원임은 원장, 장의, 색장, 별유사 등으로 규정되었다.[8] 『운곡사지』에는 원임을 원장 1원, 장의 1원, 색장 1원, 별유사 2원으로 규정하여 서인계 서원의 특성을 보였다.[9] 『운곡집강안』에서는 별유사는 없고, 원장 1, 장의 2, 색장 2~3인만 기록되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별유사의 역할을 색장이 함께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운곡사지』는 1975년 간행되었으며 운곡사의 연혁, 운영, 배향인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서문에 따르면 고흥류씨와 남양송씨 14인을 배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운곡오현행적』과 비교해서 보면 배향인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자료이다. 『운곡사지』는 1책 3권이며 1975년 작성된 이규헌의 서문과 고흥류씨 후손 류호석의 발문이 있다. 목록에는 23개의 항목이 정리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더 많은 항목들이 확인된다. 이에 목록과 본문을 참고하여 〈별표 1〉과 같이 항목을 정리하였다.

권1에는 위치, 연혁, 봉안문, 상향축, 복설봉안문, 복설상향축, 운곡사 창건 이후 사실, 제사물품, 향사 의절, 원임선정, 제관선정 등의 내용이 정리되어 서원 운영과 향사를 파악할 수 있다. 『운곡오현행적』에는 빠져있는 송촌 송인, 어우 류몽인, 송암 류순에 대한 봉안문이 있어서 여산송문의 분사 후 향사 인물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1975년을 기준으로 운곡사 배향인물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분사한 영광정씨와 관련된 봉안문을 확인할 수는 없다. 권2는 14인의 배향된 인물에 대한 사적(事蹟)이 정리되어 있다. 류탁의 사적은 『운곡오현행적』의 내용에 추가된 사항들이 확인된다. 영광정씨와 관련된 사적은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다. 권3은 운곡사 중건기와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통문은 1782년 운곡사 건립을 촉구하는 통문부터 1974년 전후의 통문이

8) 윤희면(2004), 앞의 책, 189~191쪽.

9) 『雲谷祠誌』 卷 1, 院任選定.

10) 1961년 『고흥군지』에서 운곡사 배향 인물은 14인이었고, 1975년 『雲谷祠誌』에서도 14인을 배향하였다. 고흥류씨 柳滌을 추향하여 15인으로 늘어난 것은 그 이후의 일이 된다.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1961년 11월 고흥 향교의 연명으로 복설할 때의 통문에서부터 1973년까지 통문이 추가되어 있다. 『운곡사지』의 통문 가운데 일부는 『운곡오현행적』의 통문과 중복되는데 『운곡오현행적』의 통문 중 고흥류씨와 관련된 통문만을 재수록 한 것이었으며, 송인, 류몽인, 류순 등 훼철 이전에 추가 배향 인물에 대한 통문과 연도 미상의 류청신, 류습, 송순손, 류충신, 류충서, 송제, 송덕일, 송선, 송영, 류계 등을 배향하는 통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 『운곡오현행적』과 『운곡집강안』은 1785년 운곡사 설립을 전후하여 이곳에 배향된 인물과 운곡사 건립 및 운영의 일단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또 1975년 『운곡사지』는 운곡사 건립 후의 운곡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만 1975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운곡사 복설시 빠진 영광정씨에 대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Ⅲ. 관련 가문과 향사 인물

1785년(정조 9) 여산송문, 고흥류문, 영광정문이 함께 운곡사를 설립하고 이곳에 그들의 선조를 배향하였다. 그렇지만 1796년(정조 20) 여산송문이 서동사로 위패를 모셔갔고, 남양 송문의 인물이 추향되었으며, 광복 후 복설할 때에는 영광정문이 위패를 내어 안동사에 별도로 모시면서 배향인물도 변화되었다. 이에 먼저 배향 인물과 관련된 가문을 살펴보겠다. 이 가문들은 고흥의 대표적 성관 가문 중 4가문과 관련된다.

첫째, 여산송문은 고려 때 진사(進士)로 공을 세워 여산군(礪山君)에 봉해지고 은청광록대부추밀원부사(銀靑光錄大夫樞密院副使)에 추증된 송유익(宋惟翊)을 시조로 삼는다. 그 뒤 고려 원종 때 4대손인 송송례(宋松禮)가 고려 무신정권기 임연(林衍)을 제거하는 공을 세워 여산송씨 가문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송간(宋侃, 1405～1480)이 고흥에 입향 한 후 그 후손들이 고흥에 터를 잡게 되었다. 그 후 송간의 후손들이 무과에 응시하여 무반 가문으로 성장하였

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에 연달아 큰 공을 세우고 순절하면서 고흥에서 중요한 성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고흥류문은 고려 개국 후 고흥의 호장(戶長)이었던 류영(柳英)을 시조로 하고, 그의 7세손 류청신이 고려 충선왕 때 판밀직사사를 거쳐 삼한삼중대광도첨의정승에 올라 고흥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관향(貫鄕)을 고흥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그의 자손들은 여말선초 음보로 관직에 나아가 사신 활동 및 무공을 세워 조선 초 가문을 명문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는 전투에서 순절하여 고흥의 충절을 실천한 주요 성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셋째, 영광정문은 그 시조가 당나라에서 대승상을 지낸 정덕성(丁德盛)으로, 무관을 지낸 정진(丁晉)과 그 손자인 정찬(丁贊)으로 이어진다. 정찬은 공민왕 때 밀직부사와 서북면 병마사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상춘곡으로 유명한 정극인(丁克仁)이 있는데, 세종대에 불사를 자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귀양을 갔고 후에 태인으로 낙향하였다. 그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칠현(七賢)은 진사로 세조 때에 고흥으로 이거하여 터를 잡았다. 칠현의 아들 정성(丁性)도 진사시에 입격하여 3대가 연속으로 소과에 올라서 고흥에 입향할 때에 명문가문으로 입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11]

넷째, 남양송문은 당나라 사람으로 고려에 귀화한 규(奎)가 시조이다. 고려 때에 그의 후손 진(進)이 호장을 지냈으며, 진의 후손 공절(公節)의 아들 침(琛)이 남양군에 봉해져서 본관을 남양으로 삼았다. 『남양송씨세보』에 의하면 1783년 흩어져 있었던 자료를 모아 초보(草譜)를 만들었고 1801년 족보를 발간하였다. 이 족보에 따르면 안동파, 서호파 등의 계파가 확인되는데 모두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들로부터 연원하였다. 때문에 운곡사에 배향된 남양송문 인물들의 선조에 대한 역사는 자세히 기록하기 어렵다.[12]

---

11) 이욱(2015), 「정걸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가문」, 『명장 정걸장군』, 고흥군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29~31쪽.

12) 『南陽宋氏世譜』.

〈표 3〉 운곡사 향사 인물의 변화

구분	礪山宋氏	高興柳氏	靈光丁氏	南陽宋氏	합계	비고
1785년 (정조 9)	宋侃 1405～1480	柳濯 1311～1371	丁運熙 1566～1635		5	-
	宋大立 1550～1597					
	宋諶 1590～1637					
1796년 (정조 20) 이후		+柳夢寅 1559～1623	+丁傑 1516～1597	+宋寅 1356～1432	7	*여산송문 3인 빠짐 *추향시기는 차이 있음
		+柳淳	+丁德輔 1711～1795			
1960년 이후		+柳淸臣 ?～1329		+宋順孫 ?	14	*영광정문 3인 빠짐 *1975년 이후 柳滌 추향
		+柳濕 1367～1439		+宋悌 ?		
		+柳忠信		+宋德駟 1566～1616		
		+柳忠恕		+宋瑄 1550～?		
		+柳溪		+宋瑛 ?		

이상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들과 관련된 가문을 살펴보았다. 1785년 운곡사가 건립될 때 배향된 인물들은 송간, 송대립, 송침, 류탁, 정운희 등 5인이었다. 여산송문의 송간, 송대립, 송침 등 3인의 위패를 따로 모시게 된 1796년 이후에는 류탁, 정운희 등 2인 이외에도 시차를 두고 5인이 추향되었다.[13] 류

13)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몽인, 류순, 정걸, 정덕주 등 고흥류씨, 영광정씨 이외에 새롭게 남양송씨 송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1960년 복설될 때에는 영광정문 3인이 빠지게 되었다. 그 후 운곡사에 고흥류씨 5인과 남양송씨 5인이 추향되어 배향 인물은 14인이 되었다.

이렇게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은 절의, 충절이 뛰어나거나 신원을 통해 복권된 자 들이었다. 첫째, 절의의 덕목이 뛰어난 자로 여산송씨 송간, 남양송씨 송인, 송순손 등이 배향되었다. 송간은 세종, 문종, 단종 3대에 걸쳐 주요 관직을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이른 인물이었다. 1455년(단종 3) 도진무(都鎭撫)로 호남지방을 순무할 때에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폐되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벼슬을 버리고 여산으로 가서 은거하였다. 단종이 죽자, 3년 상을 마치고 고흥 마륜촌의 서쪽에 거처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후세에 재평가 되었다. 정조가 사육신에 대한 복권을 허락하자 송간의 행적도 단종에 대한 절신(節臣)으로 재평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송인은 남양송씨의 중시조로 두문동 72인에 속하는 고려 말 충신이었다. 고려에 대한 굳은 절개가 있었고, 정몽주, 이색, 이숭인과 사우의 관계였다고 전한다. 송순손은 생원으로 김굉필에게서 글공부를 하였는데, 의를 지키며 몸을 피한 곳이 고흥의 서호였다. 이후에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도를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다.

둘째, 충절의 덕목이 뛰어나 향촌에 귀감이 된 인물들이 배향되었다. 왜구 등을 격퇴하거나 임란, 호란 등의 전쟁에 참전하여 군공을 세운 인물들이었다. 운곡사에 배향된 많은 인물들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여산송문의 인물로는 송대립, 송침 등이 있었다. 송대립은 송간의 6대손으로 정유재란 때에 전공을 세우고 전사하였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고, 정유재란 때에는 창의별장(倡義別將)으로서 고흥 첨산에서 왜군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고흥 망제도에서 왜선을 수색하고 왜군을 섬멸하며 유인하던 중 왜군의 조총을 맞고 전사하였다. 그 후 그의 군공과 충절이 높이 평가되어 선무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송침은 송간의 7대손이자 송대립의 셋째 아들로 정유재란 때 아버지가 전사하자 그 복수를 위해 어려서부터 무예를 연마하여 1614년(광

해군 6) 무과에 급제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수군통제사 구굉(具宏, 1577~1642)의 천거로 선전관이 되었으며, 1635년에는 함경도 홍원현감이 되었다. 1636년 그는 북병사 이항(李沆, ~1637), 남병사 서우신(徐佑申) 휘하의 척후장으로서 청군 소속의 몽고병을 추격하여 안변(安邊) 남산역(南山驛)에서 전후영장(前後營將)과 함께 공격하다가 전사하였다[정축의 변].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무예를 연마하여 나라를 위협하는 청군을 공격함으로써 아버지와 국가에 대한 '충효'를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었다.

고흥류문의 인물로는 류순, 류습, 류충신, 류충서, 류계 등이 있었다. 류순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에 임금을 호종하고 곡식을 운반한 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종부시 주부가 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북풍시(北風詩)를 지어 족질(族姪) 류몽인에게 전하고 바로 낙향하여 은거했다. 류습은 류탁의 아들로 태종 때 원종공신이 되어 육조의 전서(典書)를 역임한 후 전라, 충청, 평안도의 도절제사를 지냈다. 하정사(賀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오고 1419년(세종 1) 우군원수(右軍元帥)로 대마도 정벌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류충신은 1564년(명종 19) 음보(蔭補)로 부사직이 되고, 1570년 무과에 급제하여 군기시 주부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많은 전공을 세웠다. 류충서는 1592년(선조 25) 의주로 파천하는 왕을 호종했고 행주성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류계는 1592년(선조 25) 계부(季父) 류충서를 따라 왕을 의주로 호종했으며 그 후 권율과 이순신의 막하에서 활약하여 선무원종공신에 올랐다.[14]

영광정문에는 정운희, 정걸 등이 있었다. 정운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와 군량미를 후원하고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효행과 학행이 뛰어났다. 정걸은 무과에 급제한 후 을묘왜변, 임진왜란 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까지 전라우수사를 역임했던 정걸은 고흥에 머물면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요청으로 조방장이 되었고, 전라좌도 수군이 전선 건조와 무

14) 가장 늦게 추향된 柳滌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국왕이 파천 소식을 듣고 이순신의 진중에서 방책을 내어 돕던 중 불행히 중도에서 죽었다.

기 제작 등의 준비를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부산포 해전에 직접 출전하여 일본 수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전공을 세웠다.

남양송문의 인물로는 송제, 송덕일, 송선, 송영 등이 있다. 송제는 젊은 나이에 벼슬에 올랐고 임진왜란 때 왕을 모셨으며 호서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우며 적을 사로잡아서 포상을 받았다. 송덕일은 젊은 나이에 훈련첨정이 되어 임진왜란 때 왕이 서해로 피난할 때 배행하였다. 또 왜적을 물리치는데 힘써서 병사로 제수되었다. 송선은 기묘한 전술로 정유재란 때 적을 물리쳤다. 송영은 6년 동안 양친의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지냈고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 벼슬을 받아 왕이 서해로 피난 갈 때 모셨다. 이순신의 막하에서는 적과 싸워 많은 공을 세워서 원종공신으로 표창되었다.

셋째, 신원 또는 복권된 인물로 류탁, 류몽인, 류청신 등이 있었다. 류탁은 고려 말 대신으로 홍건적 격퇴에 공을 세웠으며, 공민왕에게 노국대장공주의 영전(影殿)을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간언을 올렸다. 이후 신돈의 일파로 몰려 죽음을 당하였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 이성계가 그를 특진보국고흥백(特進輔國高興伯)으로 추증하고 충정(忠靖)이라는 시호를 부여하여 복권되었다. 류몽인은 광해군 대에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지 않아 1623년 인조반정 때 화를 면했으나 류응시(柳應時)의 고변으로 아들 약(瀹)과 함께 사형되었다. 이후 정조 때 신원(伸寃)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어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류청신은 여러 번 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외교에 능했다. 충렬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왕의 특명으로 고향인 고이부곡이 고흥현으로 승격되는데 기여하였다. 1308년 고흥군(高興君)에 봉(封)해졌으며, 1321년(충숙왕 8) 정조사(正朝使)로 원나라에 가서 1329년(충숙왕 16) 73세로 죽었다.『고려사』간신전에 입전되었지만 조선 태조 때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조선후기 가문의 복권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운곡사에 배향될 수 있었다.

Ⅳ.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15)]

1. 운곡사의 건립

조선시대 서원은 지방관을 통해 중앙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허락을 얻거나, 유림(儒林)이 예조에 상소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아서 설립되었다. 고흥 지역에서의 사우 건립은 후자에 해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고흥 지역 사우의 건립에 대한 유림의 공론은 이미 1770년대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즉, 나주와 능주에서 1772년, 1773년 각각 1차례씩 도합 100명이 송대립과 송침 부자의 충절에 대해서 향사를 해야 한다는 공의가 조성되었다.[16)] 그렇지만 당시 사우의 건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1780년대가 되어서 다시 고흥지역의 서원 건립에 대한 공론이 활발해졌다. 17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송대립, 송침 부자에 대한 충절이 사우 건립의 논리로 작동하였지만, 1782년(정조 6)에는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생육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고흥에서도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17)] 특히 성균관 거재 유생 한덕보 등이 송간을 주향으로 하는 사우 건립을 촉구하며 호남지방에서도 공론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면서 전라도 전역에서 공론화 될 수 있었다.[18)] 광주, 나주, 남원, 전주 등에서 100명 이상의 유생들이 뜻을 함께 하여 송간의 사우 배향에 동참했다.[19)]

---

15) 여기에서는『雲谷五賢行蹟』과 1975년『雲谷祠誌』를 통해서 고흥 향반들의 선조의 현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안동사로 분사한 영광정씨와 관련하여『운곡오현행적』에 기록된 정운희에 대한 기록만 확인하였으며 영광정문 후손들의 현양활동은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둔다. 즉 여산송문, 고흥류문, 남양송문 후손들의 선조 현양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6)『雲谷祠誌』卷 3, 通文 壬辰 3月 9日; 癸巳 2月 日.

17)『정조실록』권 13, 정조 6년 5월 을유.

18)『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太學 進士 韓德普.

이때에는 송간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배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류탁의 절행과 불교 배척 및 관향 등을 근거로 나주, 광주의 유생들이 통문을 올려 공론이 만들어졌다.[20] 고흥읍에서는 유생들이 류탁, 정운희를 병향하는 것이 적합한지 향교 재회(齋會)에서 논의하였으며, 또 금탑사에서 재회를 할 때 류탁, 정운희, 송대립, 송침 등의 향사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21] 송간과 병향 할 인물들에 대한 당위성은 통문으로 계속 이어졌다. 1783년에도 류탁의 배향에 대한 보성 유생들의 통문이 이어졌고,[22] 고흥읍의 유학이 정운희의 배향을 촉구하였다.[23] 고흥읍에서는 송대립, 송침을, 나주에서는 송간, 송대립, 송침 등 조손 3대를 한 실에서 제사지내도록 통문을 발의하였다.[24]

이런 과정을 통해 여산송문의 송간, 고흥류문의 류탁, 영광정문의 정운희가 배향인물로 우선 확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4년, 1785년 도내 유림 및 광주의 유생이 보낸 통문의 내용을 보면 "류탁, 송간, 정운희의 절의를 드러낼 사우를 영건하는데 송대립, 송침 부자의 쌍절을 함께 제향 할 것"을 촉구하는 공론을 형성하고 있어서,[25] 송대립, 송침 부자의 향사는 마지막까지 공의를 모으는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원의 건립은 장성, 나주, 광주 유생의 통문으로 볼 때, 1784년 추정(秋丁) 전까지 완성되기를 촉구하였지만,[26] 1785년까지도 흉년이 계속되고 물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건립에 어려움이 많았다.[27] 그렇지만 당시 고흥현감

19)『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光州 幼學 崔雲之 ; 羅州 進士 金之獜 ; 南原 儒林 李景煥 ; 全州 儒林 蘇洙集 ; 本邑 章甫 申應澤.
20)『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羅州 進士 吳時裕 ; 光州 幼學 柳匡國.
21)『雲谷五賢行蹟』, 通文, 壬寅(1782) 本邑 幼學 申道活.
22)『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寶城 幼學 朴致鳳 ; 長城 幼學 金敬徹 ; 羅州 ; 光州 柳宗坤.
23)『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本邑 幼學 朴挺亨.
24)『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幼學 申漢檜 ; 羅州 吳赫源.
25)『雲谷五賢行蹟』, 通文, 甲辰(1784) 道內 儒林 朴寅鎭 ; 乙巳(1785) 光州 進士 朴夏鎭.
26) 유생의 통문으로 볼 때 1783년 또는 1784년으로 생각되는데, 1785년 통문에서 이전에 보낸 문서에서 秋丁 전까지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1785년에서 가까운 1784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었던 최수로(崔守魯) 등의 협조로, 두원면 운곡리 운람산 기슭에 운곡사가 건립될 수 있었다.[28]

이상 서원이 건립될 때까지 생산된 21건의 통문이 발의된 시기와 그 대상을 검토하여 운곡사 건립 과정과 향사 인물이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송간→송간, 류탁, 정운희→송간, 류탁, 정운희, 송대립, 송침' 등으로 배향 인물이 확정된 공론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송대립, 송침에 대한 통문이 7건으로 1770년대 2건의 통문을 제외하고도 5건이 운곡사 건립 직전까지 작성되어 가장 마지막에 배향 인물로 합의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운곡사의 분사와 추향

운곡사의 건립 후 세 가문이 함께 향사를 지내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운곡사 창건 이후의 사실을 살펴보면 "12년 후 병진년 송씨를 재동으로 이향하였다. 송인, 류몽인, 정걸, 류순, 정덕주를 추가로 배향하였다."라고 하였다.[29] 1796년 봄 여산송문은 따로 떨어져 나갈 것을 결정하고 그해 가을 운곡사 강당을 헐고 문장(門墻)을 거두어 갔다.[30] 여산송문은 송간의 유지인 동강면 마륜리 서재골에 터를 잡아 헐린 강당의 자재로 사우를 건립하고 송간, 송대립, 송침의 위패를 따로 봉안하였다. 이에 고흥류씨와 영광정씨 후손들이 매우 통탄스럽게 여겼다. 특히 강당은 강학을 하는 곳으로 유풍(儒風)이 넘치는 곳인데 여산송문과 의견이 갈리어 결국 강당과 문장을 훼철해 내어가자 서원의 풍

27) 『雲谷五賢行蹟』, 通文, 癸卯(1783) 長城 幼學 金敬徹 ; 羅州 ; 광주 柳宗坤 ; 乙巳 正月 日 ; 本邑章甫上書.

28) 『雲谷祠誌』 권 1, 沿革. 位置. 광복 후 1960년 고흥군 고흥면 호산리 수덕산 남쪽 기슭에 건립하였다.

29) 이 기록으로 보면 분사의 시점이 1797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재동서원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에서 1796년을 분사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1796년으로 정리하였다.

30) 『滄溟集』 卷5, 「書雲谷祠尋院錄後」.

모가 황량해 진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31] 그 후 운곡사는 1798년이 되어서야 강당 중수를 착수할 수 있었다.[32]

그렇다면 여산송문은 왜 분사하였던 것일까? 이후 송간에 대한 국가적 추숭의 과정을 보면 운곡사에서의 권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분사의 이유가 오히려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 까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1791년(정조 15) 성균관 사성 성종인(成種仁)이 생육신과 같은 인물로 송간 등을 영릉에 배향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상소를 올려 송간의 포장이 거론되었고, 1792년(정조 16) 정조가 영릉으로 행차할 때 송간에게 증직과 시호를 올려달라는 상소가 고흥 생원 박찬민 등에 의해서 올라가서,[33] 1793년 이를 예조가 검토한 후 정조가 허락하여 송간의 시호가 충강(忠剛)으로 정해지고 의정부좌참찬에 증직되었다.[34] 송간에 대한 증직과 시호라는 추숭의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여산송문의 분사는 너무 뜻밖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해군 때의 문신이었던 류몽인의 신원에 따른 추배의 움직임이 여산송문의 분사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여 주목된다. 류몽인은 1623년(인조 1)에 무고로 억울하게 처형되었다가 170여 년이 지난 1794년(정조 18) 그의 7대 방계 후손 서부(西部) 유학(幼學) 류화의 상언으로 신원 가능성이 열렸다.[35] 그리고 류몽인의 관작 회복은 국왕 정조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다.

1794년 정조는 류몽인 후손 류화의 상언으로 류몽인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도록 분부하였지만 의금부는 류몽인의 관작 회복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정조는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였다. 판중추부사 박종악은 류몽인의 활동이 광해군과 입장을 달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위해 절의를 다한 것을 가지고 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므로 신원해 줄 것을

31) 『滄溟集』 卷7, 「雲谷院講堂重建開基祝(戊午)」.
32) 『滄溟集』 卷5, 「雲谷書院講堂重修上樑文(戊午)」.
33) 윤희면(2009), 앞의 논문, 28쪽.
34) 『정조실록』 권 38, 정조 17년 12월 경진.
35) 배재홍(2017), 「於于 柳夢寅의 생애와 間世立後」, 『강원사학』 29집, 강원사학회.

아뢰었다. 반면 판중추부사 김희는 류몽인이 대북파와 입장이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조반정에 적극 동조하여 참여하지 않고 은거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신원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류몽인의 신원이 공론이며, 그가 광해군 때에는 은거하여 정도(正道)를 지켰고, 반정 후에는 절의를 지켰다고 하여 높이 평가하며 신원할 것을 명령하였다.[36] 이러한 류몽인의 신원에 대해서 정조는 여론을 살피면서도 류몽인의 죽음은 불사이군의 의리 때문이라며 사육신(死六臣)과 같다고 평가하였다.[37] 또 정조는 그의 충절과 절개가 생육신(生六臣) 김시습과 같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류몽인에게는 판서의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리도록 하고, 아들 류약은 복관하고, 조카 류찬에게는 당상관 3품의 벼슬을 추증도록 하였다. 또 몰수한 류몽인의 재산을 돌려주도록 분부하고 방계의 친족 중에서 사손(嗣孫)을 정하여 제사지내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류몽인은 이조판서로 추증되고 류찬은 이조참의로 추증되었으며, 류약은 수찬(修撰)의 관직이 회복되었다.[38] 1796년(정조 20) 4월에는 류몽인에게 의정(義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짐으로써 류몽인은 완전한 신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39]

불과 1년 전 송간에게 생육신과 같은 절의를 이유로 시호와 증직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뒤이어 류몽인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진 것이다. 류몽인이 정조에 의해서 사육신, 생육신과 같은 인물로 호명되었고 신원이 되어 추증까지 되자 고흥지역의 유생들이 먼저 통문을 통해 류몽인을 추향하자는 공론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볼 때 류몽인을 운곡사에 추향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불만이 여산송문의 분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류몽인의 추향과 관련해서 당시 공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1795년 류몽인이 고흥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가

36)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5월 무술; 『일성록』, 정조 18년 5월 12일.
37) 『일성록』, 정조 18년 5월 12일;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5월 무신; 『일성록』, 정조 18년 5월 22일.
38) 『정조실록』 권40, 정조 18년 9월 갑인; 『일성록』, 정조 18년 9월 30일.
39) 『정조실록』 권44, 정조 20년 4월 계미.

은거하던 때에 지은 정자 감로정이 호산에 위치해 있으므로 그의 위패를 고흥에서 모셔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다.[40] 류몽인과 그의 아들이 죽어 그의 제사를 지내주는 사손을 찾아야만 했던 상황에서 그의 흔적이 남은 곳은 고흥뿐이었으므로 이곳에 사당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41] 그 해 9월에는 향교의 장의와 유사도 같은 논리로 추향을 촉구하였다.[42]

이러한 공론이 고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논의가 제기된 1795년 바로 그 해에 류몽인의 위패가 운곡사에 배향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1797년에도 류몽인의 위패를 추배해야한다는 공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에서는 성균관에서 이미 사당을 세우라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류몽인의 영정을 다른 곳이 아닌 고흥에 모시는 것이 당연하며 위패를 봉안하는 도리로서 영정을 배향하는 의례를 상고하도록 하였다.[43] 남원의 통문에서도 영정이 고흥에 있고, 성재 류탁의 사당이 고흥에 있으므로 그의 위패를 그 선조의 사당에 추배하는 일이 조금도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며 논의가 발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44] 광주에서도 특이한 충절이 있으면 사당을 세워 제사를 모시며 추모하는 마음을 새기는 것이 선비들의 공의라는 의견을 내었고,[45] 나주에서도 류몽인을 수양산 백이와 매월당 김시습에 비유하며 공의에 따라 선생의 영혼을 운곡사에 모시는 것이 매우 다행한 일이 될 것이라는 통문을 보냈다.[46] 이러한 통문의 내용과 류몽인의 진영봉안문, 위패봉안문 등을 통해 볼 때, 진영은 1795년 봉안되었고, 위패는 그보다 늦는 1799년에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47]

---

40) 『雲谷祠誌』, 通文, 乙卯 2월 17일 宋基守.
41) 『雲谷祠誌』, 通文, 乙卯 윤 2월 10일 정효삼.
42) 『雲谷祠誌』, 通文, 乙卯 9월 장의 李.
43)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1월 10일 全州 金之元.
44)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1월 15일 南原 李奎煥.
45)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2월 20일 光州 柳在淵.
46) 『雲谷祠誌』 卷3, 通文, 丁巳(1797) 12월 羅州 崔翊東.
47) 『雲谷祠誌』 卷1, 奉安文,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한편 남양송씨 송인의 추향도 이루어졌다. 송인이 추향된 이유는 고려 말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은거하여 손수 은행나무를 심고 자신의 호를 행정이라고 하고 지조를 지켰기 때문이다. 두문동의 제현들은 영조 때 모두 포양되었지만 송인만이 묻혀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영남 고령 문연서원의 도회소에서 통문을 발송하였다.[48] 광주에서도 두문동 72인에 해당하는 송인을 포양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49] 남원에서는 송인의 추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50] 또 송인의 후손이 고흥에 대대로 살아왔으므로 제향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흥 유생 임탁의 발의도 이어졌다.[51] 송기일도 다른 두문동 제현들과 달리 제향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석해 하면서 향교에서 모여 빨리 논의하고 제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52] 이러한 통문들이 작성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송인을 모시는 봉안문을 1803년부터 1805년 재임하였던 현감이었던 최시순(崔時淳)이 찬술하였고, 송인을 합향하는 고유축이 작성된 시기가 계해년 즉 1803년으로 추정되므로, 1803년을 전후하여 통문이 작성되고 운곡사에 배향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3]

류순의 배향에 대한 통문은 1832년 고흥 유생이 발의하였다. 류순은 대대로 고흥에 산 효자로 시문을 잘 지었고 1592년 임진왜란 때 임금이 피난 갈 때 모시고 따라갔으며 군량을 운송하였다. 또 1597년 정유재란에는 이순신을 찾아가 전략을 세워 전공을 세워서 권율의 추천으로 선무원종공신이 되었다. 광해군대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당시 운곡사에 배향하는 시기가 늦어져 선비들이 한탄하였는데, 1832년이 바로 임진주갑이 되므로 도내의 선비들이 통문을 발의 한 것이었다.[54] 통문이 발의된 이후 류순의 배향도 이루어

48)『雲谷祠誌』卷3, 通文, 嶺南 高靈 文淵書院 都會所.
49)『雲谷祠誌』卷3, 通文, 光州 高廷黼.
50)『雲谷祠誌』卷3, 通文, 南原 進士 金聖求.
51)『雲谷祠誌』卷3, 通文, 本縣 林垓.
52)『雲谷祠誌』卷3, 通文, 本縣 宋基一.
53)『雲谷祠誌』卷1, 奉安文, 松村宋先生合享告由祝 ; 松村宋先生奉安文.

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1796년 여산송문이 운곡사의 강당과 문장을 헐어 분사한 후 추향된 인물들은 일시에 추향된 것이 아니라 향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공론을 통해 각각 개별적으로 합향되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봤던 1803년 작성된 송인의 봉안문에서도 확인된다. 즉, "이제 운곡사에 네 분 선생님을 초황례(蕉黃禮)로써 함께 모시게 되어 좋은 날을 받아 이 사당에 모시나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1803년까지는 4인을 합향하였으며 각각의 추향 시기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인물 배향을 위한 경합과 연합

운곡사의 건립과 인물의 향사는 어떤 한 가문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신원이나 추숭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전국 유림의 합의된 공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지방관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었다.[55] 자연스런 공론이 형성되었을 때 향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향촌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운곡사에 류탁을 배향할 때에도 봉안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동의를 얻기 쉽지만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4) 『雲谷祠誌』 卷3, 通文, 壬辰(1832) 윤 9월 19일 本縣 宋振玉; 윤 9월 22일 本縣 宋夏相.

55) 지방관의 협조와 관련하여 고흥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지방관의 봉안문 찬술이다. 崔守魯는 1785년 4월 20일 誠齋 류탁의 봉안문을 찬술하였고, 송촌 송인의 봉안문은 崔時淳이 찬술하였다. 최시순이 1803년에서 1805년에 고흥에서 재임하였고, 松村 송인의 合享告由祝이 계해 12월 15일 찬술되었던 것으로 볼 때 1803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於于 류몽인의 진영봉안문은 1793년에서 1795년 재임한 朴宗正이 1795년 2월 진영화상 봉안문을 찬술하였다. 류몽인의 위패 봉안문은 1799년 8월에 작성되었다. 松庵 류순의 봉안문은 고흥현감 朴載寬이 1832년 10월 찬술하였다. 『雲谷祠誌』 卷1, 奉安文, 松村宋先生合享告由祝 ; 松村宋先生奉安文 ;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 松庵柳先生奉安文.

>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다가 여러 곳에 글을 보냈더니 일제히 일어나 성의를 표시해왔고 어진 선비가 있어 그 한마디 말에 많은 동조자가 있어 묘우를 세우고”[56]

서원에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행적(行蹟)’, ‘사적(事蹟)’이 공의(公議)에 합당하여 공론(公論)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다. 인물에 대한 공인된 행적과 사적은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명망가가 찬술한 인물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향반은 자신들의 능력과 수완을 통해 선조의 행적에 대한 기록물을 확보해야 했다. 조선후기 중앙 관로의 진출이 더욱 좁아진 상황에서 향촌 양반의 가격(家格)을 놓고 여러 가문들이 경합할 때 자신들의 선조에 대한 공적 기록물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운곡사 건립 이전에 고흥에서 이러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던 가문이 바로 여산송문이었다. 『운곡사지』에 수록된 선조들의 행적과 사적에 대한 기록물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 3대에 걸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송대립, 송침의 직계 후손들은 선조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전부터 그들을 추모하는 제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송침의 손자인 송협은 쌍충정려를 세웠고, 송정악의 조부인 송문상은 자신의 호를 이우당이라고 하여 송대립과 송침을 죽게 만든 원수 왜와 청을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 이러한 가풍은 송정악, 송지행, 송석년으로 이어졌고, 당대의 명사이자 스승이었던 이재를 비롯한 노론 명문가들에게 선조들의 행적에 대한 글을 받을 수 있었다. 송정악의 이러한 실천은 18세기 중반의 사회 속에서 구조화된 행위였지만, 동시에 향촌사회에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57]

고흥류문과 남양송문에서도 선조의 현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단서들이 포착된다. 먼저 고흥류문에서는 류탁의 행적을 『고

56) 『雲谷祠誌』 卷1, 奉安文, 誠齋柳先生奉安文.

57) 박미선(2019), 앞의 논문, 181~204쪽; 박미선(2019), 「조선 후기 기행일기(紀行日記) 『서행록(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2장 서행록의 편찬 배경 참조.

려사』, 권근·이색·정몽주 등의 문집에서 뽑아냈다. 류몽인의 사적은 그의 신원을 위한 류화와 류영도의 상언과 그에 대한 답변서로 정리하였다. 류순의 사적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유사(遺事)를 남겼고, 또 최몽암에게 찬술을 요청하여 유사를 수록하였다. 또 류순의 후손인 류중익(柳重益), 류경근(柳敬根)이 힘을 쏟아 오진영(吳震泳)이 묘갈명을 찬술하였다. 특히 고흥류문 후손들 가운데에서 19세기 초반 류일영의 활동이 주목된다. 1785년 당시에는 운곡사에 추향되지 못하였지만 고이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시킨 류청신의 행적을 행장으로 정리하였고,[58] 1804년 고흥류씨 족보가 편찬될 때에는 류일영이 류금, 류성진 등과 함께 송시열의 후손인 송환기(宋煥箕)에게 족보의 서문을 지어줄 것을 청했기 때문이다.[59] 이러한 노력은 선조의 행적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통해 고흥지역 향반으로서 고흥류문의 뿌리에 대한 역사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남양송문에서는 송인의 묘소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비석도 부서져서 고증할 문헌이 없어 행적을 정리하기 어려웠지만 수집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송인의 생졸과 관직을 참고할 수 있는 비석을 찾아냈고,[60] 호남과 영남 지역의 후손들이 힘을 모아 묘표를 작성하였다. 묘표는 15대손 계필(啓弼)과 양채(陽彩) 등이 송환기에게 부탁하여 작성하였다.[61] 그들은 또 이를 수정 보완하여 이득수(李得秀)에게 행장 찬술을 요청하였다. 비록 믿을만한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후손 광룡(光龍), 규진(奎眞) 등이 역사책을 뒤져 선조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였다.[62] 김녕한(金甯漢)에게는 신도비명(神道碑銘)을 받고, 그의 유고를 모으고, 『대동시화』에서는 용담에서의 고기잡이 노래를 발췌하였고, 『동현보감』에서 이색, 정몽주, 이숭인과 도의적 교류가 있었다는 내

58) 『雲谷祠誌』 卷2, 信菴柳先生事蹟, 行狀.
59) 『高興柳氏世譜』, 甲子重修譜序(宋煥箕, 1804) 류일영의 활동은 그의 문집인 『창명집』의 번역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밝혀야 할 것이다.
60)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墓碣文.
61)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墓表.
62) 『雲谷祠誌』 卷2, 松村宋先生事蹟, 行狀.

용의 야사초(野史抄) 등을 정리하였으며, 송인을 제사 지내는 장성 경현사, 개성 두문사 등의 봉안문을 수록하였다.

이와 같이 고흥 내에서 각 문중의 개별적인 노력을 통한 선조 현양의 '경합' 양상이 운곡사 건립과 운영의 추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경합만으로 서원 건립과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고흥 향반들의 관계망 속에서 맺어진 가문 간 '연합'이 서원 건립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본 자료가 바로 운곡사 원임을 정리한 『운곡원집강안』과 동회 기록인 『(금탑사)동회속록』이다. 『운곡원집강안』이 운곡사의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공식적인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라면, 『(금탑사)동회속록』은 금탑사에서 시를 지으며 좀 더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 중 『(금탑사)동회속록』에는 동회록(1735년), 속회록(1793년), 재속회록(1841년), 삼속회록(1902년), 사속회록(1932년), 오속회록(1976)의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운곡원집강안』이 기록된 시기 즉 동회록부터 재속회록까지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사적 친밀 관계망이 좀 더 공적인 관계와 어떤 연결을 맺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63]

먼저 금탑사동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금탑사 동회는 영조 11년(1735) 고흥의 유신(儒紳) 다섯 가문 13명이 금탑사에 모여 시를 지으며 도의를 함께 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 지난 영조 11년(을묘, 1735) 지역의 유신 다섯 가문의 13명이 금탑사에서 약속을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서로 더불어 그윽한 정의 마음을 화창하게 펴고 도와 의를 강구하고 연마하여 말의 뜻인 시를 써서 여러 사람이 이름을 열기하고 표제 명칭을 「동회록(同會錄)」이라고 하였다. (중략) 이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정조 17년(계축, 1793) 다섯 가문의 후손들이 다시 계속 모이기로 하여 시 읊기를

63) 본고에서는 『(금탑사)동회속록』의 내용 중 동회록과 재속회록의 인물을 『운곡원집강안』의 명단과 비교하여 운곡사 건립을 위한 고흥 지역 향반들의 연합 가능성을 포착하였다. 이후 별도의 원고를 통해 『(금탑사)동회속록』에 기록된 5가문을 비교 검토하여 고흥지역 향반들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잇고 그 뜻을 서술하였다.[64]

고흥 지역 유신(儒臣), 진신(搢紳)의 후손인 다섯 가문은 부안임씨, 영광정씨, 여산송씨, 고흥류씨, 진원박씨로 임휘(林彙), 정세림(丁世霖), 송일복(宋日復), 송정악(宋廷岳), 정덕유(丁德有), 송정희(宋廷熹), 류희탄(柳希綻), 임대수(林大樹), 임달수(林達樹), 박희석(朴禧錫), 정덕주(丁德輳), 박호석(朴祜錫), 정극명(丁克明) 등 13명이 주축이었다. 당시 모임은 영광정씨 4명(30.7%), 부안임씨 3명(23.1%), 여산송씨 3명(23.1%), 진원박씨 2명(15.4%), 고흥류씨 1명(7.7%) 등의 비율이었다. 부안임씨와 영광정씨는 임휘·임대수 부자, 정세림·정대유 부자 등 부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또 세대별로는 70대 1명(7.7%), 60대 1명(7.7%), 40대 1명(7.7%), 30대 4명(30.8%), 20대 6명(46.1%)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였다.

그 후 60여 년이 지나서 1793년 이 다섯 가문의 후손들이 다시 모였고 이를 속회록으로 기록하였다. 「속회록」 등재 인물은 총 38명이었는데, 첫 번째 「동회록」에 기록된 13명 인물의 아들은 16명이었고, 손자는 7명이었으며, 종질, 당질, 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이었다. 즉, 첫 번째 「동회록」에 기록된 13명의 아들, 손자, 종질, 당질, 족 등에 해당하는 인물이 26명으로 속회록 등재 인물 중 절반 이상인 68%에 해당하였다. 등재 인물 38명 가운데, '부자(父子) 동참'은 12사례, '조부자(祖父子) 동참'은 하나의 사례가 있어 '부자 동참'과 '조부자 동참'은 13사례로 34%에 해당하였다. 가문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영광정씨 13명(34.2%), 여산송씨 8명(21.1%), 부안임씨 7명(18.4%), 진원박씨 7명(18.4%), 고흥류씨 3명(7.9%) 등이었고 80대 1명(2.6%), 60대 4명(10.5%), 50대 8명(21.1%), 40대 6명(15.8%), 30대 6명(15.8%), 20대 11명(28.9%), 10대 2명(5.3%) 등이었다. 특히 10대로 참석하였던 인물들은 모두 여산송씨로 '13동회원' 일복(日復)의 족인인 송두응(宋斗應, 당시 17세)과 송지행의 아

64) 『金塔寺同會續錄』.

들 일명 석년(錫年)인 송석태(宋錫泰, 당시 15세)가 동참하였다.

그 후 1841년 재속회(再續會)에는 39명이 참여하는데 영광정씨 17명(43.6%), 부안임씨 6명(15.4%), 고흥류씨 6명(15.4%), 여산송씨 6명(15.4%), 진원박씨 4명(10.2%) 등이 참여하였고, 그 가운데 부자 동참이 9건(23.1%)이었다. 연령별로 70대 2명(5.3%), 60대 7명(17.9%), 50대 7명(17.9%), 40대 8명(20.5%), 30대 10명(25.6%), 20대 4명(10.3%), 10대 1명(2.5%)의 비중이었다. 10대는 당시 18세였던 임익하(林益河)의 아들 일명 백(伯)이라고 하는 임로(林櫓)가 동참하였다.[65]

고흥 유신 5가문은 부자간에 대를 이어서 동회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1735년부터 1976년까지 금탑사에서 동회를 열어 시를 읊으며 교유 관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이 운곡사 원임 명단에서도 〈표 4〉와 같이 확인된다.

〈표 4〉와 같이 금탑사동회 5가문의 인물들은 원임으로 운곡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운곡사의 운영은 영광정씨, 여산송씨, 고흥류씨 등 배향인물이 모셔져 있는 가문만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또 건립 당시의 이 세 가문의 일시적인 연합에 의한 단순 합동서원도 아니었다. 이미 18세기 전반기 금탑사동회와 같은 시회를 개최하며 고흥지역 유신(儒紳) 가문은 관계망을 형성하

65) 이후 3차례 동회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02년에는 38명이 모여 三續會를 열었다. 영광정씨: 20명(52.6%), 부안임씨: 6명(15.8%), 여산송씨: 6명(15.8%), 고흥류씨: 4명(10.5%), 진원박씨: 2명(5.3%) 부자 동참이 6건(15.8%). 세대별로 70대 3명(7.9%), 60대 4명(10.5%), 50대 8명(21.0%), 40대 11명(29.9%), 30대 6명(15.8%), 20대 6명(15.8%) 1932년 4월 12일에 열린 四續會는 36명이 참여하였다. 영광정씨: 12명(33.3%), 여산송씨: 9명(25.0%), 부안임씨: 6명(16.7%), 진원박씨: 5명(13.9%), 고흥류씨: 4명(11.1%)가 참여. 부자동참은 6명(16.7%). 세대별로 70대 3명(8.3%), 60대 7명(19.5%), 50대 7명(19.5%), 40대 7명(19.5%), 30대 5명(13.9%), 20대 3명(8.3%), 10대 4명(11.1%). 여산송씨 宋敏鍾(당시 18세)과 부안 임씨 林明錫(당시 18세), 임인석(林仁錫, 당시 15세), 林采圭(당시 13세)로 10대 부안임씨 참가자들은 아버지와 동참함. 1976년에는 五續會가 열려 모두 215명이 참석하였다. 진원박씨: 84명(39.1%), 영광정씨: 65명(30.2%), 여산송씨: 31명(14.4%), 고흥류씨: 19명(8.8%), 부안임씨: 16명(7.5%) 등으로 조부자 동참: 4명(1.8%). 80대 4명(1.9%), 70대 10명(4.7%), 60대 37명(17.2%), 50대 36명(16.7%), 40대 41명(19.1%), 30대 37명(17.2%), 20대 39명(18.1%), 10대 이하 11명(5.1%).

고 있었다. 또 1913년 향교의 존성계를 조직한 유력성씨들도 여산송씨와 고흥류씨였다.[66] 이러한 가문네트워크 속에서 서원 건립이라는 연합전선의 구축도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운곡원집강안』과『금탑사동회속록』 명단 비교

『雲谷院執綱案』의 院任				『金塔寺同會續錄』의 명단
시기	원임	성명	본관/연령	비교 내용
을사(1785) 4월	掌議	林壇	부안(丁巳) 1737년생	속회록/ 동회록 林廷樹(達樹) 아들
을사(1785) 4월	色掌	朴燦玟	진원(壬戌) 1742~1814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을사(1785) 6월 초3일	色掌	柳壇	고흥(辛未) 1751년생	속회록
을사(1785) 12월 초1일	色掌	朴燦玟	진원(壬戌) 1742~1814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병오(1786) 정월 20일	院長	丁德輔	영광(辛卯) 1711년생	동회록/ 속회록
정미(1787) 8월 11일	掌議	林壎	부안(辛亥) 1731년생	속회록
정미(1787) 8월 11일	色掌	宋志行	여산(辛酉) 1741년생	속회록/ 동회록 宋廷岳의 아들
기유(1789) 11월 일	色掌	丁光宇	영광(丁卯) 1747년생	동회록 丁克明의 아들
신해(1791) 8월 일	掌議	宋志行	여산(辛酉) 1741년생	속회록/ 동회록 宋廷岳의 아들
신해(1791) 11월일	色掌	丁孝達	영광(己卯) 1759년생	속회록/정덕주의 아들
임자(1792) 8월 일	色掌	丁孝達	영광(己卯) 1759년생	속회록/정덕주의 아들
임자(1792) 8월 20일	院長	丁孝參		丁孝三은 속회록에 있음

66) 김덕진(2017),「高興 鄕校의 尊聖契」,『歷史學硏究』67, 호남사학회, 75~79쪽.

『雲谷院執綱案』의 院任				『金塔寺同會續錄』의 명단
시기	원임	성명	본관/연령	비교 내용
계축(1793) 3월 28일	色掌	朴燦珣	진원(甲戌) 1754년생	속회록/ 동회록 朴禧錫의 아들/ 色掌 朴燦玟의 동생
계축(1793) 4월 15일	掌議	宋志行	여산(辛酉) 1741년생	속회록
정사(1797) 8월 18일	色掌	柳泰榮	고흥(壬午) 1762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손자
정사(1797) 8월 18일	掌議	林墅	부안(戊辰) 1748년생	속회록
기미(1799) 6월 일	院長	林壎	부안(辛亥) 1731년생	속회록
기미(1799) 6월 일	掌議	柳壇	고흥(辛未) 1751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손자
경신(1800) 12월 14일	掌議	丁翊祚	영광(己巳) 1749년생	속회록/ 동회록 丁德有의 손자
임술(1802) 12월 25일	掌議	林埻	진원(壬戌) 1742년생	속회록/ 동회록 林彙의 손자
갑자(1804) 2월 초10일	掌議	丁光宇	영광(丁卯) 1747년생	동회록 丁克明의 아들
갑자(1804) 2월 27일	色掌	林龍河	부안(丙戌) 1766년생	속회록/ 속회록 林壇의 아들
을축(1805) 3월 11일	色掌	林龍河	부안(丙戌) 1766년생	속회록/ 속회록 林壇의 아들
무진(1808) 2월 일	掌議	柳壇	고흥(辛未) 1751년생	속회록/ 동회록 柳希綻의 아들
경오(1810) 정월 일	色掌	宋斗煥	여산(己亥) 1779년생	재속회록(1841)/ 속회록 宋壽權 아들 /송수권 1795년 掌議 역임

하지만 고흥지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세 가문의 인물을 배향하는 합동 서원이었기 때문에 인물을 추향할 때의 갈등이 분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

능성도 내재해 있었다. 따라서 사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각 가문이 경합하였던 것만큼 사우를 건립한 이후에도 추향 인물의 선정과 추향을 위한 논리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각 가문은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운곡사는 건립에서부터 분사와 합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18세기 중앙 출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향촌사회에서 여러 가문들의 역학구조, 이를 둘러싼 선조 현양 방식과 양상의 특이점을 파악하는 데 단초가 된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18세기 후반 고흥지역의 문중서원인 운곡사의 건립과 후손들의 선조 현양 활동을 통해 고흥 지역 내 향반들의 관계망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과 그 가문을 검토하였다. 운곡사는 1785년 건립되어 분사(分祠), 훼철, 복설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여산송문, 고흥류문, 영광정문, 남양송문 등 네 가문의 인물들이 배향되었다. 1785년 건립될 때에 배향된 인물은 송간, 송대립, 송침, 류탁, 정운희 등 5인이었다. 여산송문이 분사된 1796년 이후에는 류탁, 정운희 2인 이외에 시차를 두고 류몽인, 류순, 정걸, 정덕주 등 고흥류씨, 영광정씨와 새롭게 남양송씨 송인 등 5인이 추향되었다. 1960년 복설시 다시 영광정문 3인이 빠지고 이후 고흥류씨 5인과 남양송씨 5인이 추향되었다.

배향된 인물들은 절의, 충절을 행한 자들이었다. 절의의 덕목이 강조된 인물은 여산송씨 송간, 남양송씨 송인, 송순손 등이 있었다. 충절의 덕목이 강조된 인물들은 왜구를 격퇴하거나 임란, 호란 등의 전쟁에 참전하여 군공을 세운 인물들로서 운곡사에 배향된 많은 인물들이 이 범주에 해당하였다. 여산송문의 송대립, 송침, 고흥류문의 류순, 류습, 류충신, 류충서, 류계, 영광정문 정운희, 정걸, 남양송문의 송제, 송덕일, 송선, 송영 등이 있었다. 또한 충절과

절의를 강조하며 신원된 류탁, 류몽인, 류청신 등이 운곡사에 향사되었다.

다음으로 1785년 운곡사의 건립 과정과 1796년 분사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운곡사 건립과 분사는 향사 인물의 선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운곡사의 건립은 유림이 예조에 상소하여 국왕의 허락을 받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공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였다. 1770년대에는 여산송문 송대립, 송침 부자의 충절에 대한 공론이 사우 건립의 논리로 작동하였지만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1782년 단종에게 절의를 지킨 생육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국가적 의제가 되면서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모두 21건의 통문이 발의되었는데, '송간 → 송간, 류탁, 정운희 → 송간, 류탁, 정운희, 송대립, 송침' 등의 순서로 배향 인물이 확정되었다. 1796년 여산송문이 송간, 송대립, 송침 3인의 위패를 내어 가고 또 운곡사의 강당과 문장을 헐어 가져가면서 분사되었다. 그 이유는 고흥류문의 류몽인이 정조대에 신원되면서 운곡사 추향의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운곡사에서 여산송문이 분사한 이후 남양송문이 합사하였고 또 고흥류문과 영광정문의 인물들이 추향되었다.

서원에 배향될 인물을 결정하는 일은 국가 정책의 방향, 고흥 외부 유림들의 공론(公論), 고흥 지역 내 향반들의 연합과 경합, 고흥 지역 지방관의 도움 등 복합적 요소가 합치 되었을 때 가능하였다. 여산송문, 고흥류문, 남양송문에서는 선조의 현양을 위해 문헌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경합 양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향교나 서원과 같은 공적 관계망뿐만 아니라 시회(詩會)와 같은 사적 관계망을 통한 연합을 통해 운곡사의 건립이 가능하였다.

〈별첨 1〉『운곡사지』의 구성

구분	목록/세부항목	비고
序	-	이규헌 서
卷1	位置	
	沿革	
	奉安文/誠齋柳先生奉安文, 松村宋先生合享告由祝, 松村宋先生奉安文, 於于柳先生眞影奉安文, 於于柳先生位牌奉安文, 松庵柳先生奉安文1	3인 (6문서)
	常享祝	
	*復設時奉安文/英密公信菴柳先生奉安文, 忠正公誠齋柳先生奉安文, 松村宋先生奉安文, 襄靖公柳先生奉安文, 西湖宋先生奉安文, 主簿柳先生奉安文, 贈參判柳先生奉安文, 義貞公於于柳先生奉安文, 梅窩宋先生奉安文, 釣隱宋先生奉安文, 松庵柳先生奉安文, 栢庵宋先生奉安文, 判官柳先生奉安文, 龜隱宋先生奉安文	목록 추가 14인 봉안문
	*復設常享祝	목록 추가
	*雲谷祠創建以後事實	上同
	祭品目錄	목록 享祀目錄
	享祀儀節	
	享祀笏記	
	*院任選定	목록 추가
	*祭官選定	목록 추가
	*院中備置書類目錄	목록 추가
卷2	信菴柳先生事蹟/上忠宣請還國箋, 輿地勝覺, 行狀, 廟庭碑陰記, 年譜, 遺墟碑, 實記序(1, 2)	
	誠齋柳先生事蹟/ 遺事, 誠齋銘, 誠齋詩, 麗史列傳, 神道碑銘, 年譜, 輿地勝覺, 合浦名宦誌, 長生浦曲序, 眞宗寺記, 癸卯扈從功臣錄, 興王討賊功臣錄, 建議執兵出謀定難功臣錄, 辛丑扈從功臣錄, 僉兵輔佐功臣錄, 碧山祠奉安文	
	松村宋先生事蹟/ 遺稿, 杏亭吟, 龍潭漁謳, 行狀, 墓表, 墓碣文, 野史抄, 神道碑銘, 杜門祠奉安文(并事蹟), 景賢祠奉安文	遺稿 (내용 없음)

구분	목록/세부항목	비고
卷2	襄靖公柳先生事蹟 柳濕/ 遺事, 吏曹典書柳襄靖公神道碑銘, 墓表*太宗大王御製甲楔原韻*太宗大王傳敎*太宗大王御製甲楔功臣贊	
	西湖宋先生事蹟/ 墓表, 景慕齋記	
	主簿柳先生事蹟/ 行狀, 墓碣銘	
	參判柳先生事蹟/ 行狀, 墓碣銘	
	於于柳先生事蹟/ 柳 王禾 上言, 義禁府回, 柳榮道上言, 回啓	
	梅窩宋先生事蹟/ 詩文, 梅窩吟, 晋州東門樓聯句, 倡義湖西檄, 圍中上家兄書, 唐津遺愛碑, 墓碣銘(序並)	詩文 (내용 없음)
	釣隱宋先生事蹟/ 詩文, 呈徐寶城(鞠), 釰銘, 上統制使論船制書, 上咸鏡監營牒, 陞慶尙左兵使 敎書, 富寧南門小碣, 墓碣銘(並序), 雙忠神道碑銘(並序), 傳敎, 旌閣記文	
	松庵柳先生事蹟/ 遺事(1, 2, 3), 墓碣銘(並序)	
	栢菴宋先生事蹟/ 行狀, 墓碣銘(並序), 遺事(1)	
	判官柳先生事蹟/ 遺事, 行狀, 神壇碑, 金谷祠誌	
	龜隱宋先生事蹟/ 遺稿, 行狀, 墓表, 墓碣銘, 遺事	
卷3	雲谷祠重建記(1, 2) 雲谷祠記	목록에 重建記文
	通文/ 壬寅(1782) 儒學, 壬寅 儒學, 壬寅 羅州, 壬寅 광주, 계묘 보성, 장성 김경철 羅州 홍수윤 광주 류종곤 등, 本邑章甫上書, 嶺南 고령 문연서원 도회소, 광주, 南原, 本縣, 本縣, 乙卯(1795) 2월 17일, 乙卯 윤 2월 10일, 정사(1797) 11월 10일 全州, 정사 11월 15일 南原, 정사 12월 20일 광주, 정사 12월 羅州, 壬辰(1832) 윤 9월 19일 本縣, 임진 윤 9월 22일 本縣, 復設時通文 신축(1961) 11월 고흥향교, 本祠通文(1973) 4월 운곡사, 成均館通文(1974) 음력 정월, 癸丑(1973) 4월 광주향교, 癸丑 4월 全州향교, 癸丑 4월 羅州향교, 계축 4월 南原향교, 本鄕 유생, 광주 유생, 羅州 유생, 南原 유생, 장성 필암서원 유생, 광주향교 청금안에 기록된 열읍유생, 本鄕 유생.	34건
跋		류호석

〈**별첨 2**〉 운곡사 인물 배향을 위한 통문

시점	단위	발송대표	수	대상	출처
壬辰(1772)	羅州	進士 羅粲奎, 金礪	30	송대립, 송침	오현
癸巳(1773)	능주	幼學 梁居仁, 閔昌龜, 文世萬	70	송대립, 송침	오현
癸卯(1783)	본읍	幼學 朴挺甫, 柳景起, 申命涉, 宋萬禎, 林彙	12	정운희	오현
癸卯(1783)	본읍	幼學 申漢檜, 李沆, 宋增, 申命泓, 宋日明	35	송대립, 송침	오현
壬寅(1782)	본읍	幼學 申道活, 金長五, 進士 丁孝穆	11	류탁, 송대립, 송침, 정운희	오현
壬寅(1782)	幼學	宋昌, 宋昌彦, 宋道再	41	류탁, 정운희	오현
壬寅(1782)	羅州	進士 吳時裕, 奇繼商, 幼學 洪在淵	36	류탁	오현
壬寅(1782)	광주	幼學 柳匡國, 奇學淳, 進士 朴燦爀, 李寀	미상	류탁	오현
癸卯(1783)	보성	幼學 朴致鳳, 朴守緯, 任桂發	22	류탁	오현
癸卯(1783)	장성	幼學 金敬徹, 羅州, 광주	미상	류탁	오현
乙巳正月日	本邑	章甫上書	미상	공동	오현
壬寅(1782)	태학	進士 韓德普	30	송간	오현
壬寅(1782)	광주	幼學 崔雲之, 高廷鳳, 朴燉, 李燁	미상	송간	오현
壬寅(1782)	羅州	進士 金之獜, 林忿遠	30	송간	오현
壬寅(1782)	南原	儒林 李景煥, 許楫, 張嶩, 崔淑, 盧穊	미상	송간	오현
壬寅(1782)	全州	儒林 蘇洙集, 林震燁, 趙廷亮	20	송간	오현
壬寅(1782)	본읍	章甫 申應澤, 宋道宰	20	송간	오현
癸卯(1783)	羅州	吳爀源, 梁載五, 林達遠	40	송간	오현
甲辰(1784)	광주	進士 朴麒祥, 李曄	40	송간	오현
甲辰(1784)	도내	儒林 朴寅鎭, 金會鳴	20	류성재, 송간, 정운희+ 송대립, 송침	오현
乙巳(1785)	광주	進士 朴夏鎭, 奇東勳, 朴亮東	50	송대립, 송침	오현

시점	단위	발송대표	수	대상	출처
미상	嶺南 高靈	文淵書院 都會所에서 상주進士 이지권, 성주 이지년, 진주 조사우	50	송인	사지
미상	광주	高廷黼 등	25	송인	사지
미상	南原	進士 金聖求	25	송인	사지
미상	本縣	林垞	25	송인	사지
미상	本縣	宋基一	46	송인	사지
을묘(1795) 2월 17일	本縣	宋基守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1월 10일	全州	金之元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1월 15일	南原	李奎煥	20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2월 20일	광주	柳在淵	21	류몽인	사지
정사(1797) 12월	羅州	崔翊東	33	류몽인	사지
임진(1832) 윤9월 19일	본고을	宋振玉	47	류순	사지
임진(1832) 윤9월 22일	본고을	宋夏相	21	류순	사지

* 출처 : '오현'(『운곡오현행적』), '사지'(『운곡사지』)

참고문헌

〈자료〉

『雲谷五賢行蹟』(<高興 高興柳氏 忠正公(柳濯) 後孫家 所藏 資料> ID 223).

『雲谷院執綱案』(ID 226).

『雲谷祠誌』(ID 340).

『同會續錄』(ID 338).

『滄溟集』(ID 664, ID 665).

『雲谷祠誌』, 1991.

『정조실록』.

『일성록』.

〈저서〉

鄭萬祚(1997), 『朝鮮時代 書院硏究』, 집문당.

丁淳睦(1979), 『韓國書院敎育制度硏究』, 영남대출판부.

이해준(2008),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

윤희면(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李樹煥(2002), 『朝鮮後期 書院硏究』, 一潮閣.

이욱(2015), 「정걸장군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그 가문」, 『명장 정걸장군』, 고흥군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

〈논문〉

김덕진(2017), 「高興 鄕校의 尊聖契」, 『歷史學硏究』 67, 호남사학회, 67~96쪽.

박미선(2019), 「조선 후기 기행일기(紀行日記) 『서행록(西行錄)』의 편찬 배경과 구성」, 『역사학연구』 75, 호남사학회, 121~143쪽.

박미선(2019), 「18세기 鄕班家의 묘비 건립 활동과 그 함의-고흥 여산송씨 가문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38,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73~211쪽. DOI : 10.31929/namdo.2019.38.173

배재홍(2017), 「於于 柳夢寅의 생애와 間世立後」, 『강원사학』 29집, 강원사학회,

137～156쪽.
윤희면(2009),「고흥 礪山 宋門의 충절과 齋洞祠」,『해양문화연구』2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7～40쪽.

투고일: 2021. 11. 14. **심사기간:** 2021. 11. 30.～2021. 12. 9. **게재확정일:** 2021. 12. 20.

| 국문초록 |

고흥 운곡사(雲谷祠)의 건립과 선조 현양 활동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 고흥지역의 문중서원인 운곡사의 건립과 후손들의 선조 현양 활동을 통해 고흥 지역 내 향반들의 관계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운곡사에 배향된 인물과 그 가문을 검토하였다. 운곡사는 1785년 건립되어 분사(分祠), 훼철, 복설 등의 과정을 거쳤는데, 여산송문, 고흥류문, 영광정문, 남양송문 등 네 가문의 인물들이 배향되었다. 배향된 인물들은 절의, 충절을 행한 자들이었다. 다음으로 1785년 운곡사의 건립 과정과 1796년 분사의 배경을 검토하였다. 운곡사 건립과 분사는 향사 인물의 선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배향 인물의 선정은 국가 정책의 방향, 고흥 외부 유림들의 공론(公論), 고흥 지역 내 향반들의 연합과 경합, 고흥 지역 지방관의 도움 등 복합적 요소가 합치 되었을 때 가능하였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고흥지역 내 향반들의 연합은 향교나 서원과 같은 공적 관계망뿐만 아니라 시회(詩會)와 같은 사적 관계망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포착하였다.

주제어 : 운곡사(雲谷祠), 고흥(高興), 고흥류씨(高興柳氏), 문중서원(門中書院), 향반(鄕班), 현양(顯揚)

호남학 70 : 183~21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A Study on the Suncheon Branch of Singanhoe

윤 효 정*
Yoon, Hyo-jung

목 차

Ⅰ. 머리말
Ⅱ. 활동 기간과 규모
Ⅲ. 순천청년동맹과 순천기독청년회 중심의 간부진
Ⅳ. '약소민족 공론장'의 창출 시도
Ⅴ.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hinganhoe movement from the case of the Suncheon Branch of Shinganhoe(hereinafter the Suncheon Branch). The Suncheon Branch was established on January 13, 1928, and has been stagnant since January 1929; its actual period of activity was about four months from the time of its foundation to February 11, 1928, and from September 26, 1928, to January 7, 1929. Also the number of members was around 70.

The executives of the Suncheon Branch were centered on members of the Suncheon Youth League and the Suncheon Christian Youth Association; among the activists of the Suncheon Youth League,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st Youth Association, a secret society were included. This meant that the Suncheon branch was influenced to some extent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mass movement focused on the Shinganhoe and the Korean Youth League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

The Suncheon Branch's plan for a critical speech on the prohibition on the general meeting of Shinganhoe(hereinafter the Speech) shows a part of features of its movement. First of all, the form of a critical speech was to act on not the

*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actions of the public but their consciousness. The Speech can be understood as a political project to raise the ‘right to live and freedom’ of the Korean nation as a social agenda criticizing the ‘tyranny of the police’. As this was moderate and reformatory, the Speech was able to form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colonial regime in opposition to the colonial governmental strategy symbolized the theory of the impossibl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1920s. Therefore, the Speech can be evaluated as a sphere of public opinion for a weaker nation designed to share identity as an oppressed people by Japanese imperialism, not as subjects or local citizen of the Japanese empire preventing Koreans settling in the colonial regime.

Key words : National Cooperative Front Movement, the Sucheon Branch of Singanhoe, Suncheon Youth League, Suncheon Christian Youth Association, Critical Speech against the Prohibi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inganhoe, Sphere of Public Opinion for a Weaker Nation

Ⅰ. 머리말

1927년 2월 창립된 신간회는 1931년 5월 전체대회를 통해 해소를 가결하기까지 최대 141개의 지회를 포괄했다. 신간회 지회(이하 지회)는 민족단일당 형태의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신간회 운동의 실질적인 동력이었다. 따라서 지회 연구는 신간회 운동의 특징과 성격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그간 지회 연구는 신간회 연구와 지역운동사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전자의 경우 지회 운동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신간회 운동이 본래의 ‘정치적 투쟁’이라는 목적과 달리 온건한 운동에 머물렀다는 점[1]이 지적되었다. 이는 극복해야 하는 한계로 신간회 해소운동의 내적 배경으로 이해되었다. 분석된 지회는 ① 평남의 평양, ② 경남의 마산, ③ 전북의 군산, ④ 전남의 목포, 광양, 완도였다.

1) 이균영(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379쪽.

후자[2]의 경우 분석된 지회는 ① 강원의 양양, ② 경기의 수원, 안성, 광주, ③ 경남의 부산, 동래, 양산, 밀양, 울산, 기장(면), 언양(면), ④ 경북의 안동,

2) 지역운동사 연구 차원에서 진행된 신간회 지회 연구를 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강원도, 성주현(2012), 「양양지역 신간회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②경기, 조성운(2003),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조성운(2010), 「日帝下 廣州地域의 新幹會運動」,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③경남, 강재순(1996), 「신간회 부산지회와 지역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 부경역사연구소; 김동철·강재순(1996), 「1920~1930년대 초 기장지역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승(2000), 「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6, 부경역사연구소; 김승(2004), 「일제하 양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4, 부경역사연구소; 김승(2005), 「한말·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2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김승(2005), 「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 『부대사학』 28·29, 부산대사학회; 김형목(2019), 「3·1운동 이후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성격」, 『항도부산』 3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④경북, 이현정(2002), 「신간회 안동지회의 성립과 활동」, 『안동사학』 7, 안동사학회; 이윤갑(2004),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 국학연구원; 윤순갑·최병덕(2005), 「1920년대 안동지역 사회주의세력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동북아논총』 10-36, 한국동북아논총; 남정원(2006), 「1920년대 후반 신간회 대구지회의 설립과 활동」, 『계명사학』 17, 계명사학회; 조규태(2007), 「1920년대 경북 청도인의 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이윤갑(2019), 「일제 강점기 성주의 사회변동과 민족운동」, 『한국학논집』 7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⑤전남, 박찬승(1993), 「일제하 나주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2, 여강; 박종린(2010), 「일제시기 강진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 『한국사학보』 38, 고려사학회; 박찬승, 「1920,30년대 강진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역사문화학회. ⑥전북, 박찬승(2019), 「1920년대 정읍군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90, 한국근현대사학회; 오대록(2019), 「1920년대 익산지역 사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이명진(2019), 「1920년대 익산지역의 사회주의자와 그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역사문화학회. ⑦ 충남, 김용달(2005), 「일제하 홍성지역의 사회운동」, 『한국사학보』 19, 고려사학회; 정내수(2005), 「일제 강점기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역사와 담론』 40, 호서사학회; 이성우(2010), 「1920년대 서산지역의 청년운동」, 『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김남석(2013), 「신간회 당진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청문화연구』 11,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⑧충북, 최동일(2005), 「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북사학』 15, 충북사학회. ⑨함남, 오미일(2018), 「1920년대 중반 원산지역 아나키스트들의 공산주의 운동론 비판과 노선투쟁-원산청년동맹과 신간지회 결성 문제」, 『한국사학보』 72, 고려사학회.

대구, 칠곡, 청도 지회와 경북 일반, ⑤ 전남의 나주, 강진, ⑥ 전북의 익산, 정읍, ⑦ 충남의 홍성, 서산, 당진, ⑧ 충북의 괴산, ⑨ 함남의 원산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운동사 차원의 지회 연구는 원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지회 연구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따른 지역사 편찬 과정에서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는 지역운동의 역사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설립-활동-해소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서술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신간회 운동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3)]

따라서 지회 연구에 접근하는 방법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신간회 운동의 개량성과 합법성에 대한 학계의 지적[4)]은 참고될 만하다. 이와 같은 학계의 문제제기는 기존 신간회 운동의 한계로 거론되어 온 온건성을 한계가 아닌 본래의 성격으로 파악할 것을 제기한다. 그간 비타협성과 반자치운동으로 정형화된 신간회 운동의 이해를 고려할 때 주목되는 문제제기이다.

그러나 신간회의 개량적 성질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즉 신간회의 개량적 활동이 무엇을 소재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신간회가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는 가장 고유한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족협동전선운동은 식민지 민족해방을 위해 기획되었다. 따라서 민족협동전선운동은 파괴력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해도 식민지 체제와 갈등을 일으켜야 한다. 이 점은 현실에서 전개된 민족협동전선운동

3) 신간회 지회 연구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는 윤효정(2007), 「신간회 지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참조.

4) 한상구(1994), 「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윤덕영(2010),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김영진(2011),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서울과 역사』 78, 서울역사편찬원; 김영진(2016), 「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림』 58, 수선사학회.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억할 만하다. 따라서 신간회의 활동이 가지는 개량성이 식민지 체제와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시야에 담아야 한다.

이 연구는 전남 지역의 신간회 순천지회(이하 순천지회) 사례를 통해 신간회 운동의 양태와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순천지회의 기초적인 이해로서 활동 기간과 규모 등을 개관하고 간부진 구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간 순천지역운동사에서 순천지회는 적극적인 연구 대상이 되지 않았다. 비밀결사 조선공산당(이하 조공) 전남도당[5], 농민운동[6], 청년운동[7], 기독교 청년운동[8] 등을 소재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되게는 신간회 이전 시기가 집중적으로 조망되었고 순천청년동맹(이하 순천청맹)의 활동가들이 순천지회 설립에 참여했다[9]는 정도만이 언급되었다. 이 글에서는 순천청맹의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을 보완하면서 순천기독청년회(이하 순천기청)의 순천지회 참여를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순천지회에서 토의한 의안 가운데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비판연설회라는 활동 방식과 연설회를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사회적 의제를 통해 신간회 운동을 대중의 의식을 겨냥한 '약소민족 공론장'의 창출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이 문화통치기 '조선독립불능론'으로 압축되는 식민권력의 선전과 대립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신간회와 식민지 체제와의 긴장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5) 신주백(1993), 「1925~1928년 시기 전남지방 사회운동 연구-조공 전남도당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2, 역사문제연구소, 여강; 최선웅(2014), 「제1차 당대회시기 조선공산당의 전남 동부지역 조직과 활동」, 『아시아문화연구』 3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6) 지수걸(1997), 「일제하 전남 순천지역의 소작인조합운동과 '관료-유지 지배체제'」, 『한국사연구』 96, 한국사연구회.

7) 이애숙(1997), 「청년운동」, 『순천시사』(하), 순천시사편찬위원회; 박종린(2009), 「일제시기 순천권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 『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8) 임송자(2019), 「순천기독면려청년회 활동과 순천청년회」, 『남도문화연구』 3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9) 이애숙(1997), 앞의 논문, 639~640쪽.

Ⅱ. 활동 기간과 규모

신간회 순천지회는 1928년 1월 13일에 설립되었다. 전반적으로 신간회 지회가 왕성하게 만들어졌던 무렵이었다. 전체 141개 지회 중 118개 지회(약 84%)가 1927년 3월에서 1928년 3월 사이에 설립되었다.[10]

설립 이래 순천지회에 대한 신문기사는 1929년 12월까지 확인된다. 즉 순천지회는 대략 2년 동안 존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순천지회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간사회·집행위원회 등 간부 회합의 개최 현황을 보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에 근거할 때, 순천지회는 설립 직후인 1928년 1월 21일 간사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2월 11일에 간사회를 열었다. 이후 7개월 가량의 공백이 있은 후인 1928년 9월 26일 월례회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어서 10월 11일, 12월 19일, 1929년 1월 7일 간사회가 열려 11월을 제외하고 대략 한 달에 한 번 꼴로 간사회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시 7개월 이상 순천지회 소식은 확인되지 않고, 8월 29일에 개최된 집행위원회가 신문지상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기사이다.

요컨대 순천지회는 대략 2년 동안 존재했지만, 간부진 회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할 때 실제 활동 기간은 대략 4개월(1928.1.13.~2.11, 1928.9.26.~1929.1.7.)이었다. 즉 순천지회는 1928년 2월 이후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고 같은 해 9월 활동을 재개하고자 노력했지만 1929년 1월 이래 회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사실로 판단된다. 1929년 1월 『동아일보』는 지난 10년간 각 군(郡)의 교육기관·경제단체·사회단체 등에 관한 조사 일람표를 연재기사의 형식으로 보도했다. 순천군의 실상은 1월 9일자에 실렸다. 그러나 순천지회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었다.[11] 그만큼 1929년 초엽 순천지회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10)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집계함.

11) 「10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8)」, 『동아일보』, 1929.1.9.

다음으로 순천지회의 규모를 보자. 순천지회의 회원 수는 설립 당시 70명이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순천지회가 '70인의 회원'으로 설립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12] 이외 순천지회의 회원 수를 알려주는 자료는 1930년 9월 23~25일 신간회 전체대회에 대비해 본부에서 작성한 각 지회 대의원 일람표이다. 당시 본부는 지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지회들의 대의원을 지정했다. 그리고 이 일람표에는 지회에서 선정·보고한 대의원(후보 포함)과 본부에서 지정한 대의원(후보 포함)의 성명, 각 대의원이 속한 지회명, 해당 지회의 회원 수가 기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1930년 9월 시점 순천지회의 회원 수는 68명이었고 대의원은 본부에서 지정했다.[13] 요컨대 순천지회의 회원 수는 시작과 끝 점을 봤을 때 정체되어 있었다.

〈표 1〉 신간회 순천지회 대의원 선출 현황

일자	회합 종류	대의원 수	대의원 성명
1928.09.26.	월례회	1인	김정기
1929.01.05.	정기대회	2인	김정기, 김용택
1929.08.12.	임시대회	1인	김정기, (후보) 김용택
1929.12.21.	정기대회	1인	김용택, (후보) 한태선

*출처와 대의원들의 한자 성명은 부표 1과 같음.

순천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회원 수의 변동은 미미했다고 판단된다. 순천지회는 표1에서 보듯 1929년도 대의원과 1930년도 대의원을 모두 대회를 통해 선출했다.

1929년도 전체대회에 출석할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1928년 9월 월례회에서 한 명을, 이듬해 1월 정기대회에서 두 명을 선출했다. 대의원을 다시 선출한 셈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대의원 수를 결정짓는 기준인 회원 수의 변동이 일차적인 원인이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대의원은 규약상 지회대회를 통해

12) 「順天支會設立」, 『조선일보』, 1928.1.18; 「新幹支會設立」, 『동아일보』, 1928.1.17.
13) 京鍾警高秘 第14794號, 「新幹會代表會員選擧狀況ニ關スル件」, 1930.10.11., 11쪽.

선출하는 것이 옳다. 대의원 재선출은 지회의 상태 변화에 적응하면서 형식상의 정당성을 부여한 절차였다.

창립시 신간회 규약에 따르면, 회원 30인에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제11조).[14] 이 규정은 1929년 6월 복대표대회에서 규약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1928년 12월 1일 신간회 본부에서 각 지회 앞으로 보낸 통문에 따르면, 각 지회대회에서 선출할 대의원 수는 "규약에 명시한 바와 같이 명부에 기재된 회원 30인에 1인의 비례"였다.[15] 따라서 1928년 9월 순천지회 월례회에서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은 회원 수가 30명 이상 60명 미만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70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순천지회의 규모는 꽤 오랜 시간의 침체기를 거친 후 축소되었다.

이후 순천지회는 1929년 1월 정기대회를 열어 두 명의 대의원을 다시 선출했다.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선출 비율에 근거할 때, 순천지회의 회원 수는 60명 이상 90명 미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회원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대회 석상에서 조직체를 축소하는 조직변경안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회에서는 "기존 회장, 부회장, 상무간사, 보통간사를 두었던 것을 지방의 형편상 간사 5인을 선정하고 이중 회장 1인을 선출하기로"[16] 했다. 조직체의 간소화는 적어도 순천지회의 양적 성장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1929년에 들어와 충원된 인원을 합한 총 회원 수는 1930년 9월 전체대회 준비 과정에서 본부에서 작성한 일람표 상의 68명과 유사했을 것이다.

1930년도 전체대회에 출석할 대의원 선출은 1929년 6월 복대표대회에서 통과된 개정 규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순천지회에서는 개정 규약 직후 임시대회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정기대회에서 대의원을 재선출했다. 이는 임시대회와 정기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달랐을 뿐 선출 대의원

14) 「신간회 규약 및 강령」(1927), 제11조. 이균영(1993), 앞의 책, 225쪽.
15) 京鍾警高秘 第16397號, 「新幹會本部通文郵送ノ件」, 1928.12.5., 1쪽.
16) 「順天新支大會」, 『동아일보』, 1929.1.8.

수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회원 수의 변화에 따른 대응은 아니었다. 임시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의 전체대회 출석이 어려워졌거나 정기대회의 소집에 대응해 충실하게 의사 진행을 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두 번 모두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개정 규약은 회원 수 100명 이내인 지회는 한 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했다.[17] 즉 개정 규약 이전 두 명의 대의원과 개정 규약에 따른 한 명의 대의원 선출의 근거가 되는 회원 수는 '60명 이상 90명 미만'과 '100명 이내'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1929년 1월 7일 간사회를 끝으로 7개월 이상의 공백기 이후 같은 해 8월 29일 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순천지회 간부 회합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1929년 8월 12일 임시대회와 12월 21일 정기대회 무렵 순천지회 회원 수는 정체 혹은 감소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요컨대 순천지회는 설립 당시 70명의 회원과 1930년 9월 시점 68명의 회원을 포용하고 있었고 이 사이 증감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변동 폭은 크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순천지회의 경우 실질적인 활동 기간이 침체 기간보다 짧았던 경우였다. 1928년 9월 월례회 시점에 비해 1929년 1월 정기대회 시점 회원 수의 증가는 확인되지만 의미 있는 증가였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순천지회의 회원 수는 설립 당시 70명 선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순천청년동맹과 순천기독청년회 중심의 간부진

순천지회는 설립대회를 포함하여 네 번의 대회를 치렀고 간부를 개선했다. 그러나 순천지회가 존재했던 2년 동안 지회 간부진의 구성은 일관되었다. 표2에서 보듯 개별 간부가 변동되었다고 해도 각 간부의 소속 단체는 순천청맹, 순천기청, 순천농민연합회(이하 순천농련)·순천농민조합(이하 순천농조), 순천노동연합회(이하 순천노련)로 대체로 유사했다.

17) 「신간회 강령 및 규약」(1929), 별표. 이균영(1993), 앞의 책, 224쪽.

또한 양적인 면에서도 1929년 1월 5일 정기대회 시점까지 순천지회 간부진이 속한 소속 단체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즉 순천지회의 실질적인 활동 기간인 1928년 1월 13일 설립대회 전후 시점과 1929년 1월 5일 정기대회 전후 시점 간부진의 구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1929년 8월 12일 임시대회와 12월 21일 정기대회에서 순천청맹원들은 각 6명과 9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순천청맹원들의 양적 증대가 신간회 지회 운동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은 아니었다.

〈표 2〉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진(소속 단체별)

설립대회 **1928.1.13.**	·순천청년동맹(3명) : 한태선, (김성일), 윤귀중, 김광수 ·순천기독청년회(2명) : 김정기, 김성일 ·순천농민연합회(1명) : 장국현 ·순천노동연합회(1명) : 손남삼, (윤귀중) ·기타(4명) : 곽우영, 최정의, 신전우, 오한길
정기대회 **1929.1.5.**	·순천청년동맹(1명) : 박영진*, ·순천기독청년회(2명) : 이만호*, 김정기# ·순천농민조합(1명) : 김용택*# ·기타(4명) : 정종구*, 김성열*, 임규홍*, 최정의
임시대회 **1929.8.12.**	·순천청년동맹(5명) : 한규성*, 나정선*, 강기벽*, 황봉식*, 윤귀중 ·순천기독청년회(1명) : 김정기# ·순천농민조합(2명) : 장국현, 김용택(#) ·순천노동연합회(1명) : 오만봉* ·기타(4명) : 김성열, 장선옥*, 임규홍, 정종구
정기대회 **1929.12.21.**	·순천청년동맹(9명) : 나정오*, 김기동*, 이경훈*, 황봉식, 윤귀중, 강기벽, 나정선, 박영진, 한태선(#) ·순천기독청년회(1명) : 김정기 ·순천농민조합(2명) : 김용택#, 장국현 ·기타(2명) : 김한영*, 김성열

*출처 : 각 지회대회에서 선출된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진의 출처는 부표1과 같고, 이들의 소속 단체는『동아일보』,『조선일보』에 근거함.

*( )는 중복 인물, * 신규 임원, # 대의원, (#) 대의원 후보.

순천지회의 주요 동력을 설립대회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주목해야 하는 단체는 순천청맹이다. 순천청맹은 1927년 10월 18일 창립대회 석상에서 '전민족적 단일당 결성 촉진'을 결의했다. 순천 지역에서 민족단일당(신간회)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사회운동 단체는 순천청맹이 유일했다. 또한 순천청맹의 활동가들은 순천지회 설립을 실천했다. 순천지회 설립대회에서 순천청맹의 간부 한태선은 상무간사로, 윤귀중과 김광수는 간사로 선출되었다.[18]

순천청맹 활동가들의 순천지회 활동은 비밀결사 조공과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청)의 재정비와 관련이 있었다. 조공은 1926년 6·10만세운동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고, 1926년에 들어와 조직되었던 조공 및 공청의 전남도기관(광주, 순천, 광양, 구례 등)에도 영향을 미쳐 전남 동부지역 활동가들도 대부분 검거[19]되었다.

이후 공청은 1926년 8월 중앙총국 위원회를 통해, 조공은 같은 해 12월 제2차 당대회를 통해 진용을 정비[20]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 방침이 구체화되었다. 이는 신간회의 창립과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의 재정비로 드러났다. 일제의 식민 통치 하에서 비밀결사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합법단체와의 연관 속에서 대중운동을 전개[21]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면의 조공·공청의 영역과 표면의 신간회·청총의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 1927년 2월 신간회의 창립은 조공 제2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정당조직을

18) 「順天青年同盟創立」, 『조선일보』, 1927.10.21. 이하 순천청맹 창립대회에 관한 부분은 같은 출처에 근거했다. 또한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의 직책 등의 출처는 부표1과 같다.

19) 1925~1926년 조공 전남도기관에 대해서는 최선웅(2014), 앞의 논문 참조.

20) 1925년 4월에 탄생한 조공은 화요파를 중심으로 했고 또 다른 주요 사회주의 정치세력인 서울파는 배제되었다. 전명혁(2006),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 운동 연구』, 선인, 224쪽. 6·10만세운동 사건은 화요파의 위축과 새로운 사회주의 정치세력 엠엘파의 부상을 가져왔고 조공의 재조직 과정에서 당 외곽의 서울파를 포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6년 6·10만세운동 사건 이후 조공과 공청의 재조직 과정에 대해서는 박종린(1998), 「1920년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참조.

21)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는 임경석(1998), 「총론: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참조.

개인단위로 하고 지부제를 채용한다'는 민족당 방침의 실천[22]이었다. 또한 기존 계층별·직업별·성별로 구획된 청년단체들을 해체하고 종교청년단체의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청년 대중을 군(郡)·부(府)청년동맹(이하 군부 청맹)으로 단일화한다는 조직안은 청년운동을 "민족혁명 강령을 기반"으로 삼겠다는 방침[23]의 구체화였다. 아울러 청총은 '신운동방침'을 통해 전민족적 협동전선에서의 선두대'로 청총의 정체성을 재설정했고 '전민족적 단일협동전선 결성의 촉진'을 당면정책의 하나로 삼았다.[24]

요컨대 합법 공간의 신간회·청총은 비밀결사 조공·공청과의 관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청년 활동가들은 신간회 운동의 동력이 될 것을 요구받았다. 따라서 각 지역 청년단체들의 군부 청맹으로의 단일화와 신간회 지회 운동은 전반적인 조공·공청의 대중운동 재편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순천 지역 청년 활동가들은 순천청맹으로의 청년운동 단일화와 순천지회 설립을 주도했다. 순천지회 설립대회에서 간부로 선정된 순천청맹원들 중 김광수(순천청맹 집행위원장)는 공청 순천 조직의 책임자였고 한태선(순천청맹 집행위원)은 공청 조직원이었으며 설립 당시 순천지회의 간부는 아니었지만 한규성(순천청맹 집행위원) 역시 공청 조직원이었다.[25] 이들은 비밀결사 공청을 기반으로 합법단체 순천청맹을 이끌었고 순천지회 설립

22) 전명혁(2006), 앞의 책, 319쪽.

23)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46, ЛЛ.20-31, 「조선공산당 제2차 창립대회에 대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철수의 보고서」,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철수, 1927.2.10; 강성희 역(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ⅩⅩⅠ 러시아국립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189쪽.

24) 청총의 운동방침과 조직방침은 안건호·박혜란(1995),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10~112쪽 참조.

25) 『金在明外45人調書』[신주백(1993), 앞의 논문, 144쪽에서 재인용]. 제2차당대회 직후에 작성된 코민테른 앞으로 보내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6·10만세운동 사건 이후 복구된 22개의 지방 당 세포 중 전라남도 지역의 광주·순천·광양이 포함되었다.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28, ЛЛ.42-47, 남만춘,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방비서국에 보내는 조선공산당 활동에 관한 안내 자료에서」, 1926.12.27; 강성희 역(2015), 앞의 책, 151쪽.

의 주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

일제 관헌 기록에 따르면, 1928년 검거 당시 김광수와 한태선은 30세였고 한규성은 27세였다. 또한 김광수는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무직이었고, 한태선은 같은 학교를 1년 수학 후 동아일보 지국 기자로 활동했다. 한편 한규성은 보통학교 졸업생으로 목수[木工]였다.[26]

1928년 2월 이래 시작된 조공 검거 사건은 순천지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술했듯 순천지회는 2월 11일 간사회를 끝으로 9월 26일에 가서야 월례회 소식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1929년 1월 순천지회 정기대회에서 개선된 간부진 가운데 순천청맹원은 한 명으로 축소되었고 기존 설립대회에서 간부로 선정된 순천청맹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표 2에서 보듯 순천청맹은 1929년에도 순천지회 간부를 배출한 주요한 사회운동 단체였다. 또한 같은 해 1월, 8월, 12월 대회에서 순천지회 간부가 된 순천청맹원들 중 대부분은 1927년 10월 순천청맹 창립 당시의 임원들이었다. 1929년 1월 순천지회 정기대회 임원 개선에서 특별위원이 된 박영진, 같은 해 8월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정된 나정선과 검사위원이 된 황봉식, 집행위원 후보 강기벽, 같은 해 12월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임된 이경훈 등은 모두 1927년 10월 순천청맹 창립대회에서 간부로 선출된 이들이었다.

또한 공청과 관계를 맺었던 한규성은 1929년 8월 순천지회 임시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한태선은 1929년 12월 정기대회에서 대의원 후보로 선출되면서 신간회 활동을 재개했다. 이외 윤귀중 역시 1929년 8월 임시대회에서 순천지회 간부로 재등장했다.

이렇듯 1929년 순천지회에서 간부로 활동한 순천청맹원들의 상당수는 1927년 10월 순천청맹 창립 시의 멤버들로 이들의 신간회 지지 방침과 운동 방법은 1928년 1월 순천치회 설립 당시와 다른 것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외 1929년 12월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이 된 나정오는 1928년 4월 순천

---

26) 京高秘 第8036號, 「秘密結社朝鮮共産黨並ニ高麗共産青年會事件檢擧ノ件」, 1928.12.27., 梶村秀樹·姜德相 編(1972),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43쪽.

청맹 정기총회의 개선 임원 중 하나였다.[27] 또한 김기동은 1929년 12월 순천청맹 임시총회에서 서기를 맡았다.[28] 즉 순천지회에서 활동한 순천청맹원들 중에서는 1928년과 1929년에 청맹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들의 신간회 운동 방침 역시 1927년 10월 순천청맹 창립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조공 검거 사건의 여파 속에서 순천청맹은 순천지회와 마찬가지로 1928년 여름 이래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천청맹 총회가 진행되었지만, 논의 사항은 기관 및 회원들의 관리 문제에 머물러 있었다.

요컨대 순천청맹은 비밀결사 조공·공청의 영향 하에서 순천지회 설립을 주도했고 조공 검거 사건 이후에도 순천지회 간부진을 구성한 주요한 사회운동 단체였다.

순천청맹 외에 순천지회 간부진의 또 다른 축은 순천기청이었다. 특히 1930년 1월 순천기청의 임원[29]이었던 김성일은 1927년 10월 순천청맹 창립대회에서 간부로 선출되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의 순천청맹 활동은 청년운동의 문호를 종교청년단체 등 민족주의 청년들에게까지 열어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연대 범위를 확장한 조공의 방침이 주요한 배경이었다. 이는 1925년 9월에 조직된 전남 동부청년연맹의 종교 배척 입장[30]과 비교할 때 대조적이었다.

또한 김정기는 1928년 말에서 1929년 초엽 순천기청의 회장이었다.[31] 순천

27) 「湖南地方」, 『동아일보』, 1928.4.18.

28) 「順川靑盟臨總 청총문제토의」, 『동아일보』, 1930.1.1.

29) 「順天基靑總會 원만히마처」, 『동아일보』, 1930.1.13.

30) 순천·광양·보성 벌교·고흥·구례 등지의 청년단체들의 가맹으로 성립된 전남 동부청년연맹은 "현하의 각 종교는 사회의 권외로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東部靑年聯盟 去15日에順天서創立」, 『동아일보』, 1925.9.20. 1925년 조공의 창립 이전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원론적인 차원의 반종교론의 입장이었지만 창당 이후에는 반기독교론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최보민(2014), 「1920년대 중반 반기독교운동 연구」, 『인문과학』 5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75~77쪽 참조. 동부청년연맹의 주요 활동가들은 제1차 당대회 시기(1925.11~1926.11) 조공의 멤버였다. 박종린(2009), 앞의 논문, 389쪽 참조.

31) 김정기가 순천기청의 회장이 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그는 1928년 11월, 12월, 1929년 1월 순천기청 관련 기사에서 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湖南地方」, 『동아일보』,

지회의 설립대회 당시 상무간사로 선정되었던 김정기에 대한 다른 지회 활동가들 및 회원들의 신임은 두터웠다. 그는 1928년 9월 월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고, 1929년 1월 정기대회에서 회장과 대의원으로, 같은 해 8월 임시대회에서도 집행위원장과 대의원으로 선정되었다. 1929년 1월 간사로 선정된 이만호 역시 순천기청의 회원이었다. 그는 1928년 11월 11일 순천기청 임시총회에서 참석했고 서기를 맡았다.[32]

요컨대 순천기청 관계자들은 1928년 1월 순천지회 설립대회와 1929년 1월 정기대회에서 각 2인씩 간부로 선임되었고, 1929년 8월 이후에는 김정기 한 명이 순천지회 간부로 활동했다. 이처럼 순천기청은 양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순천지회에 꾸준히 참가했던 사회단체였다.

한편 순천기청의 회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여타의 기독교인들도 순천지회 간부로 활동했다. 가령 순천지회 설립 당시 상무간사였던 오한길은 1923년 순천기독면려청년회(이하 면려청년회) 창립 제15주년 기념총회에 참석했다.[33] 그리고 1929년 1월 순천지회 정기대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정종구는 훗날 순천기청에서 설립한 순천유치원의 원감[34]이 되었다. 이는 정종구와 순천기청 인사들 사이의 친밀성을 보여준다.

면려청년회와 순천기청은 서로 다른 창립일을 가진 별개의 단체였다. 전자는 장로교 계통의 청년단체로 1918년 10월 15일에 창립되었고[35], 후자는 1925년 11월 15일에 설립되었다.[36] 또한 면려청년회와 관련된 기사는 1925년

1928.11.17;「湖南地方」,『동아일보』, 1928.12.5;「10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8)」,『동아일보』, 1929.1.9.

32)「湖南地方」,『동아일보』, 1928.11.17.

33)「基督青年總會」,『조선일보』, 1923.10.18.

34)「順天幼園曙光」,『동아일보』, 1931.3.22.

35) 순천기독면려청년회의 창립일에 대해서는 임송자(2019), 앞의 논문, 173~175쪽 참조.

36)「10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8)」,『동아일보』, 1929.1.9. 순천기독청년회가 YMCA 계통이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 학계의 연구에서 순천YMCA는 해방 직후인 1945년에 창립되었다고 한다. 순천YMCA에 대해서는 한규무(2019),「순천YMCA의 창립·재건과 발전」,『남도문화연구』 3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참조.

9월부터 확인되지 않는다. 면려청년회에 관한 더 많은 자료 조사가 요구되지만, 면려청년회와 순천기청은 1925년을 기점으로 전자는 그 이전을 후자는 그 이후를 대표했던 순천의 기독교 청년단체였다.

면려청년회의 사회 참여 활동은 기독교인들의 순천지회 참여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37] 면려청년회는 1923년 평양지방 수재민들을 위해 순천청년회와 함께 수해구제회를 조직해 동정금 모집 활동을 전개했고, 1924년 일제 경찰의 고문과 구타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순천 지역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성토대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고문·구타 경관들에게 시민대회 자리에서 사과하라는 통고문을 발송했다.[38] 또한 1925년 8월 순천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을축수해구제회를 조직해 강연회를 여는 한편 동정금 모집을 위해 애썼다.[39]

한편 순천기청의 사회 활동은 순천지회 설립 이후에 두드러졌다. 1928년 9월 순천기청은 이재민 구제 모금 활동[40]을 시작으로 여자야학 및 농촌사업 등에 관해 논의[41]했다. 즉 순천지회의 설립은 순천기청의 사회 활동을 넓힌 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순천농련·순천농조[42]와 순천노련을 보자. 순천지회 설립 당시 순천농련과 순천노련에서 각 한 명씩 간부로 참여했다. 그리고 1929년에 들어와서도 순천농조 관계자들은 1~2명씩 순천지회 간부로 활동했다.

---

37)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를 기점으로 가시화된 반종교운동 등 사회주의 진영의 종교 비판은 기독교계의 자성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독교계의 사회 참여를 가져왔다. 장규식(2001), 「신간회운동기 '기독주의'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기독신우회」, 『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국근현대사학회 참조.

38) 임송자(2019), 앞의 논문, 183~184쪽 참조.

39) 「大水難과熱烈한同族愛 數萬罹災民을吊코저 歌舞宴樂三日停止」, 『조선일보』, 1925.8.1; 「11團體蹶起 順天에水救組織」, 『조선일보』, 1925.8.3.

40) 「慘澹한旱,水災와 各地同胞의뜨거운同情」, 『동아일보』, 1928.9.13.

41) 「湖南地方」, 『동아일보』, 1928.11.17.

42) 순천농민연합회는 1929년 4월 6일 순천농민조합으로 개칭했다. 「順天農聯會 農民組合으로 組織變更」, 『조선일보』, 1929.4.10.

양적인 측면에서 순천 지역의 노동·농민 단체 관계자들의 순천지회 참여 정도는 순천기청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순천농련·순천농조와 순천노련이 순천지회를 뒷받침했던 사회운동 단체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회원 수의 차이가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표 3〉 순천 지역 사회단체 회원 수(1929년 1월)

	순천농련	순천노련	순천청맹	순천기청
창립시	5,700	197	30	21
1929.1	2,590	220	28	36

*출처: 「10年一覽 顯著히 發達된 燦然한 地方文化(8)」, 『동아일보』, 1929.1.9.

표 3에서 보듯 순천농련의 회원 수는 1923년 창립 당시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에 비할 때 매우 큰 단체였다. 1929년 1월 순천농련은 2,590명의 회원을 포용한 거대 단체로 28명으로 구성된 순천청맹, 36명으로 구성된 순천기청과 비교할 때 대략 70~90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했다.

또한 1929년 1월 정기대회 시점 순천지회의 회원 수가 60명 이상 90명 미만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순천농련의 회원 수는 순천지회의 대략 30~40배에 달했다. 순천지회와 순천농련의 규모 차이에서 봤을 때 순천농련이 순천지회의 기반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순천농련·순천농조 관계자들이 꾸준히 순천지회에 참여하고 부회장, 집행위원장, 대의원 등 비중 있는 지위를 차지했던 것은 순천지회에 다수의 농민이 참여했기 때문이었다기 보다는 순천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높은 인지도 때문이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순천노련의 회원 수는 1929년 1월 시점 220명이었다. 순천농련에 비하면 10배 이상 작은 단체였지만, 순천지회에 비하면 2.5~3.5배 이상 큰 단체였다. 순천노련 역시 순천지회의 대중적 기초가 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순천지회의 규모는 순천청맹과 순천기청의 회원 수를 합한 수치와 대체로 유사했다. 따라서 간부진의 구성과 각 간부가 속한 사회단체의 규모를 함께 고려했을 때 순천지회는 순천청맹과 순천기청을 근간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Ⅳ. '약소민족 공론장'의 창출 시도

순천지회는 설립대회를 포함하여 네 번의 대회를 열었고 일곱 번의 간사회/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 회합에서 논의된 사항은 ▶ 임원 개선, 업무 분담, 회비 징수 등의 회무 유지 의안과 ▶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천을 수반하는 활동 의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무 유지 의안은 설립 직후에 열린 첫 번째 간사회와 1929년 8월 임시대회 이후에 두드러졌다(부표2).[43] 설립 직후 업무 분담, 예산 편성, 회비 징수, 회관 건립 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29년 8월 임시대회와 집행위원회, 같은 해 12월 정기대회에서 회무 유지 의안만이 논의되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같은 해 1월 간사회 이후 8월의 임시대회와 집행위원회 개최까지 7개월 가량의 공백기를 상기할 때 실질적인 활동 전개를 위한 논의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9년 8월 임시대회와 집행위원회에서는 도지회연합회와 분회 및 반조직안 등 복대표대회에서 개정된 신규약의 적용 문제가 논의되었다.[44] 그러나 순천지회는 이와 같은 조직 확장 사업을 실제로 전개하지 못했다. 새로운 규약을 적용해 지회의 진용을 정비하고자 했던 의지는 확인되지만 실천이 수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순천지회 관계자들은 복대표대회를 계기로 1929년 1월 간사회 이후 7개월 이상 지속된 침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개정 규약에 따라 지회를 정돈하고자 했지만 가시적인

43) 순천지회 간사회/집행위원회와 대회의 전체 논의사항은 부표 2와 같다.
44) 복대표대회에서 개정된 신간회 규약은 이균영(1993), 앞의 책, 217~224쪽 참조.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1929년 8월 임시대회 이래 논의된 회원 모집과 회비 징수 문제 등 회무 유지 의안은 지회의 효율적 관리와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회의 유지가 어려웠던 정황을 반영한다. 결국 순천지회의 활동기는 간사회와 대회를 통해 활동 의안을 논의했던 1929년 1월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순천지회의 활동 의안의 논의 상황은 표4에서 보듯 1928년 12월 19일 간사회를 기점으로 구분된다. 우선 1928년 2월·9월·10월 간사회에서는 신간회 전체대회(이하 전체대회) 금지 문제를 논의했고, 같은 해 12월·1929년 1월에는 소비조합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제를 제기했다.

〈표 4〉 신간회 순천지회의 활동 의안

회합명	논의사항
간사회 1928.2.11.	·본부 대회 금지에 관한 건, ·임시대회 소집 격려문 발송, ·신간회 창립 기념식 거행의 건
월례회 1928.9.26.	·본부 대회 금지의 건 : 전국적 해금운동 시행, 비판연설회 개최 ·관북 수재 구제의 건
간사회 1928.10.11.	·본부 대회 해금운동 : 경고문(警告文)을 작성하여 전조선 각 사회단체에 발송하여 전조선적 해금운동의 전개, 비판연설회(10.20) 개최 ·관북 수재 구제의 건 : 위원 4인을 선정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연금(義捐金) 모집
간사회 1928.12.19.	·단연에 관한 건 ·소비조합에 관한 건
정기대회 1929.1.5.	·소비조합에 관한 건, ·염의 장려의 건, ·미신 타파의 건
간사회 1929.1.7.	·염의 장려와 미신 타파의 건 : 선전을 위한 비라 인쇄와 의연회 개최, 준비위원 4인 선정 ·소비조합의 건 : 구체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성안 위원 2인 선정

*출처 : 부표 2와 같음.

전체대회 금지 문제는 시기적으로 1928년 2월에 처음 안건으로 올라간 뒤 7개월 여쯤 지난 9월에 재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시차는 조공 검거 사건 등으로 인한 순천지회의 전반적인 위축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1928년 2월 11일 간사회의 논의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되었던 전체대회의 금지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9월 26일 월례회와 10월 11일 간사회의 논의는 다가올 1929년 2월 15일의 전체대회를 원활하게 개최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시의적절했다.

경찰당국의 전체대회 금지 이유는 강령이 모호하고 지회 가운데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45] 즉 치안 유지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지회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대회를 허락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명령은 대회 개최 예정일의 일주일 전인 1928년 2월 7일이었고, 이에 관한 기사는 다음날인 2월 8일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월 11일에 개최된 간사회에서 전체대회 금지에 대한 건과 임시대회 소집 격려문 발송 문제가 논의되었다. 순천지회 내에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전반적인 정황에서 볼 때 그것은 신간회 본부(이하 본부)의 입장과 유사했다.

본부에서는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조치가 있자 바로 긴급간사회를 열었고 임시대회의 소집을 결정했다.[46] 대회 개최의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지나서 임시대회를 열겠다는 취지였다.[47] 시기의 문제는 1928년 2월 2일부터 시작된 조공 검거 사건 때문이었다. 즉 비밀결사 조공의 존재가 일제 경찰에 의해 탐지됨에 따라 경찰의 '신경과민'적 경계가 전체대회 금지의 원인[48]이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리라는 전망이었다.

요컨대 1928년 2월 11일 순천지회 간사회에서 진행된 임시대회 소집 격려

45)「萬人囑目의2月15日! 新幹大會突然禁止」,『조선일보』, 1928.2.8.
46)「新幹本部幹事會 臨時大會에努力」,『조선일보』, 1928.2.10.
47)「時期問題인 듯 臨時大會로變更」,『조선일보』, 1928.2.8.
48)「時評 新幹大會禁止」,『조선일보』, 1928.2.8.

문을 발송하자는 논의는 시일을 좀 기다렸다가 경찰의 경계가 완화되면 임시대회를 열겠다는 본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측에서 전체대회를 금지하겠다는 소식이 보도된 같은 날 같은 지면에는 조공 검거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가 함께 실렸다.[49] 그리고 각 지역 경찰은 지회의 설립과 지회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신간회 창립 기념식조차 금지했다.[50]

순천지회도 오랫동안 회합을 하지 못했고, 힘겹게 개최한 1928년 9월 월례회에서는 전체대회 금지에 대해 '전국적 해금운동'과 '비판연설회 개최'를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달 간사회에서는 해금운동의 방법으로서 전조선 각 사회단체에 경고문을 발송할 것과 10월 20일에 비판연설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 사회단체에 경고문을 발송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비판연설회는 경찰에 의해 연기[51]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대회 해금운동과 비판연설회 개최 계획은 신간회 운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순천지회의 위 결정 사항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전국적 해금운동 계획은 일제 경찰당국의 전체대회 금지 문제를 소재로 사회적 의제를 만들고자 했던 의지를 말해준다. 둘째, 비판연설회 계획은 지역사회 내에서 대중을 호출해 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의도의 표현이었다.

이와 같은 실천 계획의 내적 논리와 관련해서는 『대중신문』을 참고할 수 있다. 동경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되었던 『대중신문』은 조공과 관련이 깊었다.[52]

---

49) 「去益擴大되는ML黨事件」, 『조선일보』, 1928.2.8.

50) 「慶南道內支會設置 絕對禁止」, 『조선일보』, 1928.2.16; 「各地支會 創立紀念式 警察이 禁止」, 『조선일보』, 1928.2.19.

51) 「新幹大會 禁止批判演說 순천경찰이금지」, 『조선일보』, 1928.10.27.

52) 1926년 12월 제2차 당대회 시점 조공은 엠엘파를 중심으로 서울파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복구되었다. 이후 조공은 내부 엠엘파와 서울상해파의 갈등 속에서 두 번의 3차 당대회를 열었다. 즉 두 개의 당중앙이 생긴 것으로 서울상해파 당대회는 1927년 12월에, 엠엘파 당대회는 1928년 2월에 개최되었다. 당내 갈등과 제3차 당대회에 대해서는

신간회 해금운동과 전체대회 금지 비판 연설회가 순천지회에서 논의되었던 1928년 9~10월은 순천 지역에 조공의 조직적 영향력은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같은 해 2월부터 조공 검거가 시작되었고, 순천 지역 공청 활동가들의 활동도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검거 기사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들의 활동을 알려주는 보도는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김광수는 순천지회 설립대회 관계 기사 이후 1929년 5월에 가서야 순천농조의 소작권 회복운동위원으로 선정된 기사[53]가 확인되고, 한태선은 1928년 5월 전남청년연맹 관계 기사[54]를 끝으로 대략 7개월 가량 활동상이 보도되지 않다가 1928년 연말 순천 지역 사회단체연합망년회 준비위원으로 선정된 기사[55]가 나온다. 한규성의 경우 1928년 4월 순천청맹 관련 기사에 등장한 이래 1929년 8월 순천지회 임시대회 관계 기사에서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공청 조직 관련자들에 관한 소식은 1928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전해지지 않았다.

전명혁(2006), 앞의 책, 제9장; 임경석(2017),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그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참조. 조공(엠엘파)에서는 1926년 12월 제2차 당대회에서 1928년 8월까지 당에서 발행한 간행물 중 하나로 『대중신문』을 꼽았다.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56, Л.Л.406-410, 「양명과 한해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과 동방부에 행한 보고 중 발췌」, 1928.11.29; 이완종 역(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ⅩⅩⅡ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14쪽. 반면 조공(서울상해파)에서는 엠엘파의 불법성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트로츠키와 일본 후쿠모토의 지지자들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대중신문』의 기사를 거론했다.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56, Л.Л.120-124,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비서국으로 보내는 김영만의 신고서」, 1928.3.6; 이완종 역(2015), 같은 책, 85쪽.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에서 볼 때, 1926년 12월 제2차 당대회 이후 『대중신문』은 조공의 합법 출판물이었지만, 1927년 말에서 1928년 초엽 조공(엠엘파)의 견해를 대변한 간행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순천 지역의 비밀결사 공청 조직이 엠엘파와 서울상해파의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받았는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엠엘파와 서울상해파 간의 차이는 민족협동전선 문제에 한정할 때 운동의 내용적 측면보다는 조직 형태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신간회 운동의 목적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파 문제와 무관하게 『대중신문』이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3) 「四百餘斗落의 作權移轉問題로」, 『동아일보』, 1929.5.9.

54) 「全南青年聯盟 定期大會準備」, 『동아일보』, 1928.5.26.

55) 「順天各社會團體 聯合忘年會開催」, 『조선일보』, 1928.12.31.

그럼에도 불구하고『대중신문』은 순천 지역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여겨진다. 1927년 11월 30일 순천에서 개최된 전남청년운동자 지방대회에서 '신간회 지지의 건'과 함께 '『대중신문』 지지의 건'이 통과[56]되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순천청맹이 만들어진 지 한 달 뒤였다. 또한 순천청맹에서는 이 대회를 마친 후 기념강연회를 개최했고, 김광수는 이 강연회의 사회를 맡았다.[57]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볼 때 순천 지역 청년운동의 재편 과정에서 동경에서 출판되는『대중신문』은 유통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 "漠然한 綱領"! 이것은 어대에서 곳칠 것이냐? 新幹會의 最高決定機關인 全國大會에서 改正, 決定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會도 열기 前에 禁止란 것은 [警察]暴壓政治의 正體를 如實히 [暴露]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중략) 地方支會는 本部의 統制와 指導 밋헤서 其地方特殊事件에 依하야 合法的 大衆鬪爭을 하는 것이며 또 하여온 것이다. 무엇이 "激越"하단 말인가! 이것은 彼等이 朝鮮民族의 生活權의 保障, 朝鮮民族의 政治的 自由의 覺醒은 全然 眼中에 업고 다만 主觀的 獨斷에 基因한 帝國主義의 '獨裁'를 全朝鮮被壓迫大衆의 面前에 暴露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58]

위 인용문은『대중신문』에 실린 전체대회 금지에 대한 사설의 일부이다. 이 사설은 우선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이유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전체대회를, 대회를 열기도 전에 강령이 모호한다는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은 모순된 말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찰의 처치를 '폭압정치'라고 표현했다.

계속해서 경찰의 독단성과 전제성이 비판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사설은 경찰측에서 각 지회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전체대회를 금지했지만 신간회

56)「東部6郡聯盟 一時에解體宣言,『동아일보』, 1927.12.3.
57)「順天青年講演」,『동아일보』, 1927.12.3.
58)「社說 新幹會全國大會禁止와 朝鮮警察政治, 大衆鬪爭에依하야 新幹會大會를解禁하라!」,『대중신문』, 1928.3.13; 박경식 편(1999),『조선문제자료총서』5, 국학자료원, 381쪽.

지회는 합법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의 눈에 지방지회의 행동이 거슬리는 이유는 지회의 과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생존권'과 '조선민족의 정치적 자유'를 외면하는 그들 자신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주관적 독단'과 '제국주의의 독재'라고 했다.

요컨대 이 사설은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명령을 소재로 피지배 조선 민족과 제국주의 권력을 대조시키면서 후자가 전자를 압박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즉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명령은 제국주의 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증명하는 사례였다.

그리고 이 사설은 신간회가 각 지회를 통해 전국적 해금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었다. 이는 신간회가 전체대회 금지를 소재로 '경찰폭압정치' 비판과 식민지 약소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를 사회적 의제로 삼아 전국적인 해금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순천지회에서 논의된 신간회 해금운동의 제의와 지역사회 차원의 비판연설회 개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즉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경찰의 권력 행사를 자의적인 '폭압정치'로 비판하면서 조선인들이 약소민족으로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자유와 해방을 상상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획은 항일과 반일의 방향으로 식민지 체제의 근원적 전복을 위한 대중의 직접적인 행동을 조직하는 것이 아닌 대중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간회 운동은 "일제 통치세력에 일정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는 단계의 민족협동전선", 즉 다소 온건한 운동이었다는 평가[59]는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신간회는 6·10만세운동의 실패를 배경으로 탄생했고, 조공측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식민권력과 싸우려 하지 않는 대중의 무기력에서 찾았다. 즉 이들은 대중이 1919년 3·1운동 때처럼 6·10만세운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60] 더욱이 조공 내에는 전술적으로 자치운동 추진을 고려한 이들도

59) 이균영(1993), 앞의 책, 379쪽.

60) РГАСПИ, Ф.495, ОП.135, Д.146, ЛЛ.20-31, 앞의 김철수 보고; 강성희 역

존재했다.[61] 이처럼 1926년 하반기 자치운동이 현실화될 경우 대중이 이에 호응할 수 있다고 예측[62]할 만큼 대중의 개량적 성향은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공은 6·10만세운동과 같은 직접적인 시위투쟁보다 식민지 체제 내에 안주하려 하는 대중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방식으로 대중 활동의 방향을 선회했다.

순천지회에서 기획한 비판연설회는 식민권력 앞에 무기력하고 식민지 체제 내에 머물러 있는 대중에게 경찰의 전체대회 금지 사례를 통해 약소민족을 억압하는 '경찰폭압정치'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할 것이었다. 또한 이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의 경험을 상기하게 하면서 약소민족으로서 조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향해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비판연설회는 경찰의 폭압성에 대한 조선인들의 민족적 공론을 형성하는 '약소민족 공론장'의 한 형태로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와 같은 순천지회의 활동 계획은 식민지 현실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경찰의 행위를 비판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개량적이었다. 또한 경찰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고발 혹은 폭로하는 방식은 식민 통치의 개선과 개량의 주장으로 비약될 위험을 포함했다. 결국 식민지 체제에 대한 변혁 전망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간회는 '개량적 요소를 포함한 대중정당'의 성격을 가졌다.[63]

그러나 신간회는 민족협동전선의 한 형태였고, 민족협동전선운동은 식민지 약소민족의 해방을 위한 정치 기획이었다. 따라서 민족단일당 신간회는 식민

(2015), 앞의 책, 180쪽.

61) 윤효정(2017),「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61쪽. 전술적 차원의 자치운동이 실천되지는 않았다.

62) РГАСПИ, Ф.495, Оп.45, Д.19, Лл.65-74,「조선공산당 대표 조동호가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에 보낸 보고」, 1927년 (2월 14일 이전); 강성희 역(2015), 앞의 책, 198쪽.

63) 김영진(2016), 앞의 논문, 100쪽.

지 체체와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다.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를 다시 보자. 이 비판연설회는 대중의 행동이 아닌 대중의 의식을 겨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피압박 약소민족이라는 점을 일깨우고자 했다. 이는 '조선독립불능론'으로 압축되는 문화통치의 문명화론·근대화론의 선전[64]과 대립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독립불능론은 문명화론·근대화론 등과 맞물리면서 조선인들이 가진 독립적인 민족 정체성을 형해화하는 작용을 했다. 이와 같은 통치 전략은 조선인들로 하여금 식민지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했다. 가령 3·1운동 이후 광범위하게 전개된 지역주민운동은 도로와 철도 부설, 학교 설립, 관공서 유치 등 지역 개발 및 발전과 같은 현실 이익을 위해 식민당국을 대상으로 한 탄원과 진정 활동이었다.[65] 이와 같은 지역 차별의 해소, 지역 개발과 발전을 추구했던 지역주민운동은 민족적 요소보다 지역적 요소를 우선시했다. 또한 이는 식민지 체제 안에서 보다 '공정한' 식민지 개발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식민지 현실에 대한 부정과 피지배 민족이라는 정체성 형성은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식민지 약소민족으로서의 자각을 꾀한 신간회 운동은 이와 같은 문화통치기 현실화될 수 있는 조선 민중의 체제내화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민족협동전선으로서 신간회는 식민지 체제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활동을 기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식민 통치의 폭압성을 드러내면서 조선인들이 약소민족으로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체제와 긴장감을 일으키고자 했다. 따라서 신간회의 온건하면서도 개량적인 활동은 제국 일본에 귀속된 신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64)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제1장 참조.

65) 역사문제연구소 기획(2011), 류시현·문영주·박종린·허수·허영란 지음,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5, 웅진, 102~103쪽.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한상구(2013),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지역 주민대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개량주의적 활동과는 범주를 달리했다.

이상 순천지회의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비록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간회 운동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순천지회의 활동가들은 지역주민 혹은 제국의 신민이 아닌 '약소민족'으로서 조선인들을 비판연설회의 장으로 호출하고자 했다. 비판연설회는 상상된 집합 주체인 '약소민족'의 생존권과 자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일제 식민권력의 자의적인 폭압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식민지 체제 부정의 요소를 함축했다. 즉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조선 민중이 식민 지배 현실을 직시하고 피압박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만들고자 한 '약소민족 공론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실현되지 못했고, 두 달 가량이 지난 1928년 12월부터 순천지회 내에서는 소비조합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단연, 염의, 미신 타파 등 순천지회의 활동 계획은 당시 조선일보에서 추진한 생활개신운동과 궤를 같이 했다.

또한 소비조합은 거의 유사한 시점 순천기청에서도 논의되었다.[66] 이후 1930년 10월 순천노련에서도 소비조합 문제가 토의 안건으로 올라왔다.[67] 소비조합과 관련된 정보는 매우 취약한 편인데 순천지회에서 소비조합을 논의하게 된 동기와 관련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순천지회의 정체성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순천지회는 설립 이래 회원 수의 변동이 거의 없었다. 소비조합은 중간 상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비판연설회와 같은 대외적인 대중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조합처럼 대중에게 현실적인 이익을 주는 활동을 통해 신간회로 대중을 모으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순천지회에서 실제로 소비조합을 운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순천기청과 순천청맹의 취약성을 고려할 수 있다. 현실적으

66) 「湖南地方」, 『동아일보』, 1928.12.5.
67) 「物價半減을決議」, 『조선일보』, 1930.11.2.

로 순천기청의 회원 수는 36명으로 순천지회를 뒷받침 해 줄만한 대중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점은 28명의 회원을 포용한 순천청맹 역시 마찬가지였다(표 3). 농민단체가 가장 큰 단체였지만 순천농련과 순천농조에서는 일관되게 소작권 보장 문제가 주요 이슈[68]였고 소비조합은 논의되지 않았다. 즉 순천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농민단체의 대중적 기반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소비조합 안의 현실성을 낮췄던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Ⅴ. 맺음말

이 연구는 순천지회 사례를 통해 신간회 운동의 양태와 성격을 검토했다. 순천지회는 1928년 1월 13일에 설립되어 1929년 1월 이래 침체되었고,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설립에서 2월 11일, 9월 26일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로 대략 4개월 정도였다. 또한 회원 수는 70명 내외였다.

순천지회의 간부진은 순천청맹과 순천기청을 중심으로 했고, 순천청맹의 활동가들 중에는 비밀결사 공청의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순천지회는 신간회와 청총을 중심으로 한 조공의 대중운동 재편 과정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다.

실제 활동 기간이 짧았고 이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활동은 없었지만 순천지회의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 계획은 신간회 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우선 비판연설회라는 형식은 대중의 행동이 아닌 대중의 의식에 작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비판연설회는 신간회 전체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를 소재로 '경찰폭압정치'를 비판하면서 조선 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판연설회 계획은 대중의 직접 행동을 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온건했고

68) 「順天農組總會」, 『동아일보』, 1929.4.11.

식민지 체제를 근원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채 경찰의 처사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개량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문화통치기 '조선독립불능론'으로 압축되는 식민지 통치 전략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체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민족적 공론 형성을 통해 조선 민중이 식민지 체제에 안주하는 것을 방어하고 제국의 신민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피압박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기획된 '약소민족 공론장'의 한 형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혹은 집회 금지 등의 사회적 이슈는 순천만의 사안이 아니었다. 추후 순천지회뿐 아니라 다른 지회 차원에서 논의·계획·실천된 사례들을 종합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또한 여러 지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행된 다양한 지역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간회 운동의 구체적인 양태를 해명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부표 1〉 신간회 순천지회 간부진

일자	간부진
1928.1.13. 설립대회	·회장 곽우영(郭宇盈), 부회장 장국현(張局鉉) ·서무재정부 총무간사 최정의(崔珽義) ·出版政文調研部 총무간사 신전우(申典雨) ·조직선전부 총무간사 손남삼(孫南三) ·상무간사 한태선(韓泰善), 오한길(吳漢吉), 김정기(金正基) ·간사 김성일(金聖日), 윤귀중(尹貴重), 김광수(金光洙) (출처)『조선일보』, 1928.1.18.
1928.9.26. 월례회	·간사 김용택(金容澤), 황봉식(黃奉植) 보선 ·대의원 김정기 (출처)『동아일보』, 1928.9.26.
1929.1.5. 정기대회	·회장 김정기 ·간사 김용택, 김성열(金成烈), 이만호(李萬浩), 정종구(鄭鍾求) ·특별위원 박영진(朴永震), 임규홍(任奎洪), 최정의 ·대의원 김정기, 김용택 (출처)『동아일보』, 1929.1.8 ;『조선일보』, 1929.1.9.
1929.8.12. 임시대회	·위원장 김정기 ·집행위원 한규성(韓圭星), 나정선(羅正善), 임규홍, 오만봉(吳萬鳳), 김성열, (후보) 강기벽(姜基壁), 장선옥(張善玉) ·검사위원 장국현, 정종구, 황봉식, (후보) 윤귀중 ·대의원 김정기, (후보) 김용택 (출처)『조선일보』, 1929.8.18.
1929.12.21. 정기대회	·집행위원장 김용택 ·집행위원 김성열, 나정오(羅正午), 김기동(金基東), 황봉식, 윤귀중, 이경훈(李景薰), 강기벽, 나정선, 김한영(金瀚泳) ·검사위원 장국현, 박영진, 김정기 ·대의원 김용택, (후보) 한태선 (출처)『조선일보』, 1929.12.25.

〈부표 2〉 신간회 순천지회의 논의사항

회합명	논의사항
간사회 1928.1.21.	·각부 담임의 건, ·본부 대회에 제출할 건의안 작성의 건 ·예산에 관한 건, ·회원부담금에 관한 건, ·회관에 관한 건 ·회장 사임에 관한 건 (출처)『동아일보』, 1928.1.25.
간사회 1928.2.11.	·본부 대회 금지에 관한 건, ·임시대회 소집 격려문 발송, ·신간회 창립 기념식 거행의 건 (출처)『동아일보』, 1928.2.27.
월례회 1928.9.26.	·본부 대회 금지의 건 : 전국적 해금운동 시행, 비판연설회 개최 ·관북 수재 구제의 건 (출처)『동아일보』, 1928.10.3.
간사회 1928.10.11.	·본부 대회 해금운동 : 경고문(警告文)을 작성하여 전조선 각 사회단체에 발송하여 전조선적 해금운동의 전개, 비판연설회(10.20) 개최 ·관북 수재 구제의 건 : 위원 4인을 선정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연금(義捐金) 모집 (출처)『동아일보』, 1928.10.17.
간사회 1928.12.19.	·회관 개초(盖草)의 건, ·부무 분담의 건, ·망년회 개최의 건 ·단연에 관한 건, ·소비조합에 관한 건 (출처)『조선일보』, 1928.12.23.
정기대회 1929.1.5.	·기관 조직 변경의 건, ·예산안 통과의 건, ·임원 개선의 건 ·소비조합에 관한 건, ·염의장려의 건, ·미신 타파의 건 (출처)『조선일보』, 1929.1.9.
간사회 1929.1.7.	·염의 장려와 미신 타파의 건 : 선전을 위한 비라 인쇄와 의연회 개최, 준비위원 4인 선정 ·소비조합의 건 : 구체안을 작성하기로 하고 성안 위원 2인 선정 (출처)『동아일보』, 1929.1.12.
임시대회 1929.8.12.	·도지회연합회 촉성의 건, ·분회 및 반 조직의 건, ·회원 증모 및 회비 징수의 건, ·본부 회관 건축의 건, ·회보 발행의 건 (출처)『조선일보』, 1929.8.18; 『동아일보』, 1929.8.20.
집행위원회 1929.8.29.	·신간회 전남도지회연합회 촉성의 건, ·분회 및 반 조직에 대한 건 ·회비 징수의 건, ·회원 모집의 건, ·회비 조정의 건 ·본부 회관 건축의 건, ·회보 발행의 건 (출처)『조선일보』, 1929.9.3; 『동아일보』, 1929.9.3.
정기대회 1929.12.21	·본부와 광주지회와의 관계의 건, ·회비 징수에 관한 건 ·본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신간회 안에 노농부 설치 문제에 대한 건 (출처)『조선일보』, 1929.12.25; 『동아일보』, 1929.12.26.

참고문헌

『동아일보』.
『조선일보』.
京鍾警高秘 第16397號, 「新幹會本部通文郵送ノ件」, 1928.12.5.
京鍾警高秘 第14794號, 「新幹會代表會員選擧狀況ニ關スル件」, 1930.10.11.

강동진(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강성희 역(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ⅩⅪ 러시아국립정치사문서보관소 (РГАСПИ)』, 선인.
박경식 편(1999), 『조선문제자료총서』 5, 국학자료원.
순천시사편찬위원회(1997), 『순천시사』(하).
역사문제연구소(1993),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2, 여강.
역사문제연구소 기획(2011), 류시현·문영주·박종린·허수·허영란 지음,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5, 웅진.
이균영(1993),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이완종 역(2015), 『러시아문서 번역집 ⅩⅩⅡ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 (РГАСПИ)』, 선인.
전명혁(2006),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 운동 연구』, 선인.
조성운(2003), 『일제하 수원지역의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1995),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梶村秀樹·姜德相 編(1972),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강재순(1996), 「신간회 부산지회와 지역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1, 부경역사연구소, 35~55쪽.
김남석(2013), 「신간회 당진지회의 조직과 활동」, 『충청문화연구』 11,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44쪽.
김동철·강재순(1996), 「1920~1930년대 초 기장지역 사회운동」, 『한국민족문화』 8,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25~186쪽.

김승(2000),「한말·일제하 동래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지역과 역사』6, 부경역사연구소, 71～136쪽.

김승(2004),「일제하 양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지역과 역사』14, 부경역사연구소, 239～283쪽.
UCI : G704-001416.2004.0.14.001

김승(2005),「일제하 언양지역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발전」,『부대사학』28·29, 부산대사학회, 397～426쪽.

김승(2005),「한말·일제하 밀양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한국민족문화』2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7～249쪽.
UCI : G704-001416.2004.0.15.004

김영진(2011),「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서울과 역사』78, 서울역사편찬원, 175～226쪽.
UCI : G704-002043.2011..78.001

김영진(2016),「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사림』58, 수선사학회, 77～105쪽.
UCI : G704-001587.2016..58.005

김용달(2005),「일제하 홍성지역의 사회운동」,『한국사학보』19, 고려사학회, 95～122쪽.
UCI : G704-000690.2005..19.012

김형목(2019),「3·1운동 이후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성격」,『항도부산』3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53～190쪽.
DOI : 10.19169/hd.2019.2.37.153

남정원(2006),「1920년대 후반 신간회 대구지회의 설립과 활동」,『계명사학』17, 계명사학회, 299～325쪽.

박종린(1998),「1920년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한국사연구』102, 한국사연구회, 215～259쪽.

박종린(2009),「일제시기 순천권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대동문화연구』6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365～396쪽.
DOI : 10.18219/ddmh..68.200912.365

박종린(2010),「일제시기 강진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한국사학보』 38, 고려사학회, 367～397쪽.
UCI : G704-000690.2010..38.011

박찬승(2019),「1920년대 정읍군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 90, 한국근현대사학회, 65～110쪽.
DOI : 10.29004/jkmch.2019.9.90.65

박찬승,「1920,30년대 강진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역사문화학회, 151～202쪽.
DOI : 10.23013/localh.2011.14.1.005

성주현(2012),「양양지역 신간회 조직과 활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81～208쪽.
UCI : G704-000827.2012..73.009

오대록(2019),「1920년대 익산지역 사회운동의 전개 양상과 성격」,『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355～392쪽.

오미일(2018),「1920년대 중반 원산지역 아나키스트들의 공산주의 운동론 비판과 노선투쟁-원산청년동맹과 신간지회 결성 문제」,『한국사학보』 72, 고려사학회, 183～215쪽.
DOI : 10.21490/jskh.2018.08.72.183

윤덕영(2010),「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07～163쪽.
UCI : G704-000827.2010..65.002

윤순갑·최병덕(2005),「1920년대 안동지역 사회주의세력의 민족해방운동」,『한국동북아논총』 10-36, 한국동북아논총, 345～372쪽.
UCI : G704-001454.2005.10.36.005

윤효정(2007),「신간회 지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121～139쪽.

윤효정(2017),「신간회의 창립 과정 연구-조선공산당의 활동을 중심으로-」,『민족문화연구』 7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53～385쪽.

DOI : 10.17948/kcs.2017..75.353

이명진(2019),「1920년대 익산지역의 사회주의자와 그 활동」,『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역사문화학회, 7~40쪽.

DOI : 10.23013/localh.2019.22.2.001

이성우(2010),「1920년대 서산지역의 청년운동」,『사학연구』 99, 한국사학회, 261~297쪽.

UCI : G704-001261.2010..99.003

이윤갑(2004),「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동방학지』 123, 연세대 국학연구원, 239~302쪽.

UCI : G704-001255.2004..123.004

이윤갑(2019),「일제 강점기 성주의 사회변동과 민족운동」,『한국학논집』 7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69~332쪽.

DOI : 10.18399/actako.2019..75.009

이현정(2002),「신간회 안동지회의 성립과 활동」,『안동사학』 7, 안동사학회, 137~158쪽.

임경석(1998),「총론: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의 의의와 과제」,『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2~28쪽.

임송자(2019),「순천기독면려청년회 활동과 순천청년회」,『남도문화연구』 3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69~194쪽.

DOI : 10.31929/namdo.2019.37.169

장규식(2001),「신간회운동기 '기독주의' 사회운동론의 대두와 기독신우회」,『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국근현대사학회, 76~114쪽.

정내수(2005),「일제 강점기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역사와 담론』 40, 호서사학회, 35~78쪽.

UCI : G704-001545.2005..40.002

조규태(2007),「1920년대 경북 청도인의 민족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49~182쪽.

UCI : G704-000827.2007..53.007

조성운(2010),「日帝下 廣州地域의 新幹會運動」,『사학연구』100, 한국사학회, 749~781쪽.
UCI : G704-001261.2010..100.012
지수걸(1997),「일제하 전남 순천지역의 소작인조합운동과 '관료-유지 지배체제'」,『한국사연구』96, 한국사연구회, 75~104쪽.
최동일(2005),「신간회 괴산지회의 조직과 활동」,『충북사학』15, 충북사학회, 87~122쪽.
최보민(2014),「1920년대 중반 반기독교운동 연구」,『인문과학』53,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57~93쪽.
UCI : G704-001847.2014..53.005
최선웅(2014),「제1차 당대회시기 조선공산당의 전남 동부지역 조직과 활동」,『아시아문화연구』33,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11~243쪽.
DOI : 10.34252/acsri.2014.33..008
한규무(2019),「순천YMCA의 창립·재건과 발전」,『남도문화연구』37,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5~219쪽.
DOI : 10.31929/namdo.2019.37.195
한상구(1994),「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한국사론』3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3~249쪽.
한상구(2013),「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지역 주민대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투고일자: 2021. 11. 30. **심사일자:** 2021. 12. 5.~2021. 12. 10. **게재확정일자:** 2021. 12. 14.

| 국문초록 |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이 연구는 신간회 순천지회(이하 순천지회) 사례를 통해 신간회 운동의 양태와 성격을 검토했다. 순천지회는 1928년 1월 13일에 설립되어 1929년 1월 이래 침체되었고, 실질적인 활동 기간은 설립에서 2월 11일, 9월 26일에서 이듬해 1월 7일까지로 대략 4개월 정도였다. 또한 회원 수는 70명 내외였다.

순천지회의 간부진은 순천청년동맹과 순천기독청년회을 중심으로 했고, 순천청년동맹의 활동가들 중에는 비밀결사 고려공산청년회의 멤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순천지회는 신간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을 중심으로 한 조선공산당의 대중운동 재편 과정에 일정정도 영향을 받았다.

실제 활동 기간이 짧았고 이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활동은 없었지만 순천지회의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 계획은 신간회 운동의 성격을 보여준다. 우선 비판연설회라는 형식은 대중의 행동이 아닌 대중의 의식에 작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 비판연설회는 신간회 전체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를 소재로 '경찰폭압정치'를 비판하면서 조선 민족의 '생존권과 자유'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한 정치적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온건하고 개량적이었지만 문화통치기 '조선독립불능론'으로 압축되는 식민지 통치 전략과 대립했다는 점에서 식민지 체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는 민족적 공론 형성을 통해 조선 민중이 식민지 체제에 안주하는 것을 방어하고 제국의 신민이나 지역주민이 아닌 피압박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도록 기획된 '약소민족 공론장'의 한 형태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민족협동전선운동, 신간회 순천지회, 순천청년동맹, 순천기독청년회, 신간회 전체대회 금지 비판연설회, '약소민족 공론장'

호남학 70 : 221～258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A Study on the Settlement Process and Economic-Social Activities of Overseas Chinese in Jeollanam-do — Focusing o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Era —

양 세 영**
Yang, Se-young

목 차

Ⅰ. 머리말
Ⅱ. 전남화교의 기원과 정착과정
Ⅲ. 경제활동과 특성
Ⅳ.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화교사회의 대응
Ⅴ. 맺음말

| Abstract |

This paper primarily attempted to establish the basic foundation for the research on the overseas Chinese of Jeollanam-do by reviewing the migration and life of them from a demographic perspective, which had not been studied before. Furthermore, the purpose is to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Jeonnam overseas Chinese compared to other local Chinese and to find the significance in the entire context of overseas Chinese history in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the settlement process and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of Jeonnam overseas Chi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origin of Jeonnam overseas Chinese is two merchants who migrated to Mokpo in 1893, which is significant in that Jeonnam was the fourth region in the country where Chinese immigrated. In 1917, overseas Chinese were distributed and lived throughout entire areas of

* 본고는 세한대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세한대학교 교수, wdcyang@naver.com

22 city and counties in Jeollanam-do, and in 1925, they faced the development period in which the largest number of overseas Chinese liv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is increase in th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and expansion of settlement are the result of active commercial activities centered on the textile industry. Cheap and high-quality textile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were highly competitive in Jeollanam-do, where demand was high due to the large population in agricultural society. In addition to the textile industry, overseas Chinese we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such as miscellaneous goods stores, casting industries, food, vegetable cultivation, architecture and simple labor. However, the Manbosan Incident in 1931 and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hurt these economic activities, and the number of overseas Chinese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in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overseas Chinese in Jeollanam-do shifted to a relatively low proportion nationwide. Socially, communities were formed by reg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called the Chinese Commercial Association, and during the Manbosan Incident, Jeonnam was one of safest areas where Chinese people could live across the country without much damag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good relationship with residents of Jeollanam-do, and the close relationship that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such as an alliance strike against Japanese builders at the Gwangju-Yeosu railway site in 1930. The active economic activities with the Chinese society, which flourished from 1917 to 1930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uggest that relationship and exchanges between Jeonnam and China need to be further activated, and for thi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must precede.

Key words : Jeonnam overseas Chinese, Textile, Economic Activity, Chinese Commercial Association, Manbosan Incident, Sino-Japanese War, Alliance Strike

Ⅰ. 머리말

국내화교에 대한 연구는 집단이주 현상(diaspora)으로 접근한 고승제(1972) 이래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1] 그러나 본격적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 전후로 관심이 고조된 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화교자본과 중국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활발하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2] 이러한 실용적 필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화교 연구가 갖는 의의는 개항기 이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도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화교집단의 생활사를 다문화 사회가 보편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사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는데 있다고 본다.

국내 지역화교에 대한 연구는 2000년 들어 대표적인 중심지인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군산 등 과거 화교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중국-북한 간 경제적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신의주, 원산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3] 이에 비해 광주·전남지역 화교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고 사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양세영(2020)은 광주·전남 화교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로 화교가 많이 거주했던 목포와 광주의 경우 70-80년대 지역경제 침체로 타지역 이주나 재이민의 영향으로 화교숫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증언자와 관련 자료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며, 인천과 군산과는 달리 한·중 수교 이후에도 對中 관계가 활성화되지 못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약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4]

광주·전남지역 화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노혜진(2012)은 광

1) 고승제(1972),「華僑 對韓 移民의 社會史的 分析」,『白山學報』第13號, 백산학회; 화교 출신인 譚永盛(1977)의 석사학위 논문인「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 송승석(2010),「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중국현대문학』제55호,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 165쪽.

3) 지역화교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인천화교는 김영신(2003, 2005); 이옥련(2005); 이창호(2008); 이정희·송승석(2015); 이정희(2008, 2017) 등이며, 대구화교는 이정희(2005), 부산화교는 김승(2014); 조세현(2013), 군산화교는 김태웅(2010); 김중규(2010), 전주화교는 이화승(2006), 원산과 신의주 화교는 이은상(2017a,·2017b); 김태웅(2012) 등이 있다. 양세영(2018),「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지방사와 지방문화』21권 2호, 역사문화학회, 74쪽.

4) 양세영(2020),「군산과 목포화교의 비교연구 : 초기 이주과정과 일제 강점기 상업활동을 중심으로」,『호남학』제6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300쪽.

주화교를 대상으로 인류학적 측면에서 한국 화교의 정체성(ethnic identity)을 고찰하였다. 김경학(2012) 역시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한국화교의 초국가적 특성(transnationalism)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광주화교를 통해 국내화교의 특수성을 검토했다는 점과 아울러 광주·전남지역 화교에 대한 선구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5] 그러나 광주·전남 화교의 기원, 이주와 정착, 그리고 경제·사회활동과 생활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부문별 심화연구로 나아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최근 양세영(2018, 2019, 2020)은 개항기 부터 전남에서 화교의 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목포화교를 대상으로 이주 과정과 경제·사회활동의 양상을 규명하였으며, 전북의 대표적 화교도시였던 군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목포화교의 특성을 밝혀 광주·전남 화교에 대한 연구의 폭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광주, 목포지역을 제외한 전남의 다른 지역 화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C 말부터 전남으로 이주한 화교 1-2세대들이 대부분 사거하여 증언이 가능한 화교 숫자가 급감한데다, 잔존한 2-3 세대 마저 이주하거나 귀화한 경우가 많고, 관련 자료들도 상당 부분 유실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수, 순천, 영광, 나주(영산포), 보성(벌교), 제주 등 일제 강점기에 비교적 화교활동이 융성했던 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우선 광주·전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7] 광주·전남화

5) 관련 논문은 김경학(2012), 「한국 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노혜진(2012), 「한국 화교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65권, 동북아학회 이다.

6) 양세영(2018),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 2호, 역사문화학회; 양세영(2019), 「일제강점기 정치·사회적 변동과 목포화교 사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양세영(2020), 「군산과 목포화교의 비교연구 : 초기 이주과정과 일제 강점기 상업활동을 중심으로」, 『호남학』 제6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7) 도 지역을 개관적으로 연구한 선행사례로는 이정희(2017), 「강원도 화교사회의 형성과

교의 이주와 활동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역별 화교를 접근할 때 지역적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간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뿐만 아니라 1925년 기준으로 전남은 중국과 접경지역인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지역에서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와 인접한 충남에 이어 3번째로 화교인구가 많았던 곳으로서 이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조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광주·전남화교의 이주와 정착을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경제·사회적 활동과 같은 생활상을 살펴봄으로써 광주·전남화교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남화교가 타 지역 화교와 비교하여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국내 화교사 맥락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연구 대상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하였다. 이는 전남화교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고,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다수의 화교가 귀국함에 따라 해방 이후 화교사회와는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은 1930년 기준 1府(목포) 22郡(광주, 나주, 제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17년에 이르러 23개 전 지역에 화교가 분포하게 된다.

본 고는 목포지(木浦誌)(1914), 목포부사(1930), 광주시사(1966), 나주군지(1980) 등 각 지역의 시사와 군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조선국세조사보고 등을 기본 사료(史料)로 문헌조사를 하였으며, 지역 화교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해 1970년대 이후 발표된 학술자료와 학위논문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화교의 실태에 대한 국내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朝鮮に於けろ支那人(1924)"과 경성상업회의소의 "조선경제잡지(1929)" 등 일제 식민기구가 작성한 자료를 참조하였다. 문헌조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화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신문 기사의 검토와 함께 현지화교를 대상으로 한 실지조사(field survey)를 시행하였다.

변화 : 190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30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있다.

현장 면담은 목포, 광주, 영산포, 담양, 제주 등에 거주했던 화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수, 순천, 벌교 등 전남 동부지역은 해당 화교협회의 활동이 거의 없는 데다 현지 거주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해당지역 화교들과 교류가 있었던 다른 화교나 국내인과의 면담으로 보완하였다.[8] 현지조사 기간 동안에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상황이 지속되어 대면조사가 힘든 경우에는 전화통화와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면담이 이루어졌다.

Ⅱ. 전남화교의 기원과 정착과정

1. 전남화교의 기원과 이주경로

기록상 전남지역에 화교가 처음 도래한 것은 2가지 사례로 나타난다. 첫째, 石川亮太(2016)는 한성과 인천에서 활동했던 유력상점인 동순태(同順泰)가 1893년 소속 중국인 점원을 전주와 율포(전남 보성)에 파견하여 물품의 구입과 판매를 개시하였다는 기록을 서울대학교 소장의 동순태 문서를 통해 발견하여 보고하였다.[9] 이들은 현지에서 미곡을 구매하고 면포와 비단을 판매하였는데, 현지에 정착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조선인 상인의 주택에 머물면서 기거하는 형태였으며, 상품의 운송은 인천에서 재래선박을 이용하여 율포로 이동하는 하는 것이었다.[10] 다른 하나는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1924)에 근거하며, 1893년 강만선(姜萬宣)과 학경해(郝鏡海)가 지부(芝罘, 현재의

8) 전남 전 지역에 걸쳐 폭 넓게 면담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과제다.

9) 동순태(同順泰)는 廣東省 출신의 譚傑生이 1885년 인천에 상점을 개설한 이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청과 조선간의 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내의 대표적인 화교자본이었다. 동순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진아(2011), 『동순태호』, 경북대학출판부에 잘 소개되어 있다.

10) 石川亮太(2016),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華商·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25~227쪽, 점원들은 何梃生 등 3인이었다.

산동성 연태)를 출발하여 당시 개항 예정지로 소문이 있던 목포에 포목상점인 영성인호(永盛仁號)를 개설하였다는 것이다.[11]

같은 해인 1893년 도래하였지만 거주성이 지역화교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성 율포에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동순태 점원들 보다는 목포에 상점을 개설한 2 명의 상인을 전남화교의 효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 특히, 학경해는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영성인호를 운영하며 목포에 거주하였고, 현지화교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납부한 상인으로 알려져 있다.[13]

공식 기록상 1893년 목포에 이주한 상인들이 전남화교의 효시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1893년은 목포가 개항 전으로 수 십 호가 사는 어촌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화교가 진출하여 포목상점까지 개설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1897년 개항이후 어느 시기의 오기(誤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자료는 그들이 이주 다음 해인 1894년 청일전쟁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복귀했다는 내용을 후속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오기의 가능성이 떨어진다. 사실 목포는 이미 개항 이전인 1880년대부터 국내외 정치인과 상인들에게는 개항 후보지로 알려져 있었고 군사적·상업적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컸기 때문에 일본, 러시아 등도 선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개항 이전에도 목포는 군사 기지이자 조운(漕運)의 길목으로서 물동량이 많았고 장시(場市)가 활발히 열리는 곳이었다. 화교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한 인천과 원산이나, 일본상인들의 영향이 강한 부산을 피해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한 상황에서 목포에 선제적으로 진출했다는 것을 무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고 목포에서의 상업활동만이 아니라 영산강과 바다를 통해 호남 상권

11) 조선총독부(1924),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 123쪽.
12) 마찬가지로 1893년 이전에도 행상(行商) 등과 같이 전남지역에 일시적으로 방문했거나 머문 청국인도 있을 수 있으나 거주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전남화교의 기원으로 볼 수는 없다.
13) 조선총독부(1924), 앞의 책, 125쪽.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14]

1893년 전남에 이주한 상인들은 전남화교는 물론 호남화교의 효시로서 서울(1882년), 인천(1883년), 부산과 원산(1884년)에 이어 전국 4번째로 거주를 시작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초기 전남 진출 화교들이 갖는 개척자적 상인정신을 엿볼 수 있다.

〈표 1〉 주요 도시의 개항 시기와 화교 진출

도시	개항 연도	진출 연도
부산	1876	1884
원산	1880	1884
인천	1883	1883
목포	1897	1893
진남포	1897	1897
군산	1899	1899
마산	1899	1899 또는 1900
청진	1908	1908
신의주	1910	1906
한성	na	1882
평양	na	na
대구	na	1905

자료: 小田內通敏(1925),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の 經濟的勢力」,『東洋講座』, 6-7쪽; 이정희(2005),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대구사학』 80집, 대구사학회, 75쪽 재인용; 마산의 화교진출 연도는 문은정(2002), 「20세기 전반기 마산지역 화교의 이주와 정착」, 『대구사학』 68집, 대구사학회, 156쪽 참조.

14) 양세영(2018),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 2호, 역사문화학회, 80~81쪽.

전남 화교들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이동에 있어서 해로이용이 일반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중국에서 인천까지 국제항로를 활용하였고,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안항로를 통해 상륙하여 전남 각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산강을 통한 내륙하운(內陸河運)을 통해 목포에서 영산포, 남평, 광주 등지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호남선이 부설된 1914년 이후에는 기존의 해운항로외에 육지를 통한 유입도 늘어났다. 면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정기선으로 인천에 입국한 후 서울에서 목포까지 기차를 이용하거나, 산동성에서 만주를 거쳐 신의주에서 목포까지 기차로 이주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15] 호남선의 부설 이후에는 초기부터 화교유입의 관문역할을 하였던 목포를 통한 이주보다 육로를 통해 각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건설 노동자의 대량 이주에는 서부지역은 영광 법성포, 동부지역은 여수항이 부정기선을 통해 유입거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16]

2.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해서 본 정착과정

전남화교 사회는 인구규모의 변화에 따라 시작기(1893-1916), 발전기(1917-1930), 침체기(1931-1945)로 나누어 볼 수 있다.[17] 발전기를 1917년부터 시작한다고 본 것은, 전남의 모든 군(郡) 지역에 화교가 1명 이상 확산되어 분포되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18] 또한 침체기를 1931년부터로 보는

15) 전자의 경우는 제주화교 허00의 부친, 후자는 목포화교 위00의 모친이 해당한다.

16) 여수항은 「조수(潮水)같은 중국 노동자 여수에 千여명 입항」, 『동아일보』, 1929. 5. 19. 영광 법성포항은 후술하는 1925년 영광 화교인구의 폭증(895명)상황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17) 양필승·이정희(2004)는 국내 화교의 경제사를 상업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1882년부터 러·일전쟁 직전까지를 정착기, 1905년 을사늑약 체결부터 만보산 사건 발생 직전인 1930년까지를 발전기, 1931년 만주사변 이후부터 1945년까지를 침체기로 보았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지역마다 화교유입시기와 발전 정도가 다르므로 각 지역에 맞게 재정립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1931년 이후를 침체기로 보는 데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양필승·이정희(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6쪽.

18)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16년은 장성군이 1명의 화교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

것은 만보산 사건을 기점으로 화교인구가 감소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시작기에는 주로 개항도시인 목포를 중심으로 화교 유입이 이루어졌다. 목포는 개항한 1897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역업과 포목업에 종사하는 화교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1919년에는 100명 선을 넘는 등 전남의 대표적 화교도시로 성장하였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공식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09년의 경우, 총독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남지역 화교는 목포 69명 등 7개 부·군에 진출하였으며 총 102명이 거주하였다. 이후 일제에 의한 식민지 개발수요와 특히 1914년 호남선의 완공으로 화교의 유입이 늘어났고 지역내 확산이 이루어져 발전기가 시작된 1917년에는 전남 23개 부-군 전역으로 화교가 분포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1925년에는 총 2,228명으로 일제 강점기 중 최고 수준을 보여 전국 화교중 비중이 4.82%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추세는 1930년까지 이어져 2,000명 수준을 넘는 화교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였다.

침체기는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변동에 의해 초래됐다. 물론 1931년 발발한 만주사변으로 북한지역이 군수기지화 되면서 중공업 중심으로 중점 개발되면서 이에 따른 전남지역의 상대적인 경제 침체도 어느 정도 화교인구의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1년 만보산 사건으로 전국적인 화교배척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귀환하는 숫자가 늘어났다. 전남지역 화교역시 상당수가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1931년의 경우 전남화교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성기인 1925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중일전쟁은 더 큰 타격을 가해 화교의 비중이 전국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로 나타났다.

〈표 2〉 도별 화교인구 추이

지역	1910	1925	1931	1943
전남	131(1.11)	2,228(4.82)	1,071(2.91)	675(0.89)
경기	4,872(41.23)	8,853(19.16)	6,026(16.38)	7,829(10.33)
충북	82(0.69)	901(1.95)	457(1.24)	456(0.60)
충남	765(6.47)	2,602(5.63)	1,533(4.17)	1,032(1.36)
강원	44(0.37)	997(2.16)	561(1.53)	1,120(1.48)
경북	137(1.16)	1,611(3.49)	1,369(3.72)	465(0.61)
경남	479(4.05)	1,569(3.40)	835(2.27)	427(0.56)
전북	269(2.28)	1,976(4.28)	2,074(5.64)	1,216(1.60)
남한	7,099(57.36)	20,737(44.89)	19,815(37.87)	13,964(17.45)
황해	285(2.41)	2,489(5.39)	2,526(6.87)	3,916(5.17)
평남	740(6.26)	3,939(8.53)	1,700(4.62)	8,719(11.51)
평북	2,720(23.02)	11,252(24.36)	9,937(27.02)	30,676(40.48)
함남	689(5.83)	3,481(7.54)	3,382(9.20)	7,708(10.17)
함북	605(5.12)	4,298(9.30)	5,307(14.43)	11,537(15.23)
북한	8,914(42.64)	25,459(55.11)	36,778(62.13)	6,8697(82.55)
전국 계	11,818(100.0)	46,196(100.0)	36,778(100.0)	75,776(100.0)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도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은 전남화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화교가 겪은 재난이고 대부분 큰 폭의 인구감소를 경험했지만 전남 화교인구가 1925년 정점을 기록한 뒤 계속적으로 비중이 저하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남화교가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한 민감성이 큰데다 1930년대 들어 북한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활력이 떨어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요인 외에 구조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그것은 지리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화교들은 중국과 인접해 있거나, 대부분의 국내화교 출신지인 산동반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전남은 서울, 인천 및 전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위

치에 있어 덜 선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도래 화교들이 개척정신을 가진 상인집단인데 비해 1920년대 이후에는 군벌과 마적, 잦은 기근으로 인한 중국내 혼란을 피해 이주해 오는 난민 성격의 화교나 단순노동자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기존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대규모 토목공사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였다. 농업이 주업인데다 대규모 개발공사의 수요가 적은 전남지역은 우선적인 이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롭게 유입해 오는 인구는 제한되었고 기존 전남 거주 화교들도 중국귀환이나 타지역으로 이주함으로서 침체기에 전국에서 차지하는 전남 화교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 시군별 화교의 분포

시작기인 1893년부터 1916년까지 전남 화교는 개항도시인 목포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으며, 1925년 이후 광주, 여수, 순천, 영광, 장성, 제주 등 주요 군에서도 화교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내륙의 행정중심지인 광주는 1925년에 목포의 화교인구를 넘어서 전남에서 가장 화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만보산 사건의 충격으로 다시 목포에 화교 중심지의 지위를 넘겨주었다. 1930년을 기준으로 전남을 3대 권역별로 나누어 화교인구를 살펴보면 서남권은 목포, 무안, 해남, 완도, 진도, 영암, 강진, 제주 등 656명이며, 중부권은 광주, 송정리, 담양, 장성, 화순, 나주 등 683명, 동남권은 순천, 여수, 고흥, 보성, 광양, 구례 등 611명이어서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시군별 화교인구 추이에서 1925년 영광이 895명으로 급증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중국 단순 노동자가 대거 법성포로 입항하여 타지로 이동하기 위한 일시 거주 형태로 추정되나 문헌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1930년 여수의 화교 인구가 296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광수-여수간 철도 부설 노동자가 유입함에 따른 현상이다. 1931년 대부분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으나 무안과 보성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화교배척운동으로 목포와 여수, 순천과 같은 도시 지역에서 피신한 화교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전남 시군별 화교인구 추이

연도	목포	광주	순천	여수	영암	나주	영광	장성	담양	화순	함평	무안
1909	69	5	0	4	2	13	4	0	0	0	0	0
1910	73	4	0	4	2	26	6	0	0	0	0	0
1915	84	35	10	10	8	35	30	0	14	0	7	0
1920	146	77	41	31	12	64	37	35	24	12	16	25
1925	218	241	65	51	15	69	895	65	35	14	17	51
1930	305	388	95	296	4	96	73	111	52	36	29	55
1931	198	118	40	49	6	34	48	62	23	4	5	66
1936	239	223	87	40	5	47	60	65	42	9	13	32
1937	74	50	37	11	2	21	38	31	21	9	0	7
1942	117	88	86	23	4	25	66	43	29	0	0	12

연도	보성	장흥	고흥	해남	강진	완도	진도	곡성	구례	광양	제주	계
1909	0	0	0	0	0	0	0	0	0	0	5	102
1910	3	3	0	4	0	1	0	0	0	0	5	131
1915	18	14	0	9	5	1	6	7	5	7	9	346
1920	46	9	12	16	11	3	5	11	18	29	28	708
1925	70	106	26	120	19	17	13	31	14	17	59	2,228
1930	101	25	69	95	33	43	31	38	19	31	90	2,115
1931	153	14	87	20	17	24	16	11	6	0	70	1,071
1936	60	10	5	29	33	24	18	25	18	13	93	1244
1937	9	9	3	6	33	0	0	3	1	1	46	425
1942	22	18	8	13	29	1	0	5	1	12	48	688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5년 이후 광산군이 추가됨(1936년 53명, 1937년 13명, 1942년 38명)

Ⅲ. 경제활동과 특성

1. 직업분포의 특성

전남화교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공업, 농업 비중은 전국수준에 비해 낮은 반면 상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20년대와 30년대 통계가 확보되지 않아[19] 추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무역업, 포목업과 잡

화점, 음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1917년의 경우 상업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른 직업이 두드러지지 않아 포목업과 무역업 상점에 부속되어 일하는 가사 사용인들이 대부분인 자유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농업과 광공업의 비중이 확대되는데, 〈표 4〉에 따르면 1942년의 경우 채소농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농업수산업과 주물공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광공업의 비중이 늘어났다. 전국 화교의 평균수준과 비교해 볼 때 일제강점기 전남 화교의 직업은 후기로 갈수록 다소 비중의 감소는 있으나 상업이 주류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대표적인 화교 도시인 목포의 경우 개항 이후 1920년대 초반까지 포목업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전남화교의 경제활동에서 포목업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 일제 강점기 전남 화교의 직업비중(%)

지역	1917					1942				
	농림수산업	광공업	상업·교통	공무·자유업	기타	농림수산업	광공업	상업·교통	공무·자유업	기타
전남	3.3	3.1	78.4	14.9	0	16.1	12.4	65.3	2.5	3.4
전국	14.3	15.9	51.2	6.2	12.2	25.8	21.9	33.6	2.1	16.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일제강점기의 전남화교의 직업구성을 조선총독부 조선국세조사 보고자료(1933년)[20]를 통해 〈표 5〉와 같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은 채소경작, 광

19) 조선총독부 통계연보는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편제를 달리하여 직업분포에 있어서 화교를 외국인의 범주에 넣어 통계를 생산함에 따라, 비록 외국인 중 화교의 비중이 높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화교의 통계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20) 조선국세조사 보고자료는 1930년 10월을 기준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말기준인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비해 인구수에서 차이가 난다. 일부 화교는 연말에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10월을 기준으로 한 화교인구 수가 더 많다.

업은 토석채취가 주종이었다. 또한, 공업은 토공,석공, 목공, 연와공 등 토목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이 주물업이었다. 상업·교통은 직물, 잡화류 등 판매가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업주와 점원, 보조원 등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음식업으로서 업주와 지배인, 요리사 등이 포함되었으며, 운수의 경우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의 하급 선원이 대부분이었다.

〈표 5〉 전남화교의 직업별 세부내용(1930년) (인, 구성비 %)

구분	농업	광업	공업					상업·교통					기타
직업 세부	채소 경작	토석 채취	주물	음식 료품	토목	기타	소계	직물·잡화류 등 판매	음식업	운수	기타	소계	일용직, 가사사용인, 무직 등
전체 2,774 (100.0)	225 (8.1)	31 (1.1)	70 (2.5)	59 (2.1)	628 (22.6)	87 (3.1)	844 (30.4)	1,019 (36.7)	266 (9.5)	52 (1.8)	10 (0.4)	1,347 (48.5)	327 (11.7)

자료: 조선총독부(1933),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도편, 전라남도』

2. 주요 업종별 활동

1) 포목업과 잡화

포목업은 전남화교의 경제활동의 핵심산업이었다. 사실 전남지역은 면화, 누에고치를 비롯하여 대마 등 포목원료의 국내 최대 생산지였음에도, 인구밀집 지역인데다 경조사 등 포목 수요가 워낙 커서 공급량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화교 포목상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일찍부터 포목업의 진출이 이루어진 것이다. 〈표 6〉을 보면 전남은 화교 포목상점 갯수의 경우 전국 평균인 18.9%을 상회하는 30.3%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포목업의 경영여건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인천, 서울에 비해 대규모 자본을 가진 도매상인보다는 중견·중소 소매상인이 많았던 것에도 기인한다. 이는 여건이 비슷한 전북, 충남도 같은 상황이었다.

〈표 6〉 전국 직물상점의 국적별 비중(1930년) (개, %)

지역	조선	일본	화교	기타	합계	화교비중
전남	419	48	203	0	670	30.30
경기	832	197	81	10	1,120	7.23
충북	250	5	135	0	390	34.62
충남	400	32	268	0	700	38.29
강원	813	14	147	0	974	15.09
경북	550	47	217	1	815	26.63
경남	580	153	175	3	911	19.21
전북	307	47	250	0	604	41.39
남한	4,151	543	1,476	14	6,184	23.87
황해	665	19	118	1	803	14.69
평남	597	42	30	1	670	4.48
평북	979	34	104	0	1,117	9.31
함남	1,227	37	220	0	1,484	14.82
함북	683	39	168	2	892	18.83
북한	4,151	171	640	4	4,966	12.89
전국 계	8,302	714	2,116	18	11,150	18.98

자료: 조선총독부(1933), 앞의 자료;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61쪽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호황을 누리던 주단 판매는 일제의 화교상업 세력에 대한 견제로 1924년 중국산 견직물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시작됨에 따라[21] 1925년 이후 활동을 주도하던 도매상들은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1928년 경에는 화교 포목업의 중심지였던 목포의 경우 매출 10 만엔 이상의 도매상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잡화상을 겸한 포목 소매상은 8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22] 침체기인 1931년 이후에도 마포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중국 은화의 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에 따라 일본산 견직물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1931년 만

21) 이정희(2018), 『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100쪽.
22) 양세영(2019), 「일제강점기 정치·사회적 변동과 목포화교 사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290~291쪽.

보산 사건과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은 전남 화교 포목상들의 생존 기반을 흔들었고 상업활동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주요 상인들이 본국으로 철수하였다. 남은 화교상인들도 일본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처지가 되거나 음식업으로 전업, 또는 잡화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영업방식을 바꾸게 된다.[23]

전남지역의 포목상들의 활동양상을 일본 오사카의 신용평가기관인 상업흥신소(商業興信所)가 발행한 상공자산신용록(商工資産信用錄)을 통해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당시 일본과 국내에 소재한 회사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상업흥신소에 의해 신용조사를 받을 정도의 상점은 상당한 기반을 갖추고 판매활동을 한 유력 상점이어야 했다. 1918년 발행자료에 의하면 목포의 대형 포목상 2개가 나타나며, 1921년부터 목포 외에 광주, 영산포, 여수, 벌교의 포목상(잡화점 경업)도 출현한다. 특히, 전남 화교의 극성기라 할 수 있는 1925년에는 모두 23개 상점이 신용조사를 받아 전남지역 포목상과 잡화상의 활발한 활동을 엿볼 수있다. 이들 중 목포의 신성호, 영성인호 등 대형상점 외의 대부분이 영위업종 난에 포목업과 잡화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만보산 사건 이후인 1932년에는 큰 폭으로 줄어 목포지역 4개 상점만 남아, 전남지역 포목 및 잡화상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936년 자료에는 목포의 신성호만 남았고, 1937년 이후에는 전남지역 상점은 나타나지 않아 화교 포목업과 잡화점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표 7〉 상공자산신용록에 나타난 전남 화교 포목상점의 현황

구분	1918	1921	1922	1925	1932
목포	同盛長 (張鳳軒) 永盛仁號 (郝鏡海)	同盛長 (張鳳軒) 永盛仁號 (郝鏡海)	同盛長 (張鳳軒) 永盛仁號 (郝鏡海)	同盛長 (張鳳軒) 同盛東 (雒文用)	同興利 (張言誠) 裕盛興 (孫盛良)

23) 양세영(2019), 같은 논문, 291쪽.

구분	1918	1921	1922	1925	1932
목포		德盛東 (鹿贊亭) 永義和 (趙翰臣) 永昌源 (鄭化南) 協昌號 (潘榮輝) 新盛號 (王致新)	新盛號 (王致新)	永義和 (趙翰臣) 永昌源 (鄭化南) 永順福 (于豊蘭) 永盛仁號 (郝鏡海) 益成東 (王述彭) 協昌號 (潘榮輝) 新盛號 (王致新) 仁成號 (張嵐歲)	新盛號 (王致新) 成興東 (李成典)
광주		天泰興 (王鴻庭)		德聚福 (任善福) 福順興 (房喜泰) 協源盛 (孫春圃)	
나주 (영산포)		榮昌號 (-)		同聚興 (于鼎臣) 隆興德 (呂翰章)	
여수			協義號 (楊金黨)	謙和號 (楊偉林) 義德號 (黃廷文) 義記號 (高義基) 義聚盛	

구분	1918	1921	1922	1925	1932
여수				(王冰瑞) 協義號 (楊金黨)	
벌교				同合興 (沙昭鈴) 福盛長 (遲中山) 聚盛號 (孫永偏)	

자료: 오사카 상업신용소, 상공자산신용록 각년도. ( )은 상점 대표의 이름

2) 음식업

조선총독부 조사자료(1924)에 따르면 중국음식을 파는 상점은 규모와 취급 품목에 따라 중국요리점, 중국음식점, 호떡집의 세 종류로 구분될 수 있었다.[24] 호떡집은 가장 규모가 작고 호떡, 계란빵, 참깨빵 등을 팔았으며, 중국음식점은 호떡집에 비해 더 크고 포자(包子), 만두 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중국요리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주로 고급요리와 주류를 판매하였다.[25]

전남에 중국요리점이 언제부터 영업을 하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이미 1923년에 목포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었다. 제일 먼저 문을 연 仁義館은 인천과 서울의 중국요리점의 개업과 운영사례를 감안해 볼 때 이르면 목포 화교 인구가 급증하여 100명 대를 넘어선 1910년대에 개업한 것으로 추정된다.[26]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1923년 목포에는 중국요리점 5호, 중국음식점 7호, 호떡집 3호가 있었으며,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중국요리점이

24) 조선총독부(1924), 앞의 책, 62~63쪽.
25) 이정희(2017),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14집, 한국사회사학회, 65쪽.
26) 양세영(2018), 앞의 논문, 109쪽. 면담자(목포화교 장00)의 증언도 마찬가지다.

7,500- 6,200엔, 중국음식점이 3,000엔 내외, 호떡집이 900-2,000엔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27]

조선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전남화교의 발전기인 1930년 현재 전남지역에는 음식점(요리점 포함) 74개, 호떡집 76개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음식점 숫자가 호떡집보다 많은 데 비해 전남은 호떡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음식업이 비교적 소규모 경영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전국 지역별 화교인구·음식점·호떡집 수(1930년)

구분	전남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강원	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	합계
인구	2,115 (3.1)	11,571 (17.6)	1,215 (1.8)	2,700 (4.0)	2,990 (4.4)	2,384 (3.6)	1,614 (2.4)	1,644 (2.4)	16,711(24.6)	5,635 (8.3)	6,390 (9.4)	8,216 (12.1)	4,510	67,794 (100.0)
음식점	74 (4.5)	299 (18.3)	54 (3.3)	93 (5.7)	67 (4.1)	66 (4.0)	81 (5.0)	68 (4.2)	134 (8.2)	79 (4.8)	322 (19.7)	198 (12.1)	100 (6.7)	1,635 (100.0)
호떡집	76 (6.7)	235 (20.6)	32 (2.8)	66 (5.8)	91 (8.0)	79 (7.0)	62 (5.4)	27 (2.4)	52 (4.6)	138 (12.1)	68 (6.0)	113 (9.9)	100 (8.8)	1,139 (!00.0)

자료: 조선총독부(1933), 앞의 자료, ( )은 구성비

1937년 중일전쟁과 전시체제의 통제는 중국음식업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중일전쟁으로 인해 귀국한 화교 가운데는 중화요리점의 경영자나 종업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음식업도 큰 타격을 받았고, 전시체제하의 식량배급제는 음식업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문헌 기록과 신문, 면담 등을 통해서 복원한 전남지역의 주요 중국 음식점 명단은 〈표 9〉와 같다.

〈표 9〉 일제강점기 전남지역의 주요 화교 음식점

지역	음식점	근거
목포	仁義館, 東和樓, 永興園, 德盛棧, 四海樓, 文萃園, 同盛館, 東興樓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1924년)

27) 조선총독부(1924), 앞의 자료, 129쪽.

지역	음식점	근거
광주	華興樓, 德義樓, 松竹樓, 雅觀園, 雅敍園, 迎賓樓,宴賓樓[28]	면담 결과, 서울지법 검사국 자료(1931년), 조선일보(1930)
나주	東和閣	동아일보(1940년)
순천	德成允	서울지법 검사국 자료(1931년)
보성	雅觀樓	매일신보(1940년)
영광	錦華園	조선일보(1928년)

3) 농업

목포와 광주 등 도시 부근에는 채소재배 등에 종사하는 화농이 활약하였다. 이들은 한국인과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배추 등 야채를 재배하여 행상으로 시내에 나가 판매하였다. 화농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인분(人糞), 돈분 등 다양한 비료 사용과 새로운 농기구 활용을 통한 집약적 농법으로 계절에 맞는 야채를 윤작(輪作)하여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조선인 농가보다 경쟁력이 높았다.[29] 목포지역 화농의 채소재배 및 거주 지역은 무안군 산정리(현 목포시 산정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광주 화농은 1931년 배화운동의 피해지역 기록을 통해서 보면 서방면 풍향리(현 광주광역시 풍향동)을 중심으로 임정(현 임동), 극락면, 효천면 주월리 등 넓게 분포하였다.

4) 주물업, 토목건축 등

전남화교의 공업활동은 비록 상업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토목건축과 주물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주물공업은 일본 공장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1924년 목포에는 화교공장인 雙興昶이 개업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공장과 경쟁관계에 들어갔다. 일본인이나 한국인 공장의 경우 직공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직공에 비해 기술, 성과,

28)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지도부가 회합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광주독서회사건예심결정서」, 『조선일보』, 1930.7.20.

29) 양세영(2018), 앞의 논문, 111쪽.

임금에 있어서 화교들의 경쟁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쌍흥창의 주요제품은 가마솥으로 부산과 평양지역에서 들어오던 것을 대체하였다. 숫자 면에서 공업활동의 주종은 토목건축 분야였다. 목공, 석공, 토공, 연와 조적공 등이 활동하였는데 특히, 전남 지역의 주요 건물 건립시 화교들은 벽돌 조적(組積)공과 석공(石工)으로 건축시공에 참여하였다. 1900년 일본영사관(현 목포근대역사관), 1929년 호남은행(현 목포문화원), 1910년대 인의관 등이 화교들의 적벽돌 시공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광주 최초의 카톨릭 건물인 북동성당은 설계와 시공을 화교 건축업자인 賈요셉이 맡았으며 화교 조적공들이 참여하여 1938년에 건립되었다.

단순 노동자(苦力, 쿨리)는 광주-여수철도 부설과 목포 등지의 하수도 매축공사, 득량만 간척사업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종사하였으며 이동성이 강하였다. 이들은 저임금과 성실성으로 일본인 청부업자들이 선호하였다. 이외에도 전남화교들은 과자, 면류, 식초 등 식품 제조공과, 편직공과 제화공 등으로 활동하였다.[31]

Ⅳ.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화교사회의 대응

1. 화교단체의 조직과 변화

전남화교의 공식적인 첫 단체는 1913년에 발족된 仁川中華商務總會 木浦分會라 할 수 있다. 목포는 군산과 함께 중국 인천 영사관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개항이후 부터 인천과는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분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32] 목포분회는 1913년 초대 회장으로 산동성 黃縣출신의 포목상인 張鳳儀(永義合)가 취임하였고 임원인 의동(議董)

30) 목포화교 장○○의 증언.
31) 조선총독부(1933), 앞의 자료.
32) 양세영(2018), 앞의 논문, 117쪽.

은 산동성 寧海縣 출신의 포목상 王廣運(恆盛和)과 廣東省 新會縣 출신의 잡화상 劉秉衡(義生盛)이었다. 목포분회는 1927년 4월에는 목포중화상회로 개칭하여 인천의 분회 형태를 탈피하였다. 1926년부터 전남지역은 광주를 시작으로 장성, 영광, 제주 등에 중화상회가 설립되었다. 중화상회의 역할은 화교의 복리증진, 거주실태 조사와 보고, 상업분쟁의 조정, 상업활동의 편의 도모, 영사관의 행정사항의 전달 창구 등 상회라는 이름과는 달리 교민의 자치적 기능을 담당하였다.[33]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화교들은 적성국의 국민으로 처지가 바뀜에 따라 혼란스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제는 중국내에 수립된 친일정권(왕정위 남경 정부)에 대한 지지 뿐아니라 황궁요배와 신사참배 등도 강요했다. 잔존 화교들은 생존차원에서 친일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교단체 역시 일제의 방침에 따라 단체명을 일제가 요구하는대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木浦維新商會, 光州新民會 등이다. 〈표 10〉은 전남지역 화교단체의 현황이다.

〈표 10〉 일제강점기 전남 주요 화교단체 및 임원

단체	직위	이름	상점	재임 확인 시기
仁川中華商務總會 木浦分會 (1913-1927)	회장	張鳳儀	永義合	1913년
	회장	張鳳軒	同盛長	1924년
	부회장	趙翰臣	永義和	〃
木浦中華商會 (1927-1938)	회장	王國詳	新盛號	1931년
木浦維新商會 (1938-1945)	회장	孫盛良	裕盛興	1938년, 1940년
	부회장	郝宏騰	仁義館	1938년
光州中華商會 (1926-1938)	회장	孫馥堂 趙辛德	-	1931년 1938년
光州新民會 (1938-1945)	회장	王ㅇ仁	-	1938년

33) 華僑志編纂委員會(1958), 『韓國華僑志』, 臺北: 華僑志編纂委員會, 118쪽.

단체	직위	이름	상점	재임 확인 시기
長城 中華商會(1928-1938)	-	湯雲澤	-	1931년
濟州新民會 (1938-1945)	-	-	-	-

자료: 仁川中華商務總會 목포분회는 이정희·송승석(2015),『근대인천 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나머지는『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1938),「治安狀況」(제44報～제47報, 鮮內 中國人의 新政權 參加狀況),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2. 정주성(定住性)과 교육

전남화교 사회는 초기에 남녀 성비에 있어 남성비중이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30년대 초반까지 여성 1명당 남성의 비율은 전국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목포는 전국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화교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초기에는 대부분 단신출가(單身出家)의 행태를 보이나 1920년대 이후에는 차츰 가족과 함께 사는 정주형(定住型)의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34] 전남화교 역시 시간이 갈수록 남녀성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37년 이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 외형적으로는 정주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목포는 여전히 높은 단신비율을 견지하였다.

초기 전남화교의 정주성이 낮은 이유는 핵심사업이었던 포목업의 상점규모가 비교적 작아 가족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은데다 중국 귀국이 쉬운 인천과 거리가 멀고, 교육여건 취약으로 정주의사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35]

1930년대 후반 이후 남녀비율이 낮아진 것은 이러한 여건이 개선되어 정주성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단신의 비중이 높았던 포목업이 위축되었고 상인

34) 王恩美(송승석 옮김)(2013),『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재, 88～89쪽.
35) 양세영(2019), 앞의 논문, 287～288쪽.

들과 점원들의 다수가 귀환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포목상이 남아 활동하고 있었던 목포의 남녀비율이 여전히 전국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전남에는 화교 소학교[36] 등 교육시설이 없었다. 정주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 극히 적어 교육기관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 여성의 유입이 늘어나고 소수지만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41년 군산에 화교소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서울이나 인천의 소학교로 유학을 보냈다. 군산화교소학교는 1948년 광주화교 소학교와 1952년 목포 화교소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전남 화교 자녀들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초등교육을 받은 곳으로서 전남-전북 화교간 지역교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표 11〉 남녀 성비 추이

연도	전남			목포			전국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남여비율
1920	685	23	29.7:1	142	4	35.5:1	8.2:1
1930	1897	218	8.7:1	284	21	13.5:1	4.7:1
1937	297	128	2.32	67	7	9.6:1	3.1:1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도

3. 노동자간 갈등과 동맹

1920년대 들어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의 항구도시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계

36) 화교 소학교는 초등과정을 가르쳤으며, 졸업후 화교중학교로 진학하였다. 국내 최초의 화교 소학교는 1902년에 설립된 인천화교 소학교이며, 김중규(2010)에 의하면 군산화교 소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당시 중화민국 소학교의 교육방법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심상과(초등학교 과정)는 6년 과정으로 매일 6시간씩 수업을 하였고, 교과구성은 북경어를 표준으로 하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산술, 자연, 주산, 음악, 체육, 미술 등이었다. 김중규(2010), 「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역사문화학회, 374쪽.

절노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전남의 노동시장에 유입됨에 따라 노동자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고용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노동자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중국노동자에 대한 반감을 일으켜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1925년 8월 목포시내에서의 중국인 노동자와 지역주민간 격투[37], 1929년 5월 1,200명의 중국노동자 여수 입항에 따른 여수철도 노동조합의 긴급대응[38], 1930년 6월 보성군 득량면에서 백여명의 중국노동자가 촌락을 습격한 사건[39], 1931년 6월 목포 하수도 공사장에서의 양국 노동자간 난투[40] 등이 주요한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 가운데서도 1930년 11월 광주-여수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제 건설업자에 항의하기 위해 양국 노동자가 동맹파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협력적인 사례도 있었다.[41] 광주-여수간 철도공사 구간 중 보성 터널공사에서 일본인 청부업자(加藤組)의 무리한 시공요구와 임금체불에 대항하여 한국인 노동자 1,000 여명과 중국인 노동자 200 여명이 동맹하여 파업투쟁에 나섰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항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 화교사에 전남을 제외하고는 유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서 향후 심층 연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국노동자와 화교 노동자와 관계가 대립적인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이후 배화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4. 배화운동과 중일전쟁으로 인한 충격과 철수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배화사건은 1927년과 1931년에 발생하였다. 파급영향이나 규모 면에서는 서로 다르나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된 것이 동일한 원인이었고, 경과와 수습과정이 비슷한 양상을

37) 「조선인 200명과 중국 노동자와 격투」, 『조선일보』, 1925. 9. 5.
38) 「조수(潮水)같은 중국 노동자 여수에 千여명 입항」, 『동아일보』, 1929. 5. 19.
39) 「백여명 중국인 노동자 심야 촌락을 來襲」, 『매일신보』, 1930. 6. 7.
40) 「木浦 下水道工事場에서 二百 勞動者 大亂鬪」, 『조선일보』, 1931. 6. 13.
41) 「남조선철도공사 千餘인부 총파업」, 『동아일보』, 1930. 11. 30.

보였다는 점에서 두 사건을 연관시켜 볼 필요가 있다.[42] 1927년 배화사건은 전북을 중심으로 충남지역과 인천지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전남은 전북과 가까운 장성, 나주를 제외하고는 영향을 받은 곳이 없었으며 두 곳의 경우도 매우 미미한 움직임으로 끝났다. 1931년 배화사건의 발생은 한국-화교 노동자간 갈등 등으로 화교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가운데 직접적으로는 중국 萬寶山에서 벌어진 분쟁과 이를 과장 보도한 국내 언론에 의해 촉발되었다.[43]

1927년과는 달리 1931년 배화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많은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중국측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의 경우 평양 133명 ,인천 2명, 원산 5명, 신의주 2명, 총 142명으로 나타났으며, 부상자는 서울 146명, 진남포 19명, 부산 2명 등으로 나타났다.[44] 이에 비해 전남은 목포, 광주, 장성, 여수, 순천, 나주, 제주, 영광, 고흥, 진도, 강진 등 전남 곳곳에서 배화활동이 발생하였지만 산발적으로 끝났고, 내용에 있어서도 배화시위, 음식점과 호떡집 주인에 대한 협박, 야채행상에 대한 구타, 불매운동 등으로 전국적인 양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피해가 매우 작은 수준에 그쳤다.[45]

이처럼 전남지역이 비교적 경미한 갈등으로 끝난 이유는 인천, 서울, 평양 등 인명사고가 컸던 핵심지역과 거리가 멀었던 차단효과와 배화사건 전에 발생한 중국인 노동자와의 갈등사건에 따른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30년 동맹파업과 같은 연대경험, 전남지역 주민의 화교에 대한 동정의식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46] 비록 만보산 사건으로 인한 배화운동의 피해는 미미했으나 심리적 충격은 커서 화교의 철수로 인한 인구 감소면에

42) 박정현(201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中國學報』 第69輯, 한국중국학회, 106쪽.

43) 만보산 사건에 대한 내용은 윤상원(2016), 「한국 역사학계의 만보산사건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문학연구』 51집, 한국문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44) 손승회(2009), 「1931년 식민지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 『한국중국근현대사연구』 제41집, 韓國中國近現代史學會, 155쪽.

45)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1932), 「鮮內에 있는 支那人 排斥事件의 槪況」, 275~298쪽.

46) 광주화교 왕00은 3대 화교로서 그의 조부-부모 세대들의 경험에 의하면 광주·전남 지역주민들은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서 볼 때 전국 평균수준을 다소 넘어선 수준을 보였다.

중일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배화운동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화운동으로 인해 감소했던 화교인구는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듯했으나 이어 발생한 중일전쟁은 전남화교 사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큰 타격을 입혔다. 1937년에는 65% 정도의 화교가 철수하였고, 1945년 까지도 복귀하는 화교는 적었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국 평균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전남화교가 철수한 것은 1차적으로 적성국가의 국민이라는 신분상의 불안과 대륙과의 무역관계의 단절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남화교의 다수를 차지하던 포목업 종사자와 같이 이동성이 강한 단신 출가자들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7]

〈표 12〉 중일전쟁과 배화운동 이후의 인구변화

지역	1930	1931	증감	1936	1937	증감
전남	2,115	1,071	-49.36	1.244	425	-65.84
경기	11,571	6,026	-47.92	12.745	3.648	-71.38
충북	1,215	457	-62.39	697	292	-58.11
충남	2,700	1,533	-43.22	1.790	789	-55.92
강원	1,644	561	-65.88	768	221	-71.22
경북	2,384	1,368	-42.62	1.336	301	-77.47
경남	1,614	835	-48.27	1.848	263	-85.77
전북	2,990	2,074	-30.64	2.426	725	-70.12
황해	4,520	2,526	-44.12	3.901	1.346	-65.50
평남	5,635	1,700	-69.83	5.005	2.549	-49.07
평북	16,771	9,937	-40.75	19.766	19.287	-2.42
함남	8,216	3,382	-58.84	6.140	5.748	-6.38
함북	6,399	5,307	-17.07	6.315	6.315	0.00
전국 계	67,794	36,778	-45.75	63.976	41.909	-34.49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47) 이는 전남화교의 낮은 정주성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Ⅴ. 맺음말

조선시대에도 전남지역에 표류해온 청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지만 대부분 일시적인 접촉으로 끝난데 비해, 전남화교는 본격적으로 국내에 이주하여 지역주민과 일정기간 거주와 생활을 같이한 최초의 외국인 집단으로서, 상업활동과 언어, 음식, 의복 등 문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다문화 사회의 효시를 이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전남화교는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일제의 압박과 감시, 친일의 강요를 받으며 지역주민과 동병상린적인 입장을 공유한 관계이기도 하였다.

반면. 지나친 중화의식, 자국언어 고수와 이로 인한 소통부족, 폐쇄적인 동족 혼인관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 배타적인 특성을 보였고, 이러한 점은 노동시장에서의 국내 노동자와의 긴장관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빚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전남화교가 전국, 특히 남한지역 화교와 공통적인 측면에서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포목업을 중심으로 한 상업활동이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사회·정치적 변화와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화교의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은 화교사회를 뒤흔드는 큰 충격으로 다수의 주류 화교가 철수하였고, 남은 자와 일부 귀환자들은 일제의 통제 속에 생존하기 위해 친일정부에 대한 외형적 지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도 공통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공통적 맥락 외에 다음과 같이 차별화되는 특징과 시사점이 존재한다. 전남화교는 인천과 서울과 같은 화교 중심지로부터 지리적으로 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4번째로 전남에 진출하였다. 특히, 전남은 화교의 출입창구였던 인천과 멀리 떨어졌고, 제주, 완도, 진도 등 도서지역이 많아 교통 등 접근여건이 매우 열악하였지만 일찍부터 전 시·군에 진출하여 활발한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전남의 초기 화교들에게서 주목 해야할 점은 비상한 개척정신이라 할 수 있다.[48] 물론, 이러한 개척정신은 국내화교들과 전 세계 곳곳에 진출한 화교들이 갖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남화교는 처음 이주한 시기가 개항 이전인 1893년으로 교통과 거주여건, 상업적 수요, 인구규모 등에서 수익 확보의 여건이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한반도 최남단 도시인 목포와 인근 내륙지역은 물론 제주, 완도, 고금도, 흑산도 등 먼 섬 지역까지 진출하여 상업활동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을 가진 화교 도매상들이 활동하던 서울과 인천, 그리고 이들의 지점이 주로 활동하던 부산, 군산 등과는 달리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화교는 규모는 작았으나 대부분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전국 최고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내었다는 점에서도[49] 기업가 정신이 투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남화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원만하였다. 만보산 사건의 피해도 매우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1930년 철도 공사 현장에서 한국 노동자와 중국 노동자가 동맹파업을 통해 연대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지역주민의 배화의식을 완화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주성이 낮은데다 지나치게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이동성이 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화교사회를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관계를 심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화교사회가 긴 역사를 자랑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인천, 전북(군산), 경북(대구)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측면이면서도 전남화교 사회의 취약점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의 전남화교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전남 화교사회가 의미있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특유의 사업가정신이 발휘되어 재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경

48) 양세영(2018), 앞의 논문, 123쪽.

49) 1923년 기준으로 목포화교는 1인당 평균 대출액과 1인당 평균 저축액면에서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액이 대출액을 초과하는 정도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양세영(2020), 앞의 논문, 324쪽.

제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가 살아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공-해운 항로의 확대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하며, 외국인 거주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환황해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과의 관계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전남지역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기본연구의 심화를 위해 광주·전남화교의 중요 인물과 상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수집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본격적이고 보다 광범위한 자료 확보와 조사가 요청된다. 아울러, 공간적으로 광주와 목포 외에 주요 화교 활동지역이었던 영광, 영산포, 여수, 순천, 벌교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적으로도 해방이후의 화교활동에 대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크다. 영역에서도 경제활동외에 화교 문화와 전통, 의식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접근이 이루어져 전남화교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文書』(1938), 「治安狀況」(제44報, 在留中國人의 動靜).
『京城地方法院 檢事局 文書』(1938), 「治安狀況」(제44報～제47報, 鮮內 中國人의 新政權參加狀況).
『國家記錄院 所藏資料』(1932), 「鮮內에 있는 支那人 排斥事件의 槪況」(관리번호 CJA 0002328).
『光州市史』(1965), 광주시사편찬위원회편, 광주시.
『羅州郡誌』(1980), 나주군지편찬위원회편, 나주군.
『木浦府史』(1930), 목포부편, 목포부청.
『木浦商業會議所 통계년보』(1938), 목포상업회의소.
『木浦市史』(1991), 목포시.
『木浦誌』(1914), 목포지편찬위원회, 목포지편찬회.
『順天市史』(1997),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
『麗水市史』(2011), 여수시편찬위원회편, 여수시.
『靈光郡誌』(1998), 영광군.
『仁川府史』(1933), 인천부청편, 인천부청.
『朝鮮銀行 경제연감』(1949), 조선은행.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1942).
『조선총독부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全鮮編』(1933).
『조선총독부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 도편 전라남도』(1933).
『大板 商業信用所, 商工資産信用錄』, 각년도.
조선총독부(1924), 『朝鮮に 於ける 支那人』.
_____(1924), 『朝鮮部落調査報告: 火田民來住支那人』.
盧冠群(1956), 『韓國華僑經濟』, 臺北: 海外出版社.
石川亮太(2016),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華商·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楊昭全·孫玉梅(1991), 『朝鮮華僑史』, 북경: 중국화교출판공사.

華僑志編纂委員會(1958),『韓國華僑志』, 대북 : 화교지편찬위원회.

신문

『동아일보』, 1929년 5월 19일,「조수(潮水)같은 중국 노동자 여수에 千여명 입항」.
_____, 1930년 11월 30일,「남조선철도공사 千餘인부 총파업」.
_____, 1937년 8월 26일,「보찜싸는 支那人」.
_____, 1937년 9월 14일,「木浦在留支人 百餘名撤歸」.
『매일신보』, 1926년 7월 18일,「신성호 개업」.
_____, 1930년 6월 7일,「백여명 중국인 노동자 심야 촌락을 來襲」.
『조선일보』, 1925년 9월 5일,「조선인 200명과 중국 노동자와 격투」.
_____, 1930년 7월 20일,「광주독서회사건예심결정서」.
_____, 1931년 6월 13일,「木浦 下水道工事場에서 二百 勞動者 大亂鬪」, 1.

논저

강진아(2011),『동순태호』, 경북대학출판부.
京城商業會議所(1929),「朝鮮における外國人の經濟力」,『朝鮮經濟雜誌』159(3월호)
_____(1932),『경제월보』4월호(196호).
고석규(2004),『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박현옥·박정동(2003),『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2003-11, 인천발전연구원.
양필승·이정희(2004),『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왕은미(송승석 옮김)(2013),『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고방.
이정희·송승석(2015),『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학고방.
김경학(2012),「한국 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민족문화논총』제51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1~226쪽.
UCI : G704-001644.2012..51.002
김승욱(2011),「19세기 말~20세기 초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 50,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75～101쪽.
UCI : G704-001440.2011..50.005
김영신(2003),「개항기(1883-1910) 인천항의 대외교역과 화교의 역할」,『인천학연구』 2-1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163～188쪽.
_____(2005),「일제시기 在韓화교(1910～1931) - 인천지역 화교를 중심으로」,『인천학연구』 4,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7～244쪽.
김중규(2007),「화교의 생활사와 정체성의 변화과정-군산 여씨가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0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111～150쪽.
UCI : G704-001407.2007.10.2.005
_____(2010),「화교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 화교문화의 형성과 변화」,『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제1호, 역사문화학회, 350～402쪽.
UCI : G704-001407.2010.13.1.012
김태웅(2010),「일제하 군산부 화교의 존재형태와 생활양상」,『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397～439쪽.
UCI : G704-001407.2010.13.2.015
김희신(2014),「화교, 화교 네트워크와 주한 사관」,『중국사연구』 제89집, 중국사학회, 285～332쪽.
UCI : G704-000580.2014..89.006
노혜진(2012),「한국 화교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한국동북아논총』 65권, 한국동북아학회, 67～89쪽.
UCI : G704-001454.2012.17.4.019
박정현(2014),「1931년 화교 배척사건과 조선 민족주의운동」,『중국사연구』 제90집, 중국사학회, 239～268쪽.
UCI : G704-000580.2014..90.011
小田內通敏(1925),「朝鮮に 於ける 支那人の 經濟的勢力」,『東洋講座』.
손승회(2009),「1931년 식민지조선의 배화폭동과 화교」,『韓國中國近現代史硏究』 제41집, 韓國中國近現代史硏究, 141～165쪽.
송승석(2010),「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중국현대문학』 제55호, 韓國中國

現代文學學會, 163～200쪽.
UCI : G704-000355.2010..55.004
양세영(2018),「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 2호, 역사문화학회, 71～129쪽.
DOI : 10.23013/localh.2018.21.2.003
_____(2019),「일제강점기 정치·사회적 변동과 목포화교 사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279～321쪽.
DOI : 10.23013/localh.2019.22.2.009
_____(2020),「군산과 목포화교의 비교연구 : 초기 이주과정과 일제 강점기 상업활동을 중심으로」,『호남학』, 제68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97～333쪽.
_____(2021),「제주 화교사회의 형성과 생활양상에 관한 연구 - 초기 입도 과정과 일제 강점기 경제활동을 중심으로-」,『제주도연구』, 제55권, 제주학회, 255～279쪽.
DOI : 10.47520/jjs.2021.55.255
이정희(2005),「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대구사학』80집, 대구사학회, 71～101쪽.
UCI : G704-000893.2005.80..005
_____(2005),「植民地朝鮮にお ける華僑経済に関する研究 (1905年-1930年) －朝中貿易を中心に－」,『京都創成大学紀要』 5(1), 1～22쪽.
_____(2016),「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동양사학연구』 제135집, 동양사학회, 283～319쪽.
UCI : G704-000250.2016..135.002
_____(2017),「강원도 화교사회의 형성과 변화 : 1900년대～1940년대를 중심으로」,『한림일본학』 30권, 翰林大學校 日本學研究所, 110～138쪽.
DOI : 10.18238/HALLYM.30.5
_____(2017),「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 - 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제114집, 한국사회사학회, 61～96쪽.
_____(2018),『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_____(2019),「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의 화교배척사건-익산을 중심으로-」, 제5회 익산학 심포지엄 자료, 1~14쪽.
이화승(2006),「전주 화교사회를 통해 본 한국 화교의 고찰」,『사림』26권, 수선사학회, 263~284쪽.
UCI : G704-001587.2006..26.002

면담자

강○○: 광주 화교협회 전회장
왕○○: 광주 화교협회 전 총무(담양 거주후 광주로 이동)
왕○○: 나주 현지화교
왕○○: 해남화교 2세
위○○: 목포화교협회 회장
장○○: 목포 현지화교
허○○: 제주 현지화교
안○○: 국내인으로 광주 화교협회 고문, 여수, 순천, 곡성 화교 지인의 활동에 대해 증언

투고일자: 2021. 11. 26. **심사일자:** 2021. 12. 6.~2021. 12. 18. **게재확정일자:** 2021. 12. 24.

| 국문초록 |

일제 강점기 전남지역 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

본 고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전남지역 화교의 이주와 생활상을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서 광주·전남화교 연구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전남화교가 타 지역 화교와 비교하여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국내 화교사 전체 맥락 속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전남화교의 정착과정과 경제·사회적 활동을 살펴보았다. 전남화교의 기원은 1893년 목포로 이주한 2명의 상인이며 전국에서 4번째로 화교가 이주한 지역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1917년에는 전남의 22개 시·군지역 전체에 화교가 분포하여 거주하였고, 1925년에는 일제 강점기 중 가장 많은 화교가 거주하는 발전기를 맞았다. 이러한 화교인구의 증가와 정착의 확대는 포목업을 중심으로 하는 활발한 상업활동의 결과다. 중국에서 들여온 값싸고 품질좋은 포목제품은 농업중심사회이며 인구가 많아 수요가 컸던 전남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졌다. 포목업외에도 잡화점, 주물공업, 음식업, 채소재배, 건축과 단순노동 등의 경제 활동에 화교들은 종사하였다. 그러나,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이러한 경제활동은 큰 타격을 받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화교들이 늘어났으며, 지역 경제 침체와 함께 전남지역의 화교비중은 전국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중화상회라는 단체 설립을 통해 지역별로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만보산 사건 중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피해가 없었다. 이는 화교가 전남지역 주민과의 관계가 비교적 좋았고. 특히 1930년 광주-여수 철도 부설 현장에서 일본인 건설업자에 대항하여 동맹파

업을 하는 등 국내 화교사에 유례가 거의 없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일정기간 융성했던 화교사회와 활발했던 경제활동은 향후 광주·전남과 중국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남화교, 포목업, 경제활동, 중화상회, 만보산 사건, 중일전쟁, 동맹파업, 개척정신

호남학 70 : 259～28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과 북두칠성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dolmens in Bugokri, Gochang and the Big Dipper

이 병 열*
Lee, Byeong-yeol

목 차

Ⅰ. 머리말
Ⅱ.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
Ⅲ. 부곡리고인돌과 고천문학의 별자리 비교
Ⅳ. 북두칠성 구간의 간격 비율 비교
Ⅴ. F강촌고인돌과 남두육성
Ⅵ. 맺음말

| Abstract |

This study interpreted the arrangement characteristics of the dolmens in Bugok-ri, Gocha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Dipper and the constellation, which is the life and ideological basis of the dolmen society.

In Gochang Bugok-ri dolmens, dolmens and groups of dolmens were arranged in the shape of the Big Dipper around Sirubong, and the top of Shirubong and the dolmens of the Big Dipper were aligned with the Polaris.

This was the life of the prehistoric people who discovered the regularity of the stars and grouped them into one constellation and astronomicalized it as a constellation like the Big Dipper on the earth, and it was a trace of their Constellation faith.

Bugok-ri dolme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rock holes of the dolmens identified as constellations, Cheonsang-Yeolcha-Bunyajido(Korea's first astronomical chart) and the Taeyangsu-Ilseongdo(ancient astronomical map of china). As a result, the astronomical observations of the people of Gochang in the dolmen era expressed the huge world of the sky on the earth, centering on the space of life.

* (사)고창문화연구회 사무국장

The arrangement of the Bugok-ri dolmens was a high-level astronomical record and a product of collectiv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celestial bodies. This was a trace of the fusion of the best natural science and humanities, which connected universal astronomical knowledge with human life. It is also an example that shows that various perspectives on dolmens are needed beyond the limits of the existing research on dolmens, “dolmens are graves.”

On the other hand, Gochang Bugok-ri dolmen is an ancient and mysterious ruins that not only recorded the constellations of prehistoric people, but also showed a multi-layered structure in which clusters and clusters of dolmens were expressed as a single constellation.

Key words : Gochang Bugok-ri Dolmens, Big Dipper, South Dipper, Cheonsang-Yeolcha-Bunyajido

Ⅰ. 머리말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고창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유력한 증거물로, 세계유산인 죽림리와 상갑리 일대는 단일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집과 다양한 형식의 고인돌이 분포한다.[1]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인 고인돌은 대표적인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인돌은 하늘에 제를 올리는 천제단, 부족 간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석,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또는 묘역을 표시하는 묘표석, 종교적 신앙행위를 위한 고인돌, 별자리를 관측하여 인간의 길흉화복과 생로병사 및 계절변화 등을 예측하는 점성대(占星臺), 북두칠성과 같이 별자리를 상징화한 고인돌 등 다양한 기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무덤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는, 고인돌의 다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고인돌 연구는 지하에 매장된 유물을 중심으로 분포나 형태와 같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고[2], 아직까지 고인돌의 입지에 있

1) 고창고인돌박물관 자료실(https://www.gochang.go.kr/gcdolmen/board/view.gochag).

어 고인돌 덮개돌의 장축과 통로의 방향 및 고인돌 배치의 별자리와 태양 등을 연계하여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 학자들은 고인돌과 같은 거석유적의 배치구조를 천문학을 기본으로 고려하여 해석하고 있다.[3] 고대인에게 있어 천문은 하늘과 우주를 탐색하는 자연과학과 이를 인간의 삶과 연계한 인문학의 통합적 사고방식이자[4]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과 그 현실적 응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였다.[5] 별자리는 애초부터 밤하늘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간은 문명을 이룩하면서 관련이 없는 별들을 묶어 규칙성을 발견하여 별자리로 규정하였다. 인간의 철저한 상상력의 결과물인 별자리는[6] 인류의 공통된 문화로 발전하였다. 북두칠성과 별자리들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동아시아 전체에 널리 퍼진 결과물이며, 단순한 하늘의 별자리를 넘어 일상적인 생활 속 깊이 뿌리를 내린 삶[7]이자 신앙이었다.

최근 현대의 천체학과 고인돌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고인돌의 덮개돌 바위구멍과 천문학이 연계된 성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고인돌의 바위구멍을 일찍부터 별자리로 해석하기 시작한 북한 학계의 견해는 남한 학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B.C. 2000년대 후반에 축조된 북한 관산리 고인돌은 덮개돌과 고인돌 안쪽 면의 바위구멍들이 별자리[8] 연구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 성과를 냈으나, 남한 학계는 이제야 겨우 고인돌의 바위구멍을 별자리로 연관지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었다.[9] 남한에서 고인돌의 구멍을 별

2) 양흥진·박창범·박영구(2010), 「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 『한국암각화연구』 제14집, 한국암각화회, 7쪽.
3) 변광현(2001), 『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352쪽.
4) 김일권(2006), 「고구려의 천문 문화의 그 역사적 계승」, 『고구려연구』 제23집, 고구려발해학회, 62쪽.
5) 박창범·이용복·이융조(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학회, 16쪽.
6) 전관수(2009), 「견우직녀설화에 대한 고대천문학적 시론」,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56쪽.
7) 전관수(2009), 같은 논문, 256쪽.
8) 정창현(2012), 「1990년대는 북 고대사연구의 전환기 단군릉과 고대 성터 등 발굴」, 『민족21』, 147쪽.

자리로 확정한 것은 아득이 고인돌의 덮개돌이 최초였다.[10] 이후 성혈 고인돌은 일종의 선사시대의 언어로서 천문, 경천, 수호 및 천향 사상으로 보는 연구[11]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상에 축조된 고인돌이나 선돌의 배치를 별자리와 연계한 연구는 전문할 뿐만 아니라 고인돌 상호간의 관계 또는 고인돌군과 고인돌군의 배치가 가지는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바가 없다. 고인돌의 별자리 관련 연구 방법과 주제는 고인돌 덮개돌의 성혈과 고인돌군의 별자리 배치 및 고인돌군들의 별자리 연관성, 장축이나 통로의 동서와 남북 방향 입지의 기반식 고인돌의 기능, 별자리 관측을 위해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부곡리의 고인돌과 고인돌군들[12] 간의 배치가 가지는 별자리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선사인의 별자리를 지상에 표현한 곳이 고창 시루봉 일대의 부곡리이고,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자 대상물인 고인돌과 고인돌군이 밀집된 곳이다. 이곳의 고인돌 배치 특성을 별자리로 확인된 고인돌의 성혈, 한국과 중국의 고천문도 등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미 학계에서 별자리의 성혈로 확인된 함주 지석리 고인돌과 청원 아득이 고인돌의 덮개돌을 선정하였고, 문헌으로는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청나라의 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斗魁戴匡六星 太陽守一星圖)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부곡리고인돌 배치가 북두칠성과 별자리를 염두에 둔

9) 김일권(1998),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고문화』 제51집, 한국박물관협회, 124쪽; 김일권(2006), 「영일 칠포지역의 별자리 암각화 연구」, 『한국암각화연구』 7·8집, 한국암각화학회; 김일권(2015), 「영일만의 천문사상과 별자리 암각화」, 『한국암각화연구』 15집, 한국암각화학회; 양홍진·복기대(2012), 「중국 해성 고인돌과 주변 바위그림에 대한 고고천문학적 소고」, 『동아시아고대학』 제2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양홍진·박창범·박영구(2010), 「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 『한국암각화연구』 제14집, 한국암각학회.

10) 양홍진·박창범·박영구(2010), 같은 논문, 8쪽.

11) 윤병렬(2016), 「'말하는 돌'과 '돌의 세계' 및 고인돌에 새겨진 성좌」, 『한국학』 제3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7쪽.

12) 이하 부곡리고인돌로 부르고자 한다.

고도의 천문 기록이자 천체에 대한 선사인들의 집단적인 이해와 해석의 산물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천문 관측은 원시와 선사시대부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축적한 지식이고,[13] 역사시대 문자나 기록으로 남겨진 천문학과 천문체계도 선사시대의 결과물이었음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

시루봉을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천 일대의 부곡리(芙谷里)는 높은 산과 구릉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농사에 유리한 넓은 충적지와 풍부한 물이 있으며, 인근에 깊은 산이 있어 사냥과 채집 및 연료 등의 획득이 손 쉬워 일찍부터 인간이 살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부곡리의 중심에 있는 시루봉은 일명 '증산(甑山, 179m)'이라 부르며, 증산은 찌고 익혀서 성숙시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시루봉 북서사면 아래 남고창IC에는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약 52,000년 전의 중기구석기 유적과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및 고려시대의 절터 등이 발굴되어 일찍이 고대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 특히, 부곡리고인돌은 1기의 탁자식 고인돌부터 많게는 20여기까지 군집을 이뤄 분포하고 있고, 고인돌들이 본래의 위치에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부곡리고인돌은 부곡리 지석묘군 A~H로 명명되어 학술조사[14]가 이미 이루어졌고, 고창군은 가-사로 명명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수 증산 일대의 고인돌과 고인돌군을 북두칠성과 별자리로 배치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순서에 따라 A-G로 명명하였다.[15] 즉, 북두칠성의 국자

13) 김소연(2020), 「별의 시각화: 한반도 천문 전통으로서의 여말선초 별자리도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5호, 미술사와 시각문학회, 35쪽. 인근의 고수면 칠암마을 후록에도 고인돌과 와석으로 북두칠성의 별자리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어 선사시대 이미 광범위하게 천문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고창군의 지석묘』, 43~50쪽.

15) 부곡리고인돌이 집단으로 분포한 곳의 좌표 결정은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고 그 중심

(괴)에 해당하는 A-D로 하고, 손잡이(표)는 E~G라 하였다. 또한 북두칠성의 괴안에 있는 고인돌군은 H와 I라 하였으며, 괴의 바깥쪽에 있는 고인돌군을 J라 명명하였다. A는 연동 뒤편 까끔재 고인돌군, B는 연동 칠성재 고인돌군, C는 연동 북측 광산김씨 분묘군 정상부 고인돌군, D는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된 고인돌군, E는 증산마을 배후의 고인돌군, F는 고수천변의 전라북도 기념물 제143호 강촌고인돌, G는 예지마을 예지터 바둑판식 고인돌, H는 연동 북측 능선의 대나무 숲과 구모정의 고인돌군, I는 연동 북측 밭의 고인돌 두 기, J는 월계 북동쪽 구릉 정상부에 있었던 고인돌군이다. 위 부곡리고인돌의 배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A위치의 부곡리고인돌군은 연동마을 뒤편 까끔재 정상부에 3기가 분포한다. 그 중 가장 큰 고인돌의 크기는 280×209×53cm로, 덮개돌의 형태는 원추형에 가까우며 단면 형태는 장타원형이다. 장축은 대체로 동서방향을 이루고 있고, 덮개돌 위에 수많은 바위구멍이 확인된다.[16] 이 고인돌군은 시루봉의 남쪽으로 약 340m 거리에 있다.

B위치의 부곡리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738-11의 연동마을의 남쪽 칠성재 능선에 5기가 분포한다. 고인돌은 동에서 서로 발달한 구릉 정상부를 따라 동서 방향으로 열을 지어 있고,[17] 시루봉의 남서 방향으로 약 630m 거리에 있다. 본래는 이곳에 7개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밭으로 이용하면서 두 기를 묻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남은 고인돌들도 밭의 능선에 일렬로 몰아 놓아 고인돌 본래의 배치와 유구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18] 이곳을 칠성재(七星岾)라 부른 것은 7개의 고인돌이 북두칠성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C위치의 부곡리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산 63으로 연동마을 연동제에서

을 통과하는 지점으로 하였다. 한편, 부곡리 주변의 고인돌 선정은 현재 확인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고, 시루봉에서 2km 이상 떨어진 곳은 배제하였으나 멀리 떨어진 고인돌들과의 상관관계의 조사 필요성이 있다.

16)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앞의 책, 49쪽.

17)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창군』, 181쪽.

18) 안상현(1976년생, 연동마을 전 이장). 2021년 6월 12일 증언.

북쪽으로 약 10m 떨어진 광산김씨 분묘군이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 5기가 분포한다. 그 중 가장 큰 고인돌의 크기는 448×223×120cm로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원추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장타원형이다.[19]

D위치의 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산 72-3에 있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총 20기가 조사되었다. 무덤방 주위에는 이중으로 된 도랑을 배치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20] 기반식으로 확인된 고인돌들의 장축 방향은 동북-서남 축이고, 덮개돌의 장축 규모가 350~456cm로 매우 크다.

E위치의 고인돌군은 증산마을 뒤에는 고수면 부곡리 산75에 있으며, 고인돌들은 부곡리고인돌 나1부터 나13으로 명명되었다. 이 고인돌군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시루봉의 북쪽 말단부의 완만한 구릉으로 증산마을의 서쪽 배후이며, 고수면 부곡리 산 75번지다. 이곳에는 개석식이 3기, 바둑판식이 5기가 있으며, 확인 불가능한 것이 4기가 있다.[21] 이 고인돌군은 시루봉에서 진북의 정북으로 약 500m 거리에 있다.

F위치의 강촌고인돌은 고수천변의 전라북도 기념물 제143호로 지정된 탁자식 고인돌이다. 이 고인돌은 고창 부곡리 강촌고인돌로 명명되었으며, 강촌마을 서쪽 고수천변의 기반암 위에 위치하고 있고 제단을 갖추었다.[22]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성혈로 추정되는 12개의 바위구멍이 있다.

G위치의 황산리 고인돌은 고수면 황산리 146에 있으며, 예지마을 앞 속칭 예지터로 불리는 밭 가운데 있는 바둑판식 고인돌이고, 크기는 302×244×131cm이다.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단면은 장방형이다. 장축은 남북방향이며, 지석은 3개가 확인된다.[23] 이 고인돌은 시루봉에서 진북의 정북방향에 위치하고, 덮개돌 위에는 성혈로 추정되는 바위구멍이 3개 있다.

---

19)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앞의 책, 47쪽.
20) 호남문화재연구원(2006), 『고창 부곡리유적』, 203쪽.
21)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앞의 책, 44쪽.
22)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고창 부곡리고인돌).
23)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2005), 앞의 책, 187쪽.



〈그림 1〉 시루봉 주변의 부곡리고인돌 배치도[24]

한편, 북두칠성의 괴의 안에 있는 H의 부곡리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638 일대로 연동마을 북측 야산의 대나무 숲에 5기가 남북 방향으로 열 지어 있었으나[25] 지금은 모두 파괴되어 마을 광장 앞 화단으로 이전하였다. I위치의 부곡리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산 58에 있으며, 연동마을 북측 구모정 옆의 밭에 2기가 시루봉의 능선을 따라 분포한다. 가장 큰 고인돌의 형태는 원추형이며, 덮개돌의 규모는 520×400×221cm이다. 바로 옆의 기반식 고인돌의 규모는 420×360×100cm로 장축은 장타원형이다.

J위치의 부곡리고인돌군은 고수면 부곡리 888-3에 있었으며, 장두리 월계마을 북동쪽 구릉 정상부에 고인돌 8기가 분포하였다. 도로변의 밭에 5기, 주변에 3기가 군집을 이루고 분포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고인돌의 크기는 302×99×42cm로 덮개돌의 평면 형태는 방형, 단면은 장방형이었다.[26] 이 고인돌군은 시루봉의 정서 방향으로 약 815m 거리에 있었으나 토지주가 무단으로 파괴해 현재는 사라진 상태이다.[27] 위 부곡리고인돌의 배치는 〈그림 1〉과 같다.

---

24) 본 그림은 카카오맵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재편집하였다.
25)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앞의 책, 46쪽.
26)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같은 책, 45쪽.
27) 고창군은 선사유적을 파괴한 토지주를 고발했다.(2021년 6월 13일)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배치 양상은 별자리와 관련하여 매우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곳 고인돌과 고인돌군은 부곡리에 9곳이고, 고수천 넘어 황산리에 1곳을 포함하면 총 10곳이며, 본 연구의 대상 고인돌과 고인돌군들이다. 그러나 위 고인돌군 중 D와 J 위치의 고인돌군은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졌고, H고인돌군은 대부분 파괴되어 2기만 남아 있다. 현재 부곡리의 고인돌과 고인돌군들은 뚜렷한 북두칠성과 별자리 모양으로 배치된 것이 확인되었다. 북두칠성은 국자에 해당되는 앞의 4개를 묶어 괴(魁), 손잡이 부분에 해당하는 뒤의 3개를 묶어 표(杓)라 하며, 이를 합쳐 두(斗)라 한다. 부곡리고인돌은 북두칠성의 괴(魁)인 A·B·C·D 고인돌군, 표(杓)인 E고인돌군과 F탁자식고인돌 및 G바둑판식 고인돌로 이루어져 있다. H고인돌군과 I고인돌군은 북두칠성의 국자 안에 있고, J고인돌군은 북두칠성 국자의 세 번째 서쪽에 위치에 있다.

시루봉부터 북두칠성의 국자 네 번째에 해당하는 D고인돌군과 손잡이인 E고인돌군 및 마지막 7번째인 G고인돌은 북극성과 진북으로 일직선이 되도록 배치되었다.〈그림 2〉 고인돌을 축조할 당시 선사인들이 북극성을 기준[29]으로 한 것은 지구의 북극점과 거의 일치하고, 다른 별처럼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두칠성의 마지막 별자리인 G고인돌의 장축이 북극성과 일치하는 진북에 배치하였다.



〈그림 2〉 시루봉 주변의 고인돌군의 진북 배치도[28]

한편, 여러 고인돌군들 중 선사인들이 처음 축조할 당시의 원형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증산마을 배후의 E고인돌

28) 본 그림은 카카오맵의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재편집하였다.
29) 양흥진·박창범·박영구(2010), 앞의 논문, 11쪽.

군은 북극성 방향의 진북을 중심으로 고인돌들을 동서남북의 방향을 보고 각각 배치하고 북두칠성을 형상화하였다.[30]

Ⅲ. 부곡리고인돌과 고천문학의 별자리 비교

북극성은 하늘의 어두운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늘 같은 위치에 있는 특성 때문에 방위 결정의 기준점이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은 인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 미래의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했던 성수신앙[31]이었다. 특히 북극성은 생명 탄생부터 저승까지 그 중심에 있었던 북두칠성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었고, 북두칠성은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인간에 의해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존재[32]로 산신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신앙대상이었다.[33] 이런 연유로 선사인들은 고인돌 덮개돌을 비롯하여 지상에 별자리의 흔적인 고인돌의 배치를 남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부곡리고인돌의 북두칠성과 별자리 배치는 기존의 단순한 신앙과 농경사회의 계절변화를 파악하는 방위결정[34]의 실용적 가치를 넘어 삶의 직접적인 공간인 대지에 하늘과 땅을 일체화시켜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선사인들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인돌의 북두칠성 배치는 아직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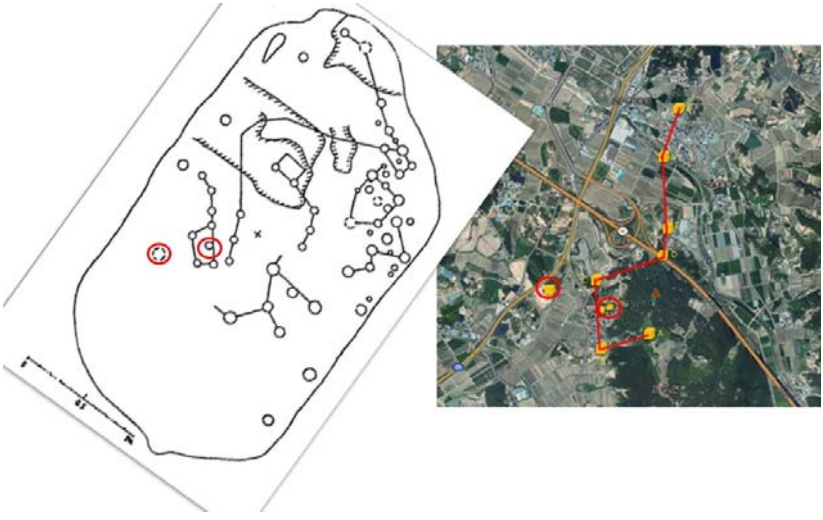
30)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31) 김만태(2012), 「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 『동방학지』 제159권, 국학연구원, 134쪽.

32) 김광태(2018), 「고인돌과 북두칠성」, 『충남과학연구지』 제35권 1호,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26~27쪽.

33) 표인주(2013), 「지석묘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 『호남문화연구』 제53권, 호남학연구원, 205쪽.

34) 이용복(미상), 「우리나라 별자리로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워크숍 논문집』, 고천문연구센터, 한국천문연구원, 10쪽.



〈그림 3〉 함경남도 지석리 고인돌[35]과 부곡리고인돌 배치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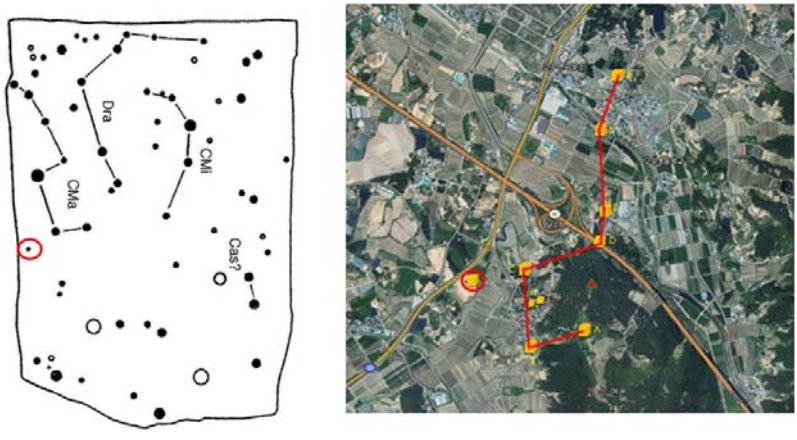
다만 천문학계에서 함남 함주군 지석리 고인돌이나 청원 아득이 고인돌의 바위구멍은 별자리로 밝혀졌고, 본고에서는 위 고인돌들과 동시대인 부곡리고인돌의 별자리로서의 배치특성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비교 대상의 지석리 고인돌 덮개돌 아래에 새겨진 원들이 성혈이고, 연구자가 별자리를 쉽게 알아보도록 선으로 연결해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북두칠성 국자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성혈을 선으로 긋고, 그 선 가운데에 성혈을 한 개 더 새겨 넣었다. 뿐만 아니라 북두칠성의 3번째 별자리 아래에 다른 원보다 훨씬 큰 원을 새겨 놓았는데, 이는 북극성 주변의 가장 밝은 별에 대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리 고인돌의 북두칠성과 주변 성혈들을 부곡리고인돌 배치도와 비교해 보면, 부곡리고인돌의 G고인돌이 북두칠성의 국자 안쪽으로 꺾은데 반해, 지석리 고인돌의 북두칠성 일곱 번째는 국자의 밖으로 향

35) 박창범·이용복·이융조(2001), 「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9쪽.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부곡리고인돌 배치도의 국자 안에 있는 두 개의 고인돌군과 대응되는 지석리 고인돌 성혈은 없고, 지석리고인돌의 북두칠성 3번과 4번을 연결해 그 중앙에 새긴 별은 부곡리고인돌 배치도에서 시루봉 정상 내지 I고인돌과 대응된다. 지석리 고인돌 덮개돌의 북두칠성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성혈은 부곡리고인돌 배치의 J고인돌군에 대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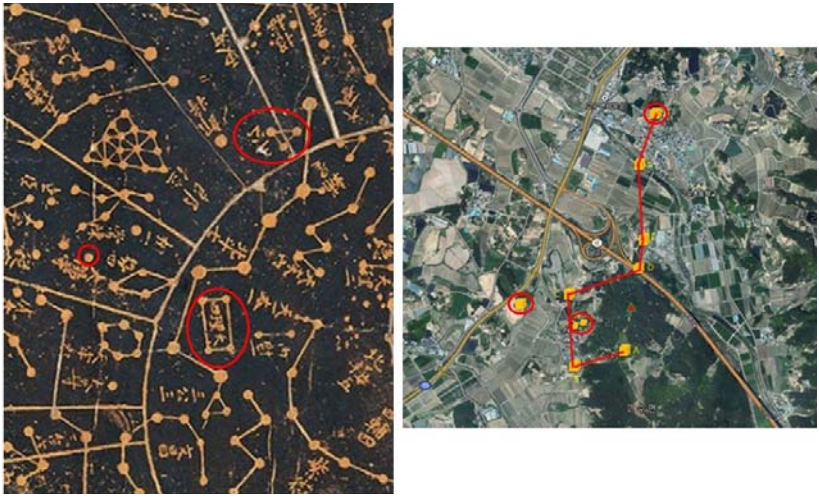
아득히 고인돌 덮개돌의 성혈은 천구북극 근처의 별자리로, 이 별자리는 실제 보이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반전시켜 돌에 새겼다.[36] 부곡리고인돌과 아득이 고인돌 북두칠성은 형태에 큰 차가 없으나 마지막 일곱 번째 별자리의 방향이 다르다. 〈그림 4〉는 연구자들이 아득이 고인돌 성혈들에 선을 그었다. 부곡리고인돌 배치의 H와 I에 대응되는 아득이 고인돌의 성혈은 보이지 않는다. 부곡리고인돌 배치의 J위치에 해당하는 성혈이 아득이 고인돌 덮개돌에는 북두칠성의 두 번째 별자리 아래에 새겨 있는 작은 원과 대응될 뿐이다.



〈그림 4〉 충청북도 아득이 고인돌[37]과 부곡리고인돌 배치도 비교

36) 이용복(미상), 앞의 논문, 9쪽.
37) 박창범·이용복·이융조(2001), 앞의 논문, 9쪽.

국보 제228호'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天象列次分野之圖刻石)'은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고구려의 평양에서 석각한 천문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긴 천문도라 알려져 있으며, 이 천문도는 조선초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38]다.〈그림 5〉 이 천문도의 본래 관측시점은 고구려의 초기인 서기 1세기[39] 또는 5세기[40]로, 인간의 오감으로 관찰하여 문법화한 천문임을 고려할 때 약 1000~1500년의 시차가 있는 청동기시대와 고구려의 천문 관측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본 천문도의 자미원에 속하는 북두칠성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었고, 그 아래에 북두칠(北斗七)이라고 기록하였다. 부곡리 고인돌 배치도의 북두칠성 일곱 번째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북두칠성과 다르게 반대편에 있는 천창(天槍)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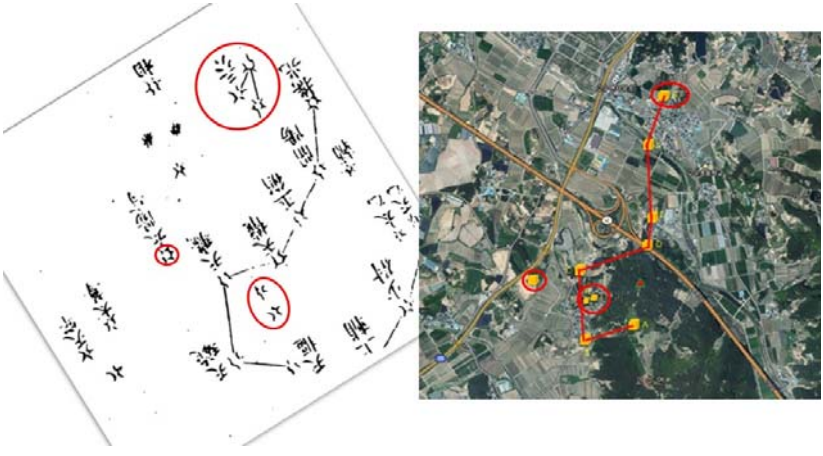


〈그림 5〉 천상열차분야지도[41]와 부곡리고인돌 배치도 비교

38) 박창범(2003), 『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113쪽.
39) 박창범(1998),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 『한국과학사학회지』 20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131쪽.
40) 윤상철(2020), 『천상열차분야지도』, 대유학당, 96쪽.

이 천문도의 북두칠성 괴 안에는 천리사(天理四)라는 글자와 함께 네 개의 별을 연결하여 네모로 표시하였다. 북두칠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아래에는 태양수(太陽守)와 함께 상일(相一)이라 기록한 별이 보이는데 이는 부곡리 고인돌의 북두칠성 배치인 J에 대응된다.

청나라의 건륭제 때인 1700～1725년 사이에 만들어진'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42] 속의 북두칠성은 그 명칭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별들은 원과 원을 선으로 그어 별자리를 표시하였다.〈그림 6〉



〈그림 6〉 태양수일성도[43]와 부곡리고인돌 배치도 비교

41)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천상열차분야지도)의 내용을 일부 편집함. 출처: https://museum.seoul.go.kr/www/relic/RelicView.do?mcsjgbnc=PS01003026001&mcseqno1=002674&mcseqno2=00000&cdLanguage=KOR.

42) 이 책은 청나라 때인 1700년에 집필을 시작하여 1726년 완료하였다.

43) 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斗魁戴匡六星 太陽守一星圖)는 중국의『古今圖書集成』에 있는 별자리 그림으로 이를 필자가 일부 편집함.



〈그림 7〉 G고인돌 덮개돌의 성혈[44]

북두칠성의 국자 안에는 두 개의 별자리만 그려져 있고, 북두칠성의 세 번째 아래에는 별 그림과 함께 태양수라는 이름으로 기록하였다. '태양수일성도'의 북두칠성 국자 안 두 개의 별자리는 시루봉 고인돌 배치의 H와 I고인돌군과 대응되고, 태양수는 시루봉 고인돌 배치의 J고인돌군에 대응되는 별자리다. 태양수일성도의 삼공은 부곡리고인돌의 북두칠성 배치의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G고인돌 덮개돌의 바위구멍과 대응된다. G고인돌의 바위구멍은 천상열차분야지도〈그림 5〉와 태양수일성도〈그림 6〉에서 북두칠성의 손잡이 끝부분에 보이는 삼공(三公)의 자리이다.〈그림 7〉

부곡리 H·I·J의 고인돌군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자미원 별자리들인 천리사, 태양수, 상(相)과 태양수일성도의 태양수의 그림을 단순 비교하였다. 부곡리 고인돌 배치의 H와 I 고인돌군에 대응되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는 천리사로 네 개의 원을 선으로 연결하여 네모난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동아시아의 별자리 명칭인 자미원은 삼원(三垣)의 중원으로 북쪽 하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황궁을 의미하며, 원(垣)은 별들의 배열이 담장을 둘러친 모습과 같아서 붙여졌다. 천리사는 하늘의 도리 또는 만물에 통하는 자연의 도리를 의미하며, 자미원의 북극을 중심으로 병풍모양을 이루고 있다.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리는 4개의 원으로 간략화하여 표현하였고, 별의 개수인 숫자 四[4]를 썼으며, 자미원의 담장과 천봉성(天逢星)의 별자리에 해당된다.

44) 바위구멍의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필자가 바위구멍에 은행나무 열매를 넣어 찍었으며, 사진의 작은 3개의 원이 성혈이다.

H·I의 고인돌군을 좀 더 세분화하면, H고인돌군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자미원 담장에 대응되며, I고인돌군은 자미원의 천봉성에 대응된다. H고인돌군에는 5개의 고인돌이 시루봉에서 발달한 능선을 따라 동에서 서로 일렬로 배치[45]한 것으로 보아 이는 황궁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과 서쪽의 8성과 7성의 별들과 대응된다.

한편, 태양수일성도에 있는 북두칠성의 국자 안에 있는 두 개의 별은 부곡리의 H와 I 고인돌군과 대응된다. I고인돌군은 현재 2개의 고인돌이 있으며 가장 큰 타원형의 고인돌이 가장 윗자리에 있고, 바로 옆에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다. 위 타원형의 고인돌에서 남서쪽으로 50m 거리에 일부 파괴된 개석식의 큰 고인돌이 있고, 이 고인돌 바로 아래 옛 연동모정 옆에는 백제식 굴방무덤의 무덤방만 남아 있고, 인근에는 파괴된 고인돌 세 기가 남아있다.

J고인돌군의 8기 고인돌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태양수와 그 주변의 별자리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다. 하늘나라의 임금이 거처하는 북극의 중심에 위치하는 궁궐이 자미궁이고, 태양수는 자미궁에서 가장 높은 장군을 상징하는 대장군별에 해당한다.[46] 시루봉 고인돌 배치도의 J고인돌군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양수일성도의 태양수로 대장군별 또는 대신의 별로 불리며 한 개의 별이다.

부곡리고인돌 배치의 북두칠성 괴는 시루봉을 감싸고 있으며, 괴의 중심인 시루봉에서 진북 방향으로 손잡이인 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나침반이 없었던 선사인들은 별자리 중 움직임이 거의 없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방위를 결정하였다. 부곡리고인돌은 작은곰자리별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고인돌과 고인돌군들을 일렬로 배열하여 북두칠성의 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 성혈과 고천문 자료의 북두칠성과 부곡리고인돌의 북두칠성 배치의 대응 관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고창 부곡리고인돌 배치는 조선의'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청나라의'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보다 수천 년 앞서 천문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흔적이라 할 수 있다.

---

45) 지금은 파괴되어 연동마을 회관 앞 화단에 옮겨 놓았다.
46) 김수길·윤상철 공역(2021), 『천문유초』, 대유학당, 345쪽.

〈표 1〉 부곡리고인돌 북두칠성 배치의 대응 관계

	북두칠성	천리(天理)	태양수(太陽守)	상(相)	기타
부곡리고인돌 배치	O(7곳)	O(2곳)	O(1곳)	x	시루봉
지석리 고인돌 성혈	O(7개)	x	O(1개)	x	O(1개)
아득이 고인돌 성혈	O(7개)	x	O(1개)	x	
천상열차분야지도	O(7개)	O(4개)	O(4개)	O(1개)	
태양수일성도	O(7개)	O(2개)	O(1개)	x	

Ⅳ. 북두칠성 구간의 간격 비율 비교

북두칠성으로 배치된 부곡리고인돌과 고인돌군의 규모와 고인돌의 크기가 실재 북두칠성의 겉보기 등급과 일치하는지를 비교해보았다. 북두칠성의 별 밝기는 E(옥형/ε) - A(천추/α) - G(요광/η) - F(개양/ζ) - B(천선/β) - C(천기/γ) - D(천권/δ) 순서이고, 고창 시루봉 고인돌과 고인돌군에서 가장 큰 고인돌의 크기순서는 D-E-A-C-G-B-F 순이었다. 첫 번째 밝기의 별들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 별의 순서를 대응해보면, E(옥형/ε) = D, A(천추/α) = E, G(요광/η) = A, F(개양/ζ) = C, B(천선/β) = G, C(천기/γ) = B, D(천권/δ) = F 등의 순서였다. 이중 규모와 덮개돌의 크기가 가장 큰 D고인돌군와 북두칠성의 겉보기 등급의 순서와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는 고인돌의 규모나 크기가 북두칠성의 실재 겉보기 밝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부곡리고인돌 북두칠성 배치도 크기와 겉보기등급

고인돌군	규모	고인돌 규모[47]	형식	겉보기 등급[48]
A천추(天樞)/ α	6기	380×230×78cm③	파괴	1.79②
B천선(天璇)/ β	5기	265×175×91cm⑥	개석식	2.37⑤
C천기(天璣)/ γ	5기	364×176×34cm④	개석식	2.44⑥
D천권(天權)/ δ	20기	456×320×112cm①	바둑판식	3.31⑦
E옥형(玉衡)/ ε	12기	420×193×113cm②	바둑판식	1.77①
F개양(開陽)/ ζ	1기	257×220×70cm⑦	탁자식	2.27④
G요광(搖光)/ η	1기	302×244×131cm⑤	바둑판식	1.86③
H천봉/담장	6기	319×203×128cm	바둑판식	
I(원추형)	3기	520×400×221cm	개석식	
J큰곰 χ	8기	302×99×42cm	파괴	

한편, 지금의 북두칠성 그림의 별들 간의 간격을 1.0으로 하고, 위 천문도들을 현재의 북두칠성 그림으로 각 구간의 거리 비율을 계산하였다. 먼저 북두칠성의 별들을 각각 순서에 따라 A～G라 하고, 각 별자리 간의 구간 거리를 A-B, B-C, C-D, D-E, E-F, F-G로 하여 이 간격들의 거리를 단순 비율로 계산하였다.〈표2〉 실제 북두칠성과 부곡리고인돌군들 배치도의 거리 비율의 차는 A-B구간은 1.0으로 동일하고, B-C구간은 -0.1, C-D구간은 +0.5, D-E구간은 -0.43, E-F구간은 +0.67, F-G구간은 -0.26이었다. 거리가 동일한 비율은 A-B와 B-C구간이었다. E-F구간은 +0.67로 실재 북두칠성의 구간간격 비율보다 길었고, 반대로 D-E구간은 -0.43으로 실재 북두칠성의 구간간격 비율보다 짧았다. 고인돌군을 북두칠성의 구간 비율과 다르게 배치한 것은 D와 E 고인돌군을 시루봉 중심으로 한 진북방향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재 북두칠성 별들의 구간 거리와 부곡리고인돌 배치도가 매우 상이하게

47)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 앞의 책, 43～51, 61쪽.

48) 김일권(2014),「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제37권 제2호, 188쪽.

나타나는 것은 위와 같은 진북방향과 지형 등을 고려한 당시 선사인들의 고인돌 입지선정 때문이었다.

부곡리고인돌 배치도와 지석리 및 아득이의 고인돌의 성혈 관련 북두칠성의 구간간격을 단순 비율로 계산하여 비교했다. A-B 구간은, 부곡리와 지석리는 1.0으로 동일하고, 아득이는 0.94로 비슷하였다. B-C구간은 부곡리 0.9이고, 지석리 1.2, 아득이 1.16으로 이 구간도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C-D구간은, 부곡리와 지석리는 1.5로 동일하나 실재 북두칠성과는 +0.5로 길었으며, 아득이는 1.0로 동일했다. D-E구간은 부곡리가 0,57로 -0.43 차로 짧았고, 지석리는 0.91로 유사하였으며, 아득이는 1.23으로 +0.23의 차를 보였다. E-F구간은 부곡리와 지석리는 1.67로 동일하나 실재 북두칠성보다는 +0.67로 매우 길었고, 아득이는 1.15로 비슷하였다. 마지막으로 F-G구간은 부곡리가 0.74로 -0.26의 차이로 짧았고, 지석리는 0.81로 -0.19였으며, 아득이는 0.46으로 -0.54의 차로 짧았다. 한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양수일성도의 각 구간별 비율은, A-B 구간은 1.14와 1.0이고, B-C 구간은 1.2와 1.0, C-D 구간은 1.03과 1.17, D-E 구간은 1.09와 0.71, E-F 구간은 1.30과 1.11, F-G 구간은 1.35와 0.93으로 현재의 북두칠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고인돌의 북두칠성과 실제 북두칠성 구간의 단순한 비교이지만 이를 통해 부곡리고인돌 배치도는 함주 지석리 고인돌의 북두칠성과 유사하게 배치되었으나 실제 북두칠성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북두칠성의 구간 거리의 거리 비율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북두칠성과의 거리 비율

	A-B	B-C	C-D	D-E	E-F	F-G
부곡리고인돌 배치	3.5	4.5	4.5	2	4.5	3.2
	1.0	0.9	1.5	0.57	1.67	0.74
함주 지석리 고인돌 성혈	3.5	6	4.5	3.2	4.5	3.5
	1.0	1.2	1.5	0.91	1.67	0.81
청원 아득이 고인돌 성혈	3.3	5.8	3	4.3	3.1	2

	A-B	B-C	C-D	D-E	E-F	F-G
	0.94	1.16	1.0	1.23	1.15	0.47
천상열차분야지도	4	6	3.1	3.8	3.5	5.8
	1.14	1.2	1.03	1.09	1.30	1.35
태양수일성도	3.5	5	3.5	2.5	3	4
	1.0	1.0	1.17	0.71	1.11	0.93
실제 북두칠성	3.5	5	3	3.5	2.7	4.3
	1.0	1.0	1.0	1.0	1.0	1.0

Ⅴ. F위치 강촌고인돌과 남두육성

F위치의 강촌고인돌 받침돌 사이의 통로는 남서인 214°방향이고, 전면의 추산봉을 바라보고 있다. 고인돌 덮개돌의 장축은 남북축이고 단축은 동서축이며, 덮개돌 아래에 동서로 받침돌이 괴여 있다. 덮개돌에는 남두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혈로 추정되는 12개의 바위구멍이 있다.〈그림 8〉 바위구멍은 덮개돌의 남서쪽 끝부분에 남두육성과 대응되는 6개의 바위구멍과 남동쪽으로 3개의 바위구멍 및 중앙의 서쪽 가장자리에 3개의 바위구멍이 있다. 남두육성은 우리나라에서 5월 남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추석 무렵 밤하늘에 가장 높이 떠 있는 별자리로 궁수자리에 해당하는 6개의 별이다. 고구려 씨름무덤의 천장〈그림 9〉에 동서남북 방위와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그 중 남쪽의 별자리는 강촌고인돌의 덮개돌의 바위구멍〈그림 8〉과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씨름무덤의 천장 벽화의 ③남두육성(南斗六星)과 ②방수(房宿) 및 ④벌성(伐星)은 〈그림 8〉의 바위구멍들과 대응된다. 씨름무덤의 남두육성은 강촌고인돌의 가운데 6개의 바위구멍, 동방청룡의 네 번째이자 전갈자리에 속하는 ②방수(房宿)[49]는 강촌고인돌의 좌측 3개 바위구멍, 오리온자리의 3개의 작은 별로 구성된 서방백호의 일곱 번째인 삼수(參宿)의 ④벌성(伐星)은 강촌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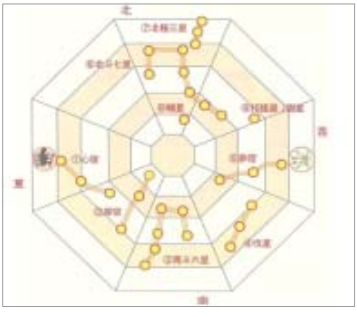
49) 천상열차분야지도에는 심수의 벌수라 하였고, 천문유초에서는 방수의 벌수로 기록되어 혼란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천문유초와 김일권의 의견을 따랐다.

돌의 우측 3개의 바위구멍과 각각 대응된다. 남두육성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강조된 중국 고분벽화와는 다른 고구려 천문특징을 잘 담아내는 별자리이다.[50]

위 성혈은 고창의 선사인들과 고구려인이 남두육성과 별자리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고구려의 선조들과 고창 선사인은 동일한 문화권이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만주나 중국 동북지방의 고조선 천문 전통을 가진 집단이 고창으로 대거 이동해 고인돌을 축조하면서 만주 일대의 천문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8〉 F고인돌 덮개돌의 성혈[51]



〈그림 9〉 씨름무덤 천장(김일권)[52]

한편, 남두육성은 북두칠성과 닮았고, 두수(斗宿)라 하여 장수(長壽)를 다스리는 별로 궁수자리가 만든 사각형을 기수(箕宿)라고 하였다.[53] 강촌고인돌의 남두육성은 선사시대 이전부터 별자리로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다. 또한 강촌고인돌의 통로가 남향인 214°는 추석의 밤하늘에 가장 높게 뜨는 남두육성과 그 주변 별자리와 관련 있으며, 제단석에 엎드려 받침돌의 통로로 남서쪽 밤하늘 지평선 가까이 있는

50) 김일권(2016), 앞의 책, 95쪽.
51) F고인돌 덮개돌의 바위구멍 그림이 잘 나타나지 않아 편집하여 나타냈다.
52) 김일권(2016),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109쪽.
53) 윤상철(2020), 『천상열차분야지도』, 대유학당, 146쪽.

남두육성과 은하수의 별자리를 관측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더불어 한여름인 7월의 자정에 추산봉 위로 남두육성이 가장 빛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위이기도 하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남한의 고인돌 연구는 매장물이나 분포 및 형태 등 주로 고고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남한과 북한 학계는 고인돌 덮개돌의 바위구멍을 별자리와 연계한 성과물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지상에 설치한 고인돌 또는 고인돌군들의 배치를 별자리로 인식하고 연구한 것은 전무하다. 본 연구는 고창 부곡리고인돌을 대상으로 이들 고인돌과 고인돌군들의 항공사진 배치를 통해 이미 학계에서 별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지석리 고인돌과 아득이 고인돌, 고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청나라 '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등의 자료들과 비교해 북두칠성과 별자리로서의 배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창 부곡리고인돌은 북두칠성의 국자와 손잡이 및 주변 별자리 형상으로 배치되었다. 즉, 북두칠성의 국자인 괴(魁)는 A·B·C·D 고인돌군이고, 손잡이인 표(杓)는 E고인돌군과 F와 G의 고인돌이었으며, 시루봉·D고인돌군·E고인돌군 및 G고인돌은 진북의 일직선으로 배열되었다.

F·I의 고인돌군은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천리사, 태양수일성도와 함주 지석리 고인돌의 국자 안 별자리에 해당하였다. J고인돌군은 천상열차분야지도와 태양수일성도의 태양수, 함주 지석리와 청원 아득이의 고인돌 국자 아래 별자리와 대응되었다. 부곡리고인돌 배치는 조선의'천상열차분야지도'나 청나라의 '두괴대광육성 태양수일성도'보다 이미 수천 년 앞서 천문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E의 고인돌군은 12개의 고인돌을 북두칠성과 삼공으로 배치하였으며, F위치의 강촌고인돌 덮개돌의 12개 바위구멍은 추석 무렵 밤하늘에 은하수와

함께 가장 높이 떠있는 남두육성과 그 주변 별자리로 확인되었고,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천제단이었으며, 5세기 전후의 고구려 고분의 천장벽화와 동일한 배치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창 선사인이나 고구려인이 남두육성과 별자리에 대해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고창 선사인과 고구려의 선조들은 동일한 문화권에 거주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조선 이주민 또는 고조선의 천문 전통을 가진 집단이 한반도 남부 고창으로 이동해 고인돌을 축조하면서 만주 일대의 천문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고창 부곡리고인돌 배치는 고인돌의 덮개돌에 남두육성을 새겼고, 어떤 고인돌군에는 북두칠성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들 고인돌과 고인돌군을 시루봉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북두칠성과 별자리로 표현한 별자리의 다층구조 양상을 보여주는 고대 유일한 선사유적이다.

고인돌과 여러 천문자료를 고창 부곡리고인돌 배치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고인돌과 고인돌군 및 덮개돌의 성혈 배치는 우연이 아닌 고도의 천체 기록물이자 천체에 대한 집단적인 이해와 해석의 산물이었다. 특히 선사시대 고창은 천상열차분야지도보다 수천 년 앞서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고창군·마한백제문화연구소(2005),『문화유적분포지도 고창군』.
고창군·군산대학교박물관(2009),『고창군의 지석묘』.
김일권(2016),『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박창범(2003),『하늘에 새긴 우리역사』, 김영사.
변광현(2001),『고인돌과 거석문화』, 미리내.
윤상철(2020),『천상열차분야지도』, 대유학당.
김수길·윤상철 공역(2021),『천문유초』, 대유학당.
(재)호남문화재연구원(2006),『고창 부곡리유적』.
『古今圖書集成』.

논문

김광태(2018),「고인돌과 북두칠성」,『충남과학연구지』제35권 1호,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
김만태(2012),「성수신앙의 일환으로서 북두칠성의 신앙적 화현 양상」,『동방학지』제159권. UCI : G704-001255.2012..159.008
김소연(2020),「별의 시각화: 한반도 천문 전통으로서의 여말선초 별자리도 고찰」,『미술사와 시각문화』제25호, 미술사와 시각문학회.
DOI : 10.22835/ahvc.2020..25.002
김일권(1998),「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고문화』제51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_____(2006),「고구려의 천문 문화의 그 역사적 계승」,『고구려연구』제23집, 고구려발해학회. UCI : G704-001250.2006.23..008
_____(2006),「영일 칠포지역의 별자리 암각화 연구」,『한국암각화연구』7·8집, 한국암각화학회.
_____(2014),「화순 운주사 북두칠성 원반석과 산정와불의 고려천문학」,『한국

학』 제37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UCI : G704-000772.2014.37.2.006

_____(2015),「영일만의 천문사상과 별자리 암각화」,『한국암각화연구』15집, 한국암각화학회.

박창범(1998),「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그림 분석」,『한국과학사학회지』20권 2호, 한국과학사학회.

박창범·이용복·이융조(2001),「청원 아득이 고인돌 유적에서 발굴된 별자리판 연구」,『한국과학사학회지』제23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
UCI(KEPA) : I410-ECN-0102-2009-400-006086226

민병삼·박경숙(2019),「삼국시대 이전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 입지를 통한 한국 풍수사상 연구」,『한국사진지리학회지』29권 1호, 한국사진지리학회.
DOI : 10.35149/jakpg.2019.29.1.008

양홍진·박창범·박영구(2010),「홈이 새겨진 고인돌과 홈의 특징」,『한국암각화연구』제14집, 한국암각화학회.
UCI : G704-001430.2012..29.004

양홍진·복기대(2012),「중국 해성 고인돌과 주변 바위구림에 대한 고고천문학적 소고」,『동아시아고대학』제29집, 동아시아고대학회.
UCI : G704-001430.2012..29.004

윤병렬(2016),「'말하는 돌'과 '돌의 세계' 및 고인돌에 새겨진 성좌」,『한국학』제39권 제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UCI : G704-000772.2016.39.2.010

이용복(미상),「우리나라 별자리로서의 천상열차분야지도」,『워크숍 논문집』, 고천문연구센터, 한국천문연구원.

정연식(2017),「고려 말 서곡리 권준 묘의 삼성과 태성」,『인문논총』제31권,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조기호·이병렬(2003),「고창 고인돌 입지특성 분석」,『한국정신과학학회지』7권 1호.

전관수(2009),「견우직녀설화에 대한 고대천문학적 시론」,『정신문화연구』제32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UCI : G704-000772.2009.32.3.012
정동락(2016),「신라의 加良岳 제사와 가야산 牛頭峰 유적」,『민족문화논총』제6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UCI : G704-001644.2016..64.004
정창현(2012),「1990년대는 북 고대사연구의 전환기-단군릉과 고대 성터 등 발굴-」,『민족21』제132호, 민족21.
표인주(2013),「지석묘 덮개돌의 언어민속학적인 의미」,『호남문화연구』제53권, 호남학연구원.
UCI : G704-001854.2013..53.007

인터넷 자료

고창고인돌박물관 자료실(https://www.gochang.go.kr/gcdolmen/board).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고창 부곡리고인돌).
서울역사박물관(https://museum.seoul.go.kr/천상열차분야지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천봉성).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태양수(https://astro.kasi.re.kr).

투고일: 2021. 11. 30. **심사기간:** 2021. 12. 6.～2021. 12. 21. **게재확정일:** 2021. 12. 21.

| 국문초록 |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분포 특성과 북두칠성

본 연구는 고창 부곡리고인돌의 배치 특성을 고인돌 사회의 삶과 사상적 기반인 북두칠성과 별자리 관계로 해석하였다. 고창 부곡리고인돌은 시루봉을 중심으로 고인돌과 고인돌군들이 북두칠성의 모습으로 배치되었고, 시루봉 정상과 북두칠성의 고인돌을 북극성과 일치시켰다. 이는 별들의 규칙성을 발견하여 하나의 별자리로 묶어 지상에 북두칠성과 같은 별자리로 천문화한 선사인들의 삶이자 성수신앙의 흔적이었다.

부곡리고인돌을 별자리로 확인된 고인돌의 바위구멍과 천상열차분야지도 및 태양수일성도 등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인돌시대 고창사람들의 천문관측은 삶의 공간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늘의 세계를 땅에 표현하였다. 부곡리고인돌의 배치는 고도의 천체 기록물이자 천체에 대한 집단적인 이해와 해석의 산물로 북두칠성과 별자리의 모습이었다. 이는 보편적인 천문지식을 인간의 삶과 이어준 최고의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융복합한 흔적이었다.

또한 기존의 “고인돌은 무덤이다”라는 고인돌 연구의 한계를 넘어 고인돌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고창 부곡리고인돌은 선사인들의 별자리 기록으로 단순히 덮개돌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고인돌의 군집과 군집들을 하나의 별자리로 표현한 다층구조를 보여준 고대의 신비스런 유적이다.

주제어 : 고창 부곡리고인돌, 북두칠성, 남두육성, 천상열차분야지도

호남학 70 : 287~31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Hom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and doseol(圖說) of Yaeun(野隱) ParkJeonggyu(朴廷奎)

조 우 진**
Cho, Woo-jin

목 차

Ⅰ. 서론
Ⅱ.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은일(隱逸)
Ⅲ. 가정교육의 지침
Ⅳ. 결론

| Abstract |

Yaeun(野隱) ParkJeonggyu(朴廷奎, 1829~1898) was a Confucian scholar in Damyang of Honam at the late of the Joseon Dynasty, and a disciple of Nosa(蘆沙) KiJeongjin(奇正鎭, 1798~187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ife of anbinrakdo(安貧樂道) of ParkJeonggyu and his home education. ParkJeonggyu traveled around the homeland in seclusion in the countryside, but he also formed a network of personal relations with his teacher Nosa and intellectuals at the time. However, he put more importance on home education centered on 'xiàotì(孝悌)', which is the basis for practicing rén(仁) rather tha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Most scholars including Nosa viewed Yulgok(栗谷) Yiyi(李珥, 1536~1584)'s 『Gyeokmongyogyeol(擊蒙要訣)』 as a training book for beginners. But it was ParkJeonggyu who particularly emphasized it. ParkJeonggyu wrote <Yakseonyul-ongyogyeolsipjomyeonaja(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 which summarizes the contents of 『Gyeokmongyogyeol』, and taught his descendants to practice the content. He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534)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학술연구교수

is the only person in the Nosa school to complete <Jisindoseol(持身圖說)> and <Wansimdoseol(玩心圖說)> with『Gyeokmongyogyeol』as the core of xīnshēnxiūyǎng(心身修養).

<Jisindoseol> is a theory about body posture written around the concept of zhōnghé(中和)·zhōngyōng(中庸) and the contents of <Jisinjang(持身章)>. <Wansimdoseol> is a theory about the mindset that divides rénxīn(人心)·dàoxīn(道心) into wǔhuàn(五患)·wǔshàn(五善). ParkJeonggyu's status is viewed in three ways. First, he regarded kǒngmèng(孔孟)'s dàoxué(道學) and ChéngZhū(程朱)'s lǐxué(理學) as the axes of his studies. Second, he produced and practiced unusual túshuō(圖說) that cultivate the body and mind based on Yulgok and Nosa's thinking system. Three, he showed an aspect of home education.

Key words : ParkJeonggyu(朴廷奎), KiJeongjin(奇正鎭), anbinrakdo(安貧樂道),『Gyeokmongyogyeol(擊蒙要訣)』, <Jisindoseol(持身圖說)>, <Wansimdoseol(玩心圖說)>, Home education

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 1829～1898)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그의 가정교육을 살피는 데 있다. 박정규는 구한말 호남 담양(潭陽)의 유학자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직전 제자이다. 그는 초야에 은둔하여 산수를 유람하면서 농사와 공부를 병행하였으며, 효제(孝悌)[1]를 중심으로 한 가정교육을 중시하였다. 그의 속세를 벗어난 삶은 내우외환의 시대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지만, 현실사회를 완전히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박정규는 동학군을 격퇴한 나주 목사 민종렬(閔種烈, 1831～1899)에게 "국가를 바로잡고 백성을 구제하는 본령은 오직 백성의 화합[人和]에 달려있다."[2]라

1)『논어』「學而」2장.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2) 朴廷奎,『野隱謾錄』下,「雜著」,〈歸正議上閔侯(種烈)〉, 27b～28a. "伏以匡國救民之本領, 惟在乎人和."

고 하면서 민심을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박정규에 대한 연구논문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한 삶 속에서도 공맹(孔孟)의 도학(道學)과 정주(程朱)의 이학(理學)을 학문의 축으로 삼고,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심신(心身)을 수양하는 도설(圖說)을 만들어 가정교육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박정규의 문집『야은만록(野隱謾錄)』은 3권 1책으로 1901년 큰아들 박상호(朴尙鎬)가 편집하여 간행했는데, 교유관계와 세상의 물욕에서 벗어난 삶을 알 수 있는 시문, 당대 지식인들에 보낸 편지 및 자기 수양과 가정교육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박정규의 교유관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야은당(野隱堂)〉[3] 시에 대해 노사를 비롯한 박창수(朴昌壽)·양기영(梁紀永)·나도규(羅燾圭)·오갑선(吳甲善)·기우만(奇宇萬) 등 21명이 차운한 것은 그의 교유관계가 넓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둘째, 노사에게 올린 편지 4통과 기우만에게 보낸 편지 6통이 있는데 아들의 공부와 안부에 관한 것이며, 조의곤(曺毅坤)·기양연(奇亮衍)·고광선(高光善)·오준선(吳駿善) 등 여러 동학과도 편지로 소통하였다. 셋째, 그의 문집『야은만록(野隱謾錄)』에 대해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이 〈야은실기서(野隱實記序)〉를 썼고, 난와(難窩) 오계수(吳繼洙)가 〈야은유고발(野隱遺稿跋)〉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명확한 학문적 교유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초야에 은둔한 삶 속에서도 노사학파뿐만

3) 〈야은당(野隱堂)〉 시는 초야에 농사를 지으면서 속세와 부귀를 잊고 은둔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었다.

산에 사는 것보다 초야 삶이 더 나음을 알아	乃知居野勝居山
십 년 동안 몇 칸 집을 지어 경영했네	十載營成屋數間
부귀는 타고나니 바랄 것 아니고	富貴由天非所望
농사일 땅에 있으니 어찌 한가함 구할까	田功在地豈求閒
작은 처마에 햇볕 따스해 난간 기대 졸고	小簷日暖憑軒睡
묵은 밭에 봄 깊어 물소리 들으며 돌아온다	老圃春深聽水還
이곳은 저잣거리와 멀어 거리낄 것 없나니	爰處無妨城市遠
염량세태에 어찌 일찍이 상관하리오	炎凉世態曷嘗關

아니라 당시의 지식인들과 많은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정규의 문집에는 성리설(性理說)과 직접 관련된 글이 없다. 최익현은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 정주(程朱)의 정론에 의지해서 시행하였고, 항상 율곡의 『격몽요결』을 좋아하여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써서 자손을 가르쳤다."[4] 라고 하였다. 그는 자손들에게 과거 공부보다는 이치 공부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으며, 율곡의 『격몽요결』 10조를 요약하여 자손들에 힘쓰도록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를 저술하였다. 당시 노사를 비롯한 그 문인들도 대체로 『격몽요결』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격몽요결』에 관심을 가지고 자손들을 가르치는 데 힘썼던 사람이 바로 박정규이다. 박정규는 노사학파 문인들 가운데 『격몽요결』의 핵심을 요약해서 뽑고, 그것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의 수양 방법론을 도설(圖說)로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지신도설(持身圖說)〉과 〈완심도설(玩心圖說)〉이다. 박정규는 이것을 자기 삶의 척도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표로 삼아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박정규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저술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지신도설〉·〈완심도설〉 등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가정교육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Ⅱ. 안빈낙도(安貧樂道)와 은일(隱逸)

박정규의 자는 도겸(道兼)이고, 호는 야은(野隱)이며,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시조는 신라 경명왕(景明王)의 셋째 아들 박언신(朴彦信)인데, 속함대군(速咸大君)에 봉해지면서 후손들이 시조로 삼았다. 하지만 그 뒤로 선조의 계보를 고증할 수 없어서 신라 시대 예부상서(禮部尙書)를 지내고 함양군에 봉해진 박선(朴善)을 중시조로 삼았다. 고조는 박세익(朴世益)이고, 증조는 박몽

4) 崔益鉉, 『勉庵先生續集』 권2, 「序」, 〈野隱實記序〉, 9a. "喪祭二禮, 必依程朱定論而行之, 常愛石潭要訣, 口誦手抄, 訓迪子孫."

신(朴夢臣)이며, 조부는 박치원(朴致元)이고, 아버지는 박종렴(朴宗濂)인데 대대로 학행(學行)이 있었다. 어머니는 해주오씨(海州吳氏) 오필한(吳弼漢)의 딸로 정숙하고 현모양처의 덕이 있었다. 박정규는 순조(純祖) 기축(己丑) 정월 12일 광산(光山) 이장리(泥場里)에서 태어났으며, 나주오씨(羅州吳氏) 첨지(僉知) 성원(成源)의 딸과 결혼하여 귀호(龜鎬)·문호(文鎬)·영호(泳鎬)·상호(尙鎬) 등 4남 낳았다.

박정규는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섬세하며, 민첩하고 총명하였다. 10세(1838)에는 『소학』을 통달하여 부모를 섬길 때 어김이 없었다. 23세(1851)에는 금성의 북쪽으로 이사하여 성시(城市)와 자취를 끊고 초야에 파묻혀 살면서 효제(孝悌)를 본원으로 삼고 글공부와 농사를 급선무로 여겼다.[5] 그래서 그는 "오직 산나물을 뜯고 들판에서 밭을 가는 일로써 일생을 보내며, 일하다가 그사이에 여력이 있으면 성현의 책을 보고 오동나무 궤 안에 기대어 한가롭게 살았다.……(『주역』 건괘(乾卦) 「문언전」에) '세상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명성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는다. 홀로 서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6]라고 하면서 평생 세상의 물욕과 인연을 끊고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삶을 살았다. 또한, 그는 "배움의 요체는 농사와 서로 표리관계이며, 글을 배우는 것은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것이다. 밭농사로 배고픔을 구제할 경우 사람들은 그 배고픔을 알아 농사에 힘쓰지만, 그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여 학문을 닦지 않으니 이것이 두려울 따름이다.…… 그 인의예지가 마음을 적셔주는 것은 또한 벼·마·콩·보리로 배고픔을 구제하는 것보다 낫다. 학문하는 방도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가까이 늙은 농부가 밭을 일구는 데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7]라고 하여 농사와

5) 吳繼洙, 『難窩遺稿』 권9, 「跋」, 〈野隱遺稿跋〉, 23a. "中歲移寓錦城之北, 斷跡城市, 棲身草野, 以孝悌爲本原, 書農爲先務."

6)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无悶誌〉, 13a～b. "惟以採山耕野之業, 過了一生, 事而有餘力於其間, 則閱聖賢書, 優遊於梧几之下……不云乎不易乎世, 不成乎名, 獨立不懼, 不見是而无悶."

7) 朴廷圭, 『野隱謾錄』 下, 「文」, 〈勸學文〉, 2b～3a. "學之要以農相表裡, 學問之破愚也.

공부를 표리관계로 보았다.

26세(1854) 6월 6일에 모친상을 당하였고, 28세(1856) 5월 9일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슬픔과 예(禮)를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시행하였다. 박정규는 "곤궁하여 학문을 돈독히 하지 못한 것을 깊은 한으로 여겨 노사 선생에게 나아가 배웠다. 의심나고 어려운 것을 물어보면 선생이 그의 독신(篤信)함을 좋아하였으며, 그것을 칭찬하는 뜻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8] 박정규가 언제 어떻게 노사 선생의 문하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기선생호상소(寄奇先生護喪所)〉에 "정규는 늦게 문하가 되어 오래도록 사랑하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9]라고 하였다.

박정규는 매년 따사로운 봄이나 서늘한 가을이 되면 2~3명의 동지(同志)를 이끌고 유명한 산이나 운치 있는 물가에서 노닐다가 흥이 다하면 돌아오는 것을 즐겼다.[10] 유람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노사 선생을 만나 아무 산과 아무 물가의 경치가 어떠했는지를 아뢰었다. 그때마다 노사 선생이 기쁘게 수답(酬答)하여 "늙은 절름발이가 강산을 누워서 노닐 수 있는 것은 우리 박정규에 의한 것이다."[11]라고 하고, "'나는 증점(曾點)과 함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12]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공자와 증점의 관계처럼 스승 노사와 박정규의 깊은 유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박정규는 책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드러움을 귀하게 여기고, 굳세고 강하기만 한 것은 재앙의 근원이다."[13]라는 한 구절을 적어놓고 매일

若田農之救飢 人能知其飢而務農, 不能知其愚而不修學文是可懼也.……其仁義禮智灌心, 亦不下於禾麻菽麥之救飢矣. 爲學之方不在乎遠, 必近求於老農之治田可也."

8) 朴廷圭, 『野隱謾錄附錄』, 「家狀」, 6b. "以窮不篤學爲深恨, 就學于蘆沙先生. 質疑問難, 先生愛其篤信, 詡之之義, 非比餘人."

9) 朴廷圭, 『野隱謾錄』 中, 「書」, 〈寄奇先生護喪所〉, 2b. "廷奎晩托門屛, 久荷愛護之念."

10) 박정규가 유람을 다니면서 지은 시는 〈無等山〉, 〈采石江〉, 〈法聖途中口呼〉, 〈白羊寺〉, 〈松江寺〉, 〈邊山〉 등이 있다.

11) 崔益鉉, 『勉菴先生續集』 권2, 「序」, 〈野隱實記序〉, 8b~9a. "先生欣然酬答曰: 使老夫蹩躠江山臥遊, 惟道兼是賴."

12) 吳繼洙, 『難窩遺稿』 권9, 「跋」, 〈野隱遺稿跋〉, 23b. "有吾與點也之意."

보면서 자신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율곡 선생의『격몽요결』10조를 베껴 써서 자제에게 항상 경계하고 외우게 하였다.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는『주자가례(朱子家禮)』를 참고하여 베껴서 기록하고 집안에 전하여 일정한 규약으로 삼았다."[14] 또 항상 자식들에게 말하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의 문하에 귀의하고 그 인도하는 뜻을 좇아서 받들어라."[15]고 하였다. 박정규는 스승 노사가 돌아가시자 스승의 손자이면서 동문인 기우만을 따라 학문을 할 것을 자제들에게 주문하였다. 그래서 셋째 아들 박영호(朴泳鎬, 1858~1931)[16]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기우만의 제자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2대에 걸쳐 노사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아들 박영호는 문집『송계유고(松溪遺稿)』[17]를 남겼다. 박정규는 죽음이 임박하여 자식들에게 "집에 거처할 때 효우인목(孝友婣睦)[18] 네 글자를 부절로 삼아야 한다."[19]라는 말을 남기고 7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는 죽기 전까지 자손들에게 자기 수양공부와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박정규의 삶에 대해 주의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일관된다.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은 "호남은 동국(東國)의 사수(泗洙)로 뛰어난 선비와 은사(隱士)가 연이어 나왔지만, 야은 박정규의 경우는 더욱 다른 점이 있었다. 타

13) 奇宇萬,『松沙集』권43,「墓表」,〈野隱朴公墓表〉, 2b. "處世柔爲貴, 剛强是禍基."
14) 朴廷圭,『野隱謾錄附錄』,「家狀」, 7a. "抄書栗谷先生要訣十條, 使諸子常爲警誦. 喪祭儀參考文公家禮抄錄, 傳家爲定規."
15) 朴廷圭,『野隱謾錄附錄』,「家狀」7a~b. "以松沙之門爲依歸, 遵奉其誘掖之志焉."
16) 박영호(朴泳鎬)의 자는 명숙(明淑)이고, 호는 송계(松溪)이며, 본관은 함양(咸陽)이다. 난와(難窩) 오계수(吳繼洙), 백하(柏下) 양상형(梁相衡),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 현와(弦窩) 고광선(高光善) 등과 교유하면서 질정하였다. 또한, 그는 학행(學行)으로써 감찰(監察)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17)『송계유고(松溪遺稿)』는 3권 1책 석인본으로 정영필(鄭英珌, 1879~1965)이 서(序)를 쓰고, 아들 박제순(朴濟淳)이 1966년 3월에 발(跋)을 작성하였다. 권1에는 시(詩) 148제가 있고, 권2에는 서(書) 11편, 기(記) 11편, 서(序) 3편, 행장(行狀) 3편, 문(文) 2편, 잡저(雜著) 3편, 설(說) 1편이 있고, 권3에는 부록이 있다.
18) 인(婣)은 이성친(異姓親)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고, 목(睦)은 동성친(同姓親)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다.
19) 奇宇萬,『松沙集』권43,「墓表」,〈野隱朴公墓表〉, 3a. "處家孝友婣睦, 爲四字符."

고난 품성이 소탈하고 호방하며, 평생 영욕(榮辱)으로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과거시험에서 발자취를 끊고 속세를 벗어나 구속받지 않았다."[20]라고 칭송하였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은 "우리 조부[노사]께서는 '일찍이 산수(山水)에 정을 붙이는 것이지 명리(名利)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외물에 구속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것을 붙잡고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은 박정규가 그 적임자에 가깝다."[21]라고 단언하였다. 난와(難窩) 오계수(吳繼洙)는 "오호라!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곤궁하면 그 자신만이라도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 사람과 선을 함께한다'[22]라고 하였다. 천하 사람과 선을 함께하면 세상에 등용되어 그 은택을 입고, 자신만이라도 선하게 하면 향리의 사람들이 그 덕에 감화된다. 공과 같은 사람은 유독 자기 몸을 선하게 하여 향리의 사람들을 그 덕에 감화시킬 자라고 할 만하다. 한스럽게도 그 재능을 펼칠 길이 없었는데, 만약 세상에 등용되었다면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23]라고 안타깝게 여겼다. 큰아들 박귀호(朴龜鎬)는

---

20) 崔益鉉, 『勉菴先生續集』 권2, 「序」, 〈野隱實記序〉, 8b～9a. "湖南東國之洙泗也, 碩人逸士, 磊落相望, 而若故野隱朴公, 則尤有異焉. 稟姿踈曠, 平生不以榮辱欣戚. 置方寸間, 斷迹公車, 放情物外."

21) 奇宇萬, 『松沙先生文集』 권43, 「墓表」, 〈野隱朴公墓表〉, 2a. "吾先子嘗言寓情山水, 非泊於名利. 不受外物惹絆者不能, 執此而求之. 野隱朴公諱廷奎, 殆庶乎其人歟."

22) 『孟子』 「盡心上」. 박정규는 빈궁[窮]에 대하여 "군자는 아무리 빈궁해도 그 빈궁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의를 고수하지만, 소인은 빈궁하면 제멋대로 한다. 빈궁함에 거처하면서 그 빈궁함을 근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군자의 도가 아니겠는가? 사람의 빈궁함은 하늘이 말하는 통달이다. 그러므로 안자와 같은 어진 사람도 요절하였고, 공자와 같은 대성인도 끝내 필부로 지냈다. 어떤 사람이 빈궁하다고 말할 것 같지만, 그 인의와 도덕의 빛남은 천지에 충만하여 마침내 백세의 스승이 되니 누가 두 사람에게 하늘의 통달함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빈궁함에 대해 장유(張維, 1587～1637)의 『계곡집(谿谷集)』 「잡저」에 실려 있는 〈시능궁인변(詩能窮人辨)〉의 관점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빈궁함과 통달함을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천하며, 얼마나 빈궁하고 통달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명성과 더러운 이름이 후에 드리워지냐를 살펴봐야 하늘이 그 사람을 통달하게 했는지 빈궁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박정규는 이처럼 군자로써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면서 물욕(物欲)을 경계하였다.

23) 吳繼洙, 『難窩遺稿』, 「跋」, 〈野隱遺稿跋〉, 23b. "嗚呼! 士生斯世, 窮則獨善, 達則兼善.

"오호라! 부군의 성품은 도량이 넓고 행동거지가 조화로우며, 용모가 단정하고 수려하였으며, 효우(孝友)의 정성과 고궁(固窮)의 행실에는 다른 사람이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늦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바르고, 닦고 살피는 것이 더욱 돈독했으며, 충신(忠信)으로 품행이 깨끗해서 온화함·공손함·삼감·경계함이 집에 거처하거나 사물에 접할 때 저절로 드러났다. 이것은 소자(小子)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향리의 사우들이 공경하고 탄복하며 칭찬한 것이니 아름다운 행동과 훌륭한 덕에 대해 후세에 길이 말이 있을 것이다."[24]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를 고려해보면, 박정규는 속세와 물욕에서 벗어나 안빈낙도하는 생활을 추구하면서도 당대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향리에서 지조와 덕망이 있는 선비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Ⅲ. 가정교육의 지침

1.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

박정규는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요약하여 뽑은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를 저술하여 자손들에게 힘쓰도록 당부하였다. '격몽(擊蒙)'이란 말은 『주역』「몽괘(蒙卦)」 상구효(上九爻)의 "격몽(擊蒙)이니 도둑이 되게 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고 도둑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에서 연원한다. 상구(上九)는 가장 위에 자리하여 강명(剛明)한 양효(陽爻)이니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자이다. 하지만 상구는 상괘(上卦)에서 중(中)을 지나 끝에 거처하기 때문에 과격한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도둑이 되게 하는

兼善則擧世被其澤,獨善則鄕隣薰其德, 若公可謂獨善其身, 而鄕里薰其德者非耶. 恨不得展其所蘊, 使擧世有所裨益也."

24) 朴廷圭, 『野隱謾錄附錄』, 「家狀」, 7b~8a. "嗚呼! 府君性度, 寬和儀容端秀, 孝友之誠固窮之行, 有人難及處, 而晩服師訓, 趍向旣正, 修省益篤, 忠信庶潔, 溫恭謹飭, 自著於居家接物之際, 此非小子私言, 鄕隣士友之所欽服而稱道者, 則美行懿德永, 有辭於後世矣."

것은 이롭지 못하다'라는 말은 가르칠 때 너무 지나치게 벌을 주면 도리어 해롭다는 의미이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롭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나쁜 유혹을 막아주어야 이롭다는 뜻이다. 즉 격몽(擊蒙)은 '어리석음을 일깨워준다'라는 뜻으로, 몽매한 어린아이에게 과하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밖의 물욕으로부터 막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결(要訣)'과 관련해서는 당나라 두우(杜佑, 735~812)가 지은 『이도요결(理道要訣)』[25]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결'이란 '중요한 방법'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격몽요결'이란 말은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격몽요결』은 초학자를 교육하기 위한 저술이면서도 조선 초기 사림파의 『소학』 이념을 계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된 성리학서이다. 그 내용은 입지(立志)·혁구습(革舊習)·지신(持身)·독서(讀書)·사친(事親)·상제(喪制)·제례(祭禮)·거가(居家)·접인(接人)·처세(處世)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격몽요결』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신 수양과 예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한 조선 중기 초학자를 위한 저술이다. 그 위상은 정조(正祖)가 1788년 『격몽요결』에 대한 서문을 쓰면서 더욱 높아졌다. 정조는 〈격몽요결서문〉에서 '이 책은 바로 『소학』의 첫 거름'이라고 하면서 율곡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이러한 『격몽요결』은 교육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림의 정치적인 면과 그 결을 함께 하였으며, 실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격몽요결』을 중시하여 두 아들에게 『격몽요결』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주자대전』의 내용을 주제별로 뽑아 『주서여패(朱書餘佩)』 12조목을 정리하도록 권유하면서, 그 책을 『격몽요결』의 변례[26]라고 하였다. 즉 다산은 성인됨의 바른길을 제시

25) 朱熹(2002), 『朱子語類』 권136, 『朱子全書』 제18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4,230쪽. "주희가 말했다. 두우는 세상일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방자가 『이도요결(理道要訣)』에 관해 물었다. 주희가 대답했다. '이것은 옛것을 비판하고 지금을 옳다고 하는 책이다.[杜佑可謂有意於世務者.' 問理道要訣. 曰: '是一箇非古是今之書. 方子]"

26)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一集詩文集第二十一卷○文集/書」, 〈寄兩兒〉, 15a. "此蓋栗

하는 교재로 『격몽요결』을 본보기 삼아 이 책의 구성을 재창조하여 『주서여패』를 저술하였고, 『주서여패』는 조선 중기 성인됨의 실천의 덕목에서 요구되던 조목들을 더욱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이르렀다.[27] 특히 유배지에 있던 다산은 자제들에게 성인이 되는 공부를 강조하면서 『격몽요결』의 몸공부와 마음공부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격몽요결』은 시대와 계파를 넘어서 조선 시대의 보편적인 수양서였다.

조선 후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은 "5세에 『효경』과 『격몽요결』 등 여러 책을 읽었는데 한번 보면 잊지 않았다."[28]라고 하였을 뿐, 그의 문집에는 『격몽요결』에 대한 특별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노사학파 문인들 또한 『효경』과 『소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격몽요결』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노사를 비롯한 그의 문인들은 대부분 『격몽요결』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직접 다루지 않았는데, 아마도 초학자들의 수양서 정도로 보았던 것 같다. 하지만 노사학파 문인들 가운데 유독 『격몽요결』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박정규이다. 박정규는 『율곡전서』와 그 안에 있는 『격몽요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 내가 사리를 조금 알았을 때 『율곡선생전서』를 보았는데, 선생의 마음을 전하는 묘맥(苗脈)이 이 책자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푹 빠져 읽으며 손에서 놓지 못하였다. 마치 선생을 지금 다시 뵙는 듯하였다. 용감하게 곧장 앞으로 나아가 작은 힘이나마 바치려고 하였지만, 뜻이 성실하고 돈독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그 의미를 모두 깨닫지 못하였으니 어찌 능히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었겠는가? 일상생활 중 가장 가까운 것에 10가지 일이 있는데,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보고 학문하는 방도를 알도록 아래와 같이 조목별로 나열하였다. 아하! 아이들이 항상 열심히 정진하고 가슴에 새겨 잃지 않는다면 어찌 성취하는 것이 없

谷擊蒙要訣之變例者也. 栗谷以立志, 爲學聖人自期爲志."

27) 문미희(2016), 「수용사의 관점에서 본 『격몽요결』의 탄생과 전승의 의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0쪽 인용.

28) 안동교·이덕현·김석태 옮김(2019), 『노사집』 7, 「연보」, 경인문화사, 311쪽.

겠는가? 내가 늙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인이 만든 것이다.[29]

박정규는『율곡선생전서』에 푹 빠져 손에서 놓지 못했는데, 뜻이 성실하고 돈독하지 못하여 세월만 보내다가 그 의미를 모두 깨닫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율곡전서』가운데『격몽요결』10조목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당부하면서 초학자들이 학문하는 방도를 알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다. 박정규의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는『격몽요결』의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요약한 것이다. 다만 박정규는『격몽요결』각 조목에 맨 앞부분에 전체적인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더했을 뿐이다.

제1 : 뜻을 세우는 것은 중대하다. [立志爲大]
제2 : 옛날 습관을 개혁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革舊習爲次]
제3 : 몸가짐은 더욱더 어렵다. [持身尤難]
제4 : 책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當知讀書之方]
제5 : 부모를 섬기는 절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必先知事親之節]
제6 : 상제는 사람 사는 집의 큰 예이다. [喪制爲人家之大禮]
제7 : 제례는 자식 된 자가 정성을 다해야 할 곳이다. [祭禮爲人子之致誠處也]
제8 : 집에 거처하는 법도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 [居家之法不可不謹]
제9 : 배우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대하는 예를 알아야 한다. [學者當知接人之禮]
제10 : 처세는 참으로 어렵다. [處世實難]

박정규는『격몽요결』10조목을 요약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4~10자로 맨 앞

29) 朴廷圭,『野隱謾錄』下,「文」,〈略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 3b. "余稍省事時, 閱栗谷先生全書, 知先生之傳心苗脈, 具在此一册子, 而愛玩不釋, 如復見先生於今日. 將勇往直前欲效其尺寸, 而志不誠篤, 因循度日, 而未能盡曉其義, 豈能無愧於心乎? 凡日用最近者有十件事, 欲使初學童子, 觀此知爲學之方, 而條列如左, 嗟爾兒子常猛着精進服膺而勿失, 則豈無所成就哉? 非我言耄, 惟聖之制."

에 기술하였는데, 1·2·3·6·10조목은 중대하거나 어려운 것이고, 4·5·7·8·9 조목은 초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박정규는 특히 '처세(處世)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보고서 "학문에 성취한 것이 있으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를 등용하여 도를 행할 지위에 나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과거 공부[擧業]와 이치 공부[理學]를 아울러 행하여도 어긋나지 않고, 학문에 방해되고 뜻을 빼앗기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지금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여 단지 과거로써 출세의 뜻으로 삼고, 평상시 득실(得失)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 그 지조를 잃으니 어찌 성현의 책을 읽어 이치 공부를 구할 겨를이 있겠는가?"[30]라고 하여 과거 공부에 치중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면서 이치 공부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격몽요결』을 중시한 박정규는 〈지신도설(持身圖說)〉과 〈완심도설(玩心圖說)〉을 만들어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몸공부와 마음공부에 힘쓰도록 요구하였다.

2. <지신도설(持身圖說)>

박정규의 〈지신도설(持身圖說)〉은 율곡의 『격몽요결』 제3장의 〈지신장(持身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데, 박정규는 10조목 가운데 특히 "몸가짐은 더욱더 어렵다."[31]라고 평가하였다. 〈지신장〉은 『예기』「옥조(玉藻)」편의 구용(九容)[32]과 『논어』「계씨(季氏)」편의 구사(九思)[33]와 『논어』「안연」편의 사물(四勿)[34]을 바탕으로 학문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지신(持身)'은 성리학적 사유를 실천하는 '몸가짐'이라는 의미인데, 율곡이

30)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贈赴擧才子〉, 13a~b. "學問能有所成就, 則爲上者擧而用之, 進於行道之位, 故擧業理學并行不悖, 而無妨功奪志之患. 今之人則不然, 但以科業爲進取之例, 常爲得失所動, 以喪其守, 奚暇讀聖賢書求理學乎?"

31) 朴廷圭, 『野隱謾錄』 下, 「文」, 〈略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 4b. "持身尤難."

32) 『禮記』 13장.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

33) 『論語』 16장. "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

34) 『論語』 12장.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격몽요결』[35]에서 개념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박정규의 〈지신도설(持身圖說)〉 이전에 만옹(晩翁) 서명서(徐命瑞, 1711~1795)의 〈지신도〉[36]와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지신요령도(持身要領圖)〉[37] 등이 있다. 서명서의 〈지신도〉는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그림을 그리고 뒤에 설명을 붙였다. 상단은 『예기』의 구용(九容)과 정이천(程伊川)의 지경(持敬)[38]과 『논어』의 사물(四勿)을 기술하였다. 하단은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의 〈서실의(書室儀)〉[39] 중에서 거처(居處)·언어(言語)·기거좌립(起居坐立)·출입보추(出入步趍) 4조목을 뽑아 열거하고, 율곡(栗谷)의 『격몽요결』 지신장(持身章)에서 의복(衣服)·음식(飮食)·거지(居止) 3조목[40]을 뽑아 넣었다. 그리고 송환기의 〈지신요령도〉는 『격몽요결』의 〈지신장〉의 내용을 취해서 그린 것인데, "사물(四勿) 중에 시(視)·청(聽)·언(言)은 구용(九容)에 속하며 구사(九思)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고, 사물(四勿) 중에 동(動)은 구사(九思)에 속하며 구용(九容)이 그 가운데 있으니 또한 저절로 동정(動靜)을 함께 닦는 오묘함이 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정(靜)의 일이고, 학문을 진작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것은 동(動)의 일이다."[41]

---

35) 『격몽요결』에 대한 도설(圖說)은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의 『명재유고(明齋遺稿)』 권30 「잡저」에 실린 〈초학획일지도(初學畫一之圖)〉와 남계(南溪)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남계집(南溪集)』 권53 「잡저」에 실린 〈요결위학도(要訣爲學圖)〉 등이 있다. 이들은 도설을 만든 목적이 사람에게 학문하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36) 徐命瑞, 『晩翁集』 권3, 「圖說」, 〈持身圖〉, 1b.

37) 宋煥箕, 『性潭集』 권11, 「雜著」, 〈持身要領圖〉, 10a.

38) 朱熹(2002), 『晦庵先生文公文集』 권46, 『朱子全書』 제22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敎育出版社, 2,119쪽. "若程夫子所謂敬者, 亦不過曰'正衣冠·一思慮·莊整齊肅·不慢不欺'而已."

39) 成渾, 『牛溪集』 권6, 「雜著」, 〈書室儀〉, 31b. "日間居處須要恭敬, 不得倨肆惰慢. 言語須要諦當, 不得戱笑諠譁. 起居坐立, 務要端莊整肅, 不得傾倚昏怠. 出入步趨, 務要安詳凝重, 不得跳走票輕."

40) 李珥, 『栗谷全書』 권27, 『擊蒙要訣』, 〈持身章〉 제3, 6b. "衣服不可華侈, 禦寒而已. 飮食不可甘美, 救飢而已. 居處不可安泰, 不病而已."

41) 宋煥箕, 『性潭集』 권11, 「雜著」, 〈持身要領圖〉, 10a. "四勿之視聽言屬九容而思行乎其

라고 하였다. 즉 송환기는 『격몽요결』의 구사와 구용을 동(動)과 정(靜)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율곡은 『격몽요결』 〈지신장〉의 핵심을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은 구용(九容)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으며, 배움을 진작시키고[進學] 지혜를 더하는 방법은 구사(九思)보다 절실한 것이 없다."[42]라고 하였다. 박정규는 〈지신장〉에서 말한 '배움을 진작시킨다[進學]'라는 것을 『주역』 건괘 「문언전」에 나오는 진덕수업(進德修業)에서 '덕을 진작시킨다[進德]'라는 의미로 바꾸었다. 그리고 『격몽요결』의 구성과 달리 박정규는 〈지신도〉에 구용과 구사의 내용을 그림 속에 그려 넣고, 그 뒤에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였다. 또한, 율곡은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구용으로 보고, 배움을 진작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방법을 구사로 보았지만, 박정규는 〈지신도설〉를 몸가짐 하나만으로 설명하고, 뒤에 〈완심도설(玩心圖說)〉을 따로 지어 마음가짐에 대해 거론하였다.

> 오호라! 신체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그 부모를 사랑하는 도(道)를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몸가짐에서 구해야 한다. 몸가짐의 의의가 어찌 효도하고 사랑하는 근원과 근본이 아니겠는가?[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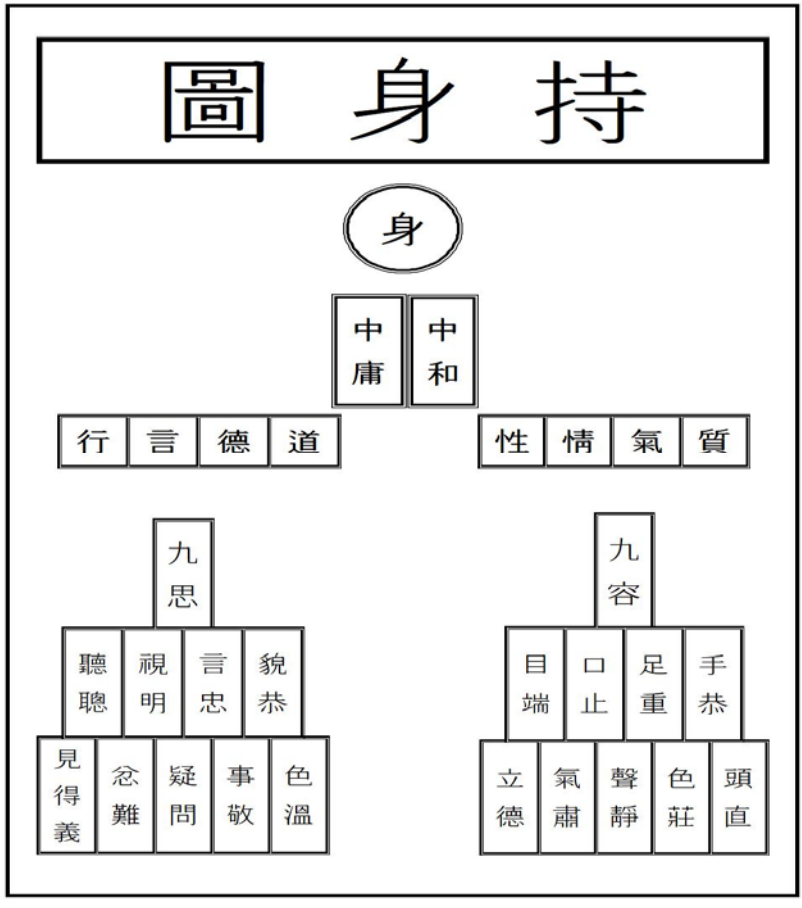
박정규는 『효경』의 "신체의 머리털과 살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44]라는 말로부터 몸가짐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하는 근원이자 근본은 바로 몸가짐에 있다는 것이다. 박정규의 〈지신도설〉은 『격몽요결』에 없는 중용(中庸)과 중화(中和)의 개념을 더하여 구용(九容)과 구사(九思)를 체용(體用) 관계로 설명되어 있다.

中, 四勿之動屬九思而容在於其中, 亦自有動靜交修之妙. 收斂身心, 靜底事也, 進學益智, 動底事也."

42) 李珥, 『栗谷全書』 권27, 『擊蒙要訣』, 〈持身章〉 제3, 5b. "收斂身心, 莫切於九容, 進學益智, 莫切於九思."

43)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持身圖〉, 30b. "嗚呼! 身體髮膚受之父母, 欲其愛父母之道必先求乎持身. 持身之義斯豈非孝愛之原原本本與?"

44) 『孝經』, 「開宗明義章」 제1.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항상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성정기질(性情氣質) 사품(四品)을 중화(中和)의 체(體)로 삼았고, 도덕언행(道德言行) 사의(四儀)를 중용(中庸)의 용(用)으로 삼았다. 체와 용이 안팎에서 함께 이루어진 뒤에야 구용(九容)과 구사(九思) 같은 절목이 일마다 법도에 맞아 자연히 마땅하게 될 것이다.[45]

45)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持身圖〉, 30b. "常須夙興夜寐, 以性情氣質四品爲中和之體, 以道德言行四儀爲中庸之用. 體與用交致於內外, 然後九容九思等節, 件件合度, 自然得當矣."

박정규는 구용과 구사의 절목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정기질(性情氣質) 사품(四品)을 중화(中和)의 체(體)로 삼고, 도덕언행(道德言行) 사의(四儀)를 중용(中庸)의 용(用)으로 삼아 체와 용이 안팎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그는 구용을 중화의 체로 보고 구사를 중용의 용으로 보면서 내면에 속하는 중화와 외면에 해당하는 중용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주자어류』에서 "성정(性情)으로 말하면 중화라 하고, 예의(禮義)로 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는 하나이다.……중화를 중용과 상대하여 말하면 중화는 또한 체요, 중용은 또한 용이다."[46]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 말한 것이다.

> 청탁(淸濁)·수박(粹駁)·지우(智愚)·현불초(賢不肖)한 기품이 비록 다를지라도 그 말단에 이르러서는 각각 성명이 바르게 되어 그 사이에서 나누어짐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반드시 거의 미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몸을 단속하고 살폈는데, 하물며 배운지 얼마 안 된 젊은 사람들이 <지신도설>의 본령을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항상 눈으로 보고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말을 살피고자 한 것이다.[47]

박정규는 중화(中和)의 체와 중용(中庸)의 용이 조화를 이루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품부 받은 청탁(淸濁)·수박(粹駁)·지우(智愚)·현불초(賢不肖)가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각각 성명이 바르게 되어 그 나누어짐이 없다는 보았다. 그는 처음 배우는 소생들이 〈지신도설〉을 보고 몸가짐을 힘쓰고 잠깐이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면서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완심도설(玩心圖說)〉을 지었다.

---

46) 朱熹(2002), 『朱子語類』 권63, 『朱子全書』 제16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56쪽. "以性情言之, 謂之中和; 以禮義言之, 謂之中庸, 其實一也. 以中和對中庸而言, 則中和又是體, 中庸又是用."

47)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持身圖〉, 30b. "淸濁粹駁智愚賢不肖其稟, 雖殊及其末也, 各正性命無所分於其間. 是以古之賢人君子, 必檢察其身如有不可幾及, 矧是新學小生, 豈不勉旃圖持身之本領? 常寓目而念玆在玆, 欲以自警省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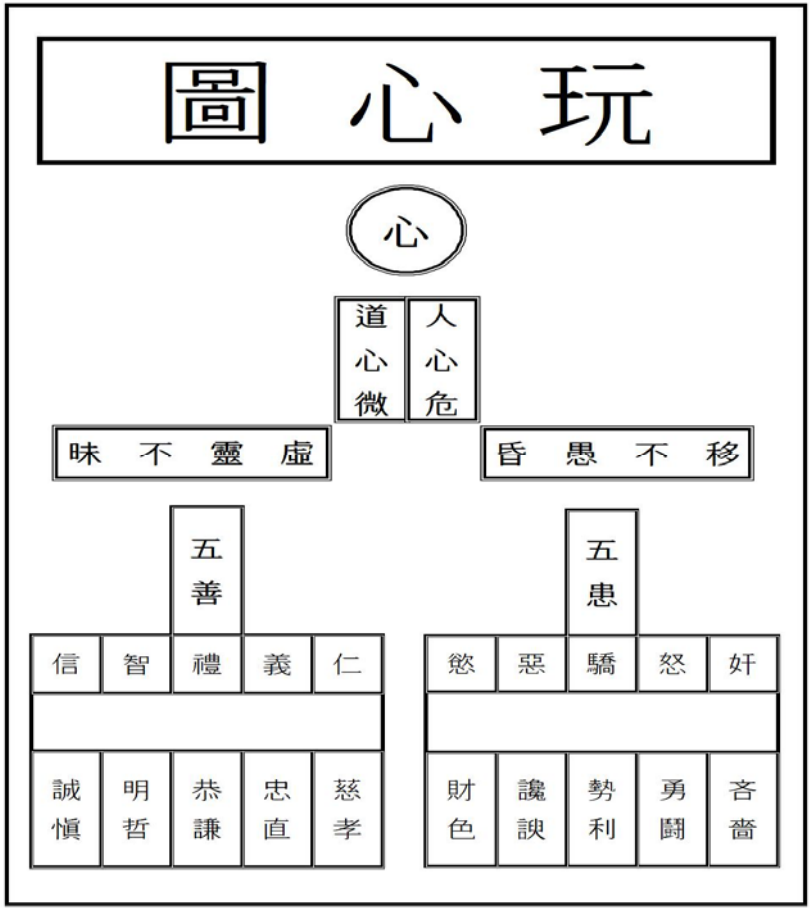
3. <완심도설(玩心圖說)>

박정규의 〈완심도설〉은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살핀 것으로 그의 독창적 도설(圖說)이다. 〈완심도〉를 처음 그린 사람은 조선 중종 때 호남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인데, 전란으로 없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승정원일기』에는 유희춘이 "기질의 차이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완심도〉를 만들었다."[48]라는 기록만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완심(玩心)'이란 말은 주자의 『근사록(近思錄)』 「서문」에 "진실로 이 책을 얻어서 마음으로 완미한다[玩心]면, 또한 문호를 얻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49]라는 구절이 있는데, 창계(滄溪) 임영(林泳, 1649~1696)은 〈독서차록(讀書箚錄)〉에서 "완심(玩心)은 마음으로 완미하는 것이지 그 마음을 깊이 완미하는 것이 아니다."[50]라고 하였다. 즉 '마음으로 완미하다'라는 뜻의 완심(玩心)은 '마음으로 생각하다'와 '마음에 새겨둔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완(玩)'이라는 글자는 『주역』 「계사전」의 "군자가 거처할 때는 그 상을 관찰해서 그 말을 완미하고, 움직일 때는 그 변화를 관찰하여 그 점을 완미한다."[51]라는 구절에서 사용되었는데, 박정규는 이때 '완(玩)'자의 의미를 사용하여 '마음을 완미하다[玩心]'로 보았다.

> 무릇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재하면서 양단이 있다.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은미하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위태로움과 은미함의 사이는 초학자가 분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깊이 완미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한 연후에 그것을 밝힐 수 있다.[52]

---

48) 『承政院日記』 高宗 21년 3월 15일 기사. "條列氣質之差, 而作玩心圖."
49) 朱熹(2002), 『晦庵先生文公文集』 권81, 『朱子全書』 제24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敎育出版社, 3,827쪽. "誠得此而玩心焉, 亦足以得其門而入矣."
50) 林泳, 『滄溪集』 권23, 「讀書箚錄」, 〈近思錄〉, 14b. "玩心, 以心玩之, 非玩夫心也."
51) 『周易』, 「繫辭上傳」 2장. "君子居則觀其象而玩其辭, 動則觀其變而玩其占."
52) 朴廷圭, 『野隱謾錄』 下, 「雜著」, 〈玩心圖〉, 31b. "夫心也者, 爲一身之主宰, 而有兩端焉. 人心惟危, 道心惟微是也. 危微之間, 初學難辨, 必須潛玩, 格致而後可明之."



마음이란 하나의 몸을 주재하면서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양단으로 이루어졌다. 즉 박정규의 〈완심도설〉」은 『서경』 「대우모(大禹謨)」의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53]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그린 것이다. 박정규의 관점에서 보면 '인심은 오직 위태롭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둡고 어리

53) 『書經』, 「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석어 변하지 않는다[昏愚不移]는 것이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어둡지 않다[虛靈不昧]는 것이다. 박정규는 초학자가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은미함을 분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완미하고 격물치지한 연후에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심과 도심을 오환(五患)과 오선(五善)으로 분명히 구분하였다.

> 대개 인심(人心)이라는 것은 어둡고 어리석어 위태로우니, 위태로우면서 움직이면 오환(五患)의 단서가 있게 된다. 혹 간사하여 인색(吝嗇)하고, 화를 내어 만용으로 싸우는 것[勇鬪]을 좋아하고, 교만하여 권세와 이익[勢利]에 빠지고, 사악하여 참소와 아첨[讒諛]을 숨기고, 욕심내어 재물과 여색[財色]을 탐낸다. 또 도심(道心)이라는 것은 허령하여 은미하니, 은미하면서 고요하면 오선(五善)의 단서가 있게 된다. 인(仁)으로 자효(慈孝)하고, 의(義)로 마땅히 충직(忠直)하고, 예(禮)로 능히 공손(恭謙)하고, 지(智)로 지극히 명철(明哲)하고, 신(信)으로 반드시 성신(誠愼)한다.[54]

인심은 어둡고 어리석어 위태로우며, 도심은 허령하여 은미하다. 인심(人心)은 위태로우면서 움직이니 간사[奸]·화남[怒]·교만[驕]·사악[惡]·욕심[慾] 오환(五患)의 단서가 되고, 그 결과 인간은 인색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권세와 이익에 빠지고, 참소와 아첨을 숨기고, 재물과 여색을 탐낸다. 도심(道心)은 은미하면서 고요하니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선(五善)의 단서가 되고, 자효(慈孝)·충직(忠直)·공손(恭謙)·명철(明哲)·성신(誠愼)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선(善)의 상대 개념은 악(惡)인데, 인심의 측면에 오악(五惡)이라고 쓰지 않고 오환(五患)의 개념을 사용하였을까? 한대 동중서(董仲舒, BC176~BC104)는『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환(患)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하나에 그치는 것을 충(忠)이라고 하고, 두 개의 충(忠)을 붙잡는 것을 환(患)이라고 하

54) 朴廷圭,『野隱謾錄』下,「雜著」,〈玩心圖〉, 31b. "盖人心者昏愚而危, 危而動有五患之端. 或奸而爲吝嗇, 怒而好勇鬪, 驕狹勢理, 惡而暗讒諛, 慾而貪財色也. 且道心者虛靈而微, 微而靜有五善之端. 仁而爲慈孝, 義而當忠直, 禮而能恭謙, 智而極明哲, 信而必誠信也."

는데, 근심하는 사람은 충(忠)이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므로 근심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55]라고 하였다. 즉 환(患)자는 마음의 중심[忠]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박정규는 오환에 해당하는 인심을 악(惡)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으로 보았다. 오환(五患)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욕망대로 달려가려는 인심(人心)이며, 오선(五善)의 덕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도심(道心)이다. 즉 오선은 인간이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이며, 오환은 인간이 욕망에 끌리는 까닭이다. 그래서 박정규는 오환과 오선의 양단을 살펴서 "항상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날로 새롭게 해야 천리(天理)가 저절로 보존되고 인욕(人慾)이 저절로 막혀 만세의 표준이 된다.……도심을 마음으로 삼고 인심을 마음으로 삼지 않는다면,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의 공부가 밝은 거울처럼 환하여 만물이 와서 다 비출 것이다."[56]라고 하였다.

> 횡거(橫渠) 선생이 말하길 '자신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펴보면 마음이 있는 곳은 곧 스승이 있는 곳이니 엄하도다! 마치 깊은 물에 임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써 나태하거나 소홀함이 없다면 마음의 위태롭고 은미한 체(體)와 용(庸)을 좇아서 볼 수 있다.[57]

이것은 장재(張載)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처음에는 마땅히 자신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58]라는 말을 인용하여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강

---

55) 董仲舒(1988),『春秋繁露』권12,『文淵閣四庫全書』vol 181, 臺灣, 商務印書館, 776쪽. "止於一者謂之忠, 持二忠者謂之患, 患人之忠不一者也. 不一者故患之所由生也."

56) 朴廷圭,『野隱謾錄』下,「雜著」,〈玩心圖〉, 31b~32a. "常須惺惺, 而惟日新之. 天理自存人慾自遏, 以爲萬世之標準.……以道心爲心, 勿以人心爲心, 則克復之功, 洞然如明鏡, 萬物來畢照矣."

57) 朴廷圭,『野隱謾錄』下,「雜著」,〈玩心圖〉, 32a. "橫渠先生曰: '以己心爲嚴師.' 由是而觀焉, 則心之所存即師之所存, 其嚴乎哉! 如臨深履薄, 朝夜孜孜, 無怠無忽, 則從可見心之惟危惟微之體與用矣."

조한 것이다. 은미하면서 고요한 것은 오선의 실마리가 되고, 위태로우면서 움직이는 것은 오환의 단서가 된다. 그러므로 박정규는 움직일 때 『시경』에서 말하듯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깊은 물에 임하는 듯하고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하여"[59] 나태하거나 소홀함이 없이 조심하고 경계하면 마음의 위태롭고 은미한 체(體)와 용(用)을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이라는 것은 허명하고 자취가 없어서 붙잡으면 마음에 차지 않지만, 버려두면 천 리 밖으로 나가 노닐게 된다. 박정규는 「완심도설」에서 마음의 두 가지 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태로움과 은미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밝게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였다. 훌륭한 스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좋은 스승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바로잡으면 은미함과 위태로움을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박정규는 「완심도설」을 만들어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모든 일을 신중히 하고 두려워하여 잠시라도 잊어서 안 된다고 가르쳤다.

Ⅳ. 결론

박정규는 구한말 안빈락도(安貧樂道)의 삶을 추구했던 호남 담양의 유학자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직전 제자이다. 그는 속세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면서 산천 유람을 즐겼으며, 돌아올 때는 반드시 스승 노사를 만나 유람했던 곳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그의 문집 『야은만록』에는 사찰이나 산천을 유람하면서 썼던 시(詩)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기록한 기행문 〈지리산행(智異山行)〉 등이 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박정규는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 대신 가정교육에 힘을 썼으며, 공자가 말한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인 효제(孝悌)를 중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스승 노사를 비롯한 동학인 기우만(奇宇萬)·오

58) 張載(1979), 『張載全書』 권6, 「學大原上」, 臺灣商務印書館, 112쪽. "正心之始, 當以己心爲嚴師."

59) 『詩經』 「小雅·小旻」. "如臨深淵, 如履薄冰."

계수(吳繼洙)·조의곤(曺毅坤)·기양연(奇亮衍)·나도규(羅燾圭)·고광선(高光善)·오준선(吳駿善) 등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당시 지식인들과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노사는 율곡의 『격몽요결』에 대한 특별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문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노사를 비롯한 그의 문인들은 대부분 『격몽요결』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면서 초학자의 수양서 정도로 여겼지만, 유독 『격몽요결』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박정규이다. 박정규는 가정교육의 표본을 『격몽요결』로 보고서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略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를 저술하였다.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는 『격몽요결』을 자신의 방식대로 변용한 것이 아니라, 『격몽요결』의 내용을 그대로 뽑아서 옮겨 적은 것이며, 각 조목 첫 부분에 4~10자로 자신의 견해를 적었다. 이처럼 『격몽요결』을 중시한 박정규는 〈지신도설(持身圖說)〉과 〈완심도설(玩心圖說)〉을 만들어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몸공부와 마음공부에 힘쓰도록 가르쳤다.

박정규는 노사학파 문인들 가운데 『격몽요결』을 심신수양(心身修養)의 핵심으로 삼고, 그것을 도설(圖說)로 표현한 유일한 사람이다. 〈지신도설〉은 율곡의 『격몽요결』 제3장의 〈지신장(持身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데, 박정규는 10조목 가운데 특히 '지신(持身)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보고서 몸가짐을 중시하였다. 박정규는 『격몽요결』에 없는 중용(中庸)과 중화(中和)의 개념을 더하여 구용과 구사를 체용(體用)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는 구용을 중화의 체로 보고 구사를 중용의 용으로 보면서 내면에 속하는 중화의 체와 외면에 해당하는 중용의 용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완심도설〉은 『서경』 「대우모(大禹謨)」의 '인심(人心)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道心)은 오직 은미하다'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만든 박정규의 독창적인 도설(圖說)이다. 박정규는 초학자가 인심의 위태로움과 도심의 은미함을 분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깊이 완미하고 격물치지(格物致知)한 연후에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인심과 도심을 오환(五患)과 오선(五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위태로움과 은미함을 분별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강조하였다.

박정규의 위상은 『격몽요결』을 바탕으로 〈지신도설〉과 〈완심도설〉을 제작하여 자신의 삶에서 직접 실천으로 옮기고 자손들에게 심신(心身)을 수양하도록 주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공맹(孔孟)의 도학(道學)과 정주(程朱)의 이학(理學)을 학문의 축으로 삼고 율곡(栗谷)과 노사(蘆沙)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가정교육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書經』.
『禮記』.
『周易』.
奇正鎭,『蘆沙集」.
奇宇萬,『松沙集』.
朴世采,『南溪集』.
朴廷奎,『野隱謾錄』.
徐命瑞,『晩翁集』.
成　渾,『牛溪集』.
宋煥箕,『性潭集』.
吳繼洙,『難窩遺稿』.
尹　拯,『明齋遺稿』.
李　珥,『栗谷全書』.
林　泳,『滄溪集』.
張　維,『谿谷集』.
丁若鏞,『與猶堂全書』.
崔益鉉,『勉庵先生續集』.
『承政院日記』.

董仲舒(1988),『春秋繁露』 권12,『文淵閣四庫全書』 vol 181, 臺灣, 商務印書館.
안동교·이덕현·김석태 옮김(2019),『노사집』 7, 경인문화사.
張　載(1979),『張載全書』,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朱　熹(2002),『晦庵先生文公文集』,『朱子全書』 제22·24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敎育出版社.

_____(2002),『朱子語類』,『朱子全書』 제18책, 上海,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문미희(2016),「수용사의 관점에서 본『격몽요결』의 탄생과 전승의 의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0쪽.

투고일: 2021. 11. 13. **심사기간:** 2021. 11. 29.~2021. 12. 6. **게재확정일:** 2021. 12. 9.

| 국문초록 |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의 삶과 도설(圖說)로 보는 가정교육

야은(野隱) 박정규(朴廷奎, 1829~1898)는 구한말 호남 담양(潭陽)의 유학자이며,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직전 제자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규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그의 가정교육을 살피는 데 있다. 박정규는 초야에 은둔하여 산천을 유람하면서도 스승 노사를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과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그는 후학양성보다는 인(仁)을 실천하는 근본인 '효제(孝悌)'를 중심으로 가정교육을 중시하였다.

노사를 비롯한 그의 문인들은 대부분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초학자의 수양서 정도로 보았지만, 그것을 특히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박정규이다. 박정규는 『격몽요결』의 내용을 요약한 〈약선율옹요결십조면아자(約選栗翁要訣十條勉兒子)〉를 저술하여 자손들에게 힘쓰도록 가르쳤다. 그는 노사학파 문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격몽요결』을 심신수양(心身修養)의 핵심으로 삼아 〈지신도설(持身圖說)〉과 〈완심도설(玩心圖說)〉을 완성한 사람이다.

〈지신도설〉은 중화(中和)·중용(中庸)의 개념과 『격몽요결』의 〈지신장(持身章)〉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몸가짐에 대한 이론이며, 〈완심도설〉은 인심(人心)·도심(道心)을 오환(五患)과 오선(五善)으로 구분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론이다. 박정규의 위상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공맹(孔孟)의 도학(道學)과 정주(程朱)의 이학(理學)을 학문의 축으로 여기고, 율곡(栗谷)과 노사(蘆沙)의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독창적인 도설(圖說)을 제작하여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의 단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 박정규(朴廷奎), 기정진(奇正鎭), 안빈낙도(安貧樂道), 『격몽요결(擊蒙要訣)』, 〈지신도설(持身圖說)〉, 〈완심도설(玩心圖說)〉, 가정교육

호남학 70 : 315~34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초파일 세시 행사의 성격 변화 고찰*

A study on the on Changes in Personality of seasonal customs on April 8th(Buddha's birthday)

박 종 오**
Park, Jong-o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초파일 세시 연등의 변천
Ⅲ. 현대 초파일 행사와 그 변화
Ⅳ. 나오는 말

| Abstract |

Seasonal Customs are traditional events that have been held customarily. There are many unique customs that have been generated and passed down by our people. Some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cultural exchanges with foreign countries. The event on April 8(Birdha's birthday) was a custom that began in the Goryeo Dynasty.

April 8th of the lunar calendar is “Buddha's Birthday.” During the Goryeo Dynasty, this day was celebrated as a private feast. Even in the Joseon Dynasty, the Lotus Lantern Festival in February disappeared, but the Lotus Lantern Festival of Birdha's Birthday continued. In the temple, a ritual for the yogbul(pouring perfume on Buddah's statue on an anniversary) and the Lotus Lantern Festival were held. In the private sector, various games were played along with the Lotus Lantern Festival.

In Japanese colonial era, a temple-centered lantern parade began. As a result, private lantern events almost disappeared. However, the meaning as a rest day did

* 본 글은 ‘2021 빛고을 관등회 학술 세미나’(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주관,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시청각실, 2021년 11월 15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not disappear. It has been continued in the form of village festivals and individual devout prays. This was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the notion that April 8th is a sacred day and the seasonal background of the start of full-scale rice farming, such as planting.

It would be impossible to revive the colorful and diverse April 8 event. The temple must provide a play area. And you have to provide a variety of things to see, eat, and play. Only then will it be a “Buddhist Day” feast where not only Buddhists but also the general public can join.

Key words : seasonal customs, April 8th(Buddha's Birthday), lotus lantern, festival, folk game

Ⅰ. 들어가는 말

세시(歲時)라는 말은 한 해를 의미하는 ‘세(歲)’와 사계절을 뜻하는 ‘시(時)’가 합쳐진 것이다.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령(時令)’ 등으로 불리는데, 계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세시풍속(歲時風俗)은 해마다 관례(慣例)로 행하여지는 전승 행사를 말하는데, 24절기와 명절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계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태음력을 보완한 태음태양력(太陰太陽歷)을 사용해 왔는데, 윤달과 24절기를 도입하고 있다. 윤달은 태음력과 태양력의 날짜 차이를 메우기 위해 19년에 7번씩 넣었다. 약 3년을 주기로 1년이 13개월이 되는 셈이다. 태양이 운행하는 궤도(황도)에 따라 24개의 점을 표시하여 각각 이름 붙인 것이 24절기이다. 일반적으로 동지(冬至)를 기점으로 하여 그 절기를 순차적으로 매겨나간다. 그러기에 음력으로 쇠는 명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뀌지만, 24절기는 날짜 변동이 거의 없다.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직선형과 순환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간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정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직선형 시간이다. 반면 순환형은 일정하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직선

형 시간관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일회적이지만, 순환형 시간관에서 보면 모든 사건은 반복적이다.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되는 인간의 경험은 그 의미가 지속되고 확대된다. 따라서 세시풍속을 지탱하는 원리는 순환형 시간과 반복의 원리이다.[1)]

세시풍속에는 어떤 음식이나, 놀이, 의례, 행위 등이 일정한 날에 허용되기도 하고, 반대로 금지되기도 한다. 평소에 불놀이는 금지된다. 그러나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나 논밭둑 태우기가 허용되며, 횃불싸움은 아이들만 아니라 청년들도 합세한다.[2)] 평소에 금기되었던 것들이 허용되는 축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세시풍속은 일상적으로 해 왔던 일을 멈추고 일상에 리듬감을 주며 힘을 비축할 기회를 부여한다. 그리고 혈연과의 만남과 사교의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놀이와 예능이 펼쳐지는 기회를 마련한다.

그런데, 오늘날 행하여지고 있는 세시풍속은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옛 문헌에 보이는 것 중에는 이름만 남아 있는 것도 있고, 현재는 행하지 않는 것도 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 의하여 발생하고 전승되어 오는 고유의 것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처럼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전래한 것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일이나 공휴일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 리듬이 변화면서 일어난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3)] 그런데, 외래의 것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민족의 색채가 가미되어 변화의 과정을 거쳐 자리매김하기도 한다. 사월 초파일도 이중 하나로 고려 말부터 민속화 된 세시 절기이다.[4)]

음력 4월 8일은 석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공식 명칭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본래 “석가 탄신일”로 불렸으나 2018년부터 변경하였다.[5)]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말은 불교계에서 쓰는 말이고, 아직

1) 지춘상 외(1998),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233쪽.
2) 나경수(2018), 「대표적인 세시절식(歲時節食)의 주술적 의미」, 『한국민속학』 제67집, 한국민속학회, 88쪽.
3) 표인주(2010), 『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56쪽.
4) 진철승(2002), 「사월초파일의 민속화 과정 연구」, 『역사민속학』 제15집, 역사민속학회, 232쪽.

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사월 초파일”이라 할 수 있다. 사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것은 각종 대승경전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역법상의 근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력 4월 8일에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행사를 하고 있다. 한편 태국, 스리랑카 같은 남방 불교권에서는 보통 인도력의 둘째 달인 베삭(베사카 Vesaka)월의 보름날, 즉 베삭 뽀야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지정하고 있다.[6] 이 날을 지금 쓰는 달력으로 보면 음력 4월 15일이다. 국제연합 UN은 1998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도대회 안건을 받아들여 1999년부터 양력 5월에 보름달이 뜨는 날, 즉 음력 4월 15일 “베삭 데이(Vesak Day)”를 부처님 오신 날로 인정하고 있다.[7]

초파일 세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연등회(燃燈會)의 변천에서 일부 다루어져 왔다. 이런 까닭에 초파일 세시를 주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는 진철승의 연구[8]를 주목해볼 만하다. 진철승은 부처님 오신 날과 관련된 여러 나라의 행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연등회의 변화를 살폈다. 또한 조선 시대 사월 초파일 행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문헌 자료를 통해 살피고 있다. 초파일 민속에 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살피지 않아 그 전승 내용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일제강점기 개성지역의 초파일 풍속을 살피고 있는 김혜숙의 연구도[9] 있다. 초파일 명절빔 구매와 관련하여 개성 상인들의 연등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어 흥미롭다. 다만, 개성 상인들의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 일반 민간인들

5)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6항,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6) 진철승(2002), 앞의 논문, 234쪽.
7) 「부처님도 하나, 불교도 하나」, 『부산일보』, 2006.05.1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60515000155.
8) 진철승(2002), 같은 논문.
9) 김혜숙(2020), 「일제강점기 개성(開城)의 사월초파일 풍속과 개성상인의 활동」, 『역사민속학』 제5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연등의 축제화 과정을 살피고 있는 박진태의 논문도[10] 주목해볼 만하다. 이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사찰을 중심으로 한 연등 행사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연등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다만 초파일 관등에 관한 내용이 미약해 아쉽다. 연등놀이의 역사적 변천을 살피고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축제화할 것인가를 논의한 전경욱의 논문도[11] 있다. 이 글은 각종 그림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등회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등회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는다. 다만, 이 글도 사월 초파일 연등에 관한 내용이 소략해 아쉽다.

이 글은 사월 초파일 세시 행사의 변천을 살피고, 현재에 와서 어떻게 민간 세시에 남아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월 초파일과 관련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의 기록을 살펴 초파일 연등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조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현대에 행해지거나 행해졌던 초파일 세시 행사의 내용을 살피고 그 성격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초파일 세시 연등의 변천

1. 초파일 연등의 시작, 고려 초파일 연등

우리나라의 초파일 관련된 기록은『고려사(高麗史)』기록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① “<고종(高宗)> 32년 **4월 8일, 최이가 연등회를** 개최하여 채붕(彩棚)을 설치하고 기악(伎樂)과 각종 놀이를 벌이게 하여 밤새도록 즐기니, 수도의 사녀

10) 박진태(2012),「한국 연등회의 지속과 변화 양상 -의미와 형태를 중심으로-」,『공연문화연구』제24집, 한국공연문화학회.

11) 전경욱(2008),「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남도민속연구』제17집, 남도민속학회.

(士女)가 구경하는데 담을 세워 놓은 듯하였다." (三十二年, 四月八日, 怡燃燈, 結彩棚, 陳伎樂百戱, 徹夜爲樂, 都人士女, 觀者如堵.)

<『高麗史』, 列傳 卷第四十五, 叛逆, 崔忠獻>

② "어떤 사람이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 탈타아(脫朶兒, 톡토르)에게 고하기를, '우리나라에는 **4월 8일에 관등(觀燈)하는 풍속이 있는데**,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이날을 틈타서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或告達魯花赤脫朶兒曰, 本國之俗, 以**四月八日觀燈**, 竊聞有人, 欲因此作亂.)

<『高麗史』, 世家 卷第二十七, 元宗 12年>

③ "**왕이 석가 탄신일이었으므로** 궁궐 안에서 연등회를 열고 승려 100명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飯僧]. 불꽃놀이와 온갖 놀이를 벌이고, 기생들에게 곡을 연주하게 하고 구경하였다." (**王以佛生日**, 燃燈禁中, 飯僧一百. 設火山·雜戱, 奏妓樂, 以觀.)

<『高麗史』, 世家 卷第三十八, 恭愍王 元年 四月>

④ "신축 왕이 연등회(燃燈會)를 열고 궁궐의 정원에서 호기놀이[呼旗戱]를 관람한 후 베를 하사하였다. 나라의 풍속에 **4월 8일은 석가(釋伽)의 생일이라고 하여 집집마다 연등을 단다.**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종이를 잘라 장대에 붙여 기(旗)를 만들고 성안의 거리를 두루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면서 쌀과 베를 거두어 그 비용으로 삼았는데, 이를 호기라고 하였다." (辛丑 燃燈, 觀呼旗戱於殿庭, 賜布. 國俗以**四月八日**, **是釋伽生日**, **家家燃燈**, 前期數旬, 群童剪紙注竿爲旗, 周呼城中街里, 求米布, 爲其費, 謂之呼旗.)

<『高麗史』, 世家 卷第四十, 恭愍王 13年>

⑤ "백선연이 일찍이 왕의 나이에 맞추어 동불(銅佛) 40구를 주조하고 관음도(觀音圖) 40점을 그린 다음, **4월 초파일[佛生日]에 별원(別院)에서 점등하고** 복이 내리기를 기원하였는데, 왕이 밤을 틈타 평상복을 입고 가서 이를 관람하였다." (善淵嘗准王行年, 鑄銅佛四十, 畵觀音四十, 以**佛生日**, **點燈祝釐於別院**, 王乘夜微行, 觀之.)

<『高麗史』, 列傳 卷第三十五, 宦者, 白善淵>

⑥ “<공민왕(恭愍王)> 15년 신돈(辛旽)이 **4월 8일이라 하여 자기 집에서 크게 연등회(燃燈會)를 열자** 개경[京城]에서 다투어 그를 본받았으며, 가난한 집에서는 구걸해서라도 마련을 하였다. ” (十五年, **旽以四月八日, 大燃燈于其第,** 京城爭效之, 貧戶至乞丐以辦.)

<『高麗史』, 列傳 卷第四十五, 叛逆, 辛旽>

①번은 1245년(고종 32)의 기록으로 초파일에 연등회를 개최하였음을 볼 때 당시 초파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②번은 1271년(원종 12)의 기록인데, 관등하는 풍속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다. ①번과 ②번을 보면 적어도 “원 간섭기 이전에 고려에는 초파일 연등 풍속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③번(1351년)과 ④번(1364년)의 기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인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몇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하나는 ④번의 기록으로, 초파일 연등을 할 때는 다양한 놀이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호기(呼旗) 놀이”는 민간에서 행해지던 놀이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초파일 연등이 장엄하고 엄숙한 행사라기보다는 보고, 즐기는 잔치의 성격을 지닌 행사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③번의 기록으로, 초파일 행사가 국가의 공식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다음의 기록을 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⑦ 연등회(燃燈會)가 열렸으므로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갔다. (燃燈, 王如奉恩寺.)

<『高麗史』, 世家 卷第三十八, 恭愍王 元年 二月>

③번의 기록과 같은 시기인 공민왕 원년(1351년)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2월에 국가 의례로서의 연등회가 봉은사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③번의 기록에서 보이듯이 사월 초파일 연등이 대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보면 초파일 연등은 구가의 공식행사라기보다는 왕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열고 있는 행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화산잡희(火山雜戱)와 기생들의 연주가 동반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초파일 연등 행사가 ①번 최이, ⑤번 백선연, ⑥번 신돈이 행한 연등이다. 이 연등 행사는 모두 국가의 공식행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고려 시대 초파일 연등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려 시대에는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 것을 알고 있었고, 이날 연등뿐만 아니라 각종 연희나 놀이가 개인 혹은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신라나 고려 시대에 정월이나 이월에 행해졌던 연등회는 반드시 왕이 주재하는 행사로 전래의 등놀이나 불꽃놀이, 불교의 등공양 등이 혼합된 국가적 세시풍속이었다.[12] 그러던 것이 무인 정권기나 공민왕 대에 와서 초파일에도 연등을 행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고는 하지만, 다분히 개인 행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행사에는 각종 놀이가 더해져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잔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고려 시대 초파일 행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불교 의례적 성격과 함께 민간에서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었던 연등 행사의 성격이 더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민간 잔치로 정착, 조선 초파일 연등

조선 시대에도 초파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⑧ "본조(本朝)의 풍속에 **4월 초파일을 부처의 생신(生辰)이라 하여** 연등(燃燈)으로 복을 구하며, 남녀들이 떼지어서 모여 밤새도록 놀이를 구경하니, 이는 진실로 전조(前朝)의 폐습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本朝之俗, 以**四月初八日, 爲佛生辰,** 燃燈徼福, 男女群聚, 終夜觀戱, 此誠因循前朝之弊習也.)

<『世宗實錄』 十年 三月 二十二日 甲辰>

12) 진철승(2002), 앞의 논문, 239~240쪽.

⑨ "**4월 8일에 등불을 켜게 된 것은 부처의 생일인 때문**이니 불가(佛家)에서 욕불일(浴佛日)이라 한다." (**四月八日揭燈者 以佛生辰也** 釋家 號浴佛日也)

<'燈夕燃燈辨證設',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風俗>

⑩ "**초파일에 금인(金人)을 씻기는 의식은** 불법(佛法)과 함께 생겨난 것이요, 도성 거리에서 **옥충(玉蟲)을 밝히는 행사는 마음을 서로 전하는 전등(傳燈)을 비유한 것이다.**" (**八日洗金** 人與佛法而俱生 九街燃玉 **蟲比傳燈之相印**)

<'對名節策', 『孤山遺稿』, 策>

즉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등불을 켜거나 금불상을 씻기는 의례를 행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에서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다.

⑪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4월 초파일에 등불을 밝혀**, 중국의 풍습과는 다르나, 이것 또한 불교의 풍속이다. 혹은 '석가(釋迦)가 이날 그 어머니의 오른편 겨드랑이에서 나왔다.' 하고, 혹은 '석가가 이날 밤중에 성을 넘어 설산(雪山)에 들어가서 도를 닦았다.' 하고, 혹은 '설산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음식을 폐하고 도를 닦았는데 이날에 이르러 도를 이루었다.' 하여, 세 가지 말이 각각 다르다. ≪고승전(高僧傳)≫에는 '이날 다섯 가지 빛깔의 향수를 부처의 이마에 뿌리는데, 이를 욕불(浴佛)이라 한다.' 하였고, **연등이란 명목은 없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15년에 신돈(辛旽)이 4월 초파일 그의 집에서 성대하게 등불을 밝히자 송도(松都) 사람들이 다투어 이를 본받았으며,** 가난한 자들은 비럭질해서까지 이것을 마련했다고 하였으니, 이 본받았다고 한 것으로 옛풍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이 일로 인하여 풍습이 되어 다시 고쳐지지 않은 것이리라." (我國必以四月八日燃燈與中國異盖亦佛俗也 或云佛以是日自母右脇而生 或云以是日夜半逾城徃雪山入道 或云在雪山六年思道不食至是日乃成 三說不同也 高僧傳是日以五色香水灌佛頂謂之浴佛而**未有燃燈之名 高麗恭愍王十五年辛旽以四月八日大燃燈于 其第京城爭效之貧手至** 乞丐以辦謂之效之則非舊俗 可知必是因此為習而不復改也歟)

<'上元燃燈', 『星湖僿說』 人事門>

위의 내용을 보면 초파일의 성격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즉, 초파일은 '석가가 태어난 것으로 인식되는 날'인데, '다섯 가지 향수를 부처의 이마에 뿌리는(부처를 씻기는) 날'이지 '연등'을 하는 날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등의 풍속이 고려말 신돈(辛旽, ~1371)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는 ⑥번 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삼아 초파일 연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신돈에 의해 초파일 연등 행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조선 시대 초기 초파일 연등에 대한 당시의 상황은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⑫ "이번 **4월 초파일의 연등(燃燈)은 금년 상원일(上元日)의 예**에 의하라고 명하였다." (命今**四月八日燃燈, 依今年上元日例.**)

<『太宗實錄』 十二年 四月 三日 丁巳>

⑬ "**4월 8일의 연등(燃燈)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命除四月八日燃燈**.)

<『太宗實錄』 十五年 一月 二十五日 甲子>

⑭ "'본조(本朝)의 풍속에 4월 초파일을 부처의 탄생일이라고 하여 연등(燃燈)과 관등놀이[觀戱]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요즈음 간원(諫院)에서 폐를 말하고 파(罷)하기를 청하였다. 네 생각에 오래된 습속을 갑자기 쉽사리 고칠 수 없으나 오직 이 습관만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절[僧舍] 이외에서의 중외(中外) 연등(燃燈)은 일체 금하라.'"** (本朝風俗, 以**四月八日爲佛生辰, 燃燈觀戱, 行之已久.** 頃者, 諫院陳弊請罷, 予以習俗之久, 未易遽革, 重惟此習, 不可不革, 自今僧舍外, 中外燃燈一禁.)

<『世宗實錄』 十三年 四月 六日 庚子>

⑮ "임금이 한성부(漢城府)에 전교하기를,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집집마다 연등(燃燈)놀이에 화재(火災)가 날까 두렵다.** 금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傳于漢城府曰 今日風亂, **而家家燃燈, 火災可畏.** 其禁之.)

<『成宗實錄』 六年 四月 八日 丙戌>

⑫번의 기록을 보면 당시 궁궐 내에서도 초파일 연등을 행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그해 상원 연등의 예에 의하여 진행하라고 한다. 당시 상원 연등은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에서 각각 종이 등(燈) 5백 개를 바치고, 또 용봉(龍鳳)·호표(虎豹)의 모양으로 섞어서 만든 것이 또한 많았던"[13] 행사였다. 이에 준하여 초파일 연등을 준비하라 하였으니 그 규모와 화려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3년 뒤인 태종 12년(1412년)에 초파일 연등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다. 앞서 이미 상원 연등도 혁파하였다.[14] 그렇지만 초파일 연등은 바로 없어지지 못한 모양이다. ⑭번은 세종 13년(1431년)의 기록이다. 지속해서 '초파일에 연등과 관등이 행해졌다'라는 것과 '초파일 연등 또다시 금지' 시킨 당시의 상황을 동시에 보여준다. 즉, 민간의 연등을 금하기 시작하여 차차 절에서 행하는 연등도 금지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태종이 초파일 연등을 없애라고 했지만, 그 명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반증(反證)이다. 이 기록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초파일 연등이 절과 민간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조선 초에는 초파일에 절에서도 연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초파일 연등을 없애려고 했던 세종의 노력도 허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⑮번은 성종 6년(1475년)의 기록인데, 이미 초파일 연등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금지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집집이 행하는 연등을 화재의 위험 때문에 금하라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로 초파일 연등을 규제하지는 않는 모양새이다.

이후 초파일 연등 행사는 온전히 민간의 풍속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⑯ "**오늘 저녁은 연등(燃燈)하는 밤이다. 도민(都民)들은 부자 형제가 서로 이끌**

13) "內贍寺各進紙燈五百, 又雜以龍鳳虎豹之狀者亦多." 〈『太宗實錄』 十二年 一月 十五日 庚子〉

14) "상원일 연등을 혁파하였다(罷上元日燃燈)." 〈『太宗實錄』 十五年 一月 十八日 丁巳〉

면서 관등(觀燈)하련만 나만 혼자니, 이 무슨 팔자인가?" (**今夕乃燈夕也. 都民父子兄弟, 相携觀燈,** 而予獨無之, 此何人斯?)

<『英祖實錄』 四十九年 四月 八日 丙申>

영조가 약방에서 진찰하던 도제조(都提調)에게 한 말이다. '초파일은 연등을 하는 날인데, 이날 도성 안에 사는 백성들은 부자 형제가 어우러져 서로 관등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정도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가 되면 초파일 연등 풍속이 온전히 백성들의 민속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절에서 이루어진 초파일 행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⑰ "서역에서 성인이 났다고 누가 말했던고 / 드디어 조선 땅에 불야성을 만들어내누나 / 새벽까지 목어는 연염을 돌며 춤추고 / 하늘 가득한 별들은 채붕에 얽혀 밝아라 / **승려들은 다투어 향당의 물을 끼쳐주고** / 대궐 음악은 멀리 법부소리가 들려오네 / 나는 크게 야윈 몸으로 시나 읊고 앉아서 / 남녀들 따라 닭 울도록 못 노는 게 부끄럽네." (極西誰道聖人生. 幻做鯷岑不夜城. 徹曙魚環蓮焰舞. 滿天星繞彩棚明. **禪寮競遺香糖水**. 御樂遙聞法部聲. 自愧吟詩仍大瘦. 未隨釵髻到鷄鳴.)

<'四月八日夜與兼善登南山脚觀燈時兩宮與世子在圓覺寺作法事', 『佔畢齋集』>

⑱ "여러 **사찰에서는 모두 욕불회(浴佛會)를 한다.** 이날 밤에 크게 등을 밝히는데, 초하루부터 7일까지 **집집마다 등간(燈竿)을 세운다.**" (諸梵宮 **皆作浴佛會** 是夜大張燈 自初一二三四五六七日 **家家入燈竿**)

<『秋齋集』 四月初八日>

⑰번 기록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지은 시로 '4월 8일 밤에 겸선 홍귀달(洪貴達, 1438~1504)과 함께 남산 기슭에 올라 관등을 하였는데, 이때 양궁과 세자가 원각사에서 법사를 열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 시는 세조 13년(1467)에 '원각사(圓覺寺)의 탑(塔)이 이루어지니, 연등회(燃燈會)를

베풀어서 낙성하였다.'[15]라는 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승려들은 다투어 향당의 물을 끼쳐주고(禪寮競遺香糖水)'라는 부분이 눈에 띈다. 즉, 욕불회(浴佛會)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⑭번의 기록과 함께 보면 조선 초기 사찰의 초파일 행사는 연등과 관불 의식이 함께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⑱번 기록은 조선 후기의 여항시인이자 서예가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기록한 '4월 초파일'의 모습이다. 이 기록에서도 사찰의 욕불회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집집마다 등간을 세우는 당시의 민간의 풍속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사찰에서 행하는 초파일 관불 행사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연등 행사도 7일 동안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민간에서 행한 초파일 연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⑲ "우리나라의 풍속에 이날을 **석가(釋迦)의 탄신일이라 하여 집집마다 등(燈)을 켜 놓는다. 장대를 많이 세우고 수십 개의 등을 연달아 달며, 등(燈)으로 새나 짐승, 물고기나 용(龍)의 형상을 만들어 대단히 호화롭게 하기에 힘썼으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다.**" (國俗以是日爲**釋迦生日, 家家張燈. 多樹長杠, 連綴數十燈, 至爲鳥獸魚龍之狀, 務極侈巧, 觀者塡集.**)

<『成宗實錄』 六年 四月 八日 丙戌>

⑳ "등석(燈夕) 며칠 전에 선비나 서민들의 집에서는 **대나무를 묶어 등걸이를 만들어 세우고**, 가게에서 세우는 등걸이는 가장 높이 세우려고 힘쓴다. 등불은 시장이나 거리에서 파는데 대부분 수박이나 마늘 모양이다. 혹 특별히 만들어 비싼 값에 팔거나 기이함을 자랑하는 것도 있다." (燈夕前數日 士庶之家 **各束棚竹竪之** 列廛之棚 務勝最高 燈則街市所賣 太半是西瓜蒜子形 惑有刱出別製 重價衒奇者)

<『勉菴集』 浴佛>[16]

---

15) '圓覺寺塔成, 設燃燈會以落之.' 〈『世祖實錄』, 十三年 四月 八日〉

16) 조운종(趙雲從, 1783~1820)의 시문집.

㉑ “무릇 **매다는 등불은 각각 그 집안의 남녀 어린아이들 수와 같다. 등불의 색이 밝거나 어두운 모습을 보고 남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는데,** 등불이 밝으면 온 집안이 기뻐하고 등불이 어두우면 부인들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없는 일이다.” (**凡懸燈 各以其家童男女數 觀燈色名暗卜男女吉凶** 登明則擧家歡然 暗則婦人歎息或泣下 而竟無驗也)

<『漢陽歲時記』 燈夕>[17]

㉒ 아이들은 각각 등간 아래에 석남(石楠) 잎을 넣은 **시루떡, 삶은 검은콩, 삶은 미나리를 차려놓고**,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소식(素食)한다.’라고 하며 손님을 맞아 논다. 또 물동이에 **표주박을 띄워 놓고 빗자루로 두드려 순수한 소리를 내는 것을 수부희(水缶戱, 물장구놀이)라고 한다.** (兒童各於燈竿下, **設石楠葉甑餠蒸黑豆烹芹菜**, 云是佛辰茹素, 廷客而樂. 又**泛瓢於盆水, 用帚柄叩而爲眞率之音, 謂之水缶戱.**)

<『東國歲時記』 四月 八日>[18]

㉓ “녹음방초 우거질 때 팔일장 해 입으니 / 푸릇푸릇 누인 모시 참으로 아름답네 / 머리 깎은 어린아이 색동옷 차려입으니 / 불가에는 아이 안아 보내는 일 많다네.” (八日裝成芳草時 淸淸練苧威蕤剃來髫髮衣斑綵 釋氏元多抱送兒)

<『歲時風謠』 四月八日>[19]

㉔ “이날 밤은 관례에 따라 **야간통금이 해제된다**. 등 구경을 나온 사람들은 남산이나 북악산 같은 남쪽과 북쪽의 언덕에 올라가거나 혹은 퉁소와 북을 들고 시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是夕, 例**弛夜禁**, 觀燈者遍於南北麓, 或携簫皷, 沿街縱觀.)

<『京都雜誌』 四月初八日>[20]

초파일 세시에 관한 기록은 많은데, 그중에서 살펴본 몇 가지 예이다. 이날

17) 권용정(權用正, 1801~1861)의 세시기.
18) 홍석모(洪錫謨, 1781~1857)의 세시기.
19) 유만공(柳晩恭, 1793~1869)의 세시풍속 관련 한시.
20) 권용정(權用正, 1748~1807)의 세시기.

은 다양한 모양의 등을 달아 많은 사람이 함께 이를 즐기는 잔칫날이었다. 불을 밝혀 길흉을 점치기도 하고, 시절 음식을 해 먹기도 하며, 물장구 놀이판도 벌어진다. 또한 새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며,[21] 심지어 야간통행도 해제가 된다. 말 그대로 잔칫날이다. 조선조에 들어와 상원 연등은 공식적으로 혁파되었지만, 사월 초파일 연등은 온전히 민간의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16세기 중반 이래로 사대부들이 중앙 권력과 향촌 권력을 장악하고 주자학적 예제를 바탕으로 교화를 펼친 이후 불교는 더는 위협 세력이 아니었다.[22] 그래서 초파일 연등은 유교적 예제와 충돌할 소지가 적었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잔칫날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Ⅲ. 현대 초파일 행사와 그 변화

1. 현대 초파일 행사 사례

초파일 세시 행사는 현대에 들어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이는 다음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23]

---

21) "4월 초파일에 입는 옷을 '팔일장'이라고 한다. 초여름에 입는 옷을 '세초'라고 하는데, 당시에 그 옷을 사치스럽게 여겼다(八日新衣曰 八日裝 夏初衣稱細草 時侈服)." 〈『歲時風謠』 四月八日〉

22) 진철승(2002), 앞의 논문, 242쪽.

23)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펴낸 전국 도별 세시풍속 조사보고서 9권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전국적인 분포도를 보이는 세시풍속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시군 단위로 3개의 마을(경우에 따라 2곳을 조사한 곳도 있음)을 선정해 조사하였다. 조사보고서는 경기도 세시풍속(2001), 강원도 세시풍속(2001), 충청북도 세시풍속(2001), 제주도 세시풍속(2001), 충청남도 세시풍속(2002), 경상남도 세시풍속(2002), 경상북도 세시풍속(2002), 전라남도 세시풍속(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2003)이다.

〈지역별 초파일 세시 행사〉

지역	절에 가기(연등 및 불공 등)	초파일 행사
강원도	54개 마을 중 29개 마을	산치성 드리기, 당제사, 두더지 쫓기, 칠성 고사, 마마단지에 떡 해놓기
경기도	82개 마을 중 64개 마을	서당현등, 손돌바람, 그네뛰기, 느티나무풍흉점, 난장, 성묘, 고사
경상남도	66개 마을 중 65개 마을	촛불띄워보내기, 찔레꽃떡해먹기, 회치, 화전놀이
경상북도	71개 마을 중 68개 마을	일꾼 놀기, 그네뛰기, 시준단지 갈아주기, 산신당, 마을잔치, 낙화달기
전라남도	66개 마을 중 66개 마을	서당현등, 날씨점치기, 술맥이, 메밀묵 먹기, 불꽃놀이, 경로잔치, 낙화놀이, 화전놀이, 수양엄마 찾아가기
전라북도	42개 마을 중 39개 마을	불꽃놀이, 춘향제 구경가기, 화전놀이, 하루 쉬기, 천렵, 산기도
제주도	12개 마을 중 11개 마을	머리 깎아주기, 서당현등, 보리쌈장 먹기, 날씨 점치기
충청남도	45개 마을 중 34개 마을	낙화놀이, 화전놀이, 동네잔치, 떡빚기, 초파일 날씨보기, 장광위하기, 시루찌기, 서낭제 지내기
충청북도	33개 마을 중 27개 마을	부녀회 야유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초파일에는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초파일에는 절을 찾아가 연등 및 탑돌이 등을 행한다. 1975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로 인해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절을 찾아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 많다. 절에서는 이날 받은 시줏돈으로 일 년을 지낸다고 할 정도이다. 관련 사례 몇 가지를 예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초파일은 절에 다니는 불교 신도들에게는 큰 명절이다. 마을에서는 가까이 있는 절을 주로 찾는다. 초파일에는 신도가 아니더라도 절 구경을 하러도 많이

간다. (강원도 원주시 본동)

○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초파일이 돌아오면 절에 가서 연등을 달고 불공을 드리며 탑돌이를 한다. (경기도 광명시 작은말)

○ 초파일에 용왕공을 드리는 사람들도 많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방생을 하게 되면 식구들 운수가 좋아진다고 여긴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남생이 등을 놓아주고 온다. (전남 목포시 부주두마을)

○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연등을 단다. 예전에는 초파일 저녁에 집안과 마을에 등을 달았지만 지금은 불교를 믿는 신자들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뿐이다. (경기도 화성시 검정골마을)

○ 절에 갈 형편이 못되면 등을 사다가 집에 매달아 두기도 한다. 집에 등을 달 경우에는 저녁때 가족의 이름을 쓴 등을 대문 앞에 달아 둔다. 이 불을 밤새도록 켜두면 열두 달 앞날이 밝다고 한다. (충남 부여군 서원마을)

초파일에는 자신이 사는 동네와 인접한 절 혹은 자신이 주로 다니는 절에 가서 시주하고, 연등을 하며, 탑돌이나 방생 등의 행사에 참여한다. 절에 가기 힘든 사람은 집에 연등을 켜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전에는 마을이나 집에 연등을 하였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민간의 초파일 연등은 사라지고 사찰의 연등 행사로 집중되어가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날 사찰에 갈 때는 몇 가지 금기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해 식구들의 운수를 점칠 겸 식구 수 대로 연등을 밝히기도 한다. 연등이 잘 타오르면 그해 운수가 좋은 것이고, 잘 타지 않으면 그해에는 조심해야 한다. (전남 여수시 가는개마을)

○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액막이가 필요한 사람은 탑을 왼편으로 돌고 길한 일이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도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 (경남 경산시 곡란리)

○ 이 날 세 군데 절에 다녀오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윤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경남 포항시 용주리마을)

○ 법당에 가서는 부처님 앞에 절을 하는데, 몇백 번을 해야 부처님이 반 눈이라도 뜬다고 하여 가능하면 절을 많이 한다. (전남 진도군 금갑리)

○ 탑돌이를 하기도 하는데 전하는 말에 '세 번 돌면 3년 만에 죽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돌수록 오래 산다.'라고 하여 탑을 많이 돈다. (경남 군위군 대북1리)

○ 해가 지는 쪽에 있는 절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여, 서쪽에 있는 절은 되도록 가지 않고 해가 뜨는 쪽에 있는 절로 간다. (전남 장성군 생촌리)

○ 큰 산에 들어갈 때(절이나 산에 정성 드리러 갈 때)는 개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는다. (경남 군위군 대북1리)

○ 절에 갈 때는 특별히 조심하는 것은 없지만 비린 것은 먹지 않아야 한다. (전북 익산시 누동마을)

○ 초파일에는 가끔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좋은 길조라고 여긴다. (경남 포항시 소한마을)

절에 갈 때도 나름의 금기 사항이 존재한다. 연등을 통해 운수를 점치기도 하고, 꽃이 피는 자연 현상을 통해 길흉을 보기도 한다. 초파일은 단순히 연등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혹은 식구)을 위해 공을 들이는 날'인 셈이다.

둘째, 초파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인다.

○ 가정마다 산에 산제당을 만들어 놓는다. 산제당은 집으로 지어놓기도 하고, 바위에 제단만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 산제당이 있는 사람들은 산제당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한다. 이 마을에 살다가 외지로 이사를 간 사람도 이날 마을로 와서 산제당에서 치성을 들린다. (강원도 춘천시 밭치리마을)

○ 집에 자식이 귀한 경우 칠성(七星)을 따로 모시는 집도 있다. 집안에 칠성단지

를 보셔 두고 삼월 삼짇날과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날, 중구 일에 고사를 지내기도 한다. (강원도 원주시 개젖마을)

○ 초파일에 마마를 예방하기 위해 방 시렁 위에 조그만 바구니를 준비한다. 평소에 새 옷을 짓다가 자투리 천을 담아 두기도 하고, 곡식을 모아 두었다가 초파일 날 떡을 빚어 위에 얹어 둔다. 그러면 가족이 마마(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인제읍 귀둔1리)

○ 초파일에는 일부 가정에서 촛불을 바가지에 담아 낙동강 물에 띄워 보낸다. 그리고 한 해 소원을 기원한다. (경남 양산시 상리마을)

○ 초파일에 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에서 용왕먹이기를 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가고 풍년이 든다. (경남 창령군 북암마을)

○ 시준단지를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이날 보리쌀을 갈아 넣어준다. 시중단지는 석가세존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용주리마을)

○ 아기들이 복을 받고 명이 길어지라고 머리를 깎아준다. 머리를 깎으면 사악한 것이 없어진다고 믿고 있다. (제주도 제주시 가시나물마을)

○ 초파일 날은 좋은 날이므로, 백무리(백설기)를 쪄서 장광에 둔다. 그 앞에서 터주 소지와 대주 소지를 각각 한 장씩 올린다. (충남 부여군 서원마을)

○ 부처님 오신 날에는 시루를 준비하여 당산(터주)에 시루를 올려놓고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치성을 드린다. 시루를 한다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집안이 좋아지라는 의미이다. (충남 서천군 원산리)

○ 절에 가기 이전에 집에서 먹을 것을 장만해 방이나 장광에 놓고 빌기도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밥이라도 정성껏 한 그릇 지어 올린다. 이날 마련하는 떡은 흰무리이며, 청수 한 그릇과 함께 올리고 절을 한다. (충남 천안시 엄정말)

○ 아이들이 명이 짧거나 수가 나쁘다고 하면 절이나 무당(당골네)에게 아이를 팔아 수양부모로 삼는다. 4월 초파일이나 좋은 날이 되면 쌀이나 돈을 가지고 수양 부모에게 가서 인사를 한다. (전남 화순군 단양마을)

초파일에는 각 가정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초파일이 신성한 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불교적 신성성을 민간의 신성함으로 가져와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날로 삼고 있다.

셋째, 농사와 관련된 풍점(豊占)을 시도한다.

- 초파일 날 고사떡을 해 먹는다. 못자리에 가서 떡을 조금씩 떼어서 논의 네 귀퉁이에 던지며 “모가 성실하게 잘 되어 올 농사 잘되게 해주십사”하고 빈다. (경기도 포천군 유동리)
- 싹이 올라올 때 두더지가 심하게 다니는 곳에 ‘방아고’를 거꾸로 꽂아두면 두더지가 다니지 못해 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원도 원주시 본동)
- 잎이 한꺼번에 피면 비가 한꺼번에 내려 모내기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잎이 한쪽은 피고 한쪽은 피지 않으면 비가 나누어 내려 모내기가 힘들다.
  꼭대기 잎이 먼저 피고 아래쪽이 늦게 피면 물이 귀한 고지대부터 모내기하겠다.
  꼭대기 잎이 늦게 피고 아래쪽이 빨리 피면 물이 흔한 저지대부터 모내기하겠다.
  (경기도 동두천시 동점마을)
- 초파일 날 비가 오면 48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날이 가물 것이라는 속신이 있다. (전남 여수시 원호명마을)
- 초파일에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대풍이 든다. 윤사월은 무관하며 원래의 4월 초파일만을 따진다. (충남 천안시 병천리)
- 4월 초여드렛날 이전에 비가 오면 그해에 가뭄이 든다. (전북 익산시 누동마을)
- 초파일에 날씨가 맑으면 참깨가 잘 된다. (제주도 북제주군 고산리)
- 초파일에 이슬비가 오면 가물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풍부하고, 아예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럭저럭 괜찮다고 여긴다. (충남 연기군 용암마을)

농사 관련 속신은 농사철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보통 음력 4월 초파일은

양력으로 5월에 해당한다. 5월은 볍씨를 파종하고, 못자리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다. 이른 곳에서는 모내기를 시작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파일 무렵에는 농사와 직접 관련 있는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에 풍흉을 가늠해 보는 속신이 행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휴식을 취하며 논다.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날은 하루 쉰다. 따라서 이날은 휴식일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관련된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초파일 무렵이면 못자리를 할 때인데, 일꾼들을 많이 부리는 집에서는 찰떡과 인절미를 손바닥만 하게 빚어서 일꾼들에게 먹인다. 이것을 먹고 농사에 힘쓰라는 것이다. 일꾼들은 주인집에서 이 먹을 받아서 자기 식구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충남 아산시 외암1리)
- 이 마을에서는 초파일에 절에 가지 않고 머슴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풍물을 울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논다. (전북 임실군 두월리)
- 초파일에 누룩과 쌀로 술을 빚고 밥을 해서 머슴들을 위로한다. 이를 술맥이라고 하는데, 술맥이는 절에 구경을 가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과 머슴들을 위로할 겸 행하는 일종의 마을잔치이다. (전남 구례군 하위마을)
- 초파일은 명절로 농군들이 일손을 멈추고 하루를 논다. 특히 머슴들은 휴가를 얻어 냇가에 나가서 천렵하면서 하루를 소일한다. 이곳은 물이 깨끗하며 수질이 좋아 천렵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 장수군 원무농마을)
- 초파일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회치'를 하러 간다. 회치는 마을 사람이 모두 한데 모여 노는 것으로 각자의 나이 또래 혹은 신분별로 모임을 만들어 논다. 예컨대 청년은 청년대로, 처녀는 처녀대로, 머슴은 머슴대로 각자의 모임을 만들어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경남 고성군 덕곡마을)
- 초파일이 '춘향이 생일'이라 하여 광한루에서 그네뛰기를 하고 '춘향제'를 한다. 그래서 이날은 남원으로 춘향제 구경을 간다. (전북 남원시 강석마을)

○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주관으로 경로 행사를 한다. 마을에서 돈을 출연하고 또 학교에서도 부담하여 운동회를 겸해서 노인들을 대접한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않으면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대접한다. 여장하는 사람들이 초파일에 어른들을 대접하라는 뜻에서 기부금을 주로 낸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리)

○ 초파일에는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음식을 장만해서 가까운 산이나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가서 하루를 놀고 온다. (전북 순창군 갑동마을)

○ 초파일에는 부녀회 주최로 야유회가 벌어진다. (충북 충주시 내사동)

○ 초파일에는 그네를 맨다. 동네 청년들이 집집에서 짚을 모아 굵은 줄을 다려서 그네를 매고, 단옷날에는 그네를 끊어 내린다. 그네를 맨 뒤부터 단오까지 마을 여자들을 중심으로 그네뛰기를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삼귀마을)

○ 한문 서당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이 큰 대나무를 양쪽으로 세운다. 각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등을 달고 밤에 그 불을 보면서 씨름 놀이를 한다. 이날 시험을 보고 1등을 한 학동의 집에서 떡을 만들어 온다. (제주도 남제주군 온평리)

○ 초파일에 마을 아이들이 숯가루를 대롱 속에 넣고 불을 댕겨 낙화(落火)놀이를 한다. 대롱에 불을 댕기면 큰 소리를 내고 불꽃이 튀어 오르는 모양이 지금의 불꽃놀이와 같다. (전남 함평군 학교리)

○ 초파일 무렵 문산에 난장(놀이)이 서고 신사 마당에서 신사굿을 한다. 이때 그네, 씨름, 활쏘기, 농악경연대회, 광대 줄타기 등 갖가지 놀이를 크게 한다. 이것은 면 대항으로 하며 상품으로 송아지를 준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2리)

초파일은 일꾼 명절이다. 이는 농사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일꾼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날 음식을 장만하여 일꾼들을 대접한다. 이러한 행위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면 '천렵'이나 '회치' 등의 잔치가 된다. 이 잔치에는 그네타기나 불꽃놀이 구경 분만 아니라 '찔레꽃 떡 해먹기(강원도 고성군 덕곡마을)', '메밀묵 먹기(전남 장성군 유탕리)' 등의 다양한 먹거리도 등장하게 된다. 남원 춘향제[24]가 열렸던 시기에는 춘향제를 보기 위해 광한루를 찾

기도 하는 등 지역의 잔칫날이었다.

이처럼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신성한 의미를 지닌 날이자, 농사일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휴일로 인식됐다. 그래서 이날 절이나 특정 장소를 찾아 개인과 가족의 복을 기원했고, 한해 농사 풍흉을 점쳐보기도 했다. 또한 일꾼들과 마을 주민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고,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2. 현대 민간의 초파일 행사 변화

현대에도 다양한 초파일 세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마을이나 집에 연등을 켰던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현대에 있어 연등은 사찰의 고유 행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개인별로 따로 공을 들이거나 마을잔치를 하는 모습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후기 민간의 잔치로 화려한 연등 행사를 자랑했던 초파일 세시가 사찰의 연등행사와 민간의 행사로 나뉘어 버린 느낌이다. 그럼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제강점기부터 신문 기사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 明進學校에셔 本月十九日(陰初八日)은 卽釋迦世尊降誕ᄒᆞᆫ 慶節日故로 佛敎硏究會員과 敎長以下職員과 學生이 新門外 **奉元寺에出往ᄒᆞ야 慶祝會를 開ᄒᆞ고** 未離도率에 已降王宮이란 問題로 講演ᄒᆞ고 下午七時에 本校에 來ᄒᆞ야 懸燈ᄒᆞᆫ다더라.
>
> <'明校懸燈', ≪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17일, 2면 기사.(밑줄 및 띄어쓰기 필자)>

24) 춘향제는 1931년 시작되었는데, 춘향과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처음 만난 5월 5일 단옷날에 맞추어 지내오다가 1934년 제4회 때부터 단오 무렵 분주한 농번기를 피해 춘향의 생일인 음력 사월 초파일로 바꾸어 지냈다. 이후 1999년 제69회 때부터 개최 시기를 양력으로 고정하여 매년 5월 5일에 행하고 있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춘향제", https://folkency.nfm.go.kr/.

일제강점기 명진학교(明進學校) 교직원과 학생들이 봉원사를 찾아 초파일 행사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1785년(정조 9)은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했다. 이것을 1985년(고종 32) 4월에 해제하였는데, 이후 1899년에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가 창건되었으며, 1906년 원흥사에 불교연구회가 조직되고 나서 만들어진 근대적 불교 교육기관이 명진학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개화기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맞이하면서 사회문화적, 정치적 변동 속에서 변화를 겪었는데, 갑오경장(1892년) 무렵부터는 연등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25] 이런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명진학교 학생들이 초파일 기념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일제강점기에 침체하여 있던 사찰 초파일 행사 재시작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 금일은 음력 ᄉᆞ월팔일이니 셕가셰존(釋迦世尊)이 탄강ᄒᆞ신날이오 더욱금일은 셰존탄강ᄒᆞ신지 뎨ᄉᆞ십구회(第四十九回)되ᄂᆞᆫ 회갑날이라 유ᄅᆡ 죠션풍속에 ᄉᆞ월팔일이라ᄒᆞ면 불교를밋지안이하ᄂᆞᆫ사ᄅᆞᆷ이던지 어린ᄋᆞ히들까지라도 팔일보임이라고 ᄉᆡ옷입고 하로잘노ᄂᆞᆫ날이라. 밤이면각시젼에 모다치ᄉᆡᆨᄒᆞᆫ등을달어 자못장관을일우더니 **금년은 맛참 량암즁이라일반이 근시ᄂᆞ는 뜻으로 졍슉히 지ᄂᆡᄂᆞᆫ바** 셩ᄂᆡ각ᄉᆞ찰의 상황을듯건데 박동각황ᄉᆞ에ᄂᆞᆫ 작년구월경에 인도승려 달마파라(達摩婆羅) 화샹이 셕가셰존의 전신ᄉᆞ리를가지고 죠션에나와 젼국ᄉᆞ찰의ᄃᆞ표되ᄂᆞᆫ **각황ᄉᆞ(覺皇寺)**에 봉안ᄒᆞ얏던바 **이번탄싱을리용ᄒᆞ야 일반교도ᄅᆞᆯ모와성대히탄ᄉᆞᆼ례식을거힝ᄒᆞᆫ다**ᄒᆞ고 …<후략>…
>
> <'諒闇과 4월 8일', ≪每日申報≫ 1914년 5월 2일, 3면 기사. (밑줄 필자)>

침체하여 있던 사찰 초파일 행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인도에서 석가세존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각황사에서 일반교인들을 모아 성대하게 행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민간에서는 정숙한 초파일을 보낼 모양이다. '아이들도 새 옷을 입고 하루 잘 노는 날'이었던 초파

25) 박진태(2012), 앞의 논문, 246쪽.

일이 민간의 행사는 침체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찰의 행사도 사찰이나 불교 포교당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26]

1928년 일본의 문화정책과 불교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찰 불상의 가두 행진이 연행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제등행렬이 불상 행렬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데, 등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 이동하면서 관등(觀燈)하는 방식에서 등을 이동시키며 정지 상태의 사람들에게 관등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났다.[27]

> ㉰ …<전략>… 同日 午前 十時에 奉祝 飛行을 할째에 **青色紅色 花辨百萬枚를 空中에서 撒布하야 全市에 꼿비를 나리여 壯觀을 드리게 하고** …<중략>… 그날 午後六時부터 市內 旭町 京城「호텔」에서 擧行할 官民有志奉祝晩餐會式에도 設備를 莊嚴하게하야 **應接室에 蓮花臺를 裝置하고 灌佛式을 擧行하며 또 또 觀燈五十餘個를 式場안에 配置**하야 奉祝의 氣分이 室內에 사모치게할터이며 또 이날에는 **佛敎各少年團體가 總動하야 旗行列을** 하고 午後 三時 奬忠壇式場에서는 有線放送設置를 하고 式의 光景과 講演等을 **라듸오로 보내여 放送**할터이라더라.
>
> <'釋迦世尊의 降誕 紀念日', ≪每日申報≫ 1928년 5월 26일, 2면 기사. (밑줄 및 띄어쓰기 필자)>

위의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라디오방송까지 현장 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당시 행사의 동기가 종교적인 것만 아니라 경제적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군대식 제등행렬의 풍속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러한 제등행렬이나 관불(灌佛)의 새로운 일본식 풍속은 해방 후 별다른 불생일 행사 전통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던 한국 불교계에서 대표적

---

26) "四月八日 釋迦世尊誕日 노리는 從來에는 府內의 南村 內地人側에서만 年年히 盛大히 擧行하고 北村 朝鮮人側에서는 寺院과 佛敎布敎堂에서 다만 簡單한 式을 지낼 뿐이던 바 今年에는 朝鮮의 在來로 盛히 擧行한 四月八日 觀燈노리의 慣習을 復活식히기로 하고 …〈후략〉…". 〈'八日觀燈노리를 全京城的으로 奉讚', ≪每日申報≫ 1928년 5월 20일, 2면 기사. (띄어쓰기 필자)〉

27) 박진태(2012), 앞의 논문, 260쪽.

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28)]

> ㉱ …<전략>… 이런 모든것이 지금은 한개의 쑴에 지나지안습니다 **약十년전까지도 남어있든것**이 지금은 약간의 등장사가 거리에 나올뿐으로 **민가에선 거의아무것도안하게되엿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사월팔일 역시 즐거운 석존강탄 기념일입니다.
> <'레일이 釋尊降誕祭諒', ≪每日申報≫ 1935년 5월 10일, 9면 기사. (밑줄 필자)>

그러다 보니 1935년경에는 민간의 초파일 풍속은 사라지고 만다. '1925년 경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면 간간이 명맥을 유지해 오던 민간의 초파일 풍속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보여준다. ㉱의 일이 소멸을 앞당긴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 오늘은 음력 四월 "파일"입니다 이날은 "석가모니"의 탄생한 날이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나의 명절이 되어 이날이 되면 으려이 꼿등을 만들어 걸기도 하고 부처에게 현등(獻燈)을 하기도 합니다 …<중략>… **嶺南에 있어서도 이날은 절간(寺찰)을 차저** 부녀자가 모혀드는 풍습이 이읍니다. …<후략>….
> <'오늘은 婦女子의 名節', ≪釜山新聞≫ 1948년 5월 16일, 2면 기사. (밑줄 필자)>

그러다가 1948년이 되면 사찰에 가서 연등을 하는 행사가 민간의 초파일 행사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민간에서 잔치로 했던 초파일 연등은 사찰 연등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민간의 잔치였던 초파일 풍속이 하루아침에 사찰의 풍속으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루 쉬는 날(명절)'이라는 관념이 여전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잔칫날을 만들어냈다.

---

28) 진철승(2002), 앞의 논문, 246쪽.

㉮ 지난 二十六일 하오한시 초파일놀이를 갔던 처녀 二十五명중 十九명이 익사했다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鎭川郡草坪面畵山里)에있는 충미(忠美)저수지에서의 배전복사건의 진상을 예의조사중이던 충청북도 경찰국으로부터 二十八일 치안당국에 추가보고된바에 위하면 익사한 처녀의수는 그후 추가되어 三十二명으로 판명되었더고 한다. …<중략>… 이날 놀이를 나갔던 인원은 뱃사공등 四十명으로 결국 생존자는 불과八명이라고 한다.

<'초파일 놀이 慘事 犧牲者數增加', ≪朝鮮日報≫
1958년 5월 29일, 3면 기사. (밑줄 필자)>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1950년대에 초파일이 사찰에 연등 하는 날이라는 관념 외에 '하루 쉬는 날'이라는 관념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초파일에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 배를 타고 놀다가 생긴 사건이다. 그런데 이 놀이에 참여한 사람이 40명이다. 그 참여 숫자를 보았을 때 마을의 또래 집단이 주도한 초파일 놀이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찰의 연등을 대신해 초파일 민간 놀이가 행해졌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에 들어와 행해졌던 초파일 행사에 대해 나름 이해할 수 있다. 즉 사찰 연등 행사와 민간의 행사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민간의 잔치였던 초파일 연등은 일제강점기 이후 사찰 연등 행사에 흡수되었으며, 자연스레 민간 행사는 침체하였다. 그렇지만 초파일이 휴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민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찰 외에 곳에 가서 공을 들이거나, 마을의 잔치를 만드는 등 잔치라는 초파일의 원래 의미를 찾아 나름대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Ⅳ. 나오는 말

농사력이 아닌 칠일력(七日曆)으로 움직이는 현대 사회에서 초파일 세시 행사는 사찰과 민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개신교, 천주교 신자가 상당한 현시점에서 민간 전체가 참여했던 초파일 연등 세시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이다. 그렇지만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 초파일 연등은 여럿이 참여하는 민간의 잔치가 될 수도 있고, 불자만 즐기는 그들만의 축제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다음의 이야기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긴다.

>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해남 대흥사에서 사월 초파일이면 언제든지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인자 대흥사에 사람이 와 갔는데 지금 현재 유물 서산대사 유물 보관한 거가 운동장이었어 큰 운동장. 거기에서 임방울이죠. 임방울 선생님이 와서 큰 차일을 쳐놓고 판소리를 했어요. 그걸 몰랐는디 판소리 소리가 나서 거글 갔어요. 전부 어른들만 있는 디 13살 묵은 놈이 가서 하루 종일 다른 디서 안 놀고 판소리를 하루 종일 들었어요. …<중략>… 그 이듬해 4학년 때 다시 거그를 갔어요. 여전히 그 장소에서 소리를 해요. 그 보고 있는디 고수가 북치는 것이 그렇게 또 좋게 보여요. 서로 이제 맞아가면서 추임새 하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 저 북을 배워야 쓰것다'."
>
> <제보자 : 감남종(甘南淙)>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 이산(二山) 감남종(甘南淙, 1931～)의 인터뷰 내용이다.[29] 감남종이 판소리 고법을 배우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대흥사에서 개최되었다는 '초파일의 임방울 판소리 공연' 부분이다. 비록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1944년과 1945년에만 이루어진 공연이었지만, 초파일 지역 잔치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공연 장소가 대흥사였다는 점은 더욱 흥미롭다. 초파일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장소가 공연장으로 이용된 셈이다. 사찰이 초파일 하루를 지역민을 위해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사찰에도 그 역할에 대해 되

29) 감남종(남, 1931년 해남 출생, 김명환, 고명진 고수에게 사사 받았음. 1984년 제4회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장원 수상, 현재 광주광역시 판소리고법 예능보유자)〈면담 일시 : 2021년 10월 8일, 장소 : 자택)〉

묻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파일에 사찰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례가 눈에 띈다.

> "4월 초파일 저녁에 동네에서 낙화를 만들어서 물 위에 달아 놓는다. 낙화가 떨어지면서 물에 비치는 모습이 볼만하다. 낙화는 참숯 가루를 종이에 싸서 약쑥으로 길게 곤 새끼 안에 넣고 중간에 매듭을 여러 군데 묶어서 만든다. 낙화를 매달아 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면 약쑥이 타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숯가루에도 불이 붙어 밑으로 떨어진다. 숯에 불이 붙으면 하나씩 불꽃이 터지는 모양이 흡사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이 장관을 이룬다. 낙화는 물가에 세워두고 어른들이 한다. 물가에 낙화를 세워두면 위로 불꽃이 터지고는 모습이 물에도 비쳐서 보기 좋다." (경북 칠곡군 매원2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파일 연등은 비단 깃발을 매달거나 채색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었다. 종이쪽을 수십 발 이어 붙여 날렸으며, 광주리를 매달기도 하고, 허수아비에 옷을 입혀 줄에 붙들어 매어 놀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낙화놀이도 즐겼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던 셈이다.

- ○ 초파일에는 그네를 맨다. 동네 청년들이 집집에서 짚을 모아 굵은 줄을 다려서 그네를 매고, 단옷날에는 그네를 끊어 내린다. 그네를 맨 뒤부터 단오까지 마을 여자들을 중심으로 그네뛰기를 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삼귀마을)
- ○ 절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절에서는 식사를 대접한다. 주로 취나물, 고사리 등 나물로 반찬을 해서 식사를 한다. (전남 목포시 다순구미마을)
- ○ 절에서는 이 날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므로 밥과 떡.단술(감주) 등을 준비하여 신도들을 대접한다. (경남 김해시 마사1구)
- ○ 초파일 점심 식사는 절에서 한다. 자신이 스스로 밥상을 차려서 먹고 오는데 미역과 지짐을 반찬으로 해서 절밥을 얻어먹고 온다. (경남 통영시 원항마을)

놀거리와 다양한 먹거리도 있다. 민간에서는 초파일부터 단오까지 그네를 매어 타고 놀았다. 초파일이 그네 놀이의 시작일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아울러 이날 절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절을 찾은 사람에게 나눠준다. 놀거리와 먹걸이가 함께하면 잔치 준비는 끝난 셈이다.

'부처님 오신 날'인 사월 초파일은 고려 시대부터 민간의 잔치로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절에서는 욕불 의식과 연등이 이루어졌고, 민간에서는 연등과 함께 다양한 놀이가 행해졌다. 일제강점기에 사찰 중심의 제등행렬이 시작되면서 민간의 연등 행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휴식일로서 초파일의 성격은 사라지지 않고 마을 축제나 개인 치성 등의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사찰에서 놀이판을 제공하고, 아울러 다양한 볼거리나 먹을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해 불자분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초파일 잔치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佔畢齋集』.
『五洲衍文長箋散稿』.
『星湖僿說』.
『秋齋集』.
『勉菴集』.
『漢陽歲時記』.
『東國歲時記』.
『孤山遺稿』.
『歲時風謠』.
『京都雜誌』.
국립문화재연구소(2001),『도별 세시풍속 조사보고서』.
_____(2002),『도별 세시풍속 조사보고서』.
_____(2003),『도별 세시풍속 조사보고서』.

지춘상 외(1998),『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표인주(2010),『남도민속학』, 전남대학교 출판부, 56쪽.
김혜숙(2020),「일제강점기 개성(開城)의 사월초파일 풍속과 개성상인의 활동」,『역사민속학』 제5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DOI : 10.22792/jkhf.2020..59.002
나경수(2018),「대표적인 세시절식(歲時節食)의 주술적 의미」,『한국민속학』 제67집, 한국민속학회, 88쪽.
DOI : 10.21318/TKF.2018.5.67.85
박진태(2012),「한국 연등회의 지속과 변화 양상 -의미와 형태를 중심으로-」,『공연문화연구』 제24집, 한국공연문화학회.
UCI : G704-001521.2012..24.004

전경욱(2008),「연등회의 전통과 현대축제화의 방안」,『남도민속연구』제17집, 남도민속학회.
UCI : G704-002035.2008..17.006
진철승(2002),「사월초파일의 민속화 과정 연구」,『역사민속학』제15집, 역사민속학회, 232쪽.
UCI : G704-000849.2002.15..00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s://newslibrary.naver.c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빅카인즈 고신문아카이브(https://www.kinds.or.kr/v2/news/oldNews.do)
한국민속대백과사전(https://folkency.nfm.go.kr/)

투고일자: 2021. 11. 26. **심사일자:** 2021. 12. 7.～2021. 12. 13. **게재확정일자:** 2021. 12. 13.

| 국문초록 |

초파일 세시 행사의 성격 변화 고찰

세시풍속은 관례적으로 행해 오는 전승적 행사다. 세시풍속은 우리 민족에 의하여 발생하고 전승되어 오는 고유의 것도 많이 있지만,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전래한 것도 있다. 사월 초파일도 고려말부터 민속화 된 세기 절기이다.

음력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고려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이날이 기념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상원 연등은 사라졌지만, 사월 초파일 연등은 지속되었다. 사찰에서는 욕불 의식과 연등이 이루어졌고, 민간에서는 연등과 함께 다양한 놀이가 행해졌다.

일제강점기에 사찰 중심의 제등행렬이 시작되면서 민간의 연등 행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휴식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고 마을 축제나 개인 치성 등의 형태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는 초파일이 신성한 날이라는 관념과 모내기 등 본격적인 벼농사의 시작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어우러져 생성된 것이다.

화려하고 다양했던 민간의 초파일 행사를 되살릴 수는 없겠지만, 사찰에서 놀이판을 제공하고, 아울러 다양한 볼거리나 먹을거리, 놀거리 등을 제공해 불자분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초파일 잔치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세시풍속, 초파일, 연등, 잔치, 민속놀이

호남학 70 : 349～39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신안군·완도군·진도군 홈페이지의 특산물 담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Food Cultur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Island Regions

— Focusing on Discourses Related to Special Products on the websites of Sinan-gun, Wando-gun, and Jindo-gun —

채지선**·전형연***
Chae, Ji-seon·Jeon, Hyeong-yeon

목 차

Ⅰ. 서론
Ⅱ. 섬 지역 음식문화의 이해
Ⅲ.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관련 담화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 Abstract |

Spectacular scenery surrounded by the sea and food culture based on abundant seafood are key elements of island tourism.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food cultur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the regional governments such as Shinan-gun, Wando-gun and Jindo-gun, which have the largest number of islands among the island regions of Jeollanam-do and have a large population of regional resident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official website of regional

* 본 논문은 2020학년도 MNU(국립목포대학교) 육성사업 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문화경영학과 박사, 주저자
*** 국립목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governments and cultural tourism in the three island regions, it is confirmed that the discourses on “special products” are mainly being discussed in food culture communication in the island regions. In addition,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not only the common identity and orientation value of “food culture” in the island regions, but also the identity and orientation value of “food culture” in each reg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image signs and text signs of the “special product” discourses expressed by the region on the homepage.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Sinan-gun, Wando-gun, and Jindo-gun all aim for the values of /excellence/, /environmental/, /functional/ and /information/. Also, in terms of the food culture identity of each region, Shinan-gun aims for “cooked dishes” based on /utility/, /aesthetic/ and /sensibil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Wando-gun is the “natural freshness” based on the /vitality/ and /marine/ of marine products recovered from the sea, and the characteristic of Jindo-gun is the “commercialization of seaweed” based on the /excellence/ and /functionality/ of special produ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sland regions should pursue differentiated brand values related to the food culture of each region, and also considered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depth.

Key words : Island Regions, Food culture, Special Products, Sinan-gun, Wando-gun, Jindo-gun

Ⅰ. 서론

2021년 11월 현재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섬 지역 관련 언론 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은 물론 도, 군, 시 단위 지자체 차원의 섬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2020년 개정된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2021년 10월 8일 전남 목포에 섬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출범시켰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섬의 가치를 제고하고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내 최초의 섬 전문 기

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1)]

한편, 전라남도는 섬 현황 정보 전달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About 전남의 섬' 홈페이지를 전남 섬 현황 정보 포털로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시작했다.[2)]

또한, 전남 신안군의 경우에는 2021년 11월 21일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페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4개국 10명의 관광부처 공무원이 국내 주요 관광지를 답사하고 한국의 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퍼플섬'과 '12사도 순례자의 섬' 등 신안군의 주요 관광지를 이틀간 둘러보고 섬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사례를 배워가는 차원에서 기획되었다. 실제로, 퍼플섬은 호남권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한 관광정책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3)]

이러한 섬 지역에 관한 관심은 바다에 둘러싸인 화려한 풍광과 풍부한 해산물에 기반한 음식문화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재(2020)는 섬관광의 증가는 주5일근무제의 도입 이후 증가한 여가활동과 이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와 연관되어있다고 설명했다.[4)] 즉,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섬의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섬관광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섬관광 활성화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관광 관련 기업의 활동 역시 섬 지역 관광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할

---

1) 「한국섬진흥원 출범은 '섬 발전' 시작점」, 『문화일보』, 2021.11.0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501032911000002, 검색일: 2021.11.17.

2) 「전남의 매력있는 섬 정보, 검색 더 쉬워진다」, 『광주카톨릭평화방송』, 2021.11.10., http://www.kjpbc.com/xboard/view.php?mode=view&number=174503&tbnum=1&PID=0106, 검색일: 2021.11.17.

3) 「'신안 관광 세계 속으로'… 4개국 공무원 벤치마킹 퍼플섬 방문」, 『한국일보』, 2021.1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111120005212?did=DA, 검색일: 2021.11.17.

4) 진영재(2020), 「섬관광연구 분석을 통한 섬관광자원 개발전략 탐색 - 관광체계 관점 분석과 적용」, 『해양관광연구』 13권 1호, 한국해양관광학회, 96~97쪽.

수 있다.

특히, 섬 지역의 음식관광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의 농수축산 특산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5]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 상황 속 음식관광산업 역시 위축되자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지역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발판으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특산물 쇼핑몰의 운영에 전에 없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6]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대도시나 자매결연 도시 직거래 장터 판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통한 특산물 판매가 이뤄졌다면,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이버장터 등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신안군은 2021년 7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신안1004몰'을 개설하여 운영을 시작했다.[7]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왜 각 섬 지역의 활성화에 음식문화의 브랜드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음식문화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의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음식문화란 다른 지역의 음식문화와 견주어 그것의 포지셔닝과 개성을 통하여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랜드적 이해가 가능한 대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8] 채지선·전형연(2019)은 지역의 음식문화브랜드란 생태(자연), 음식의 종류, 맛과 영양, 획득 및 저장 방법, 조리법과 가공법, 식

5) 이웅규·홍인기(2019), 「해양음식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7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95쪽.

6) 「지자체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잘나가네」, 『농민신문』, 2020.10.16.,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27844/view, 검색일: 2021.11.17.

7) 「'천사섬' 신안의 자랑 먹거리 '신안1004몰'서 만난다」, 『국민일보』, 2021.06.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95695&code=61121111&cp=du, 검색일: 2021.11.17.

8) Kapferer, J-N.(2009), *Les Marques Capital de l'entreprise(4ed)*, Paris: Edition d'Organisation, 91쪽.

기 및 조리 도구, 담음새와 차림새, 먹는 방법과 예절, 식습관과 금기, 축제와 세시풍속, 식공간, 위생 그리고, 인간의 가치관, 정서, 생활양식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9)]

본 연구에서는 섬을 많이 보유한 전남의 섬 지역 중에서 보유한 섬의 수가 가장 많은 도서군이며, 지역민의 인구수 역시 가장 많은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10)]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3개 군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구조 분석과 "특산물" 관련 담화의 텍스트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해 3개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볼 것이다. 실제로,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에 특화된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각 지역의 문화브랜드 정체성이 가장 잘 반영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호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이는 각 지역이 홈페이지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음식문화'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파악해보고자 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미지 기호, 텍스트 기호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분석하면서 동위소(isotopie) 개념을 활용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동위소의 개념은 의소(seme) 분석을 통해 분석된 텍스트의 기호들 중에서 하나의 특정한 의미(의소)를 띤 기호를 그와 동질적 기능(의소)의 의미를 갖는 다른 기호 그룹과 더불어 하나의 범주(의미소, sememe)로 편입시키는 개념이다.[11)] 동위소를 파악하는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홈페이지 담화에 내포된 각 지역의 음식문화 정체성과 그 가치 지

9) 채지선·전형연(2019), 「홍보콘텐츠 분석을 통한 지역의 음식문화브랜딩 구성요소 연구 - 전주시, 청두시, 교토시 등 한·중·일 3개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59권, 한국기호학회, 213쪽.

10) About 전남의 섬, https://islands.jeonnam.go.kr/jnia/main.do, 검색일: 2021.11.17.

11) 김기국(2014), 「이미지 텍스트의 읽기교육 방법론: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0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5쪽.

향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섬 지역 음식문화의 이해

1. 섬 지역의 이해

섬이란 "주위가 수역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12]로써 분포 상태에 따라 일본과 같이 여러 개가 길게 줄을 이은 모양의 열도(列島), 크고 작은 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군도(群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을 가리키는 고도(孤島), 그리고 모든 섬을 가리키는 제도(諸島)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생겨난 원인에 따라 침식 등으로 인하여 대륙에서 떨어지거나 해저의 융기에 의해 생긴 섬을 육도(陸島), 그리고 나머지를 해도(海島)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이다. 총 3,348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인도는 472개, 무인도는 2,876개다.[13]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섬이 많은 지자체는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1,004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일명 천사섬으로 불린다.[14] 단일 면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848㎢로 가장 크다.

한편, 강봉룡(2014; 2018)은 섬이 고립성(폐쇄성)과 함께 소통성(개방성)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15] 즉, 섬을 고립 공간으로 간

1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1.08.19.

13) 와이즈포스트(주)(2019), 『섬 발전연구원 설립 유치 방안 수립 최종보고서』, 전라남도청, 10쪽.

14)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섬의 개수는 총 1,025개로 증가함. 출처: https://tour.shinan.go.kr/home/tour/island/page.wscms, 검색일: 2021.11.15.

15) 강봉룡(2014), 「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島嶼文化』 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7~35쪽; (2018), 「HK사업의 성과와 과제－섬의 인

주하는 것은 바다를 위험한 장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섬은 그런 바다에 의해 차단된 '고립 공간'이 되는 것이고, 바다를 사통팔달 열려있는 '바닷길'로 인식하게 되면 섬은 바닷길로 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섬은 '고립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16] 실제로 최근 들어 섬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섬의 개방성 즉, 영토분쟁 해결,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 산업발전,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국제관광의 영구적 고소득 창출 등의 자원[17]으로써 섬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섬은 산업구조의 취약성, 생산 기반의 취약성, 생산의 소규모성 및 경쟁력 미흡, 시장 조건의 불리, 교통시설 상의 수송문제 등[18]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발전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즉, 섬 산업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그나마 섬을 둘러싼 수산자원의 생산과 판매, 섬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섬 관광산업이 섬사람들의 수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섬 산업을 발전시킬 만한 정책적 노력도 생산적 노력도 부족했으며, 더욱이 섬 주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섬을 친환경 농수산물의 공급지, 해양레저의 대상지, 여행의 목적지로만 접근했다는 문제 역시 지적되어 왔다.[19]

섬은 국민이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자 영토이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20] 이에 발맞춰 2019년부

문학: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 『島嶼文化』 5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1~258쪽.

16) 강봉룡(2018), 「HK사업의 성과와 과제－섬의 인문학: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 『島嶼文化』 5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32쪽.

17) 「섬은 나라의 자원이자 국방의 요새다」, 『예향진도신문』, 2019.05.27., http://www.yhji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 검색일: 2021.11.10.

18) 신순호·박성현(2012), 「도서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아마쵸(海女町)의 사례를 중심으로」, 『島嶼文化』 3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75쪽.

19) 김 준(2016), 『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1쪽.

20) 김향자(2020), 『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쪽.

터는 8월 8일을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로 제정하고,[21] 더 나아가 2021년 10월에는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도에 섬 전담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을 개원[22]함으로써 섬문화 연구의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섬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최근의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6차산업'이라는 개념적·정책적·산업적 시도도 눈여겨볼 만하다. 6차 산업이란 1차(유·무형 자원)×2차(제조·가공)×3차(체험·관광·서비스) 즉,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23]의 개념이다. 한채원·홍정표(2016)는 농수산물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을 가공과 특산품 개발 등 2차 산업으로, 유통과 직거래, 도농 교류를 통해 3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주민 고용,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4] 이런 맥락에서 섬은 청정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바탕이 되어 친환경의 우수한 명품 특산물로 재생산되고, 이를 다시 관광 서비스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자연적 생태적 문화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섬 지역의 음식문화를 활용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2. 섬 지역 음식문화 관련 선행 연구

지금까지 섬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역사, 생애사, 민속, 방언, 사회, 인류 등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초연구 차원에서 수행되거나 수산업, 자연 생태, 해양 자

21) 「매년 8월 8일은 '섬의 날'」, 『아시아경제』, 2018.02.2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816064275915, 검색일: 2021.11.04.

22) 「국내 첫 섬 전담기관 '한국섬진흥원' 목포서 공식 개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0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31, 검색일: 2021.11.04.

23) 6차산업, https://www.xn--6-ql4f73k2zh.com:448/home/main.cs, 검색일: 2021.11.17.

24) 한채원·홍정표(2016), 「6차산업의 구성요소와 팜디자인에 관한 연구」, 『산업디자인학연구』 11권 1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2쪽.

원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섬의 생태문화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또한, 관광개발, 지역개발의 대상으로서 섬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자원 개발은 물론 관광레저 차원의 연구들 역시 진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섬 지역의 '음식문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섬 지역의 음식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깨끗하고 안심이 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속성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음식은 단순히 섭생을 통한 생명 연장의 기본 속성을 넘어 자연·인문사회 환경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정신적·물리적 산물로 음식문화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관광레저 등 모든 학제적, 실제적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섬 지역 음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크게 민속학 분야, 관광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민속학 분야는 섬에 전해 내려오는 음식문화에 대한 보존, 계승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학 분야는 섬 지역 음식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우선, 섬 지역 음식문화에 대한 보존 및 계승에 관한 연구는 제주 지역 및 전남 지역 연구를 대표로 들 수 있다. 문순덕(2010)은 제주 여성들의 기억과 직접 체험한 음식문화를 기초로 하여 제주도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25] 강수경 외(2015)는 20가지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제주 음식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구술로 소개하고 있다.[26] 전라남도(2017)는 외래문화의 유입과 젊은이들의 부재로 섬의 토속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뭍의 음식과 차별성이 점차 없어지고 있어 섬 토속음식 문화의 전통 보존을 위해 섬을 대표할만한 고유한 토속음식들을 조사하여 전남 섬 주민들이 먹는 토속음식 40개를 찾아 요리법 등을 채록해 책으로 엮기도 했다.[27] 또한, 섬의 전통과 고유한 생활습관, 자연환경 등 섬 문화를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김준의 연구가 있다.[28]

---

25) 문순덕(2010), 『섬사람들의 음식연구』, 학고방.

26) 강수경 외(2015), 『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음식이야기』, 이야기섬.

27) 「섬 사람들, 그들만이 먹는 특별한 음식을 엿본다」, 『연합뉴스』, 2017.07.31., https://www.yna.co.kr/view/AKR20170731108900054, 검색일: 2021.11.10; 강제윤(2019), 『전라도 섬맛기행』, 21세기북스.

다음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재로써 섬 음식을 활용한 연구이다. 즉, 관광 목적지 선택 속성으로써 음식문화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김준(2008) 등은 섬 관광자원을 크게 경관자원, 문화자원으로 나누는데, 이때 경관자원은 자연경관, 인공경관 등으로, 문화자원은 생활문화, 역사문화 등으로 구분되며, 생활문화자원의 하나로써 음식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29] 이웅규·홍인기(2019)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양음식 관광콘텐츠를 섬 관광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고부가가치의 융복합형 해양음식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화, 섬 관광 패러다임과 관광객 관광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해양음식 관광상품 개발 등이라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30] 김성근·김보성(2021)은 고유성(authenticity)이 있는 음식의 제공은 고객들로 하여금 음식의 가치가 높아 보이게 하고 지역과 공동체의 문화, 장소 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섬 지역의 고유한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섬 음식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섬 관광과 음식의 결합은 섬 지역의 독특한 식재료 특성을 통해 음식의 고유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이미지의 상징적 역할(완도 전복, 흑산도 홍어, 남해 멸치, 독도 새우, 울릉도 오징어 등)을 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31]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 전남 신안 및 울릉도·독도 지역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두갑(2015)은 지역의 고유가치인 문화자산 중에서 수산물 음식

28) 김 준(2013;2015;2018), 『바다맛 기행 1~3』, 자연과생태; 김 준(2016), 『섬: 살이』, 도서출판 가지.

29) 김 준(2008), 「섬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남 도서·연안지역을 중심으로」, 『島嶼文化』 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8쪽; 진영재(2020), 「섬관광연구 분석을 통한 섬관광자원 개발전략 탐색」, 『해양관광연구』 13권 1호, 한국해양관광학회, 100쪽.

30) 이웅규·홍인기(2019), 「해양음식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17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7~135쪽.

31) 김성근·김보성(2021),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33권 1호, 한국도서(섬)학회, 59~78쪽.

문화인 민어를 사례로서 지역브랜드의 가능성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음식문화를 연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즉, 민어를 통한 수산물 브랜드와 목포 개항의 역사자원인 근대문화유산을 결합한 푸드투어리즘을 제시하였다.[32] 이웅규·홍인기·김보성(2019)은 울릉군의 자생 산채와 약초로 사육하는 울릉도산 소고기 울릉약소, 오징어, 홍합, 호박엿 등 울릉군 대표 식재료에 대한 개설, 연원 및 변천, 제조 방법 및 특징, 현황, 만드는 법, 생활민속적 사항 등을 소개하고,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방안으로 음식관광 목적지로서 포지셔닝, 축제 및 박람회 등의 활용을 통한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학교 급식 지원 및 외식창업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33] 김보성·김용완·이웅규(2020)는 울릉도와 독도관광 활성화 및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음식관광자원에 관심을 두고, 울릉도와 독도 지역 식재료인 오징어, 산마늘, 따개비를 음식관광 테마로 선정하고, 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소개하였다.[34]

지금까지의 섬 지역 음식문화 연구는 섬 음식문화의 전래 및 레시피 개발, 섬 지역 생산물 축제 활성화 등 각각의 단편적 요소로 제한하여 연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문화는 식재료, 음식, 레시피, 이벤트 같은 단편적인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없으며, 지역의 문화브랜딩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음식문화브랜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 지역의 활성화에 음식문화의 브랜드적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마련에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섬 지역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32) 고두갑(2015), 「특정수산물에 의한 지역브랜드 전략과 지역 활성화 - 민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 27권 4호, 한국도서학회, 29~58쪽.

33) 이웅규·홍인기·김보성(2019), 「울릉도와 독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연구』 31권 3호, 한국도서(섬)학회, 93~126쪽.

34) 김보성·김용완·이웅규(2020), 「울릉도와 독도의 식재료 활용 음식메뉴 개발」, 『한국도서연구』 32권 4호, 한국도서(섬)학회, 127~146쪽.

Ⅲ.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음식문화커뮤니케이션 관련 담화 분석

홈페이지는 지자체가 홍보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호남의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위해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이 전남의 섬 지역 중에서 보유한 섬의 수가 가장 많은 도서군이며, 지역민의 인구수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2018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섬은 총 3천348개나 되며, 그 중 전남에 한국 전체 섬 수의 55%인 1,844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5] 이 중에서도 신안군은 전체 섬 857개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여수시는 353개, 완도군은 258개, 진도군은 254개, 고흥군은 23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인도의 인구수는 완도군은 47,971명, 신안군은 40,365명, 진도군은 30,715명 순으로 조사되었다.[36]

1. 연구 대상 개요

전남 지역은 광역단위 차원에서 보면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전라남도 신안군[37]은 기초자치 단체 차원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로 신안군은 한반도 최서 남단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1,02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

35) 국립해양수산개발원(2018), 「우리나라 섬 얼마나 많을까요」, 『KMI인포그래픽』 6호, https://www.kmi.re.kr/web/main/main.do?rbsIdx=1

36) About 전남의 섬, https://islands.jeonnam.go.kr/jnia/main.do, 검색일: 2021.11.17.

37)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s://tour.shinan.go.kr/home/tour/island/island_01/page.wscms, 검색일: 2021.11.15.

다. 대표적인 섬으로는 홍도, 흑산도를 들 수 있으며, 유인도 72개와 95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다.

또 하나의 연구 대상인 전라남도 완도군[38]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유인도 55개, 무인도 210개를 포함하는 도서군으로써 우리나라의 6대 섬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완도군은 특히, 839km의 해안선과 갯벌, 명사십리 등을 보유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연구 대상인 전라남도 진도군[39] 역시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진도를 중심으로 유인도 45개, 무인도 209개 등 총 25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군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일반현황

	면적	행정구역	섬
신안군	약 13,308㎢	2읍 12면	유인도 72, 무인도 953
완도군	약 391.8㎢	3읍 9면	유인도 55, 무인도 210
진도군	약 440.11㎢	1읍 6면	유인도 45, 무인도 209

2. 홈페이지 구조 분석

호남의 3개 섬 지역 각각이 어떠한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본 절에서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구조에서 음식문화 관련 정보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각 지역의 홈페이지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38) 완도군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www/introduction/generalstate/wando_introduction, 검색일: 2021.11.15.

39) 진도군 홈페이지, https://www.jindo.go.kr/home/main.cs, 검색일: 2021.11.15.

〈표 2〉 분석 대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신안군	http://www.shinan.go.kr/home/www	http://tour.shinan.go.kr/
완도군	https://www.wando.go.kr/?main=true	https://www.wando.go.kr/tour
진도군	https://www.jindo.go.kr/home/main.cs	https://www.jindo.go.kr/tour/main.cs

1)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구조 분석

3개 지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3개 지역이 어떤 구성요소를 각 지역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개 지역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 구성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메인 메뉴

	1	2	3	4	5	6	7
신안군	신안군 소개	전자 민원 창구	열린 군정	참여 마당	정보 공개	분야별 정보	문화 관광
완도군	참여 민원	군정 정보	생활 복지	산업 경제	완도 소개	정보 공개	
진도군	전자 민원	진도 소개	군정 소식	참여 마당	정보 공개	분야별 정보	

한편, 우리는 위와 같은 3개 군 홈페이지의 음식문화 관련 메뉴 구성이 채지선(2020)의 연구에서 도출한 음식문화브랜드의 8가지 구성요소 즉, 식재료, 음식, 이벤트, 음식공간, 문화시설, 레시피, 홍보, 특산물 중 '특산물' 관련 담화를 핵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40]

실제로, 특산물이란 “어떤 지역의 특별한 산물”[4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 및 지역의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특산물이라는 용어는 “어느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물품”[42]이라는 뜻의 특산품과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특산물과 특산품이라는 개념 모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생산물부터 가공된 가공물 모두를 포함한다. 현재, 각 지역에서 특산물이나 특산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음식 관련 산물은 공예품을 제외하고 크게 1차 생산물인 농, 수, 축산물과 같은 식재료 그 자체와 해당 식재료를 가공하여 제품화한 특산품 등으로 유형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는 특산물의 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4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 섬 지역이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특산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농산물이란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물자, 곡식, 채소, 과일, 달걀, 특용작물 등은 물론 삼류 같은 뿌리류, 산나물류, 감, 밤, 석류 등의 수실류와 버섯류 등의 임산물 역시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수산물은 바다 외에도 강이나 호수 등 물에서 나는 물자를 의미하는데,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조류, 전복 같은 연체동물, 게 등의 절지동물, 성게 등의 극피동물, 해삼 등의 후구동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섬 지역을 고려한다면 수산물보다는 해산물이라는 용어가 더 적확할 수 있다. 한편, 축산물은 포유류(소, 돼지, 염소, 말 등), 가금류(닭, 오리 등)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은 농, 축, 수산물의 특성을 살려 보다 맛있고 먹기 편하게 변형시키거나 저장성을 높인 식료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산가공식품, 축산가공식품, 수산가공식품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된다. 3개 지역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특산물’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43]

---

40) 채지선(2020),『지역브랜딩을 위한 지자체의 음식문화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지역의 음식문화브랜드 모형 구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9쪽.

41)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1.08. 19.

42)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검색일: 2021.08. 19.

43) △: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이라는 독립된 카테고리는 없으나, 특산물 항목에 해당

〈표 4〉 '특산물' 종류별 현황

		농산	수산	축산	임산	가공
전남 신안군	지자체	○	○	-	△	○
	문화관광	○	○	-	△	△
전남 완도군	지자체	○	○	△	-	○
	문화관광	-	-	-	-	-
전남 진도군	지자체	-	-	-	-	○
	문화관광	○	○	-	-	○

즉, 신안군은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모두에서 농산물, 수산물, 그리고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지역의 특산물 브랜드로 간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신안군의 농산물에는 삼류, 산나물류, 수실류와 버섯류 등의 임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완도군의 경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특산물 관련 담화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산물 쇼핑몰로 연계시켜주는 창구의 기능만 할 뿐이다. 반면 완도군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지역의 특산물 브랜드로 간주하면서 특히 해조류를 다른 지역과는 달리 수산물과 해조류를 분리하여 담화를 제공함으로써 '해조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완도군이 가공식품 장르 구성에 흑염소 즉, 축산물을 토대로 흑염소 제품을 배치한 점은 완도군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다.

진도군의 경우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유일한 가공식품인 '진도홍주' 하나만을 다양한 차원의 정보 담화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따로 변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기보다는 10가지 특산물로 병렬시켜 설명하고 있다.

결국, 특산물은 3개의 섬 지역 모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각각이 강조하고 있는 음식 특산물의 유형과 담화를 차별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

생산물이 소개된 경우를 분류하여 표기함.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뉴의 구조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특산물이 무엇이며, 그 특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신안군 공식 홈페이지 구조 분석

신안군의 경우에는 3개 메인 메뉴에서 음식문화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 소개〉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읍면안내〉 하에 '특산물'이라는 담화, 〈분야별 정보〉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농수축산물〉하에 '농수축산물과 특산물'이라는 담화와 〈농업정보〉, 〈해양수산정보〉, 〈천일염정보〉를 통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1차 산업의 생산 결과물로서의 '농수축산물' 각각을 대표하는 식재료에 대한 생산 규모, 생산량 등과 같은 통계 정보를 비롯한 식재료 담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우, 흑염소와 같은 축산물 또한 섬 지역에서 자체 생산 소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이라는 메인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에서 다룰 문화관광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음식문화 관련 담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메뉴 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 상단 메뉴 〈신안군소개〉의 하위 메뉴 〈읍면안내〉 카테고리에서 특산물이 소개되고 있다. 신안군의 공식 홈페이지는 2읍, 12면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읍, 면 단위를 소개하는 세부 항목으로 '읍/면사무소, 연혁 및 일반현황, 관내기관단체, 관내도, 공영버스운행, 특산물, 지명유래, 마을현황, 마을유래(연혁), 조직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메뉴에서는 2읍 12면 각 단위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을 다음의 〈표 5〉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신안군이 각각의 읍, 면 단위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표 5〉 행정구역별 특산물 현황

	행정구역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1	지도읍	쌀	병어	-
2	압해읍	배, 포도	김, 세발낙지	-
3	증도면	태양초, 마늘, 양파	백합, 숭어, 숭어건정, 어란, 김	천일염
4	임자면	양파, 대파	민어, 새우젓, 병어, 임자김	천일염
5	자은면	마늘, 양파, 대파, 땅콩	함초, 김	-
6	비금면	섬초(시금치)	새우젓	천일염
7	도초면	시금치	꽃게, 간재미, 갑오징어, 장어, 전복	-
8	흑산면	-	멸치액젓, 돌미역, 우럭, 홍어, 참전복	-
9	하의면	블루베리	참전복, 개펄낙지	-
10	신의면	-	전복, 왕새우, 개펄낙지	천일염
11	장산면	양파, 마늘, 고추, 유자, 참깨, 브로콜리	김, 낙지	-
12	안좌면	마늘, 미곡, 양파	김, 낙지, 대하(왕새우)	-
13	팔금면	마늘, 고사리, 꾸지뽕열매, 브로콜리	김, 낙지	천일염
14	암태면	마늘, 쌀보리	-	-

즉, 신안군 각 읍면 단위에서 공통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특산물은 김(7), 마늘 (6), 양파(5), 천일염(5), 전복(4) 순으로 해산물 이외에도 농산물에 대한 강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읍면 단위의 고유한 특산물 역시 소개되고 있는데, 증도면은 숭어, 숭어건정, 어란, 임자면은 민어, 흑산면은 홍어 같은 특수산물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압해읍은 배, 포도, 하의면은 블루베리, 장산면은 유자, 팔금면은 꾸지뽕 같은 독특한 농특산물을 강조하는 섬들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는 섬 문화가 가지는 상황

성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섬이라는 고립성으로 인하여 농산물 역시 자급자족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져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다.[44]

위의 분석 결과를 다시 각 특산물의 하위 종류별로 유형화시켜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신안군 특산물 종류 현황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신안군 (25)	신안쌀, 배, 포도, 고추, 브로콜리, 양파, 석류, 무화과, 시금치, 마늘, 백년초	김, 함초, 홍어, 병어, 대하, 전복, 돌돔, 민어, 농어, 뻘낙지, 새우젓, 감태, 해조류(신안돌김, 미역, 톳, 다시마)	천일염
합계	11	13	1

다음으로, 〈분야별정보〉 속 〈산업경제〉 분야의 하위 메뉴 '농축수산물'에서도 하나의 세부 영역으로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함초, 전통장류, 신안천일염, 젓갈, 신안 익수 선옥고 5가지의 특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메뉴에서는 특히 읍면 단위의 특산물이 1차 생산물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1차 생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예컨대 환, 분말, 엑기스 등을 대상으로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는 특성 역시 발견된다.

(2) 완도군 공식 홈페이지 구조 분석

완도군의 경우에는 〈완도 소개〉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특산물〉하에 '수산물, 해조류, 농산물, 가공식품'이라는 담화, 〈산업경제〉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자연 그대로 농·축·수산〉하에 '완도 자연 그대로, 해양 수산, 농산물, 축산물'이라는 담화를 통해 나타난다.

44) 「제주의 또 다른 섬들의 농업」, 『헤드라인제주』, 2020.07.06.,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69, 검색일: 2021.11.10.

특히, 〈자연 그대로 농·축·수산〉 아래 '해양수산, 농산물, 축산물' 메뉴에서는 완도 지역의 완도군 주요 생산현황을 비롯하여 대표적인 생산물 즉, 식재료에 대한 소개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완도군은 다시마, 톳과 같은 해조류와 전복을 완도산 전복을 대표로 하는 어패류 생산이 활발한 지역으로 수산물 전국 점유율이 다시마(78%), 톳(75%), 매생이(61%), 미역(27%), 김(7%), 전복(80%), 넙치(36%), 멸치(20%) 등 전반에서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량을 가진 지역이다.[45]

완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상단 메인 메뉴 〈완도소개〉의 하위 항목에 "특산물" 카테고리를 두고, 완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특산물의 종류는 수산물, 해조류, 농산물, 가공식품 네 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다. 완도군 지역의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해조류를 수산물과 분리하여 하나의 카테고리로 별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완도 지역 수산업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각의 특산물 항목은 다음의 〈표 7〉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7〉 완도군 특산물 종류별 현황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해조류	
완도군 (21)	쌀, 마늘, 포도, 방울토마토, 부지화, 유자	광어, 전복, 문어, 멸치, 굴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비파, 흑염소, 황칠, 해조류모듬장아찌, 슬림면
합계	6	5	5	5

45) 완도군 홈페이지, https://www.wando.go.kr/www/introduction/generalstate/natural_conditions, 검색일: 2021.11.10.

즉, 완도군의 수산물의 하위에는 완도전복, 광어, 문어, 멸치, 굴과 같은 어류와 어패류가 혼합되어 있으며, 세부 설명에 들어가면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홈페이지인 완도군 eshop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해당 수산물의 구입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조류 메뉴는 다른 특산물 설명과 달리 해조류의 종류, 특성과 활용, 해조류의 가치, 해조류 산업 현황 등과 같은 완도 지역 해조류 산업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와 같은 대표 해조류 산물에 대한 어원, 유래와 역사, 종류, 성분 및 효능, 조리법 등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메뉴에는 쌀, 마늘, 포도, 방울토마토, 부지화, 유자가 있으며, 면사무소 및 완도군 특산물 쇼핑몰 홈페이지인 완도군 eshop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구매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가공식품 메뉴의 하위에는 비파, 흑염소, 황칠, 해조류모듬장아찌, 슬림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산물,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완도비파 홈페이지, 약산흑염소 영농조합 홈페이지, 향아식품몰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덧붙여 각각의 구입을 소개, 유도하고 있다.

(3) 진도군 공식 홈페이지 구조 분석

진도군의 경우에는 〈진도 소개〉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진도홍주〉 하에 '진도홍주소개'라는 담화, 〈분야별 정보〉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농업/축산/산림〉과 〈수산/어항/양식〉하에 '농업기본현황'과 '수산기본현황'이라는 담화를 통해 나타난다. 특히, 〈농업/축산/산림〉과 〈수산/어항/양식〉 아래 '농업기본현황', '축산정보', '수산기본현황' 등과 같은 카테고리에서는 진도 지역의 주요 농수축산물의 생산현황을 구체적인 수치로써 제시함으로써 진도 지역 식재료 담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우, 오리, 돼지, 닭, 꿀벌 등과 같은 가축사육 현황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상단 메인 메뉴 〈진도 소개〉의 하위 메뉴에서 진도의 대표 상품인 진도홍주를 소개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하위 메뉴 하의 '진도홍주소개', '홍주자랑', '홍주시음', '홍주판매' 등을 두고, 진도홍주의 유래, 특징, 제조 방법, 품질, 판매업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수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진도홍주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 방법을 소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진도군이 홍주를 얼마나 중요한 특산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식시킨다.

진도의 특산물 항목은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8〉 진도군 특산물 종류별 현황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진도군 (1)			진도홍주
합계			1

2) 문화관광 공식 홈페이지 구조 분석

3개 지역 지자체의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3개 지역이 어떤 구성요소를 각 지역의 문화관광 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3개 지역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 구성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인 메뉴

	1	2	3	4	5	6	7	8
신안군	신안 관광	섬 관광	생태 관광	체험 관광	교통 정보	특산물	관광 가이드	신안 공모전
완도군	관광 명소	음식/ 숙박	축제/ 행사	테마/ 체험	관광 안내	관광 이야기		
진도군	신비의 바닷길 축제	테마 관광	공연 축제 예술	명량 대첩 축제	숙박 음식 특산물	관광 가이드	맞춤형 투어 버스	

(1)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조 분석

신안군의 경우에는 〈섬관광〉이라는 메인 메뉴 아래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등〉의 읍면 카테고리를 두고 각각의 읍면에 대한 관광 정보를 제시하는 가운데 '식당(음식공간)'과 '특산물' 관련 담화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체험관광〉이라는 메인 메뉴 아래 〈증도체험프로그램〉이라는 메뉴에서는 '증도갯벌생태전시관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증도 지역 특산물인 함초를 이용한 쿠키 만들기 체험과 같은 '이벤트' 관련 담화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특산물〉이라는 메인 메뉴 카테고리를 다시 만들어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신안의 맛, 농수특산물, 농산물, 천일염, 함초, 수산물〉 아래에서 '식재료, 음식, 특산물' 등과 같은 음식문화 관련 담화를 제공하고 있다.

신안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홈페이지 상단 메인 메뉴 〈섬관광〉의 하위 메뉴 '특산물' 하에서 행정구역별 특산물이 소개되고 있다. 이는 신안군 공식 홈페이지 내 〈신안군소개〉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었던 읍면 정보 아래의 〈특산물〉 담화와 같은 내용임으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46]

한편, 메인 메뉴 〈특산물〉의 하위 메뉴인 〈신안의 맛〉과 〈농수특산물〉, 〈농산물〉, 〈천일염〉, 〈함초〉, 〈수산물〉에서 우리는 신안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섬관광〉 메뉴의 구성이 행정구역별로 특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특산물〉 메뉴에서는 각 특산물을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신안의 맛〉이라는 하위 메뉴에서는 특산물 이외에 '신안 음식' 관련 정보도 함께 소개하는 방식으로 다른 2개 지역과는 달리 〈음식〉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하위 메뉴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특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즉, 〈신안의 맛〉은 11가지 특산물이 제시되고 있는데, '신안흑산홍어, 신안우럭, 신안병어, 신안전복, 신안뻘낙

46) 단, 신안군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았던 임자면 특산물과 관련된 내용이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검색된다는 점과 홍도는 특별한 특산물 소개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 왕새우, 간재미, 신안김, 신안민어, 신안숭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특산물 식재료들을 활용한 음식의 레시피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음식〉 관련 메뉴를 대신하고 있다. 이는 신안군이 지역 음식 자체보다는 11개의 특산물 식재료를 중시하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2) 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조 분석

완도군의 경우에는 〈음식/숙박〉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에서 음식문화에 대한 담화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완도별미〉, 〈청해진미〉 하에 '생선회, 전복코스요리, 해신탕, 황칠전복오리백숙, 삼치회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두고 완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담화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음식/숙박〉 메뉴 아래 〈음식점〉에서는 '한식, 횟집, 아침식사 가능 음식점, 주말 운영 음식점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통해 완도 지역 '음식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조류건강레시피〉 메뉴 하에서는 '산모 기력회복 건강밥상, 산모 뼈 강화 건강밥상, 산모 신진대사 촉진 건강밥상' 등과 같은 세부 메뉴에서 완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한 음식들에 대한 '레시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조류건강밥상100선〉 메뉴 하에서는 '스페셜 해조류메뉴, 미역메뉴, 다시마메뉴, 톳메뉴, 매생이메뉴, 꼬시래기메뉴' 등과 관련된 담화를 제공하면서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꼬시래기를 활용하여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레시피' 담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쇼핑〉 항목에서는 '완도회센터, 완도e-shop, 완도특산물 매장에 대해 소개' 담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완도군은 문화관광 홈페이지상에서 특산물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완도군이숍 www.wandoguneshop.com' 쇼핑몰로의 링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 추구 및 구매 욕구 충족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축제행사〉라는 메인 메뉴의 하위 메뉴로 제시되고 있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하에서는 완도 지역 음식문화 '이벤트'에 관한 담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김뜨기, 해조류 삼각김밥 만들기, 해조류

바다음식 전시회' 및 '해조류'를 테마로 한 박람회 개최 등과 같이 수산물 가운데에서도 해조류를 메인 테마로 삼고 있다는 점은 완도 지역 수산업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조 분석

진도군의 경우에는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숙박음식특산물〉이라는 메인 메뉴 중 〈먹거리〉의 하위 메뉴로 제시된 '진도아리랑8미+회정식' 하에서 진도 지역 '음식' 관련 담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모범음식점〉, 〈아침식사 가능업소〉, 〈주말 운영 음식점 현황〉 등과 같은 카테고리를 통해 '음식 공간'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진도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산물"에 대한 정보는 〈숙박음식특산물〉이라는 메인 메뉴 가운데 〈특산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구기자, 울금, 전복, 홍주, 진도 검정쌀, 돌김, 멸치, 진도 돌미역, 톳, 홍새우' 등 총 10건의 특산물을 제시하며, 특산물에 대한 효능, 특징, 활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진도아리랑몰 www.jindoarirangmall.com'로의 링크를 통해 소비자들의 정보 추구 및 구매 욕구 충족을 시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의 특산물 항목은 다음의 〈표 10〉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표 10〉 문화관광 홈페이지 특산물 메뉴 현황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진도군 (10)	구기자, 울금, 검정쌀	전복, 돌김, 멸치, 돌미역, 톳, 홍새우	홍주
합계	3	6	1

특히, '홍주'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홍주 유래, 야사, 특징, 제조 방법, 판매업체 등 홍주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진도군이 홍주를 얼마나 중요한 특산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

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3개 섬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구조와 특산물 관련 메뉴 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각 지역 홈페이지에 제시된 특산물 관련 담화의 텍스트와 이미지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각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 홈페이지 특산물 관련 담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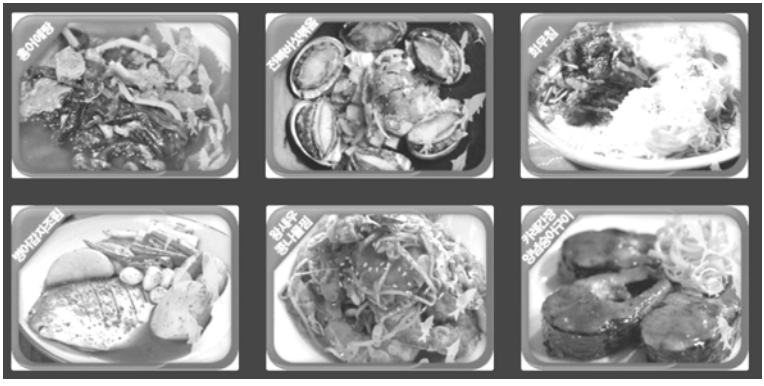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 호남의 3개 섬 지역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남의 섬 지역이 표출하는 '음식문화'의 정체성과 지향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홈페이지를 통한 각 지역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실제로, 3개 섬 지역의 홈페이지에 제시되고 있는 '특산물' 관련 담화는 일반적으로 사진 이미지와 그에 동반된 텍스트 담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의 의미작용을 기호학적으로 파악하고, 각 지역의 음식문화 브랜드 지향 가치 역시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신안군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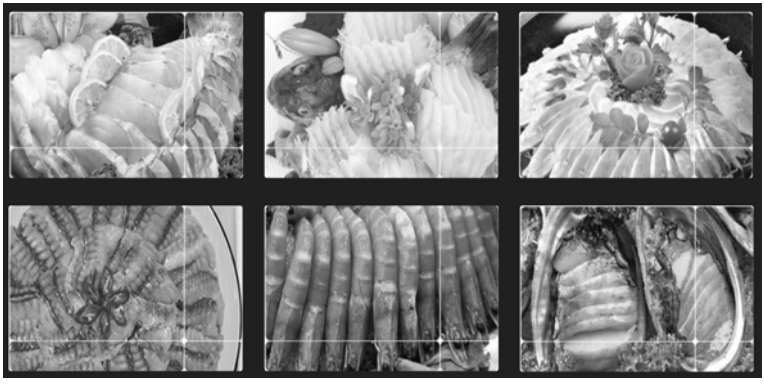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인 메뉴 〈특산물〉 하의 하위 메뉴인 〈신안의 맛〉, 〈수산물〉 등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를 살펴봄으로써, 신안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음식문화 정체성은 식재료성 보다는 조리된 요리 지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의 특산물 관련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그림 1〉 〈신안의 맛〉 주요 이미지

신안군의 〈신안의 맛〉 메뉴의 이미지 담화를 살펴보면, '신안 홍어, 간재미, 민어, 전복, 우럭 등' 신안 대표 수산물 자체의 사진 이미지 기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이 식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음식 즉, 조리된 요리 사진을 이미지 기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각성/과 /활용성/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신안군이 맛이라는 미각적 기능을 강조하는 '감각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효용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그림 2〉 〈수산물〉 주요 이미지

〈표 11〉 신안군 특산물 관련 텍스트 담화 및 지향가치

번호	동위소	지향가치	
1	대표적, 대표하는, 진상품	대표성	
2	전통, 전통적, 자산어보, 정약전, 세종실록지리지, 허준, 동의보감, 신증동국여지승람, 진상품, 조선시대, 선조들, 예부터, 오래전, 전통발효, 1640년	역사성	
3	재래식 방법, 토종	재래성	
4	풍부한 일조량, 풍부한 토양, 게르마늄, 해풍, 햇빛, 갯바람,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 천연, 깨끗, 친환경, 무공해, 유네스코, 갯벌	환경성	
5	우수, 뛰어난, 최고의 품질, 양질, 호평, 일품, 양질, 탁월한 효과, 별미, 선별	우수성	
6	단백질, 비타민 A/B/C, 칼슘, 칼륨, 인, 철분, 미네랄, 탄수화물, 식이섬유, 아미노산, 저칼로리, 다이어트 해독, 살균, 피부미용, 세포재생, 소화 촉진, 빈혈예방 건강, 보약, 자양강장, 항암, 성인병 예방	기능성 (영양) (건강)	
7	단맛, 당도	맛 / 식감	
8	둥글, 튼실, 회청색, 은백색, 황백색	시	감각
	-	청	
	-	후	
	담백, 고고, 깔끔, 감칠맛, 달콤,	미	
	끈끈한, 찰지고, 부드러운, 단단, 쫄깃, 톡 쏘는	촉	
9	알이 크고, 튼실, 단단, 과육이 두껍고, 육질이 단단, 색깔이 선명	미학성	
10	신선도, 싱싱	신선성	
11	제철, 봄/여름/가을/겨울 - 철, ~월	계절성	
12	각광, 호평, 자랑, 유명, 대중, 인기	대중성	
13	위생, 안전, 무공해	안전성	
14	최신 가공장비, 최첨단 가공시설, 친환경 농법	발전성	
15	다양, 여러, 풍부, 많이	다양성	
16	유일하게, 고유의	고유성	
17	독특, 특유	독특성	
18	잔치	재미성	
19	혼신, 정성	정성성	
20	인심, 후덕	정	
21	생산현황, 생산규모, 생산량, 판매시기, --요리	정보성	
22	전라도, 남도, 신안	지역성	
23	한방	약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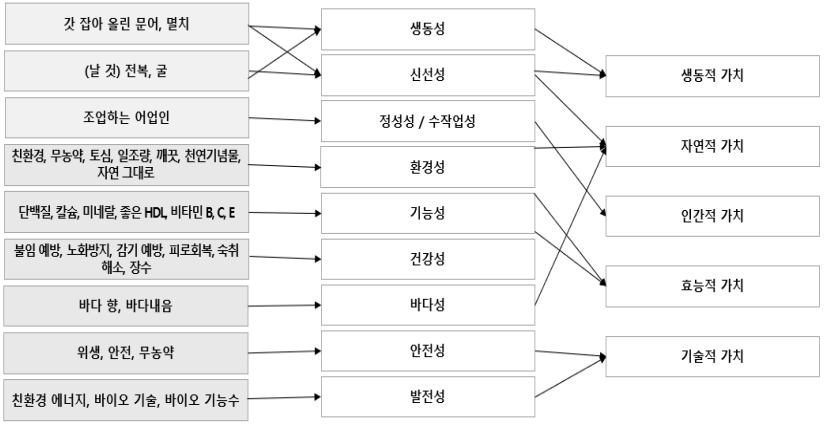
또한, 〈수산물〉 메뉴에서도 홍어, 민어, 병어, 농어 등 신안 대표 생선을 '물고기'의 모습 그대로의 사진 이미지 기표로 제시하기보다는 '생선회'의 사진 이미지 기표로 제시함으로써 신안군의 특산물의 /미각성/과 /미학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특산물의 활용 가능성에 기반한 '감각적 가치'에 대한 강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신안군 특산물 관련 텍스트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위소는 앞의 〈표 11〉과 같다.

신안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속 텍스트 담화를 살펴보면, '풍부한 일조량, 풍부한 토양, 게르마늄, 해풍, 햇빛, 갯바람, 천혜의 자연환경, 청정, 천연, 깨끗, 친환경, 무공해, 유네스코, 갯벌' 등과 같은 동위소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환경성/을 강조함으로써 섬 지역이 갖는 '자연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A/B/C, 칼슘, 칼륨, 인, 철분, 미네랄, 탄수화물, 식이섬유, 아미노산' 등과 같은 영양소의 중복적 활용과 '저칼로리, 다이어트, 해독, 살균, 피부미용, 세포재생, 소화 촉진, 빈혈예방, 항암, 성인병 예방' 등과 같이 /건강성/을 지향하는 동위소의 활용을 통해서 신안군 특산물의 '효능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담백, 고고, 깔끔, 감칠맛, 달콤' 등과 같은 미각 동위소의 일관성 있는 활용과 '끈끈한, 찰지고, 부드러운, 단단, 쫄깃, 톡 쏘는' 등의 촉각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위소의 중복적 활용이나 '알이 크고, 튼실, 단단, 과육이 두껍고, 육질이 단단, 색깔이 선명' 등과 같이 특산물의 형태를 묘사하는 동위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각성/, /미학성/과 같은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신안군이 특산물 텍스트 담화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감각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신안군'의 특산물 담화의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신안군 특산물 담화 분석

2) 완도군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 분석

완도군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 메뉴 속 〈완도소개〉 하의 하위 메뉴인 〈특산물〉 담화 속 〈수산물〉, 〈해조류〉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를 살펴보면, 완도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음식문화의 정체성은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 올린 수산물의 자연 그대로의 신선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완도군의 특산물 관련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그림 4〉 〈수산물〉 주요 이미지

완도군의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 메뉴 속 〈완도소개〉 하의 하위 메뉴인 〈수산물〉 메뉴의 이미지 담화를 살펴보면, 문어, 멸치, 등과 같은 수산물을 조업하는 사진 이미지 기표나 갓 잡은 수산물을 클로즈업한 사진 이미지 기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동성/과 /신선성/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완도군이 식재료의 활력 기능을 강조하는 '생동적 가치'와 식재료의 신선도를 강조하는 '자연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해조류〉 메뉴에서도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등을 클로즈업하는 사진 이미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업인들이 해조류 조업을 하는 모습 그대로의 사진 이미지 기표를 제시함으로써 완도군 해조류 생산의 /정성성/과 /수작업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완도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어업인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감을 표출함으로써 '인간적 가치'에 대한 강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림 5〉 〈해조류〉 주요 이미지

한편, 완도군 특산물 관련 텍스트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위소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속 텍스트 담화를 살펴보면, '친환경, 무농약, 토심이 좋은, 일조량 풍부, 깨끗, 천연기념물, 자연 그대로' 등과 같은 동위소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환경성/을 강조함으로써 섬 지역이 갖는 '자연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칼슘, 미네랄, 좋은 HDL, 비타민 B, C, E' 등과 같은 영양소의 중복적 활용과 '불임 예방, 노화방지, 감기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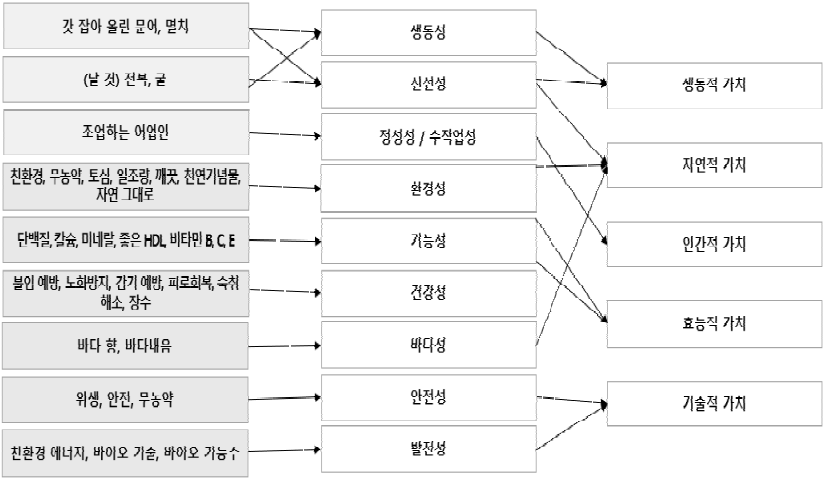
피로회복 숙취해소, 장수' 등과 같이 /건강성/을 지향하는 동위소의 활용을 통해서 완도군 특산물의 '효능적 가치'에 대한 지향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완도군 특산물 텍스트 담화 및 지향가치

	동위소	지향가치	
1	궁중 진상품, 전국 최고	대표성	
2	전통 옛 맛, 1천 년 전 장보고 대사	역사성	
3	친환경, 무농약, 토심이 좋은, 일조량 풍부, 깨끗, 천연기념물, 자연 그대로	환경성	
4	우수, 최고, 뛰어난, 양질, 품질 좋은, 타의 추종 불허	우수성	
5	건강, 단백질, 칼슘, 미네랄, 좋은 HDL, 비타민 B, C, E 영양, 보양, 자양식품, 불임 예방, 노화방지, 감기예방, 피로회복 숙취해소, 장수	기능성 (영양) (건강)	
6	식감, 당도, 미식가, 밥도둑	맛 / 식감	
7	-	시	감각
	-	청	
	바다의 향, 바다내음, 향기가 짙은	후	
	담백, 고소한, 시원한	미	
	부드러운, 따끈따끈, 쫄깃, 오독오독	촉	
8	색택, 알이 굵고	미학성	
9	당일 수확, 신선도, 싱싱	신선성	
10	제철, 7월 하순, 8월 하순	계절성	
11	각광, 대중적, 인기, 사랑, 많이 찾는	대중성	
12	저렴	서민성	
13	위생, 안전, 무농약	안전성	
14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기능수	발전성	
15	다양, 풍부	다양성	
16	유일하게	고유성	
17	특유	독특성	
18	엄선, 정성	정성성	
19	조리법, 종류, 세는 단위, 손질, 보관법, --요리, 성분, 효능, 환경조건 등	정보성	
20	남도 앞바다, 완도	지역성	

한편, '바다의 향, 바다내음' 등과 같은 후각 동위소의 활용을 통해 /감각성/과 /바다성/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생, 안전, 무농약' 등과 같은 동위소는 완도 특산물의 상태 및 재배의 /안전성/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기술, 바이오 기능수' 등의 해조류 생산 및 활용에 대한 과학적 /발전성/을 나타내는 동위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완도군이 특산물 텍스트 담화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기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완도군'의 특산물 담화의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완도군 특산물 담화 분석

3) 진도군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 분석

진도군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 메뉴 속 〈숙박음식특산물〉 하의 하위 메뉴인 〈특산물〉 관련 이미지 및 텍스트 담화를 살펴보면, 진도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음식문화 정체성은 생선류보다는 해조류의 상품

성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도군의 특산물 관련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그림 7〉〈특산물〉 주요 이미지

진도군의 지자체 홈페이지 메인 메뉴 속 〈숙박음식특산물〉 하의 하위 메뉴인 〈특산물〉 메뉴의 이미지 담화를 살펴보면, '말린 구기자, 돌김, 마른 멸치, 건새우, 마른톳' 등의 해조류를 클로즈업 샷으로 찍은 사진 이미지 기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의 /자연성/을 드러냈던 신안군이나 해조류의 조업 과정을 제시하여 /정성성/을 강조했던 완도군의 사례와는 달리 해조류 자체 품질의 /우수성/과 익숙한 건어물 이미지를 통한 /친근성/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진도군 건어물의 '상품적 가치'와 '대중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또한, 위의 사진 이미지에서 우리는 건어물을 받치고 있는 '대나무 소쿠리'와 사진 이미지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한글이 디자인된 한지' 같은 기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진도군이 건어물 /친근성/과 /전통성/을 나타냄으로써 '향토적 가치'에 대한 강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진도군 특산물 관련 텍스트 담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동위소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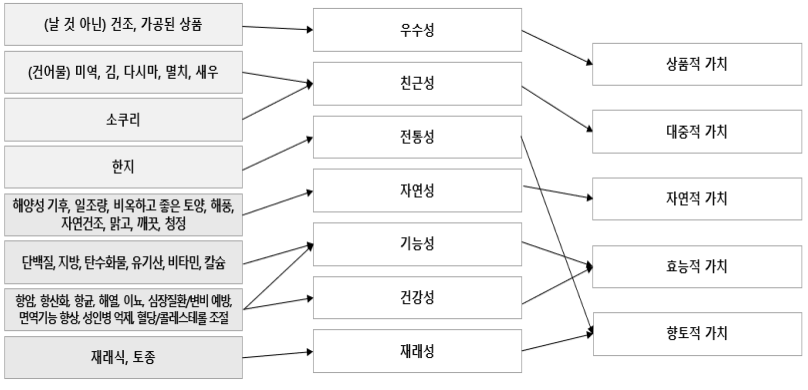
〈표 13〉 진도군 특산물 관련 텍스트 담화 및 지향가치

	동위소	지향가치	
1	대표적인, 궁중 연회식, 궁중 요리	대표성	
2	기원전, 옛날, 궁중연회, 진연의궤, 진작의궤, 임원경제지	역사성	
3	재래식 방법, 재래식 조업방법, 토종	재래성	
4	따뜻한 해양성 기후, 풍부한 일조량, 천혜의 조건, 비옥하고 좋은 토양, 해풍, 자연건조, 맑고, 깨끗, 청정	환경성	
5	최고의, 우수한, 일품, 완벽, 월등, 적합, 진미, 특출, 으뜸, 손꼽는	우수성	
6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유기산, 비타민, 칼슘, 항암, 항산화, 항균효과, 해열, 이뇨, 방광염 개선, 인체에 유익 심장질환 예방, 면역기능 향상, 성인병 억제, 변비 예방,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성 (영양) (건강)	
7	윤기, 하얀색, 진홍색, (진한) 오렌지색, 노란색	시	감각
	-	청	
	-	후	
	구수한	미	
	끈끈한, 오돌오돌	촉	
8	열매가 크다, 마르다, 색깔이 좋다	미학성	
	싱싱	신선성	
9	늦여름, 초가을, 가을 중순	계절성	
10	풍부, 온갖, 다양	다양성	
11	유일하게	고유성	
12	독특, 특유	독특성	
13	판매 종류, 주소, 전화, 레시피, --요리, 보관 방법	정보성	
14	진도	지역성	
15	한방	약효성	

진도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속 텍스트 담화를 살펴보면, ‘따뜻한 해양성 기후, 풍부한 일조량, 천혜의 조건, 비옥하고 좋은 토양, 해풍, 자연건조, 맑고, 깨끗, 청정’ 등과 같은 동위소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환경성/을 강조함으로써 섬 지역이 갖는 ‘자연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유기산, 비타민, 칼슘’ 등과 같은 영양소의 중복적 활용과 ‘항암, 항산화, 항균효과, 해열, 이뇨, 방광염 개선, 심장질환 예방, 면역기능 향상, 성인병 억제, 변비 예방,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 등과 같이 /건강성/을 강조하는 동위소의 활용을 통해서 완도군 특산물의 ‘효능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래식, 재래식 조업, 토종’ 등과 같은 동위소의 활용을 통해 /재래성/에 대한 지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진도군이 특산물 텍스트 담화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향토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진도군’의 특산물 담화의 이미지 및 텍스트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도식으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진도군 특산물 담화 분석

Ⅳ.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전남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 세 섬 지역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는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세 지역이 '특산물' 관련 담화를 각 지역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바다에 둘러싸인 섬 지역이므로 수산물이 중심일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육지(내륙)와의 단절이 섬 지역의 자체 생산력을 키워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식품 등 특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메뉴 구성을 살펴보았는데, 특산물 중심의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구성과 달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관광이라는 테마에 맞추어 좀 더 다채로운 음식문화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신안군은 특산물 메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11개의 특산물 식재료가 핵심, 음식만을 배타적으로 다루는 하위 메뉴를 따로 두지 않고, 특산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산물을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도군은 음식문화에 대한 담화를 음식, 레시피, 이벤트 등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산물 담화는 '완도군이숍' 쇼핑몰 링크를 통해 지역 특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완도군은 어느 한 영역을 핵심 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음식, 레시피, 이벤트, 특산물 등 다양한 구성요소에서 해조류를 메인 테마로 삼고 있다는 점이 차별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은 음식과 특산물 모두를 지역 문화관광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진도아리랑몰' 쇼핑몰로의 링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각 지역이 문화관광 브랜드의 핵심 요소 간주하고 있는 음식문화의 구성요소가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세 지역 모두에서

‘특산물’ 담화는 빠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세 지역 모두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특산물’ 담화를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섬 지역이 표출하는 특산물 관련 담화의 텍스트와 이미지 담화 분석을 통해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파악하고, 각 브랜드의 지향가치를 파악하는 작업 역시 시도해보았다.

분석 결과,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세 지역 공통적으로 홈페이지 속 ‘특산물’ 담화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 /환경성/, /기능성/, /정보성/ 등의 가치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수, 최고, 양질, 일품, 특출, 좋은’ 등의 동위소를 통해 농, 수, 축 특산물의 ‘고품질적 가치’를 세 지역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해풍, 청정, 맑고, 깨끗, 친환경, 일조량, 토양’ 등 섬 지역 특산물의 우수한 환경조건과 연계한 ‘자연적 가치’ 추구의 지향성 역시 공통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백질, 비타민, 칼슘, 칼륨, 인, 철분, 미네랄, 탄수화물, 식이섬유, 아미노산’ 등과 같은 영양소와 관련된 동위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건강, 영양, 보양, 자양 강장’ 등의 건강 관련 동위소의 반복적 활용과 ‘소화 촉진, 빈혈 예방, 성인병 예방, 항암’ 등과 같은 기능성 관련 동위소의 반복적 활용 역시 공통으로 발견되었는데, 특산물의 ‘효능적 가치’에 대한 섬 지역의 공통적 지향으로 분석될 수 있겠다. 한편, ‘생산현황, 활용 요리, 레시피, 손질, 보관법, 성분, 효능’ 등과 같은 특산물의 실제적 정보 관련 담화를 통해 ‘정보적 가치’에 대한 지향성 또한 세 지역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의 음식문화 브랜드 지향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한편, 본 연구는 3개 섬 지역 각각의 차별적인 가치 지향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신안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음식문화 정체성은 조리된 요리 지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사진 이미지 기호의 제시를 통한 특산물의 활용 가능성 즉 /효용

〈표 14〉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음식문화브랜드 지향가치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이미지	효용적 가치 감각적 가치	생동적 가치 자연적 가치 인간적 가치	상품적 가치 대중적 가치 향토적 가치
텍스트	고품질적 가치 자연적 가치 효능적 가치 감각적 가치 정보적 가치	고품질적 가치 자연적 가치 효능적 가치 기술적 가치 정보적 가치	고품질적 가치 자연적 가치 향토적 가치 효능적 가치 정보적 가치

성/의 의미 강조로 분석됨과 동시에 미각·촉각·시각적 어휘를 활용한 특산물의 형태 묘사적 텍스트 기호를 통한 /감각성/과 /미학성/의 강조로도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완도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음식문화 정체성은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 올린 수산물의 자연 그대로의 신선성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이미지와 텍스트 담화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산물을 갓 잡아 올린 사진 이미지 기표를 통해서 /생동성/과 /신선성/ 등이 표출되었으며, /환경성/과 /바다성/을 드러내는 동위소의 반복적 활용이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진도군이 홈페이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음식문화 정체성은 해조류의 상품성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말린 건어물 상품을 클로즈업한 이미지 기표를 활용한 해조류 자체 품질의 /우수성/의 강조를 통해 드러났으며, 특산물의 영양 및 건강적 /기능성/을 강조하는 텍스트 담화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섬 지역 역시 각 지역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차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립된

지역이었던 과거의 섬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생산물로 자급자족해야 했기 때문에 섬 지역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 반해, 2021년 현재의 섬 지역은 교통의 발달, 연륙교 설치, 온라인 쇼핑 및 배달 제도 등으로 인해 뭍 즉 내륙에서 지역으로 이동이 원활해지면서 음식문화에도 변화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섬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육지 및 연안 지역과의 공통성은 물론 보편성 역시 아우르면서 동시에 각각의 섬 지역 음식문화의 고유성, 차별성, 특수성을 찾아서 통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음식문화 브랜딩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강수경 외(2015),『할망하르방이 들려주는 제주음식이야기』, 이야기섬.

강제윤(2019),『전라도 섬맛기행』, 21세기북스.

김 준(2013; 2015; 2018),『바다맛 기행 1~3』, 자연과생태.

_____(2016),『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_____(2016),『섬 살이』, 도서출판 가지.

김향자(2020),『섬 관광정책 진단 및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순덕(2010),『섬 사람들의 음식연구』, 학고방.

와이즈포스트(주)(2019),『섬 발전연구원 설립 유치 방안 수립 최종보고서』, 전라남도청.

채지선(2020),『지역브랜딩을 위한 지자체의 음식문화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지역의 음식문화브랜드 모형 구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

강봉룡(2014),「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島嶼文化』44,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7~35쪽.
UCI : G704-002045.2014..44.001

_____(2018),「HK사업의 성과와 과제－섬의 인문학: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島嶼文化』51,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21~258쪽.

고두갑(2015),「특정수산물에 의한 지역브랜드 전략과 지역 활성화 - 민어를 중심으로 -」,『한국도서연구』27권 4호, 한국도서학회, 29~58쪽.
UCI : G704-SER000008812.2015.27.4.001

김기국(2014),「이미지 텍스트의 읽기교육 방법론: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언어와 문화』10권 2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7쪽.
UCI : G704-SER000008906.2014.10.2.006

김보성·김용완·이응규(2020),「울릉도와 독도의 식재료 활용 음식메뉴 개발」,『한국도서연구』32권 4호, 한국도서(섬)학회, 127~146쪽.
DOI : 10.26840/JKI.32.4.127

김성근·김보성(2021),「수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섬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한국

도서연구』 33권 1호, 한국도서(섬)학회, 59～78쪽.
DOI : 10.26840/JKI.33.1.59

김 준(2008),「섬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남 도서·연안지역을 중심으로」,『島嶼文化』3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3～40쪽.
UCI : G704-002045.2008..32.004

신순호·박성현(2012),「도서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 아마쵸(海女町)의 사례를 중심으로」,『島嶼文化』3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67～300쪽.
UCI : G704-002045.2012..39.009

이웅규·홍인기(2019),「해양음식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방안 고찰」,『디지털융복합연구』17권 5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7～135쪽.
DOI : 10.14400/JDC.2019.17.5.127

이웅규·홍인기·김보성(2019),「울릉도와 독도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한국도서연구』31권 3호, 한국도서(섬)학회, 93～126쪽.

진영재(2020),「섬관광연구 분석을 통한 섬관광자원 개발전략 탐색 - 관광체계 관점 분석과 적용」,『해양관광연구』13권 1호, 한국해양관광학회, 95～112쪽.
DOI : 10.22929/jmtr.2020.13.1.005

채지선·전형연(2019),「홍보콘텐츠 분석을 통한 지역의 음식문화브랜딩 구성요소 연구 - 전주시, 청두시, 교토시 등 한·중·일 3개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기호학연구』59권, 한국기호학회, 207～246쪽.
DOI : 10.24825/SI.59.8

한채원·홍정표(2016),「6차산업의 구성요소와 팜디자인에 관한 연구」,『산업디자인학연구』11권 1호,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1～29쪽.
UCI : G704-SER000002154.2017.11.1.014

Kapferer, J-N.(2009), *Les Marques Capital de l'entreprise(4ed)*, Paris: Edition d'Organisation.

국립해양수산개발원(https://www.kmi.re.kr/web/main/main.do?rbsIdx=1)
신안군청(http://www.shinan.go.kr/home/www)
신안군 문화관광(http://tour.shinan.go.kr/home/tour)
신안1004몰(https://www.shinan1004mall.kr/)
완도군청(https://www.wando.go.kr/?main=true)
완도군 문화관광(https://www.wando.go.kr/tour)
완도군 e-shop(https://wandofood.go.kr/)
진도군청(https://www.jindo.go.kr/home/main.cs)
진도군 관광문화(https://www.jindo.go.kr/tour/main.cs)
진도아리랑몰(http://jindoarirangmall.com/)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6차산업(https://www.xn--6-ql4f73k2zh.com:448/home/main.cs)
About 전남의 섬(https://islands.jeonnam.go.kr/jnia/main.do)

「섬 사람들, 그들만이 먹는 특별한 음식을 엿본다」, 『연합뉴스』, 2017.07.31., https://www.yna.co.kr/view/AKR20170731108900054, 검색일: 2021.11.10.
「매년 8월 8일은 '섬의 날'」, 『아시아경제』, 2018.02.2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816064275915, 검색일: 2021.11.04.
「섬은 나라의 자원이자 국방의 요새다」, 『예향진도신문』, 2019.05.27., http://www.yhjindo.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 검색일: 2021.11.10.
「제주의 또 다른 섬들의 농업」, 『헤드라인제주』, 2020.07.06.,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69, 검색일: 2021.11.10.
「지자체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잘나가네」, 『농민신문』, 2020.10.16.,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27844/view, 검색일: 2021.11.10.
「'천사섬' 신안의 자랑 먹거리 '신안1004몰'서 만난다」, 『국민일보』, 2021.06.2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95695&code=61121111&cp=du, 검색일: 2021.11.10.

「국내 첫 섬 전담기관 '한국섬진흥원' 목포서 공식 개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10.0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031, 검색일: 2021. 11.04.

「한국섬진흥원 출범은 '섬 발전' 시작점」, 『문화일보』, 2021.11.0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0501032911000002, 검색일: 2021.11.17.

「전남의 매력있는 섬 정보, 검색 더 쉬워진다」, 『광주카톨릭평화방송』, 2021.11.10., http://www.kjpbc.com/xboard/view.php?mode=view&number=174503&tbnum=1&PID=0106, 검색일: 2021.11.17.

「'신안 관광 세계 속으로'… 4개국 공무원 벤치마킹 퍼플섬 방문」, 『한국일보』, 2021.1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111120005212?did=DA, 검색일: 2021.11.23.

투고일: 2021. 11. 26. **심사기간:** 2021. 11. 30.~2021. 12. 7. **게재확정일:** 2021. 12. 9.

| 국문초록 |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 신안군·완도군·진도군 홈페이지의 특산물 담화를 중심으로 —

바다에 둘러싸인 화려한 풍광과 풍부한 해산물에 기반한 음식문화는 섬 지역 관광의 핵심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섬을 많이 보유한 전남의 섬 지역 중에서 보유한 섬의 수가 가장 많은 도서군이며, 지역민의 인구수 역시 가장 많은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세 지역 모두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조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특산물' 관련 담화를 섬 지역의 음식문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이 홈페이지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특산물' 담화의 이미지 기호와 텍스트 기호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섬 지역 '음식문화'의 공통적 정체성과 지향 가치는 물론 각 지역의 음식문화 정체성 및 지향 가치 역시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공통으로 섬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 /환경성/, /기능성/, /정보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의 음식문화 정체성 차원에서는 신안군의 경우 /효용성/, /미학성/, /감각성/을 바탕으로 한 '조리된 요리 지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완도군의 경우에는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 올린 수산물의 /생동성/과 /바다성/을 기반으로 한 '자연 그대로의 신선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도군의 경우에는 특산물의 /우수성/,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해조류의 상품성'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섬 지역 역시 각 지역의 음식문화와 관련한 차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섬 지역, 음식문화, 특산물,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휘 보

□ 호남학연구원 조직(2021. 12. 31. 현재)

부 서	이 름	소 속
원장	이 성 원	인문대학 사학과
운영위원	김 신 중	인문대학 국문과
	김 용 의	인문대학 일문과
	이 강 래	인문대학 사학과
	이 주 노	인문대학 중문과
	정 경 운	문화전문대학원
	조 윤 호	인문대학 철학과
	표 인 주	인문대학 국문과
교수	김 경 호	한국철학
	김 기 성	서양철학
	김 창 규	중국현대사
	정 명 중	한국현대문학비평
	조 태 성	한국고전시가
	최 유 준	문화학(음악)
연구교수	김 봉 국	한국현대사
	최 원 종	문화재학
	최 혜 경	한국현대문학

행정직원	김 지 선	인문대학 사학과
연구원	김 사 랑	인문대학 호남학과
	김 혜 선	인문대학 호남학과
	박 지 선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기획
	이 강 수	문화재협동과정
	이 홍 범	인문대학 호남학과
	정 지 윤	인문대학 호남학과

□ 수행 중인 연구 과제

연번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지원금액
1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 분권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	이성원	학술 연구재단	2018.09.01.~ 2025.08.31.	2,072,000,000
2	광주다운 역사인물 발굴사업	조태성	(재)한국학 호남진흥원	2021.12.01.~ 2022.02.28.	40,000,000
3	화순 근현대 문화자원과 감성문화지도 제작 용역	류재한	화순군	2021.10.25.~ 2022.06.30.	44,000,00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규정

제정 1973. 3. 31. 제58호	개정 1982. 11. 30. 제202호	개정 1988. 6. 15. 제313호
개정 1993. 4. 2. 제463호	개정 1995. 6. 12. 제529호	개정 2008. 8. 5. 제1145호
개정 2009. 9. 1. 제1211호		

제 1 조(명칭)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연구원은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 제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2.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
3.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
4. 연구발표회, 강연회, 학술대회 등 학술회의의 개최
5.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함)
6.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8.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

제 4 조(조직)

① 연구원에 원장과 연구부, 학술기획부, 교육사업부, 감성문화자원개발부, 편집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

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구원 내 연구사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

④ 원장의 강의책임시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⑤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부 : 학술연구 업무
2. 학술기획부 : 연구원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 및 국내외 학술교류 및 협력 업무
3. 교육사업부 :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업무
4. 감성문화자원개발부 : 감성문화자원콘텐츠의 개발 및 응용 업무
5. 편집출판부 : 연구원의 각종 출판에 관한 업무

⑦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연구원)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인문한국교원(인문한국 정년보장교수, 인문한국교수,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 :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인문한국교원으로 임용된 자
2. 전임연구원 :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전임'으로임용된 자
3.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
4. 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
5. 보조연구원 :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6.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하고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 6 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3. 각 부장, 연구원의 임명 및 편집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위촉, 인문한국교원 인사
4. 기타 인문한국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7 조(연구위원)

①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 8 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하며 학내외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조(연구윤리위원회) 연구원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 이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경비,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973. 3.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6.15.)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2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12.)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8. 5.)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호남학연구원에서 승계한다.

부 칙(2009. 9. 1.)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남학연구원 연구윤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활동에서 부정행위를 막고 올바른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의 게재 논문,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 과제 등 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적용한다.

제 3 조(연구윤리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연구원의 연구윤리 실천을 위해 연구원 산하에 연구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1인
2. 위　원 : 7인 이내
3. 간　사 : 1인

제 4 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은 연구원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 운영위원 및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간사는 연구원 행정요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일체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6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표절 여부는 학술연구재단의 평가 기준을 따름)

②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③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참여자가 부당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④ 연구원와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맡은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제 7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①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② 심사의 개시

1.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③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④ 심사 결과의 보고

1.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8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① 타인이나 본인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표절한 경우

1. 연구원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에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는 되지 않았지만 투고를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연구원 주관하의 연구 과제에 참여한 자가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여 표절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4.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② 연구 과제의 수행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경우

1. 연구비 집행을 부당하게 한 경우 학술연구재단의 규정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환수하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2. 연구 과제 참여자가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연구 과제에서 제외하고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3.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경우 연구원의 연구 활동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한다.

제 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①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② 피조사자의 보호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제10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호남학』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

제1조 이 규정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의 논문집인 『호남학』의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호남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
② 서평
③ 자료 소개
④ 기타 연구소의 학술활동에 관련되거나 부합되는 글

제3조 『호남학』에는 호남학 또는 지역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①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단, 연구원의 실무임원회의나 운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심사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예컨대, 연구원 주최 전국학술대회 등에서 주제 발표했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호남학』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①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호남학연구원의 원장 및 실무 임원진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호남학' 또는 '지역학'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전국적 범위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부장이 맡으며,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확인과 처리

④ 연구논문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⑤ 기타『호남학』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①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가운데 3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위촉과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를 거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논문이 결정되면 모든 투고자들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③ 3명의 심사의견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판정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재심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④ '게재' 및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결과만 통보하고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지시'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는 수정 지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게재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표절 및 중복 게재 사실이 확인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호남학』 논문 투고 규정

1. 일반 원칙

① 『호남학』은 1년에 두 번 간행하며, 간행일은 6월 30일, 12월 31일자로 정한다. 이 간행 일정에 맞춰 원고 모집 마감일을 5월 15일, 11월 15일로 정한다.

② 『호남학』에 게재하는 논문은 '호남학' 또는 '기타 지역학'과 관련된 주제에 부합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운영 규정〉에서 제시된 사업에 관련된 주제라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학문 분야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③ 논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내외 연구자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④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이는 『호남학』의 원고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을 호남학연구원 홈페이지 내 〈논문제출〉 시스템(https://homun.jams.or.kr)을 통해 호남학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⑤ 투고하는 논문은 '국문제목 — 영문제목 — 국문이름 — 영문이름 — 목차 — 영문초록 — 영문주제어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국문주제어'의 체재를 갖춘다(단, 주제어는 네 단어 이상 제시).

⑥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하되, 150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상한선을 넘긴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게재될 경우 초과 게재료가 부과될 수 있다.

⑦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정해진 게재료를 내야 한다. 심사료는 6만원이며, 게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 10만원, 각종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30만원이다.

⑧ 『호남학』에 게재된 원고의 지적 소유권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

갖는다. 또한 이의 확인을 위해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논문 투고시 별첨한 〈논문 게재에 따른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 각주 표기 방식

① 모든 주는 각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용서적이 편저일 경우, 반드시 편자의 이름 끝에 '편'(또는 ed.)을 기입한다.

③ 한국어 및 동양어로 된 논문은「 」안에, 단행본은『 』안에 제목을 넣는다.

④ 서양어로 된 논문은 " " 안에 제목을 쓰며, 단행본은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⑤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바로 위의 것은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또는 Ibid.)으로, 바로 위는 아니지만 이미 앞에서 인용된 것은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또는 op. cit.)으로 표시한다.

⑥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책이 둘 이상 인용될 경우 먼저 인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칭을 미리 표기한다.

(예)『중국내의 고구려유적』(이하는『고구려유적』)

⑦ 일반 단행본의 경우, 저자(또는 편집자)의 이름 — (출판연도) —『서명』— 출판지: 출판사 — 권수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단 국내에서 출판된 서적의 경우, 출판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번역본의 경우, 원저자 이름과 서명을 밝힌 뒤 역자의 이름, 번역서명, 서지사항을 밝힌다.

(예) James T. C. Liu(1959), Reform in Sung China: Wang An-shih(1021～1086) and His New Policies, Cambridge, MA: Harvard East Asian Studies; 이범학 옮김(1991),『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51쪽.

⑨ 정기 간행물의 경우, 필자의 이름 — (발간연도) —「논문제목」—『잡지명』

— 통권(혹은 권·호) — 학회지 — 쪽수의 순으로 밝힌다.

3. 인용 방식

① 모든 인용문(한문 포함)은 논리전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문 속에서 지문과 줄을 바꾸지 않고 잇달아 이어지는 인용문은 겹따옴표(“ ”)로 묶는다. 주 속의 인용문도 겹따옴표로 묶는다.

③ 겹따옴표로 묶인 인용문 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 ’)로 묶는다.

④ 문장을 이루지 않는 단어나 구절의 인용문은 홑따옴표로 묶는다.

⑤ 본문 속에서 지문과 구분되는 긴 인용문은, 지문과 앞뒤로 각각 한 줄씩 띄우고, 왼쪽의 여백을 본문보다 한 칸 들여쓰기를 한다.

⑥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친절하게 밝혀야 한다.

4. 참고문헌 기재 방식

①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 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와 동양어는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재하고, 서양어 문헌은 ABC 순으로 기재한다.

② 논문의 경우 수록된 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시작 쪽수와 마지막 쪽수를 반드시 밝힌다.

(예) 박준규(1987),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 제17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42쪽.

5. 원고 작성 및 제출 요령

① 국문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출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원본의 논문 제목 및 필자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병기해야 한다.

④ 원본에는 소속, 직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⑤ 논문체제 및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국문제목(15.5pt)
영문제목(13.5pt)

국문이름(9.5pt)
영문이름(8.5pt)

목 차

〈영문초록〉
Key words :

본문내용(10pt) - 줄간격(185%)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

심사경위

『호남학』 제70집에 투고된 총 논문은 20편입니다.『호남학』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주관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1편이 제70집의 게재 논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투고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의 게재율은 55%(11/20)입니다.

『호남학』 제71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에서는 학술지 『호남학』 제71집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호남학', '기타지역학' 관련 전 학문 분야
2. 자격 : '호남학', '기타지역학' 관련 국내외 연구자
3. 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4. 원고 제출 마감 : 2022. 5. 15. (일)
5. 투고 형식 :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함.
6. 심사 및 게재 결정 : 『호남학』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름.
7. 필자 대우 : 학회지 1부 및 별쇄본 20부를 제공함.
8. 논문 게재료
   - 심사료 : 6만원
   - 일반 논문 : 10만원 / 연구비 수혜 논문 : 30만원
   - 지정계좌 : 광주은행 074-107-309110 (예금주 : 전남대호남학연구원)
9. 원고 제출처 : 호남학연구원 JAMS 홈페이지(http://homun.jams.or.kr)
   (※ 투고 문의 : honamstudy@hanmail.net)

연락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3호관 204호 호남학연구원 행정실
☎ (062) 530-5020(**부재시** 2710) Fax : (062) 530-2711
Homepage : http://www.homun.or.kr
E-mail : honamstudy@hanmail.net

□ 편집위원장 : 신해진

□ 편집위원

박수철(서울대) 이구용(전남대) 엄기표(단국대)
이영배(안동대) 정명중(전남대) 정세근(충북대)
정인호(대구대) 조태성(전남대) 차철욱(부산대)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이 발간해 온 『호남문화연구』(1~64집)의 제호가 65집(2019.6.30.발행)부터 『호남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호남학 제 70 집

2021년 12월 28일 인쇄
2021년 12월 31일 발행

편집·발행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제작·판매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화 : (062) 530-0571~2
팩스 : (062) 530-0579
등록 : 1981. 5. 21. 제53호
홈페이지 : http://www.cnup.co.kr
이메일 : cnup0571@hanmail.net

호남학연구원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전화 : 062) 530-2710
팩스 : 062) 530-2711

이 학술지는 201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
(2018S1A6A3A01080752)

ISSN 2671-8944

호남학

THE JOURNAL OF HONAM STUDIES

2021년 12월 제70집

The May Uprising and Testimonies from Women
– Based on the Narrative of 'Rice' and 'Gun' – Jeong, Kyung-woon _ 001

History of Jeolla-do in the Goryeo Dynasty Byeon, Dong-myeong _ 047

Reconsolidation of Memory and Narrative Cement of Historical Trauma
– On the Therapeutic Mechanism of 'May Gwangju' Narratives – Jang, Il-gu _ 069

Analysis of the Civil Court Records of Yeonggwang-gun in 1715 Kept by the Kang Hang Head Family of the Jinju Kang Clan of Yeonggwang Jo, Kwang-hyun _ 095

A Review on the History and Name of Wonhyosa Temple Kim, Byoung-in _ 115

The Construction of Ungoksa and Activities of Posthumous Exaltation for the Ancestors in Goheung area Park, Mi-sun _ 145

A Study on the Suncheon Branch of Singanhoe Yoon, Hyo-jung _ 183

A Study on the Settlement Process and Economic-Social Activities of Overseas Chinese in Jeollanam-do
– Focusing o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Era – Yang, Se-young _ 221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dolmens in Bugokri, Gochang and the Big Dipper Lee, Byeong-yeol _ 259

Hom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and doseol(圖說) of Yaeun(野隱) ParkJeonggyu(朴廷奎) Cho, Woo-jin _ 287

A study on the on Changes in Personality of seasonal customs on April 8th (Buddha's birthday) Park, Jong-o _ 315

A Study on Food Culture Communication Strategies of Island Regions
– Focusing on Discourses Related to Special Products on the websites of Sinan-gun, Wando-gun, and Jindo-gun –
Chae, Ji-seon · Jeon, Hyeong-yeon _ 349

Book Review _ 39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INSTITUTE OF HONAM STUDIES, CNU